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2 권

제 1 장　빙화도(氷火島)의 사랑

장취산은 뼈를 에이는 듯한 한기를 느끼며 급히 은구를 뽑아 빙산에 꽂고 다시 뛰어 올랐다.
은소소가 이미 사손의 손아귀에 걸려들었을 것으로 여겼는데, 뜻밖에도 사손이 고통스런 비명을 지르며 두 눈을 감싸고 있는게 아닌가? 반면 은소소는 아무 탈 없이 빙판에 쓰러져 있었다.
장취산은 단숨에 달려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은소소가 나직이 말했다.
"제가..... 제가 그의 눈을....."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사손이 성난 사자처럼 덮쳐왔다.
펑! 파르르르.....!
사손은 낭아봉으로 빙산을 마구 내리쳤다.
꽝! 꽝!......!
그런데 낭아봉을 내려놓더니, 백 근에 달하는 얼음 조각을 번쩍 들어 장취산과 은소소에게 던졌다.
은소소는 깜짝 놀라며 본능적으로 피하려 했다. 장취산은 급히 그녀의 등을 누르고 잠자코 있으라고 손짓했다. 그들은 빙산의 움푹 파인 곳에 몸을 숨긴 채 숨소리조차 감히 내지 못했다.
꽝! 꽈르르르.....!
얼음 덩어리는 그들이 숨어 있는 바로 앞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되어 사방으로 튕겼다.
사손은 꼼짝도 않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두 사람의 은신처를

찾고 있는 듯했다. 그는 비록 두 눈은 멀었지만 청각이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소리를 내도 금방 위치를 알아내고 공격해 올 것이었다. 다행히도 이때 파도가 치고 얼음 조각끼리 서로 부딪치는 소리에 묻혀 두 사람의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사손은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풍랑소리 때문에 두 사람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두 눈에 심한 통증이 엄습해 오자 미친 듯이 얼음 조각을 집어던졌다.

꽝꽝꽝! 꽈르르르.....!

요동하는 듯한 굉음이 터지면서, 빙산은 삽시간에 얼음 파편으로 뒤덮였다.

반 시간쯤 흘렀을까? 사손은 비로소 발광을 멈추었다. 이윽고 조용해진 사손이 극히 예의 바르게 말문을 열었다.

"장상공, 은낭자! 아까는 실수가 많았네. 부디 용서하기 바라네."

말을 끝낸 그는 빙판에 앉아 회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장취산과 은소소는 섣불리 대답할 수가 없었다.

사손은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이 들려오지 않자 빙판에서 일어나 한숨을 내쉬었다.

"두 분께서 굳이 내 잘못을 용서치 않겠다면 하는 수 없지."

그는 또다시 깊이 숨을 들여마셨다.

그런 사손의 태도를 살펴보던 장취산의 안색이 돌연 크게 변했다. 얼마 전 왕반산도에서 정사파 군웅들을 정신 착란증에 빠지도록 한 때도, 장소(長嘯)를 터뜨리기 직전에 이렇듯 한숨을 깊이 들여마시지 않았던가? 옷깃을 찢어 귀를 틀어 막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그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어 은소소를 끌어안고 냅다 바닷물 속으로 뛰어 들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사손의 장소가 발출되었다. 장취산은 왼손으로 은구를 꺼내 빙산에다 꽂고 오른 손으로 은소소를 안은 채, 차디찬 바닷물 속으로 잠수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입만 물 밖으로 내밀어 숨을 돌렸다. 몰론 귀는 계속 수중에 잠겨 있었다. 이렇게 일곱 번인가 여덟 번을 거듭하고 나서야 사손은 비로소 장소를 멈추었다.

장취산과 은소소는 살짝 빙산으로 올라 바다사자 가죽에 달린 털을 뽑아 귀를 틀어막았다. 일단은 위험을 모면한 셈이었으나, 사손과 함께 빙산에 있는 한 언제 또 무슨 위기에 처하게 될지 실로 걱정이 태산 같았다.

석양은 여전히 서쪽 하늘에 걸린 채 가라앉을 줄을 몰랐다. 그것은 북극이 반 년 동안은 낮이고, 나머지 반은 밤으로만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신비한 우주의 조화를 모르는 두 사람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온몸이 젖은 은소소는 추위를 견디다 못해 부르르 몸을 떨며 치아가 서로 부딪쳤다. 사손은 이 소리를 듣고 번개처럼 낭아봉을 휘둘렀다. 길이가 일 장 남짓한 낭아봉은 그 위력이 사오 장 밖까지 뻗쳐왔다. 장취산과 은소소는 계속 후퇴하면서 순식간에 빙산 끝편까지 몰렸다.

장취산은 뒤편에서 자그마한 얼음 조각이 떠내려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은소소를 끌어안고 허공으로 몸을 솟구쳤다. 그리고 은구를 발출해 얼음 덩어리를 나꿔잡았다.

풍덩! 풍덩!

두 사람이 물 속에 떨어진 소리를 들은 사손은 얼음 조각을 마구 던졌다.

장취산과 은소소가 몸을 의탁하고 있는 얼음 조각은 사손이 있는 빙산과 점점 더 멀어져갔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에 사손이 타고 있는 빙산은 한 점의 은빛으로만 보일 뿐 아득히 뒤떨어졌다.

장취산과 은소소가 매달려 있는 얼음조각은 다행히도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바닷물 속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다. 체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었다. 이때, 양쪽에 그리 크지

않은 빙산 하나가나타났다. 두 사람은 재빨리 그 빙산으로 올라갔다.

장취산은 미간을 찌푸리며 투덜거렸다.

"이게 무슨 고생이람. 몸은 괜찮소?"

은소소는 물에 빠진 생쥐처럼 부들부들 떨었다.

"바다사자 가죽을 좀 가져올 걸 그랬어요. 당신은 어떠세요?"

그들은 서로 동문서답했다. 서로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한것 같았다. 그들은 잠시 서로 의아해 하다가 급히 바다사자의 솜털을 귀에서 빼냈다. 도주하는데 급급하여 귀에 솜털을 틀어막은 것조차 잊고 있었다.

장취산은 그윽한 눈길로 은소소를 보며 말했다.

"소소, 우리가 설령 이 빙산에서 최후를 맞이한다 해도 영원히 헤어지지 맙시다."

"상공, 물어볼 말이 있어요. 숨김없이 대답해 주세요."

"뭔지 말해 보시오."

"만약에 우리가 중원에 있다 치고, 제가 당신에게 청혼을 했다면 받아주셨을까요?"

장취산은 머리를 긁적거리며 대답했다.

"이렇게 빨리 친해지진 않았을 것이오. 그리고..... 장애도 많았을 테고..... 우린 문파도 서로 틀리니....."

은소소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이 첫 번째로 사손과 격전을 벌일 때, 은침을 발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맞아, 그 때 왜 은침을 발사하지 않았소? 혹시 잘못 발사했다가 내가 상처라도 입을까 봐 그랬소?"

은소소는 나직이 말했다.

"아니예요. 만약에 그 때 사손을 죽였다면 우리는 중원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소소....."

"저를 나쁜 여자라고 욕해도 좋아요. 저는 오직 당신과 함께 무인도로 가서 오래도록 살고 싶은 마음에 그만....."

장취산은 은소소의 뜨겁고 깊은 애정에 감복했다.

"아니오. 당신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소. 내가 너무 당신의 마음을 모른 게 잘못이었소."

은소소는 살며시 그의 품안에 안겼다.

"우리들을 같이 있게 해주신 하늘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영원히 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중원으로 돌아가게 되면 당신의 사부님은 저를 싫어할 테고, 저의 아버지는 심지어 당신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저의 아버지는 백미응왕 은천정이예요. 바로 천응교를 창시한 교주시죠."

"아, 그랬었군.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의 부친께서 아무리 흉포하다 해도 사위를 죽이진 못할 것이오."

사위라는 말에 은소소의 두 눈이 번쩍 뜨이면서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지금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지금 당장 부부의 예를 올리도록 합시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마주 보며 빙산에 꿇어앉았다.

장취산은 낭랑한 어조로 말했다.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께 맹세합니다. 소생 장취산은 오늘 은소소와 부부의 인연을 맺고자 하니, 이를 어여삐 여기시어 축복해 주시기 바라나이다.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절대로 오늘의 이 언약을 저버리지 않겠나이다."

은소소도 성심을 다해 기도를 올렸다.

"우리 부부가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녀는 잠시 숨을 돌리고 계속 이어나갔다.
"훗날 중원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개과천선하여 부군(夫君)의 행선(行善)에 따라 절대로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지 않겠나이다."
장취산은 크게 기뻐하며 와락 그녀를 끌어안았다.
한참 후, 그들은 허기를 느꼈다. 장취산은 은구를 뽑아 고기를 잡았다. 이 일대의 고개들은 추위에 강하므로 살이 두껍고 지방이 많아 무척 비릿했지만, 먹고 나자 힘이 용솟음치는 것 같았다.
낮이 길고 밤은 짧아 도무지 날짜를 계산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빙산이 이끄는 대로 정처없이 흘러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은소소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돌연 정북쪽에서 한 줄기 검은 연기가 솟아 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대경실색했다.
"여보, 저것 좀 보세요!"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인가?"
검은 연기는 바로 앞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거리가 무척 멀었다. 원인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 검은 연기는 점점 더 짙게 피어오르더니 나중에는 연기 속에 불꽃까지 섞여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저게 뭐죠?"
은소소의 질문에 장취산은 고개를 저였다.
"나도 잘 모르겠소."
은소소는 안색이 변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저건 틀림없이 지옥문의 입구일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끝장이예요."
장취산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으나 부드럽게 안심시켰다.
"아마도 산불이 난 모양이오."

"산불의 불기둥이 저렇게 높이 치솟을 수 있어요?"

장취산은 절로 한숨이 나왔다.

"모든 것은 운명에 맡깁시다."

두 사람이 타고 있는 빙산은 마치 강력한 흡인력에 빨려가듯 그 불기둥이 솟는 곳으로 표류해 갔다. 그것은 북극 부근에 있는 활화산에서 분출된 화염이 산 가까이 있는 바닷물을 뜨겁게 만들기 때문에 복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빙산은 하루를 더 표류해서야 활화산 기슭까지 이르렀다. 섬의 서쪽은 화산에서 뿜어져 나온 용암으로 인해 기암괴석들이 우뚝 우뚝 솟아 있었다. 섬의 동쪽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북극 가까이 위치해 있었으나 화산에서 사시사철 화염을 뿜고 있어 장백산이나 흑룡강 일대처럼 고산(高山)에는 만년 빙설이 쌓여 있고, 평야에는 항상 푸르른 녹음방초와 기화이수(奇花異樹)가 자라고 있었다.

한참 동안 섬을 둘러보던 은소소는 펄쩍 뛰면서 장취산의 목을 끌어안았다.

"우리는 신선도에 도착한 거예요. 맞죠?"

장취산도 넘치는 기쁨에 말이 나오지 않았다. 때마침 평야에는 꽃사슴들이 떼를 지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다.

이때 빙산은 섬 가까이 흐르다가 갑자기 뜨거운 물에 밀려 다시 멀리 떠내려갔다.

은소소는 깜짝 놀라며 급히 외쳤다.

"앗! 빙산이 다시 밀려 나가고 있어요."

두 사람은 재빨리 물 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 섬에 올랐다. 꽃사슴들은 그들을 보고도 겁내기는커녕 오히려 신기한 듯 커다란 눈망울을 껌벅거리며 쳐다보고 있었다.

은소소는 살며시 다가가 꽃사슴의 등을 쓰다듬었다.

"선학(仙鶴) 몇 마리만 있다면, 그야말로 남국의 선경(仙境)이

나 다를 바 없겠어요."

은소소는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소소!"

장취산은 깜짝 놀라며 급히 달려갔다. 그러나 그도 비틀거리더니 쓰러지고 말았다.

우르르르! 우르르르!

화산이 다시 화염을 뿜으면서 섬 전체가 요동했다. 그들은 빙산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에서 수십 일을 표류하다가 육지에 올라서자 발에 힘이 빠졌다. 지면이 약간 흔들렸을 뿐인데도 중심 잡기가 힘들어 쓰러지고 만 것이다.

"하하.....!"

"호호.....!"

그들은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은 너무나 피곤하여 그냥 땅바닥에 누워 잠이 들어 버렸다. 그들이 깨어났을 때에도 해는 아직 기울지 않았다.

장취산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나 한 번 둘러 봅시다."

은소소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고치고 장검을 집었다. 장취산은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 단단한 나뭇 가지 하나를 꺽어 들었다. 그들은 경공술을 전개해 단숨에 십여 리를 달렸다. 그 동안 가끔 이름 모를 큰 새와 작은 짐승들이 놀라 뛰쳐나올 뿐 주위는 온통 기화이초가 만발했다.

이윽고, 그들은 울창한 숲을 끼고 있는 돌산 앞에 이르렀다. 돌산 기슭에 석굴이 하나 뚫려 있었다.

은소소는 환호를 지르며 무작정 앞으로 달려나갔다.

"앗! 조심.....!"

장취산의 경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캭! 하는 괴음과 함께 흰 그림자가 번뜩이더니, 동굴에서 거대한 흰곰이 덮쳐왔다. 흰곰은

사람처럼 몸을 일으켜 거대한 앞발로 은소소의 머리를 내리쳤다. 깜짝 놀란 은소소는 장검을 뽑아 곰의 어깨를 찔렀다. 그녀의 일검은 정확하게 곰의 어깨를 찔렀지만 경미한 상처만 입혔다. 그녀는 오랫 동안 바다를 표류한 탓으로 몸이 허약해져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흰곰은 괴성을 지르며 은소소의 장검을 후려쳤다. 은소소는 힘없이 장검을 놓치고 말았다. 순간 장취산이 번개처럼 몸을 날려, 나뭇 가지로 흰곰의 왼쪽 무릎을 후려쳤다.

팍! 우드득!

나뭇 가지가 꺾어지면서 곰의 왼발도 여지없이 절단되었다.

"크아앙.......!"

중상을 입은 곰은 천지가 진동하는 괴성을 지르며 장취산에게 덮쳐왔다. 장취산은 재빨리 허공으로 몸을 날려 은구를 발출했다. 은구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곰의 태양혈에 찍혔다.

"크아앙! 캭......!"

흰곰은 미친 듯이 발광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장취산도 은구를 놓치고 말았다. 곰은 고통스럽게 땅바닥을 뒹굴다가 끝내 사지를 쭉 뻗고 숨을 거두었다.

은소소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정말 기가 막힌 경공술과 구법(鉤法)이었어요."

순간, 장취산이 황급히 외쳤다.

"빨리 이쪽으로 피하시오!"

은소소는 흠칫하며 쏜살같이 장취산의 품안으로 뛰어들었다. 어느새 또 한 마리 곰이 그녀의 뒤에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장취산은 무기가 없었다. 그는 급히 은소소를 끌어안고 뒤에 있는 소나무로 솟구쳐 올랐다. 곰은 나무 밑에서 빙빙 돌며 미친 듯이 괴성을 질러 댔다.

장취산은 소나무 가지를 꺾어 곰의 오른쪽 눈을 향해 힘껏 격출

했다.

폭!

나뭇 가지가 정확하게 곰의 눈 속으로 파고들었다. 곰은 오른쪽 눈을 감싼 채 나무 위로 뛰어오르려 했다. 이때를 놓칠세라 장취산은 은소소의 장검으로 곰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찍었다. 곰은 모골이 송연해지는 괴성을 지르며 천천히 쓰러졌다.

죽음을 확인한 장취산은 혹시나 동굴에 또 다른 적이 있을까봐, 우선 돌 몇 개를 집어 동굴 안으로 던졌다. 아무런 기척이 없자 장취산이 앞장서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에는 곰이 먹다 남은 음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은소소는 코를 막았다.

"동굴은 넓고 좋은데 냄새가 너무 심해요."

"매일같이 깨끗하게 청소하면 차차 나아질 거요."

은소소는 앞으로 이 섬에서 장취산과 오래도록 살 일을 생각하니 더없이 행복했다. 장취산은 나뭇 가지로 큰 빗자루를 엮어 와서는 청소를 시작했다. 동굴은곧 깨끗해 졌으나 냄새만은 여전했다.

"근처에 개울만 있으면 깨끗하게 씻고 닦을 수 있을 텐데....."

"내게 묘안이 있소."

장취산은 말을 끝내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가 거대한 얼음조각 몇 개를 운반해 왔다. 그리고는 얼음 조각을 동굴 높은 암석 위에 올려놓았다.

은소소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예요."

얼음조각이 천천히 녹으면서 물이 되어 동굴 밖으로 흘러 나갔다. 자연히 동굴은 물로 청소한 듯이 깨끗해졌다.

은소소는 장검으로 곰의 가죽을 벗기고 살코기를 몇 동강으로

나눈 뒤 얼음으로 그것을 재어놓았다.
 은소소는 아쉬운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불만 있으면 맛있는 곰요리를 먹을 수 있을텐데......"
 장취산은 화산에서 분출되는 화염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불은 있지만 화염이 너무 커서 안 되겠고, 어쨌든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이튿날, 은소소는 향긋한 내음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급히 나무에서 뛰어내렸다. 멀지 않은 곳에 잡초더미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정말 너무나도 향긋해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소."
 "더 기쁜 일이라뇨?"
 "저 화산의 화염을 이용해서 불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소."
 "어떻게요?"
 "화산의 화염이 너무 강렬해서 아마 수십 장 안으로만 접근해도 사람이 타 버리고 말 것이오. 그래서 나무 껍질로 긴 줄을 만들어......"
 은소소는 알았다는 듯 손뼉을 쳤다.
 "그 긴 줄에 돌을 달아 화산 분화구에 던져, 화염이 줄을 타고 오도록 하려는 거죠?"
 그들은 이틀에 걸쳐 백여 장에 달하는 긴 밧줄을 만든 후 화산으로 향했다. 화산과의 거리는 사십여 리나 되었다. 화산에 접근해 갈수록 목은 바싹바싹 말라가고 온몸에 비오듯 땀이 흘러내렸다. 주위에는 나무는커녕 화초도 보이지 않고 오직 검은 암석뿐이었다. 은소소는 화산의 열기 때문에 온몸이 축 늘어져 애처로움마저 느끼게 했다.
 장취산은 보다못해 말했다.
 "당신은 여기서 기다리도록 하오. 나 혼자 올라갔다 오겠소."

"또 한번 그런 말을 하면 다시는 당신과 말도 하지 않겠어요."

은소소가 이렇게 말하며 토라지자 장취산은 아무 말 없이 빙그레 웃기만 했다.

일 리 남짓 더 접근해 가자 내공이 심후한 장취산이었지만 눈앞에 별똥이 튕기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었다.

"우리 여기서 줄을 던져 봅시다. 만약에 여기서도 불씨를 얻지 못한다면....."

"생고기와 선혈만 빨아먹는 야만인이 되겠죠."

은소소는 온몸이 타버릴 것 같은 열기 때문에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다. 그녀는 급히 장취산의 어깨를 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장취산은 그녀를 부축해서 앉혔다. 그리고는 땅에서 돌을 주워 밧줄 끝에 묶어 놓고 전력을 다해 던졌다. 밧줄은 시위를 벗어난 화살처럼 백여 장에 달하는 밧줄이 전부 날아갔다. 그래도 분화구와는 굉장한 거리가 남아 있었다. 도무지 불씨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장취산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래도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 될 것 같소."

"원시인처럼 돌로 불꽃을 일으켜 불씨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한 번 해봅시다."

장취산은 밧줄을 끌어당겼다. 밧줄은 화산의 열기로 인해 바싹 말라 있었다. 조그만 불씨만 있어도 금방 타 버릴 것 같았다. 화산 부근에는 숫돌이 천지였다. 그는 숫돌 하나를 주워 장검으로 내리쳤다. 그 순간 불꽃이 튕기면서 밧줄에 닿았다. 그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쳤다. 마침내 밧줄에 불씨가 달라붙었다.

"야호! 야호.....!"

그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은 찌는

듯한 더위도 잊은 채 단숨에 석굴로 달려왔다. 은소소는 즉시 장작과 풀을 준비하여 불을 피우고는 곰고기를 나무 꼬챙이에다 꽂아놓고 불에 구웠다. 얼마만에 먹어보는 익은 음식인가!

이날 밤, 동굴엔 꽃향기가 그윽했고 모닥불을 피워 포근한 분위기였다. 장취산과 은소소는 부부의 연(緣)을 맺은 이래 처음으로 환희의 순간을 맞이했다.

화촉동방.

그들은 태고의 모습으로 돌아가 무지개빛 나락으로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불태웠다.

다음날 새벽, 장취산은 동굴에서 나와 마음껏 기지개를 펴며 멀리 해변을 바라보았다. 순간, 그의 두 눈이 한 곳에 쏠리었다. 멀리 해변 암석 위에 당당한 체격을 가진 자가 버티고 서 있는게 아닌가!

그 자는 다름아닌 사손이었다. 장취산은 온몸이 목석처럼 빳빳하게 굳어버렸다. 감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사손은 장님이 된 후, 여지껏 굶어왔는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몇 걸음 걷지 못하고 휘청하더니 고목처럼 앞으로 꼬꾸라졌다.

장취산은 급히 동굴로 들어가 은소소에게 외쳤다.

"사손도 이 섬에 올라왔소!"

은소소는 일순 심장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당신을 봤나요?"

그녀는 곧 사손이 장님이란 것을 연상하고 마음이 약간 놓였다.

그들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헝겊으로 귀를 틀어막고 사손에게로 갔다. 사손과 열 장의 간격을 유지한 채 장취산이 낭랑하게 외쳤다.

"사 선배님, 뭘 좀 드시겠습니까?"

사손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자,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그러나, 곧 장취산의 음성임을 알아차리고 암울한 표정을 지었다. 한참만

에야 그는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다.

장취산은 어젯밤 먹다 남은 곰고기를 가져와 멀리서 던져 주었다.

"받으십시오!"

사손은 예민한 청각을 이용해서 곰고기를 받아들고 천천히 먹었다. 용호처럼 날고 뛰던 사손이 이렇듯 허약하게 전락해 버릴 줄이야!

장취산은 동정심이 일었다. 이와 반대로 은소소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냥 굶어 죽게 만들지 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럴까? 나중에 오히려 우리들이 그의 손에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손은 곰고기를 반 쪽만 먹고 땅바닥에 엎어져 그대로 잠이 들었다. 장취산은 그의 곁에 모닥불을 피워 주었다.

한 시간쯤 지나자 사손은 깨어났다.

"여기가 어딘가?"

장취산이 대답했다.

"이곳은 북극의 무인도요."

"그럼 중원으로 돌아가기가 힘들겠군."

"그건 하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망할 놈의 하늘, 빌어먹을 하늘!"

실컷 하늘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난 사손은 다시 곰고기를 뜯기 시작했다.

"자네들은 나를 어떻게 할 셈인가?"

장취산은 잠시 망설였다.

"사 선배님, 우리 부부는....."

"뭐라고? 부부가 됐다고?"

"선배님을 장님으로 만든 것만큼은 뭐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원으로 돌아가기도 힘들것 같으

니, 앞으로 평생토록 선배님을 성심껏 모시고자 합니다."
 사손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지었다.
 "그토록 나를 생각해 주다니 정말 고맙군."
 장취산은 사손에게 이 섬의 이름을 지어 달라고 했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던 사손이 입을 열었다.
 "이 섬에 만년빙설과 영원불멸의 화산이 있다면, 빙화도(氷火島)라고 부르지."
 장취산 부부가 기거하고 있는 동굴과 약 반 리 가량 떨어진 곳에 작은 동굴이 하나 더 있었다. 장취산 부부는 그 동굴을 깨끗이 청소해서 사손에게 내주었다. 그리고 사냥을 하고 남은 시간은 일상용품을 만드는데 전념했다. 사손은 종일토록 동굴에 틀어박혀 오직 도룡도의 비밀을 캐기에 여념이 없었다.
 세월은 유수같이 흘렀다.
 어느 날 장취산 부부는 섬 북쪽으로 나들이를 떠났다. 섬은 생각보다 굉장히 컸다. 이십여 리쯤 가자 울창한 숲이 나타났다. 장취산은 숲속에 뭐가 있는지 호기심이 생겼다.
 "숲속에 괴물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니 그냥 돌아가요."
 은소소의 말에 장취산은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요사이 왜 만사에 흥미를 잃어 가는 걸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그는 돌연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어디 불편한 게 아니오?"
 은소소는 뜻밖에도 얼굴을 붉혔다.
 "아니예요."
 장취산은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제차 캐묻자 은소소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우리가 너무 적적해 하니까 삼신할머니가 한 사람을 더 점지해 주셨어요."
 장취산은 약간 어리둥절해 하더니 곧 뛸 듯이 환호했다.

"임신을 했단 말이오?"

"쉿! 조용히 하세요.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우리 둘밖에 없는데 듣기는 누가 듣는단 말이오?"

그들은 함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은소소는 날이 갈수록 몸이 점점 무거워져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만삭이 된 어느 날 밤, 장취산 부부는 동굴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 우리 애가 사내였으면 좋겠어요. 계집애였으면 좋겠어요?"

"사내면 어떻고 계집애면 어떻소?"

"아니예요. 저는 기필코 당신을 닮은 사내애를 낳고 말겠어요. 이름은 뭘로 지을까요?"

장취산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당신 도대체 요새 왜 그래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요?"

"아.....아니오. 곧 아버지가 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아서 그렇소."

"거짓말 마세요. 제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장취산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공연한 노파심 때문인지 몰라도, 며칠 전부터 사 선배님의 행동이나 표정이 약간씩 변하고 있는 것 같소."

"아! 맞아요. 표정이 점점 흉악해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또 발광할 것만 같아요,"

"혹시 도룡보도의 비밀을 캐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오?"

은소소는 난데없이 눈물을 글썽거렸다.

장취산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애한테는 아무 탈도 없을 것이오. 만약에 그가 발광을 하면 그 때는 죽이는 수밖에 없소."

은소소는 전신에 경미한 진동이 일었다.

"꼭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발광만 하지 않으면 죽일 필요가 없겠지. 하지만 만사는 유비무환이라고 하지 않았소?"

"무슨 좋은 방법이라고 있나요?"

"내일부터는 동굴 안쪽에 가서 생활하고, 동굴 입구에 깊은 함정을 파 놓읍시다."

"좋은 방법이긴 하나, 당신은 매일같이 사냥을 나가야 하는데 그가 만약 밖에서 당신을 노리면 어떡하죠?"

"험준한 절벽을 타고 도주하면 되오. 장님인 그가 설마 절벽까지 쫓아오진 못할 거요."

이튿날 새벽부터 장취산은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삽이나 곡괭이가 없이 나무로 파헤치자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사손은 점점 더 상식에 벗어난 행동만 일삼았다. 때로는 도룡보도를 미친 듯이 휘둘러 댔다.

장취산은 구덩이를 오 장 깊이로 파놓고 밑바닥에 날카로운 나무를 박은 후 사손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투석(投石)을 하기 위해 많은 돌까지도 준비해 놓을 계획이었다.

이날 오후, 사손은 동굴 밖에서 왔다갔다 하며 배회했다. 장취산은 사손이 무슨 소리를 들을까 봐 감히 구덩이를 파지 못했다. 사냥도 못 가고 그저 동굴을 지키며 그의 동정을 살폈다. 사손은 자꾸 무엇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귀를 기울여 보니, 하늘에서부터 시작하여 역대(歷代) 황제, 소림사의 달마대사 등 닥치는 대로 욕을 퍼부어 댔다. 나중에는 무당파의 개산조사(開山祖師) 장삼봉까지도 그의 욕설의 대상이 되었다. 장취산은 은근히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사손은 돌연 큰 소리로 외쳤다.

"장삼봉이 도둑놈인데 그의 제자인 장취산은 오죽하랴! 절대로 살려둘 수 없다."

사손은 다짜고짜 장취산을 스쳐 지나 동굴 안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장취산은 급히 뒤따라 들어갔으나 사손은 이미 함정에 빠진 후였다. 함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지라, 사손은 약간 놀랐을 뿐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았다. 사손은 함정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위로 솟구쳐 올랐다. 장취산은 다급한 나머지 함정을 파는데 썼던 나뭇 가지를 집어 사손의 머리를 내리쳤다. 사손은 나뭇 가지의 파공음을 듣고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나뭇 가지를 나꿔챘다. 그 바람에 사손은 다시 함정에 빠졌다.

이때, 은소소는 거의 해산할 때가 다 되어 반나절을 통증으로 시달려 왔었다. 그러나 사손이 갑작스레 발광을 하자, 뒤틀리는 복통을 참고 장취산에게 장검을 던져 주었다. 장취산은 장검을 받아들고신속하게 생각을 굴렸다.

'장님임에도 불구하고 내 무기를 뺐을 수 있었던 것은, 파공음을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 사손이 다시 솟구쳐 올라왔다. 장취산은 사손의 머리를 겨냥해서 검끝을 꼿꼿하게 밑으로 내렸다. 아무 파공음도 일지 않았다. 사손은 자기 스스로 검끝을 향해 머리를 쳐박으러 오고 있었다. 다음 순간 푹! 하는 소리와 함께 사손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악!"

장검은 이미 그의 머리를 한 치 남짓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의 임기웅변이 빨랐다. 검끝이 머리에 찔리자마자 뒤로 젖히면서 구덩이로 내려섰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나 중상이었다. 얼굴은 온통 선혈이 낭자했고, 장검은 그의 머리에 꽂힌 채 파르르 떨고 있었다.

사손은 장검을 뽑고 옷자락으로 상처를 감쌌다.정신이 혼미했다. 결코 경미한 상처가 아님을 그 자신도 직감했다. 그는 즉시 도룡보도를 뽑아 머리 위에다가 일장의 검막(劍幕)을 전개하고

재차 솟구쳐 올랐다. 함정에서 뛰쳐나온 사손은 더욱 살기등등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장취산은 한 발 한 발 물러섰다. 사손은 혹시라도 장취산 부부가 자기 옆으로 슬쩍 빠져 나갈까 봐 도룡보도를 마구 휘둘렀다. 도무지 빠져 나갈 틈이 없었다.

일촉 즉발의 순간!

"으앙! 으앙.....!"

동굴 안쪽에서 돌연 갓난애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사손은 크게 놀라며 즉시 걸음을 멈추었다. 갓난애의 울음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왔다. 장취산 부부는 생사존망의 위기에 쳐해 있었으나 오히려 침착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갓난애에게 집중되었다. 사내애였다. 손발을 마구 내저으며 큰 소리로 울어 대고 있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갓난애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사손의 광기가 씻은 듯이 사라지며 제정신을 차린 것이다.

사손은 급히 물었다.

"사내앤가, 계집앤가?"

장취산은 약간 어리둥절했으나 급히 대답했다.

"사내입니다."

"그래? 태(胎)는 잘랐나?"

"태를 잘라야 하나요? 아 참, 내 정신 좀 봐, 깜빡 잊었군."

사손이 장검을 내밀자 장취산은 장검을 받아 태를 잘랐다. 사손은 가까이 다가왔지만, 전혀 공격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장취산은 의아한 나머지 고개를 돌려 사손을 쳐다보았다. 사손은 무척 근심스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은소소는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어디 좀 안아 봐야겠어요."

장취산은 갓난애를 안아 그녀의 품에 안겨 주었다.

사손이 다시 물었다.

"갓난애를 씻기려면 더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됐나?"

"아 참,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으니 이를 어쩐담!"

말을 끝낸 장취산은 곧장 달려나가려 했다. 사손은 갑자기 철탑(鐵塔)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자네는 여기 있게. 내가 가서 물을 끓여 오겠네."

그는 즉시 동굴 밖으로 몸을 날렸다.

얼마 후, 사손은 끓인 물을 들고 들어와 장취산과 함께 갓난애를 깨끗이 씻겨 주었다.

"으앙! 으앙.....!"

울음소리가 우렁찼다. 사손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를 닮았나? 아버지를 닮았나?"

"아무래도 엄마 쪽을 닮은 것 같습니다."

사손은 갑자기 한숨을 내쉬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 애의 앞날에 행복만이 깃들어야 할 텐데....."

은소소는 은근히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사 선배님, 혹시 이 애의 관상이 좋지 않아서 그러세요?"

"아니네, 애가 그대를 닮았으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나중에 쓸데없이 여색에 빠지지나 않을까 해서 그렇다네."

장취산은 호탕하게 웃었다.

"그건 너무 지나친 노파심이 아닐까요?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살게 될 텐데."

은소소가 급히 끼어들었다.

"안 돼요. 우리는 돌아가지 않아도 되지만, 이 애만은 절대로 이 무인도에서 한평생 지내게 할 수 없어요. 몇십 년 후, 우리들이 모두 죽고나면 혼자 남게 될 것이고, 또 어디서 아내를 맞아들이죠?"

이 지극한 모성애에 사손도 감복하여 한 마디 내뱉었다.

"장 부인의 말이 맞네. 우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애를 중원으로 보내야 할 책임이 있네."

은소소는 크게 기뻐하며 억지로 일어났다. 장취산은 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어서 눕도록 하시오."

"아니예요. 사 선배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겠어요."

사손은 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닐세. 그럴 필요없네. 그런데 애의 이름은 지어 놨나?"

"아직 못 지었습니다. 선배님께서 이름을 좀 지어 주십시오."

"음..... 어디 한 번 생각해 보세."

은소소는 나름대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 자가 우리 애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아예 이 애를 자기의 친자식처럼 여기게 해야겠군. 그러면 나중에 설령 광기가 재발작해도 이 애만은 무사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그녀는 즉시 실천에 옮겼다.

"사 선배님, 이 애를 위해서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 들어 주시겠어요?"

"뭔가?"

"이 애를 양자로 삼아 주세요. 애가 성장하고 나면 선배님을 친아버지처럼 모시게 하겠어요. 여보, 당신의 생각은 어떠세요?"

장취산은 은소소의 고충을 짐작하고도 남았다.

"정말 좋은 생각이오. 사 선배님, 우리 부부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 주십시오."

사손은 처절하리 만큼 장탄식을 토했다.

"내 친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나?"

사손의 어조에 다시 풍기(風紀)가 감도는 듯했다.

"만약에 내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올해 나이 십팔 세가 되었을 걸세. 그리고 무공 역시 내 진전(眞傳)을 이어 받아 무당칠협에 못지 않았을 걸세."

그의 음성에는 울적함과 강한 자만심이 섞여 있었다.

장취산과 은소소는 은근히 후회가 생기기도 했다.

'애당초 그의 눈을 멀게 하지 않았던들 넷이서 아무 걱정 없이 이 섬에서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세 사람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장취산이었다.

"사 선배님, 이 애를 양자로 삼겠다면, 선배님의 성을 따라 사(謝)로 바꾸겠습니다."

사손은 뛸 듯이 기뻐하며 행여나 장취산의 마음이 달라질까 봐 다짐을 받듯 얼른 입을 열었다.

"그게 정말이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네. 나의 죽은 아들은 사무기(謝無忌)라고 했네"

장취산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받았다.

"만약 선배님이 원한다면 이 애의 이름을 사무기라 짓겠습니다."

사손은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이 애가 정말 나의 성을 따르면 자네들은 어떻게 하나?"

"애의 성이 사가 되든 장이 되든 우린 변함없이 사랑할 겁니다. 나중에 그가 성장하여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하고 의부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보다 더 흐뭇하고 보람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소, 내 말이 맞지 않소?"

은소소는 약간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말이 맞아요. 한 사람이라도 이 애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다면 이 애에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손은 갑자기 그 자리에서 허리를 꺾어 큰절을 올렸다.

"우선 자네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네. 내 눈을 실명시킨 원한도 말끔히 지워버리겠네. 나는 비록 친자식을 잃었지만 새로이 양자를 얻었으니 이보다 더 뜻깊은 일은 없을 걸세. 나중에 사무기가 만천하에 명성을 떨치게 되면, 부모가 장취산과 은

소소이고, 의부가 금모사왕 사손이라는 것도 자연히 알려지게 될 걸세."

은소소는 사무기라는 이름이 다소 못마땅했으나, 아들의 장래를 위해 사소한 일은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아기를 토닥거리며 말했다.

"애를 직접 안아 보시겠어요?"

어린애를 받아 안은 사손의 팔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너무나 기뻐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러나 곧 어린애를 건네주었다.

"자..... 어서 엄마가 안게. 내 흉칙한 꼴을 보고 놀라면 어떻게 하나?"

사실 갓난애가 그의 모습을 알아볼 리 만무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말투에는 아기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들어 있었다.

은소소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선배님이 좋으시다면 좀더 안으세요. 나중에 걷게 되면 매일 데리고 놀도록 하세요."

"좋지. 좋고 말고....."

이때 어린애가 울음을 터뜨리자, 사손은 당황해 했다.

"애가 배가 고픈 모양이네. 어서 젖을 물리게. 난 밖으로 나가겠네."

장취산은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사 선배님......"

"우린 이제 한집안 식구가 됐는데 선배 후배를 따져서야 되겠나? 참,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우린 지금부터 결의형제를 맺는 걸세. 그러면 나중에 애한테도 좋을 게 아니겠는가?"

장취산은 그의 간곡한 청을 거절할 수 없어 은소소의 산후 처리가 끝나는 대로 결의형제와 의부(義父)를 섬기는 의식을 정식으로 행하기로 했다.

이로부터-----

세 사람은 온갖 정성을 쏟아 어린애를 키웠다. 무기가 다섯 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장취산은 사손에게 한 가지 제의를 했다.

"형님, 애도 이제부터 무공을 배울 때가 됐으니, 형님께서 가리치도록 하십시오."

사손은 뜻밖에도 고개를 내둘렀다.

"그건 안 돼네. 내 무공은 워낙 바탕이 깊어 어린애는 깨우칠 수가 없네. 역시 자네가 무당의 심법(心法)을 가르쳐주게. 그가 여덟 살이 되면 내가 가르치겠네. 약 이 년쯤 배우고 나서 자네들은 돌아가야 할 게 아닌가?"

은소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우리가 돌아가다뇨? 중원으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사손이 진지하게 말했다.

"요 몇 년 동안 난 하루도 빠짐없이 이 섬의 풍향과 물살을 살펴왔네. 매년 밤이 가장 길 때 언제나 북풍이 수십 일 쉬지 않고 불어왔네. 커다란 뗏목을 만들어 돛을 달고 그 북풍을 이용한다면 계속해서 남쪽으로 갈 수 있을 걸세. 하늘이 방해하지 않는 한 자네들은 중원으로 돌아가게 될 걸세."

은소소는 눈살을 가볍게 찌푸렸다.

"자네들이라뇨! 그럼 아주머님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난 두 눈이 멀었는데 중원으로 돌아가 무엇을 하겠는가?'

"그럼 우리도 가지 않겠어요. 무기도 의부를 이곳에 남겨 두고는 절대 떠나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내가 무기를 십 년 간 보살펴 온 셈이니 그걸로 충분하네. 빌어먹을 하늘은 언젠가는 또다시 나에게 액운을 내릴 걸세. 그러니 이 애도 나하고 오랫 동안 함께 있으면 액운의 영향을 받게 될 걸세."

이 말에 은소소는 소름이 오싹 끼쳤으나, 사손의 신세타령이려

니생각하고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무기가 여덟 살이 되자, 사손은 정말 그에게 자신의 무공을 전수해 주기 시작했다.
어느새 또 일 년이 지났다. 무기가 태어난 후로부터, 사손은 더 이상 도룡도를 거들떠 보지 않았었다.
헌데-----
이날 밤, 장취산이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밖으로 나가 보니, 달빛 아래 사손이 넓은 바위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그 도룡도를 받쳐들고 뭔가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장취산이 흠칫 놀라 비키려는데 사손은 이미 그의 발걸음소리를 듣고 입을 열었다.
"오제(五第), 이 <무림지존 도룡보도>라는 여덟 글자는 아무래도 터무니 없는 낭설인 것 같네."
장취산은 그에게 가까이 갔다.
"무림에서는 황당무계한 소문이 많기 마련입니다. 형님께선 지혜가 깊으신데 왜 한사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손은 길게 숨을 들이키고 나서 심각한 음성으로 말했다.
"자네가 몰라서 그러네. 사실 난 소림파의 고승인 공견대사(空見大師)로부터 이 얘기를 전해 들었네."
장취산은 다소 의아해 했다.
"앗! 공견대사라면 소림 장문인 공문대사(空聞大師)의 사형으로서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네. 공견은 이미 죽었지. 내가 그를 때려 죽인 걸세."
장취산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강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는 것이 퍼뜩 뇌리에 떠올랐다.
----- 소림신승(少林神僧), 견문지성(見聞智性)! -----

그것은 당금 소림에서 무학이 가장 뛰어난 네 명의 고승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바로 공견, 공문, 공지(空智), 공성(空性). 오래전에 공견대사는 병을 앓아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는데, 사손이 그를 죽였을 줄이야.....

사손은 탄식하면서 말했다.

"공견대사는 어찌나 왕고집인지 내가 때려도 시종 반격을 하지 않다가 결국 십 삼 장(掌)을 맞고 숨이 끊어졌네."

장취산은 더욱 놀랐다.

웬만한 고수도 사손의 일장을 맞으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었다. 그런데 공견대사는 십 삼 장을 맞고서야 숨이 끊어졌으니, 그의 몸은 금강불괴(金剛不壞)에 가까왔다는 게 아닌가!

사손의 안색이 울적하게 변하며 매우 후회스러워 하는 것 같았다. 아마도 그와 공견 사이에 범상치 않은 사연이 있는것 같았다. 장취산은 궁금했으나 감히 묻지를 못했다.

사손이 짧은 침묵 끝에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평생 동안 가장 존경해 온 분이 바로 공견대사였네. 당시 그가 나에게 반격을 전개했다면 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을 걸세."

"그 고승의 무학이 형님보다 더 심후했다는 뜻입니까?"

"어찌 나하고 비교가 되겠는가. 차이가 너무 많았네. 한마디로 말해 하늘과 땅이었네."

여지껏 어떠한 무림 인물을 거론해도 일소에 부쳤던 사손의 입에서 이렇나 말이 나오자, 장취산은 의아해졌다.

사손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내 말을 믿지 않는 모양이군. 좋네, 가서 무기를 불러오게. 오늘 그 녀석에게 한 가지 옛날 이야기를 들려 줘야겠네."

장취산은 형님의 말을 감히 거역할 수 없어 곧 동굴로 들어가 아들을 깨웠다.

무기는 의부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말을 듣자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다. 그 바람에 은소소까지 깨어나 세 사람이 함께 나와 사손 곁에 둘러앉았다.

달빛 아래 사손의 모습은 마치 불상(佛像)처럼 진지했다. 그는 우선 무기를 향해 입을 열었다.

"애야, 머지 않아 넌 중원으로 돌아가게 될것이다."

무기는 어리둥절했다.

"중원이라뇨?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엮은뗏목이 바다에 가라앉거나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만 않는다면, 틀림없이 중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해 두어라. 만약 중원으로 돌아가게 되면, 부모님을 제외하곤 아무도 믿지 말아야 한다.내가 네 나이만했을 때 이런 말을 해 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도....."

그는 말끝을 흐리더니 다시 이어갔다.

"내가 열 살이 되던 해에, 우연히 무공이 고강한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다. 나의 스승은 내 자질이 뛰어나다면서 심혈을 기울여 모든 무학을 전수해 주었다. 자연히 우린 부자이상으로 정이 두터웠다. 나는 스물 세 살이 되던 해에 사문을 떠나 멀리 서역으로 갔다. 그곳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지....."

여기까지 말한 그는 은소소에게 고개를 돌렸다.

"오매(五妹), 영존 백미응왕도 당시 서역에서 사귄 친구 중에 한 사람이라네. 나중에 난 아내를 맞이해 자식을 낳아 행복한 삶을 누렸었네....."

사손은 당시를 회상하듯 주름진 얼굴에 환한 빛이 스쳐갔다. 그는 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계속했다.

"내가 스물 여덟 살이 되었을 때, 스승님이 찾아와 집에서 며칠 머물기로 했네. 나는 어린애처럼 기뻐하며 아내와 함께 모든 정성을 기울여 스승을 대접했네. 한데, 그 스승이 인면수심(人面獸

心)일 줄이야. 어느 날 그는 술에 취해 갑자기 내 아내에게...."

장취산과 은소소는 동시에 놀란 외침을 토했다.

"앗! 그럴 수가....."

스승이 제자의 아내를 겁탈한 일은 무림에서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천인공노할 대악사(大惡事)였다.

사손의 눈가에 가벼운 경련이 일었다.

"나의 아내가 비명을 지르자 부친께서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네. 스승은 추행이 발각되자 나의 부친을 죽이고 어머니도 죽였고, 심지어 돌도 채 안 지난 아들 사무기까지도....."

무기는 자기의 이름이 거론되자 고개를 갸우뚱했다.

"사무기요?"

장취산이 얼른 호통을 쳤다.

"의부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끼어드느냐?"

사손은 무기의 머리를 다시 쓰다듬어 주었다.

"그렇다. 내 친아들도 너와 똑같이 이름이 사무기였단다. 나의 스승은 그를 집어 던져 아예 핏덩어리로 만들었단다!"

무기가 다시 물었다.

"그럼..... 살아나지 못했겠네요?"

사손은 처연히 고개를 내둘렀다.

"살아나지 못했어! 살아날 수가 없었어....."

은소소는 얼른 아들에게 손짓을 하여 더 이상 의부에게 아무 말도 묻지 말라고 했다.

사손은 다시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말을 이었다.

"당시 난 그 광경을 보고 어찌 할 바를 몰랐네. 그 때, 내가 그렇게도 존경해 오던 스승이 난데없이 나의 가슴을 강타했네. 난 피할 생각도 못하고 그의 일격을 맞아 그 자리에서 정신을 내가 다시 깨어났을 때 스승은 온데간데 없었네. 주위는 온통 시체로 덮여 있었지.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동생들, 하인들까지 모두 살

수를 당했네. 스승은 내가 일격을 맞고 죽은 줄 알고 더 이상의 독수를 전개하지 않았네."

장취산과 은소소는 이 불가사의한 비화(秘話)에 그저 넋을 잃을 뿐이었다.

"그 후 나는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무공을 연마했네. 삼 년 뒤에 난 스승을 찾아가 겨루었지만 도저히 그의 적수가 될 수 없었네. 나는 다시 심산유곡을 찾아다니며 오직 스승을 꺾을 수 있는 무공을 연마하는데 전념했네. 한데, 스승의 공력도 훨씬 고강해서 두 번째의 복수도 상처만 입은 채 수포로 돌아갔네...... 난 상처를 치료한 지 얼마 후에 칠상장(七傷掌)의 비법을 얻게 됐네. 그 장법은 위력이 대단했네. 나는 다시 그 장법을 파고드는데 이 년이란 세월을 허비했네. 난 천하에 제일가는 고수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 스승을 찾아갔네. 그런데 세 번째로 그를 찾아 갔을 때, 그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네......"

사손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 그렇다고 해서 난 포기할 수 업었네. 난 격분한 나머지 도처에서 살인방화를 저질렀네. 그 때마다 난 그 현장에다 스승의 이름을 남겼네."

"앗!"

"그럼....."

여기까지 들은 장취산과 은소소는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있어 놀란 외침을 토했다.

"이쯤하면 나의 스승이 누군지 알겠나?"

은소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혼원벽력수(混元霹靂手)가 아닌가요?!"

한때, 무림에 갑자기 무서운 살겁의 회오리가 일었었다.

요동(僚東)에서 시작하여 영남(嶺南)까지 불과 반 년 사이에 연

속으로 삼십여 건(件)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많은 무림의 고수들이 영문도 모르게 피살되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언제나 <혼원벽력수>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다. 피살된 자들 중에는 같은 문파의 장문인도 있었고, 강호에서 이름이 알려진 노영웅도 적지 않았다. 자연히 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었다.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무림을 떠들썩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연달아 삼 십여 건이 터졌으니 강호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 놓은 꼴이었다.

잠시 무당칠협도 스승님의 명을 받들고 하산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다. 강호인들은 누가 혼원벽력수의 이름을 빌어 저지른 사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혼원벽력수는 강호에서 덕망이 높은 인물인데다가, 피살자 중에는 그의 절친한 친구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연히, 무림인들은 흉수를 찾아 내지 못하자 그를 찾아나섰다. 그를 찾아 내야지만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원벽력수마저 연기처럼 사라졌다. 지금, 사손이 스스로 진상을 실토하지 않았다면, 장취산도 그 사건의 진상을 몰랐을 것이다.

사손은 아랫 입술을 깨물며 침통하게 말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앞세워 그 엄청난 일들을 저지른 것은, 그가 스스로 나서서 변명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라도 그의 행방을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었네."

너무나 엄청난 충격에 할 말을 잃고 있던 은소소가 입을 열었다.

"그럼 나중에라도 혼원벽력수 성곤(成崑)을 찾아 냈습니까?"

사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찾아 내지 못했네. 나중에 난 낙양에서 송원교를 만나게 됐

지."

장취산은 흠칫 놀랐다.

"저의 대사형 송원교 말입니까?"

"그렇다네. 바로 무당칠협의 맏이인 송원교지. 당시 나는 보다 놀랄 만한 일을 저질러야겠다는 생각에 그날 밤 송원교를 죽이기로 계획했네."

사손은 장취산을 잠시 바라보다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날 밤, 나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객점에서 운공조식을 했네. 송원교가 무당칠협 중에 맏이니만큼 무공이 상당한 경지에 도달해 있을 걸로 생각했네. 만약 일격에 그를 죽이지 못하고 달아나게 한다면 내 정체가 탄로나기 때문에 각별히 신중을 기했네. 일단 내 정체가 탄로나면 스승을 강호로 끌어낼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뿐 아니라, 모든 무림인의 공격 표적이 되어 원수도 갚기 전에 죽게 될 게 뻔했기 때문일세."

장취산은 눈살을 가볍게 찌푸리며 물었다.

"나의 대사형과 겨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어째서 대사형께서 그 얘기를 거론하는걸 한 번도 듣지 못했을까요?"

"송원교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네. 아마 금모사왕 사손이란 여섯 글자조차 들어본 적이 없을 걸세. 난 결국 그를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네."

장취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늘에 감사를 드려야겠군요."

은소소가 빙긋이 웃으며 그의 말을 받았다.

"빌어먹을 하늘에게 감사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대가에게 감사를 드려야 옳죠."

장취산과 무기는 그녀의 퉁명스러운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밤은 계속 깊어만 갔다.

----- 제 2 권 1 장 끝 -----

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2 권

제 2 장 십 년 만에 다시 중원(中原)으로

사손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저녁, 나는 객점 방 안에 앉아서 암중에 진기를 돋구며 칠상권을 하고 있었네. 자네는 나의 칠상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 한 번 구경해 보고 싶지 않나?"

장취산이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은소소가 먼저 말을 받았다.

"그것은 필히 신묘무비(神妙無比)하며 위맹절륜(威猛竊倫)할 거예요. 그런 절예를 지녔으면서 왜 송대협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사손은 은소소의 의중을 간파하고 빙긋이 웃었다.

"내가 칠상권을 시험하는 도중 자네의 남편을 다치게 할것이 염려되는 모양이군. 이 권력(拳力)을 마음먹은 대로 조절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칠상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말을 마친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한 그루 고목 옆으로 다가갔다. 곧이어 외마디 기합소리와 함께 나무줄기를 향해 일권(一拳)을 뻗어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고목은 손상을 입기는커녕 나무 껍질조차도 파손되지 않았다.

'섬에서 구년 간 거주하는 동안 무공이 완전히 황폐되어 버렸구나. 하기야 나는 그가 연공(鍊功)하는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은소소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큰 소리로 갈채를 보냈다.

사손은 또 빙긋이 웃으며 은소소를 바라보았다.

"오매(五妹)는 마음에도 없는 갈채를 보내는 걸 보니, 나의 무공이 옛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

"이런 궁핍하고 황량한 섬에 왕래하는 사람이라곤 우리 세 사람뿐인데, 무슨 무공을 연마할 수 있겠어요?"

"오제는 내가 발출한 일권의 오묘함을 간파했는가?"

장취산은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형님께서 격출한 일권은 위세가 무척 위맹한 것 같은데, 나뭇잎조차 흔들리지 않았으니 소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형님이 아닌 무기가 일권을 뻗어냈어도 나뭇 가지 정도는 흔들렸을 텐데......"

"사흘 후면 나뭇잎이 모두 시들어 떨어지고 보름 후면 고목 전체가 말라 죽을 것이네. 나의 이 일권에 고목은 맥락(脈絡)이 끊어졌다네."

장취산과 은소소는 그의 말을 듣고 내심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손은 말을 끝낸 후 도룡보도를 뽑아들더니 고목 줄기를 향해 한 차례 휘둘렀다. 순간 요란한 굉음과 함께 고목은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장취산 등 세 사람이 잘려진 고목 곁으로 나가가 살펴보니, 과연 물을 운반하는 나무의 근맥(筋脈)이 대부분 끊어졌으며, 어떤 것은 비틀어지고 어떤 것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루로 변해 있었다.

장취산은 크게 탄복하며 입을 열었다.

"형님, 소제는 오늘 정말 좋은 구경을 했습니다."

사손은 만면에 득의의 빛을 가득 떠올렸다.

"나의 이 일권에는 일곱 줄기의 경력이 함유되어 있다네. 강맹(剛猛), 음유(陰柔), 강중유유(剛中有柔), 유중유강(柔中有剛), 횡출(橫出), 직송(直送), 내축(內縮) 등의 경력이지. 적은 첫째

줄기의 경력은 감당해도 둘째 줄기의 경력은 막아내지 못하며, 설령 둘째 줄기의 경력까지는 감당해 낸다 해도 세째 줄기의 경력을 막아내지 못한다네. 칠상권이란 이름도 여기서 유래된 것이지. 오제, 그날 자네와 내가 장력을 겨루었을 때 내가 칠상권을 시전했다면, 자네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일세."

"그랬겠군요."

무기는 무슨 까닭으로 의부(義父)와 아버지가 장력을 겨루었는지 묻고 싶었으나, 은소소가 고개를 저으며 제지하는지라 사손에게 시선을 돌렸다.

"의부님, 칠상권을 내게도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손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안 돼!"

무기가 크게 실망하여 다시 사정하려 하자 은소소가 웃으며 말을 받았다.

"무기야, 바보 같은 소리 그만 해. 너의 의부께서 익힌 무공은 너무 정묘하여 상승내공(上乘內功)을 지니지 않고선 익힐 수 없어."

"그렇다면 상승내공부터 익힌 후 다시 의부께 부탁해야겠군요."

사손이 고개를 내저었다.

"이 칠상권은 배우지 않는 것이 좋아. 사람의 체내에는 음양이기(陰陽二氣)와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 오행(五行)이 있지. 심(心) 즉 마음은 화(火)에 속하고 폐는 금(金)에 속하며 신장은 수(水)에 속한다. 그리고 허파와 간은 목(木)에 속하지. 이 칠상권의 권공은 한 번씩 익힐 때마다 내장이 한 번의 손상을 입게 돼. 소위 칠상(七傷)이란 먼저 자신부터 해친 다음 적을 해친다는 뜻이야. 내가 칠상권을 연마할 때 심맥(心脈)을 다치지 않았다면, 때때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광성(狂性) 발작을 일으키지도 않지."

장취산과 은소소는 이 말을 듣고서야 그가 때때로 광성이 발작되는 이유를 알았다.
사손이 가볍게 탄식하며 말을 이었다.
"나의 내공이 공견대사나 무당 장진인(張眞人) 정도로 심후하고 견실해진 후에 이 칠상권을 연마했다면, 심맥이 이렇게 손상되지는 않았을 걸세. 당시 나는 오직 복수를 해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에 온갖 심기(心機)를 다 동원하여 공동파의 수중에서 칠상권보를 탈취하는데 성공했네. 그리고 권공을 연성하기도 전에 사부가 죽어 복수를 하지 못할 것이 염려되어, 서둘러 연공을 시작했지. 그 후 내장이 크게 손상되었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네. 오매는 칠상권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겠나?"
은소소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알 것 같아요. 아주버님의 사부가 익혔다는 무공과 비슷한 모양이지요?"
"그렇다네. 내 사부의 혼원벽력수(混元霹靂手)라는 별명이 말해주듯이 그의 장력에는 풍뢰(風雷)가 함유되어 있어 위력이 극히 놀랍지. 내가 그와 칠상권공으로 대적하여 권력이 그의 몸에 닿는 순간,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피하려 할 때는 이미 때가 늦게 되지. 오제, 자네는 나의 심성이 음침하다고 꾸짖지 말게. 내 사부는 비록 겉으로 보기엔 소박하지만 천하의 어느 누구보다 심계(心計)가 뛰어난독랄한 사람이네. 그런 사람에겐 똑같이 음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원수를 갚을 길이 없네. 그날 저녁 나는 칠상권공을 시험해 본 후 송원교를 찾아가려고 담을 뛰어넘었지. 바닥에 닿기도 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바람에 나는 대경실색했네. 나는 즉시 손을 뒤로 휘저었지만, 바람만 잡았을 뿐이었고 일권을 반격한 것도 허사였었네. 그래서 왼발을 바닥에 내딛기 무섭게 몸을 돌렸는데, 그 때 뒤에서

어떤 사람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고해(苦海)는 끝이 없고 고개를 돌리는 곳이 바로 항구라고 말하더군."
 무기는 크게 흥미를 느끼며 말했다.
 "의부, 그 사람은 의부에게 장난을 친 모양이군요."
 그러나 장취산과 은소소는 그 사람이 바로 공견대사임을 짐작했다.
 사손이 말을 이었다.
 "당시 나는 너무 놀라 전신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지. 그런 강한 무공으로 나를 죽이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놀람과 농락을 당한 분노가 범벅이 된 채 재차 몸을 돌려 보니, 약 사장 밖에 한 분의 백의승인(白衣僧人)이 서 있더군. 내가 몸을 돌리기 직전가지만 해도 그는 내 등 뒤에서 불과 두세 자 거리에 있었는데, 눈깜짝할 사이에 사장 밖으로 물러났으니 그 신법이 얼마나 놀라운가! 내가 몸을 돌리자 그 백의승인은 자기가 공견이라고 말하더군. 나는 공견이라는 법호(法號)를 듣는 순간, 강호에 널리 알려진 소림신승(少林神僧), 견문지성(見聞智性)이라는 말을 생각해 냈지. 그리고 그는 사대신승(四大神僧) 중에서도 첫째이니, 무공이 이렇게 고강한 것도 무리가 아님을 알았네."
 장취산은 그 후 공견대사가 사손의 십삼 권을 맞아 죽었음을 생각하고, 마음 속으로 은근히 불안을 금치 못했다.
 "당시 나와 그분과의 대화와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은 대략 이러했었네."

 "소림사의 공견신승(空見神僧)이신가요?"
 "신승이란 호칭은 감당하기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소림의 공견임은 틀림없습니다."
 "불초는 대사와 생면부지인데, 대사께선 어째서 불초를 희롱하

시는지요?"

"거사께선 오늘 밤 무당파의 송원교 대협을 죽이러 갈 생각이지요?"

속셈을 간파당한 사손은 내심 크게 놀랐다.

공견대사는 사손이 대답을 하지 않자 다시 입을 열었다.

"거사께서는 또 한 차례 천하무림을 발칵 뒤집어 놓을 생각이지요? 그래서 혼원벽력수 성곤으로 하여금 모습을 나타나게 하여, 당신의 일문(一門)을 살해한 원수를 갚을 생각이지요?"

그가 사부의 이름을 들먹이자 사손의 놀라움은 한층 더했다. 사손은 혼원벽력수 성곤이 그의 일문을 몰살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또한 그의 사부 성곤도 이 일을 은폐하기에 급급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리가 만무했다.

사손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공견대사를 주시했다.

"대사께서 그의 소재를 알려 주신다면 이 사손은 평생 동안 대사를 위해 몸을 바치겠습니다."

공견대사는 가볍게 탄식했다.

"성곤이 저지른 죄가 용서받기 어려울 정도로 지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사께서 격노한 나머지 이렇게 많은 무림인들을 살해한 죄악도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사손은 그가 보인 무공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강했고, 또 지금은 그에게 부탁하는 입장인지라 분노를 꾹 참았다.

"그것은 성곤이 종적도 남기지 않고 어디론가 깊숙이 숨어 버렸으니,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

"나도 당신의 가슴속에 맺힌 원한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송대협은 무당파 장진인의 수제자(首弟子)이므로, 장신이 그를 해친다는 것은 큰 화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나의 의도는 화를 저지르기 위함입니다. 저지르는 일이 클수록 성곤으로 하여금 모습을 나타내게 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사 거사, 당신이 송대협을 죽인다면 당신이 바라던 대로 성곤이 나서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곤은 지난날의 성곤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공 실력으로는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하므로 원한을 갚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곤은 나의 사부입니다. 때문에 그의 무공이 어느 정도인지는 내가 대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는 다시 뛰어난 고수를 사부로 모셨기 때문에, 무공이 크게 진전되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공동파의 칠상권을 연성했어도 여전히 그를 당해 내지는 못합니다."

사손의 놀라움은 매우 컸다.

사손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공견을 주시했다.

"대사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아셨지요?"

"성곤이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손의 놀라움은 극에 달했다.

"그럼 그는 또 어떻게 알았지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시종 당신 곁을 따라다녔습니다. 다만 수시로 변장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요."

"흥! 내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구요? 설령 그가 재로 변한다 해도 나는 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 거사, 당신은 오직 한시바삐 절예를 연성하여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뿐이었는지라, 주위의 일을 마음 속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밝은 곳에 노출되어 있고 그는 어두운 곳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암암리에 나를 죽였으면 후환을 제거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당신을 해칠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당신은 오래 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 거사, 당신은 지난날에 두 차례나 그를 찾아가 복수하려 했지만 두 차례 모두 패했습니다. 그가 당신의 목숨을 뺏을 생각이 있었다면 그 때 왜 당신을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칠상권보를 탈취하러 갔을 때 당신은 공동파의 삼대고수(三大高手)와 내공을 겨루었죠? 당시 공동오로중의 나머지 이로가 당신을 포위 공격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사실상, 그 때 그는 공동 삼로에게 부상을 입힌 후 나머지 이로도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괴이한 일은 지금까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는 터였다.

그는 공견대사가 이렇게 말하자 내심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그럼 공동파의 나머지 이로는 성곤에게 중상을 당했단 말입니까?"

"공동 이로가 어떤 수법으로 부상을 당했는지 사 거사는 직접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당시 그 두 사람의 얼굴빛이 어땠습니까?"

"대사의 말을 들어 보니, 당시 공동 이로는 성곤에게 부상을 당한 것이 분명하군요."

당시 공동 이로의 얼굴엔 온통 붉은 반점이 얼룩져 있었다. 그것은 혼원공의 음경(陰勁)에 의해 부상을 당했거나, 이질, 장티푸스 등 악성 전염병에 걸렸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공동 이로는 혼원공의 공격을 당했음이 분명했다. 또 당금 천하에서 혼원공을 연성한 사람은 사부 성곤과 그 자신 두 사람뿐인 것이다.

공견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탄식했다.

"당신의 사부는 취중에 당신의 일문을 몰살한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당신이 복수를 하기 위해 두 차례나 그를 찾아왔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당신에게 부상을 입히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두 차례 모

두 미친 듯이 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당신의 손아귀에서 빠져 나갈 수가 없었지요. 그 이후부터 그는 줄곧 당신의 뒤를 따라다니며 당신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암암리에 당신을 구해 주었습니다."

사손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공동 오로와 싸운 일 외에도 세 건의 수수께끼 같은 일이 있었음이 분명했다. 극도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적의 공세가 갑자기 느슨해지곤 했던 것이다.

공견대사가 또 가볍게 탄식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 엄청난 것임을 잘 아는 지라, 당신에게 용서조차 빌 수 없어 당신이 그 일을 잊기만 바랐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일을 잊기는커녕 오히려 일을 더욱 크게 벌렸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제 또 송원교 송대협을 살해한다면, 이 일은 도저히 수습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대사께서 나의 사부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당신 사부는 당신을 만날 면목이 없고 또 당신을 만날 용기도 없습니다. 그리고당신은 그를 만난다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대사, 어떻게 나의 피맺힌 원한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사 거사의 참혹한 심정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부는 취중에 이성을 잃은 것이지 본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그는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 사 거사께선 지난날의 사제지정(師弟之情)을 생각하여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사손은 주먹을 불끈 쥐며 고함을 질렀다.

"비록 그의 일장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피맺힌 이 원한을 꼭 복수하고야 말겠습니다."

공견대사는 무엇인가 한참 동안 깊이 생각하더니 사손을 바라보

았다.
"사 거사, 영사(令師)의 무공은 지난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고강해졌습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직접 저에게 몇 권(拳)을 시험해 보십시오."
"대사와는 아무 원한도 없는데 어찌 대사를 해치겠습니까? 불초의 무공은 비록 보잘것 없지만 칠상권은 아무나 쉽게 막아낼 수 있는 무공이 아닙니다."
"사 거사, 영사께서 당신의 일가족 열 세 명의 목숨을 살해 했으니, 당신도 내게 십 삼 권을 공격하십시오. 그래서 제게 상처를 입힌다면 저는 이 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영사께서도 스스로 모습을 나타내어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원한을 없었던 것으로 하십시오."
이 말에 사손은 얼른 대답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을 굴렸다.
'공견대사의 무공은 매우 고강하니, 칠상권이 아무리 위맹하다 해도 만약 그를 다치게 하지 못한다면 원수를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공견대사는 그가 대답을 하지 않자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이 일에 개입한 이상 당신이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것을 더 이상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선량한 마음으로 고쳐 먹고 여기서 손을 깨끗이 씻는다면 지난일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복수를 고집한다면, 당신에게 살해된 사람의 자제나 그 제자들도 당신에게 복수하려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내가 십 삼 권을 공격할 테니 감당하기 어려우면 즉시 손을 멈추라고 말하십시오. 그대신 당신은 약속대로 나의 사부를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공견대사는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손은 삼성(三成)의 공력만 돋구어 제일권을 그의 가슴에 가

격했다. 둔탁한 음향과 함께 공견대사는 몸을 휘청거리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내가 삼성의 공력만 사용했는데도 뒤로 한 걸음 밀려났으니, 칠상권을 펼쳐낸다면 삼 권만 가해도 극락객이 되어 버리겠군.'

사손은 이렇게 생각하며 제 이권에는 공력을 약간 증가시켰다. 그러나 공견대사는 이번에도 몸을 휘청거리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제 삼권에는 칠성의 공력을 돋구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사손은 그를 쓰러뜨리려면 전력을 다해야 함을 알았지만, 그가 죽을 것이 염려되었다. 사손은 비록 지금까지 많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공견대사의 그 자비로운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존경심이 일었다.

"대사, 당신은 얻어맞기만 하고 반격은 가하지 않으니 더 이상 공격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의 삼 장을 받아냈으니 나도 송원교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그럼 성곤과의 원한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계속했다.

"대사께서 이 일을 간섭하고 나섰으니, 나는 대사를 존경하는 뜻에서 앞으로 성곤과 그의 가족에게만 복수할 뿐 이 일과 관계 없는 무림인은 한 명도 해치지 않겠습니다."

"아미타불! 사 거사께서 그런 결심을 하셨다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소승은 이 원한을 완전히 화해시키기로 결심했으니, 사 거사께선 나머지 십 권도 마저 공격하십시오."

'대사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니, 성곤을 끌어내려면 부득불 칠상권을 사용하는 도리밖에 없겠군.'

여기까지 생각을 굴린 사손은 더 이상 양보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례를 범하겠습니다."

하며 제 사권을 격출했다. 그는 이번에는 칠상권으로 공격했다. 일 권이 공견대사의 몸에 적중되자 가슴이 안으로 약간 들어가는

가 싶더니,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이번에는 앞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 공견대사는 소림파의 금강불괴체신공(金剛不壞體神功)을 운기했던 것이다.

사손은 갑자기 한 줄기 반탄지력(反彈之力)에 의해 내심 크게 놀라며 오권을 음유지력(陰柔之力)으로 공격했다. 하지만 공견대사는 이번에도 앞으로 한 걸음 내딛으며 사손의 공격을 막았다.

공견대사가 백미(白眉)를 약간 치켜올렸다.

"사 거사의 칠상권 위력이 이토록 고강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가 공력을 되돌려보내지 않았다면, 당신의 칠상권을 감당해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손은 단숨에 나머지 칠상권을 연달아 공격했다. 그러나 공견대사는 광풍 폭우와 같은 사 권을 차례차례 몸으로 받아냈으며 그 때마다 앞으로 한 걸음씩 내딛었다. 사손은 외마디 함성과 함께 제 십권을 격출했다. 순간 공견대사는 고개를 약간 끄덕이더니 권력이 몸에 닿기도 전에 재빨리 기선을 제압해 버렸다.

순식간에 안색이 백지장처럼 창백하게 변했다.

"제 십일권은 서둘러 공격하지 말고, 우선 마음부터 진정시킨 후 발출하십시오."

사손은 비록 호승심(好勝心)이 강한 사람이었지만,한동안은 제 십일권을 공격할 수가 없었다.

'아직 삼 권이 남았지만 이 대사는 사람됨이 인자하고 도량이 넓은데 이분에게 부상을 입힐 수는 없다. 하지만 사부를 나오게 하여 피맺힌 원한을 갚으려면 모험을 하지 않을 수 없지.....'

마음을 진정시킨 사손은 체내의 공력을 최대한으로 모아서 제 십일권을 공격했다. 그런데 공견대사가 몸을 공중으로 피했기 때문에, 그의 가슴에 적중되어야 할 일 권이 아랫배에 적중되었다. 순간 공견대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몹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공견대사는 가슴으로 일 권을 받아내면 반탄력이 너무 강해

사손이 감당해 내지 못할 것이 염려되어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랫배로 일 권을 받아낸 것이다.

사손은 놀람과 동시에 감격이 범벅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의 사부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으니 죽어 마땅한데, 대사께서는 어찌하여 금옥지체(金玉之體)로 그의 재앙을 막으려 하십니까?"

공견대사는 한참 동안 호흡을 조절하더니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이 장만 더 받아내면 이 원한을 완만히 해결할 수 있게 되겠군요."

그가 말을 하는 동안은 호흡이 조절되지 않음을 발견한 사손은 급히 생각을 굴렸다.

'음, 금강불괴체신공을 운기할 때는 말을 하면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에게 말을 시키면서 갑자기 일권을 공격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사손은 겉으론 조금도 내색을 하지 않고 또 입을 열었다.

"만약 내가 십 삼 권 이내에 당신에게 부상을 입힌다면, 당신은 정말 사부를 만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건 그가 직접 내게 한 말이므로....."

사손은 바로 이때다 싶어 재빨리 그의 아랫배를 향해 일권을 공격했다. 이 일권은 너무나 빨랐고 또 아랫배를 공격하기 때문에 공견대사로서는 호체신공(護體神功)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불문신공(佛門神功)은 생각만 해도 자연히 운기되는 지라 사손의 권경이 그의 아랫배에 닿는 순간, 그는 이미 신공을 돋구어 전신을 보호했다. 순간, 사손은 하늘과 땅이 빙글빙글 돌고 심장이 파열되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여덟 걸음이나 후퇴하여 고목에 부딪친 뒤에야 간신히 몸을 지탱할 수 있었다.

사손은 자신을 잃은 상태에서 갑자기 독랄한 생각이 떠올라 고의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 피맺힌 원한을 복수하긴 틀렸으니 이 세상에 살아 있을 가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고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천령개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그는 천령개를 내리쳐 자살을 기도할 때, 공견대사가 달려와 제지시키면 그 틈을 이용해 독수를 펼칠 계획이었다. 사손은 자신도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 만약 공견대사가 그의 속셈을 간파하여 제지시키지 않는다면, 어렵게 생각해 낸 계획이 수포가 되는 것이었다.

"안 됩니다. 사 거사.....!"

사손의 갑작스러운 행위에 공견대사는 깜짝 놀라 고함을 지르며 덮쳐와 그의 오른쪽 손목을 붙잡았다. 사손은 이 절호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좌권에 전력을 운기하여 공견대사의 명치를 공격했다.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일 권을 맞은 공견대사는 신공을 운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순식간에 공견대사는 내장이 파열되어 바닥에 쓰러졌다. 일 권을 성공시킨 사손은 공견대사가 살아날 가망이 없음을 알고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의 몸 위에 엎드려 대성통곡했다. 공견대사는 그가 통곡을 하자 빙긋이 웃으며 오히려 그를 위로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니 사 거사께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당신의 사부가 곧 나타날 테니, 당신은 마음을 진정시켜 다음 일에 대비하십시오."

이 말에 사손은 자기가 십 삼 권을 공걍扁[illegible] 소
모시켰으므로 강적이 나타날 시기에 통곡만 하고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운기조식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긴 시간이 지나도 성곤은 모습을 나타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가 의혹의 눈빛으로 공견대사를 내려다보자, 공

견대사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그.....그는 약.....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길을 제지당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군요."
 사손은 대노하여 고함을 질렀다.
 "나를 감쪽같이 속였군요. 그래서 당신을 죽이게 했으며....."
 "사 거사, 결코 당신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속인 결과가 되고 말았으니 정말 미안합니다."
 사손은 격노한 나머지 또 그를 나무라려다 말고 생각을 굴렸다.
 '그가 나를 속여 자신을 죽이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오히려 그가 내게 사과하고 있으니.....'
 사손은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생겨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대사, 소원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불초가 힘 닿는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공견대사는 비단 무공만 고결할 뿐 아니라 대지대혜(大智大慧)하고 대자대비(大慈大悲)하여 사손의 심중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사손은 공견대사의 숨결이 점점 약해지자 손바닥을 그의 영대혈에 올려 내력(內力)으로 그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공견대사가 갑자기 숨을 길게 들이키며 물었다.
 "당신의 사부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앞으로 다시는 무고한 살생으로 그를 나타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늘 끝까지 가서라도 그를 찾아 내고 말 것입니다."
 "하.....하지만 다.....당신의 무공으로는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혹.....혹시....."

공견대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사손이 귀를 그의 입가에 바짝 갖다 대자, 그는 다시 실날 같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혹.....혹시 도룡도(屠龍刀)를 찾아 칼 속의 비........"

공견대사는 결국 말을 끝맺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공견대사와 있었던 일의경과를 모두 이야기한 사손은 장취산을 바라보았다.

"오제, 그날 선상에서 자네가 나와 장력을 겨룰 때 내가 자네의 목숨을 빼지 않은 것은, 갑자기 공견대사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네."

장취산은 자기의 목숨을 구해 준 사람이 공견대사임을 알고 고승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다. 또한 사손이 도룡도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온갖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와, 평소에는 그렇게 온순하고 예의바른 그가 광성(狂性)이 발작하면 야수처럼 변하는 까닭, 그리고 절세무공을 지녔으면서도 항상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모두알게 되었다.

사손이 또 긴 한 숨을 내쉬었다.

"그 후 나는 도룡도의 소식을 듣고 왕반산도(王盤山島)로 칼을 탈취하러 달려갔었지. 오매 영존과 나는 죽마고우로 무척 절친했으며, 응왕사왕(鷹王獅王)이라는 명호로 당세에 위명을 떨쳤지만 나중에는 서로 원수가 되었지. 그 가운데는 다른 사람이 개입되었지만 말할 수는 없네. 나는 칼을 획득하기 전에는 성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었지만, 도룡도를 획득하고부터는 오히려 그가 나를 찾아올 것을 두려워했지. 그래서 은밀한 장소를 찾아 칼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기 시작했으며, 자네들이 나의 행적을 누설할 것이 염려되어 함께 이곳으로 데려온 게야. 그러나 십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아무 소득도 없으니....."

"공견대사께서 임종 전에 남긴 도룡도를 찾아 그 속의 비......

뭐라고 한 말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닐까요?"

"지난 십년동안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네. 칼 속에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그 비림이 무엇인지 알아낼 방도가 없으니....."

그날 밤의 긴 이야기가 있은 이후로 사손은 이 일을 두 번 다시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기를 독려하여 무공을 연마시키는 일에는 한창 더 엄격해졌다. 무기는 이제 겨우 아홉 살밖에 되지 않았는지라, 아무리 총명하다 해도 단기간에 사손의 절세 무공을 깨닫기란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사손은 그를 때리고 꾸짖으며 휴식을 취할 시간을 조금도 주지 않았다.

보다못한 은소소가 어느 날 사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주버님, 아주버님의 개세신공을 무기가 짧은 기간에 어떻게 모두 익힐 수 있겠어요?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 천천히 가르치세요."

"나는 그에게 무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머리 속에 기억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무기에게 무공을 가르치지 않았단 말인가요?"

"흠! 일초일식(一招一式)씩 가르쳐 언제 다 배울 수 있겠느냐? 나는 다만 그에게 머리 속에 영원히 잊지 않도록 기억시켜 주고 있을 뿐이다."

은소소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지만, 그가 하는 일에는 언제나 남다른 데가 있는지라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오히려 무기는 나이에 비해 영특하고 사리 판단을 잘하는 지라 모친을 위로했다.

"어머니, 의부께선 다 나를 위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프게 매질을 할수록 나는 더욱 잘 기억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아침, 사손이 갑자기 장취산 부부를 불렀다.

"오제, 오매, 앞으로 넉 달만 지나면 바람이 남쪽으로 불테니

오늘부터 뗏목을 만들자."
 장취산은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뗏목을 만들어 중원으로 돌아갈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하늘에 달린 일이야."
 처음에 은소소는 모험을 하면서까지 중원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섬에서 그냥 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기의 장래를 생각해서 생각을 바꾸었다.
 뗏목을 만들면서도 사손은 무기를 곁에 앉히고, 그간 배운 무공에 대해 질문하고 또 새로운 것을 엄하게 가르쳤다. 심지어 사손은 무기에게 각종 도법과 검법까지도 마치 사서삼경을 외우듯 머리로 기억하게 했다. 사손이 무기에게 해석은 한 마디도 해주지 않고 각종 무공을 머리로만 기억하게 하자, 은소소는 무기가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뗏목은 두 달이 걸려서야 가까스로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돛대를 세우는데 또 반 달이 걸렸다. 그 다음에는 짐승의 고기를 소금에 절여 말리고 가죽으로 물주머니를 만들었다. 어렵게 어렵게 모든 준비를 끝냈으나 바람은 아직도 남쪽으로 불지 않았다. 그들은 해변에 간단한 움막을 만들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바람이 남쪽으로 불 때를 기다렸다.
 어느 날 새벽, 드디어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고 있었다.
 장취산 부부는 뛸 듯이 기뻐하며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모든 준비를 끝낸 세 사람은 뗏목을 바다로 밀어 놓은 후 무기와 은소소가 먼저 뗏목 위로 뛰어올랐다. 이어 장취산이 사손의 손을 잡았다.
 "형님, 여기서 뗏목까지의 거리는 여섯 자밖에 되지 않으니, 손을 잡고 함께 뛰어 오릅시다."
 "오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작별하게 되었네. 부디 몸조심 하

게."

장취산은 영원한 작별이라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형.....형님은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형님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을 작정입니까?"

장취산은 불현듯 몇 년 전 사손이 자기 혼자 섬을 떠나지 않고 남겠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 이후 이 일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취산 부부도 잊고 있었던 것이다. 뗏목을 만드는 동안에도 사손은 전혀 그런 뜻을 비추지 않았었다.

"헝님 혼자 이 섬에 계시면 적적해서 견디기 어려울 테니, 함께 중원으로 돌아갑시다."

장취산이 이렇게 말하며 힘껏 당겼으나, 사손의 몸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장취산은 마음이 조급해진 나머지 은소소를 불렀다.

"여보, 형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구료!"

이 말을 들은 은소소와 무기는 깜짝 놀라며 동시에 뗏목에서 뛰어내렸다. 무기가 사손 곁으로 다가와 어리광을 부리듯 말했다.

"의부께선 왜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의부께서 안 가시면 저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실 사손도 이들 세 사람과 헤어지기가 싫었다. 왜냐하면, 이번에 헤어지면 다시 만날 기약도 없거니와 황량한 섬에 혼자 산다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장취산, 은소소와 결의형제를 맺은 후부터는 그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 이끼고 사랑했으며 의자(義子) 무기에 대한 사랑은 친자식을 능가할 정도였다. 하지만 자신은 일신에 많은 피빚을 지고 있는 지라, 강호의명문정파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물며 도룡도까지 이미 그의 수중에 있으므로, 그가 만인의 표적이 되어 있음은 의심할 여지

가 없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지금은 눈까지 멀어서 원수들의 포위 공격을 막아낼 자신이 없었다. 그가 중원에 나가 원수들의 포위 공격을 받게 되면 장취산 부부가 수수방관할 리 만무하며, 그렇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 네 사람 모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뻔한 일일 것이다 .사손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혼자 이곳에 남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무기를 와락 끌어안으며 말했다.

"무기야, 너는 착한 아이이니 의부의 말을 잘 듣겠지? 의부는 나이도 많고 눈까지 멀었기 때문에 중원에 가면 습관이 되지 않아 여기보다 오히려 더 불편하단다."

"중원에 돌아가면 제가 항상 의부님 곁에서 시중을 들어드리겠어요."

"아냐, 나는 아무래도 여기 남아 있는 게 편할 것 같아."

무기가 장취산과 은소소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모두 여기서 의부님과 함께 살아요."

은소소가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아주버님에게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면 우리 함께 대책을 세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아주버님만 여기에 남겨 두고 떠날 수는 없었요."

사손은 급히 생각을 굴렸다.

'이들은 나와 깊이 정이 들어 절대 나를 두고 그들만 가지는 않을 모양인데, 무슨 방법으로 그들을 떠나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장취산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형님은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될 것을 염려하시지요? 우리가 중원에 돌아가도 은밀한 장소를 찾아 외부와 왕래를 하지 않으면 걱정할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무당산에 은둔하면 금모사왕이 무당산에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손이 얼굴에 오만한 빛을 떠올렸다.
"흥! 내가 아무리 눈이 멀고 쓸모없는 패물이 되었어도, 아직은 너의 사부 장진인의 비호를 받을 정도로 무능하진 않아."
장취산은 자기의 실언을 후회하며 얼른 말머리를 돌렸다.
"형님의 무공은 가사(家師)에 비해 조금도 뒤지지 않는데, 그 분의 비호를 받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강서장(回疆西藏), 관외대막(關外大漠) 등 우리 네 사람이 은거할 정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은밀한 장소로 말하자면 천하에서 여기를 능가하는 곳이 없다. 너희들은 도대체 떠날 작정이냐, 떠나지 않을 작정이야?"
"형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은소소와 무기도 장취산의 말에 찬성했다.
사손이 가벼운 탄식을 했다.
"좋다. 모두 여기 남아 있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 떠나도록 해라."
"예,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미 십 년을 살았는데, 서둘러 중원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손이 갑자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은 이곳에 아무런 미련이 없겠지?"
하며 도룡도를 뽑아들더니 자기의 목을 베려 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태에 장취산은 대경실색했다.
장취산은 사손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울먹이며 말했다.
"형님의 결심이 그러하시다면, 소제는 이만 작별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하고 사손에게 작별의 인사를 올렸다.
그러나 어린 무기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의부께서 가시지 않는다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의부께서 자진하면 저도 자진하겠습니다. 사나이 대장부는 한 번 한다면 합

니다. 의부께서 칼로 목을 베면 저도 칼로 목을 베겠습니다."
"이놈아, 무슨 당치도 않은 말을 지껄이느냐!"
사손은 고함을 지르며 무기의 뒷덜미를 붙잡아 뗏목 위로 던졌다. 이어 장취산과 은소소마저 모두 뗏목 위로 던졌다.
"오제, 오매, 그리고 무기야, 아무쪼록 무사히 중원에 도착하기를 빌겠다."
하고 무기에게 특별히 한 마디 더 당부했다.
"무기야, 중원에 돌아가서는 장무기라는 이름을 써야 한다. 사무기 석 자는 마음 속에만 두어야지 절대 입 밖으로 발설해선 안된다. 알겠느냐?"
무기가 울면서 외쳤다.
"의부.....! 의부.....!"
사손이 도룡도를 옆으로 비켜들며 고함을 질렀다.
"너희들이 또 이리로 내려오면 나는 우리들의 결의지정(結義之情)을 단절해 버리겠다."
장취산과 은소소는 사손의 결심을 도저히 되돌리게 할 수 없음을 알고 눈물을 뿌리며 작별을 고했다. 뗏목이 물결과 바람을 따라 해변에서 점점 멀어지자 사손의 모습도 점점 작아졌다. 무기는 모친의 품에 쓰러져 지칠 때까지 울더니 가까스로 잠이 들었다.
바람이 줄곧 같은 방향으로만 불고 파도도 심하지 않아 뗏목은 순조롭게 남행을 계속했다. 한 가지 답답한 것은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점이었다. 그들은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방향을 구별하며 밤낮없이 남으로 남으로 항해를 계속했다.
항해를 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육지는 고사하고 지나가는 배 한 척도 보이지 않았다. 항해를 하는 동안 장취산은 무기에게 무당파의 권법과 장법의 입문 공부를 가르쳤다. 그의 무공 전수 방법은 사손보다 훨씬 고명했고 또 무당파 무공 기초가 어렵지 않

아 무기는 쉽게 익혔다. 끝없는 항해는 몇 달이 계속되었다. 이날도 파도는 잔잔했으며, 뗏목의 크고 작은 두 개의 돛은 바람을 가득 안은 채 쏜살같이 물을 가르며 질주했다.
 은소소가 이 광경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아주버님은 비단 무공만 고절할 뿐 아니라 지리 풍수에도 깊은 조예를 지녔으니, 정말 기재(奇才) 중의 기재예요."
 무기가 이때 느닷없는 말을 했다.
 "바람이 반 년은 남쪽으로 불고 반 년은 북쪽으로 분다면, 우리는 명년에 의부를 뵈러 빙화도로 갈 수 있겠군요."
 이때 은소소가 갑자기 남쪽을 가리키며 외쳤다.
 "저게 뭐죠?"
 장취산이 고개를 돌려 보니, 멀리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곳에서 두 개의 흑점이 희미하게 보였다.
 "고래인 모양인데 우리 뗏목을 받으면 야단이군요."
 은소소가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고개를 저었다.
 "고래는 아니예요. 등에서 물을 뿜어내지 않는걸요."
 세 사람은 잔뜩 긴장된 채 두 개의 흑점을 뚫어지게 주시했다. 한 시간 가량이 지나 쌍방의 거리가 가까와지자 은소소가 환호성을 질렀다.
 "아. 배예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두 척의 거대한 배가 똑똑히 보았다. 은소소는 가까와지고 있는 두 척의 배를 한참 동안 살피더니, 갑자기 얼굴빛이 크게 변하며 몸을 바르르 떨었다.
 무기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은소소는 입술만 몇 번 움직였을 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장취산이 걱정스러운 듯 그녀의 손을 쥐어 주었다.
 은소소가 가볍게 탄식했다.

"중원에 돌아오자마자 만나게 되었군요."

"뭘 말입니까?"

"저 배의 돛을 자세히 보세요."

장취산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왼쪽의 범선 돛에 한 마리의 검은 독수리가 날개요. 우리 아버지의 천응교 깃발이예요."

이 순간 장취산의 마음 속에는 만감이 교차했다.

'소소의 부친은 천응교 교주이며 이 사교(邪教)는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집단인데, 장인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지? 그리고 은사께서는 나의 혼사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때 장취산은 자기의 손 속에서 은소소의 손도 가늘게 떨고 있음을 느끼고, 그녀 역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여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으며 우리는 백년해로를 약속했는데 무엇을 염려하오?"

"나로 인해 당신이 난처하게 될 것이 염려되어 그래요. 여보, 설사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무기를 생각해서 참으세요."

뗏목과 두 척의 배는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장취산이 잠시 망설이다 나직이 물었다.

"배에 탄 사람을 불러 당신 부친의 안부를 물어보는 게 어떻겠소?"

"그럴 필요 없어요. 중원에 도착한 후 우리 세 식구가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구료."

그들이 두 척의 범선을 그냥 지나치려 할 때, 한 척의 선상에서 도광이 번뜩이며 너댓 명의 장한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았다. 은소소가 배 위를 쳐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도 저기 계신지 모르겠군요."

"여기서 당신의 부친 배를 만났으니 가까이 가 봅시다."

그들은 돛의 방향을 약간 바꾸어 두 척의 배를 향해 천천히 접

근했다. 가까이 접근했을 때 천응교 선상에서 한 사내가 고개를 내밀며 고함을 질렀다.

"우리는 지금 정당한 대결을 하고 있는 중이니 이곳을 피해 가시오!"

상대방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은소소가 선상을 향해 외쳤다.

"여기는 총타(總舵) 당주에요. 어느 단(壇)이 향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있나요?"

그녀는 천응교 사람들 사이에만 통하는 말을 했다. 그러자 선상에 있던 사람의 태도가 갑자기 공손해졌다.

"천시당(天市堂) 이당주(李堂主)께서 청룡단(青龍壇) 정단주(程壇主), 신사단(神蛇壇) 봉단주(封壇主)와 함께 여기 계십니다. 천미당(天微堂) 은당주(殷堂主)께서 행차하셨습니까?"

"자미당(紫微堂) 당주예요."

자미당 당주라는 말이 떨어지자 선상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니 잠시 후 십여 명의 장한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은 낭자께서 돌아오셨다! 은 낭자께서 돌아오셨다!"

장취산은 은소소와 결혼한 지 십 년이 되었지만 그녀가 천응교에 관한 일을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했으며, 그도 묻지 않아 천응교의 내막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에서 장취산은 은소소가 천응교의 자미당 당주이며, 당주의 지위가 단주보다 높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왕반산에서 현무와 주작단 단주의 무공 실력을 친히 시험했기에 그들의 무공이 은소소보다 고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도 은소소의 직위가 높은 것은 교주의 딸이기 때문이 분명했다.

잠시 후 맞은편 배의 선상에서 맑은 음성이 전해왔다.

"폐교 교주의 천금(千金) 은 낭자께서 돌아오셨다니, 싸움을 잠시 멈추는 게 어떻겠소?"

이어 우렁찬 목소리가 대답했다.

"좋소이다. 모두 손을 멈추시오!"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칼이 부딪치는 소리가 멎고 쌍방의사람들이 분분히 뒤로 물러섰다. 장취산은 맑고 우렁찬 목소리가 매우 귀에 익었음을 느끼고, 잠시 생각을 굴린 후 큰 소리로 물었다.

"혹시 유연주(兪蓮舟) 유사형이 아니십니까?"

저쪽 배 선상의 맑고 우렁찬 목소리의 주인이 뗏목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렇소. 내가 바로 유연주..... 아니, 너.....너는.....!"

"소제 장취산입니다!"

그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뗏목과 범선 간의 거리가 십 장 가량 되자, 뗏목 위에서 나무 토막을 주워 공중으로 던지며 몸을 솟구쳐 상대방의 뱃머리에 사뿐히 내려섰다.

"둘째 사형!"

"오제!"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 손을 맞잡으며 기쁨의 눈물만 흘렸다.

한편 저쪽 천응교 사람들도 은소소를 영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천응교 교주 백미응왕 은천정의 밑으로 내삼당(內三堂)과 외오단(外五壇)으로 나뉘어져 각로(各路)의 교도들을 통괄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내삼당은 천미, 자미, 천서 삼당으로 나뉘어지고 외오단은 청룡, 백호, 현무, 주작, 신사 등 오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천미당 당주는 은천정의 장남 은야왕(殷野王)이고, 자미당 당주는 은소소이며 천시당 당주는 은천정의 사제 이천환(李天桓)이다.

이천환은 은소소가 남루한 옷을 입고 어린 아이까지 데리고 있음을 보자 처음에는 약간 의아스럽다는 표정을 짓더니, 곧 만면에 웃음을 가득 머금었다.

"내가 돌아오다니 정말 기쁘구나. 지난 십 년 동안 내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느냐?"

은소소는 이천환에게 큰절을 했다.

"사숙, 그간 별고 없으셨어요?"

하고 무기를 돌아 보았다.

"빨리 사숙조님께 절을 해야지."

무기는 꿇어 엎드려 절을 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천환과 천응교도들을 쳐다보았다.

은소소는 두 범선의 갑판에 시체가 나뒹굴며 선혈이 낭자해 있음을 보고 나직이 물었다.

"저들은 누구며 왜 싸웠나요?"

무당파와 곤륜파 사람들이요."

은소소는 남편 장취산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상대방 배 위로 뛰어올라가 어떤 사람과 포옹하는 것을 보고 상대방 가운데 무당파의 사람이 있음을 짐작하고 있었다.

"사숙, 가능하면 싸우지 말고 좋게 해결하세요."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이천환은 비록 그녀의 사숙이지만 천응교 직위로 말하자면 아래였다.

이때 장취산이 맞은편 배의 갑판에서 큰 소리로 불렀다.

"여보, 빨리 무기를 데리고 이리로 건너와 나의 사형에게 인사 올리시오!"

은소소는 무기의 손을 잡고 상대방 배의 갑판으로 걸어갔다. 이천환과 두 단주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르며 그녀를 경호했다. 상대방 배의 갑판에는 칠팔 명의 장한이 있었으며, 그 중 마흔 살 남짓된 몸집이 깡마르고 키가 큰 남자가 장취산과 손을 맞잡은 채 서 있었다.

"여보, 이 분이 바로 내가 항상 말하던 유연주 둘째 사형이오.

형님, 이쪽은 형님의 제수와 조카 무기입니다."

유연주와 이천환은 이 말을 듣고 모두 크게 놀랐다. 지금 천응교와 무당파는 목숨을 건 악투를 벌이고 있는데, 쌍방의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서로 부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식까지 낳았으니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니겠는가!

곤륜파의 서화자(西華子)가 대뜸 도전적인 어조로 물었다.

"장오협(張五俠), 그 늙은 악적 사손이 지금 어디 있는지 당신은 알지요?"

장취산은 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첫째는 무당이 천응교 사람들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곤륜파의 서화자가 첫마디에 사손의 행적을 묻는 점이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서화자는 장취산이 자기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자 눈썹을 치켜올리며 고함을 질렀다.

"당신은 내가 물은 말을 못 들었소? 사손 그 늙은 악적이 지금 어디 있소?"

천응교 신사단의 봉단주는 사람됨이 음침하고 간교한 인물이다. 좀전의 싸움에서 두 명이 서화자의 검에 목숨을 잃어, 그렇지 않아도 서화자에 대해 이를 갈고 있던 터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차갑게 말을 받았다.

"장오협은 우리 교주의 사위이니 말 조심하십시오!"

"흥! 사교(邪敎)의 요녀가 어떻게 명문정파의 자재와 혼인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이 혼사에는 필시 무슨 비밀이 있음이 분명하오."

"우리 은교주께선 외손자까지 보았는데, 당신은 무슨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거요?"

"이 요녀가.....!"

위사랑은 봉단주의 속셈이 곤륜과 무당 양파의 교분을 이간질시

키고, 이 기회에 장취산과 은소소에게 아첨하려는 의도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때문에 그녀는 서화자가 그의 술수에 말려 더욱 듣기 거북한 말을 할 것이 염려되어 급히 제지시켰다.

"사형, 이런 쓸데없는 자와 말다툼을 할 게 아니라, 유이협(兪二俠)의 의견이나 듣기로 해요."

"유연주는 장취산과 은소소의 얼굴을 보며 잠시 망설이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선실로 들어가 의논합시다."

여기선 천응교가 손님이었고, 현재 직위가 제일 높은 사람은 자미당 당주인 은소소였다. 때문에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무기의 손을 잡고 앞장서서 선실로 들어갔다. 봉단주가 뒤를 이어 선실로 들어가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그는 한 줄기 미풍이 옆구리를 엄습함을 느꼈다. 그는 비단 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음험하기 짝이 없는지라, 단번에 서화자의 짓임을 간파하고 막아내지 않은 채 앞으로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다.

"아앗! 비열하게 기습을 가하다니.....!"

그의 비명소리에 서화자는 흠칫하며 잽싸게 자신의 삼음수(三陰手)를 회수했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위사랑이 나무라는 눈빛으로 사형을 쏘아보니, 서화자의 얼굴빛은 수치심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서화자가 손님에게 기습을 가한 것은 명문정파의 고수 신분을 스스로 실추시킨 것이다.

일행은 선실에서 주인과 손님의 신분으로 분류하여 자리에 앉았다. 자연 장취산과 은소소 부부도 서로 적대적인 자리에 앉게 되었다.

모두 자리에 앉자 유연주는 속으로 생각을 굴렸다.

'오제는 실종된 후 십 년 동안에 천응교 교주의 딸과 부부가 되

었구나. 그러나 대중들 앞에서 신문할 것 같으면 입장이 난처해 내가 처리를 잘 해야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굴린 유연주는 목청을 가다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림, 곤륜, 아미, 공동, 무당 오파와 신권(神拳), 오봉도(五鳳刀)등 구문 해사(海沙), 거경(巨鯨) 등 칠방 도합 이십 일 개 문파방회(門波幇會)는 금모사왕 사손, 천응교 은 낭자, 그리고 불초의 사제 장취산 등 세 사람의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천응교와 오해가 발생했으며, 불행하게도 쌍방에 사상자까지 발생하여 십 년 동안 무림이 불안한 가운데 지났으나....."

그는 잠시 숨을 돌린 후 말을 이었다.

"다행히 은 낭자와 장사제가 이렇게 모습을 나타냈으니,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의문의 진상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십 년 동안 발생한 사건들이 너무 많으므로 짧은 시간에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소. 그러니 우선 모두 함께 중원으로 돌아가 은 낭자는 귀교 교주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아뢰고, 장사제도 무당에 돌아가 가사께 아뢴 후 쌍방이 다시 시간과 장소를 정해 만나 시비를 가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풀려 피차의 관계가 원만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일이며....."

이때 서화자가 갑자기 고함을 질러 유연주의 말을 중단시켰다.

"그 늙은 악적 사손은 어디 있소? 우리가 찾는 사람은 사손 그 늙은 악적이오!"

장취산은 중원 무림의 이십 이 개 문파방회가 자기들 세 사람을 찾기 위해 십 년 동안 싸웠으며, 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 몹시 불안해 하고 있었다. 그런데 서화자가 사손의 행방까지 추궁하니 처지가 매우 난처했다. 만약 사손의 행방을 말한다면, 많은 무림 고수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 빙화도로 찾아갈 것이 뻔한 일이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가만이 있을 리

만무했다. 그가 난처해 하며 주저하고 있을 때, 은소소가 느닷없이 말문을 열었다.

"온갖 만행을 자행하고 살인을 밥먹듯이 한 악적 사손은 이미 구 년 전에 죽었어요."

유연주, 서화자, 위사랑 등은 깜짝 놀라며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사손이 죽었다구요?"

"내가 이 아이를 분만하던 날 악적 사손은 광성이 발작하여 나와 나의 남편을 죽이려 했으나,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더니 심병(心病)이 발생하여 죽었어요."

장취산은 여기까지 듣고서야 은소소의 말뜻을 깨달았다. 사실 사손은 무기의 첫 번째 울음소리를 듣고 양심을 되찾아 개과천선했다. 그리고 장취산 등 세 사람을 강제로 섬을 떠나게 한 행위는 어느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자기 희생이었다. 그러므로 악행을 일삼고 살인을 밥먹듯이 하던 악적 사손이 이미 구 년 전에 죽었다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다.

무기는여기 있는 가람들이 말끝마다 의부를 악적 사손이라 욕하고 심지어 부친과 모친은 의부를 죽었다고까지 말하자, 치미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비록 총명하지만 강호에 얽히고 설킨 일들을 알 까닭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의부는 악적이 아니예요. 의부는 죽지 않았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외침소리에 선실 안의 사람들은 일제히 그에게 시선을 집중시켰다.

은소소는 다급한 나머지 무기의 따귀를 후려쳤다.

"닥쳐!"

"어머니는 왜 의부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은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은소소가 성난 목소리로 무기를 꾸짖었다.

"어른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이가 버릇없이 끼어들다니! 우리는 악적 사손을 욕하고 있을 뿐, 네 의부를 헐뜯은 게 아냐!"

무기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곤혹스러워 했지만 감히 더 이상 입은 열지 않았다.

서화자가 냉랭히 웃으며 무기에게 물었다.

"얘야, 사손은 네 의부지? 그는 지금 어디있느냐?"

무기는 부모의 얼굴빛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나눈 대화가 매우 중요한 일임을 눈치채고 서화자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의 이 말은 사손이 죽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결과나 다름 없었다.

서화자가 장취산을 노려보며 물었다.

"장오협, 이분 천응교의 은 낭자는 정말 당신의 부인입니까?"

"그렇소. 그녀는 나의 부인이오."

"그렇다면 우리 곤륜파의 제자 두 명이 당신 부인의 독수에 의해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 빚은 어떻게 청산하겠소?"

은소소가 그의 말을 듣고 눈썹을 높이 치켜올렸다.

"당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장취산도 은근히 화가 났지만, 역시 수양이 깊은 무당제자인지라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

"당신은 오해를 하고 있군요. 우리 부부는 십 년 동안 중원에 발을 들여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귀파의 제자를 해칠 수 있었겠소?"

"십 년 전이 일이라면 어쩌겠소? 고칙성(高則成)과 장도(張濤)가 피해를 입은 것도 이미 십 년이 지났군요."

은소소가 미간을 찌푸렸다.

"고칙성과 장도가 누구지요?"

"부인은 그 두 사람을 벌써 잊었소? 하기야 당신은 사람을 무수히 해쳤으니 그들을 기억하고 있을 리 만무하지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당산은 무슨 근거로 내가 그들을 해쳤다고 억지를 부리세요?"

"내가 억지를 부린다구? 그들 두 사람이 비록 백치로 변했지만 한 가지 일은 기억하고 있으며 한 사람의 이름은 말 할 수 있소.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은 은소소라는 것도 잘 알고 있소."

서화자의 말투와 눈빛에는 독기가 가득 서려 있었다.

이때 지금까지 그들의 대화를 듣고만 있던 천응교 봉단주가 끼어들었다.

"본교 자미당 당주의 존명(尊名)을 당신 같은 출가한 노도가 함부로 부르도록 지은 것인 줄 아시오? 무림의 계율조차 지키지 않는 늙은이가 무림 선배 행세를 하는 걸 보면 구역질이 난다니까! 정현제, 자네는 세상의 부끄러운 일 중에 이보다 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단주가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대답했다.

"없지요. 명문 정파에서 이런 미친 도배가 나오다니 정말 우스운 일이군요."

서화자는 치미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 둘은 누가 몰염치하고 우습다고 비웃고 있는 거냐?"

봉단주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서화자의 화기를 돋구었다.

봉단주와 정단주가 서화자를 격노시킨 것은 은소소를 궁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 외에 그들은 또 장취산과 은소소가 부부가 된 이상 무당파와 천응교의 관계도 크게 달라졌으므로

유연주와 장취산이 천응교는 도울지언정 곤륜파는 도우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므로 천응교의 현재 인원으로 몇 명 되지 않는 곤륜파 사람을 제압하기는 식은죽 먹기나 마찬가지라고 계산하고 있었다.

위사랑도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고 은근한 말로 서화자의 경솔한 행위를 제지했다.

"사형, 우리 배에 올라온 이상 그들은 손님이예요.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유이협의 분부에 따르기로 해요."

그러나 멍청한 서화자는 그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무당파는 이미 천응교와 사돈 관계를 맺어 한통속이 되었는데, 그의 입에서 공정한 말이 나올 것 같으나?"

유연주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 감정을 얼굴에 쉽게 나타내지 않았다. 때문에 서화자의 말을 듣고도 침묵만 지켰다.

위사랑은 내심 몹시 안타까워 하며 서화자를 나무랐다.

"사형은 무슨 그런 당치도 않은 말을 하세요. 무당파는 우리 곤륜파와 같은 뜻을 지니고 십 년 간 함께 적과 맞서 싸웠을 뿐 아니라, 유이협은 장부 중의 장부로 강호에 영명이 자자하며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일을 처리할 것 같으세요?"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지."

위사랑은 자기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형의 우둔함에 속이 탔다.

"사형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자꾸 무당오협을 헐뜯으니, 나중에 사부님과 장문사숙께서 문책하시면 나는 사형을 두둔하지 않을 거예요."

서화자는 그녀가 사부와 장문사숙을 들먹이자 비로소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유연주는 구제서야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이것은 천하 무림의 모든 문파방회와 관련된 일이므로 덕이 없고 무능한 불초로서는 혼자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이미 십 년 간이나 강호를 시끄럽게 만들었으니, 뒤로 조금 더 미루어 해결하다 해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초는 우선 장사제와 함께 무당으로 돌아가 은사님과 대사형께 자초지종을 아뢴 후 은사님의 뜻에 따를 생각입니다."
서화자가 비웃는 투로 말했다.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얼버무리는 유이협의 실력은 천하의 어느 누구보다 고명하시군요."
수양이 깊고 인내심이 강한 유연주였지만, 대중들 앞에서 노골적인 수모를 당하자 눈에서 신광을 발산하며 서화자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역시 강호의 명문 정파 제자인지라 곧 신광을 거두고 침착해졌다.
유연주는 신광을 회수한 후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서화도형에게 고견이 있으면 불초도 귀를 씻고 들을 테니 말씀해 보시오."
유연주의 예리한 눈빛에 이미 기가 꺾인 서화자는 더 이상 감히 오만하게 굴지 못하고 위사랑을 돌아보았다.
"사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본문의 제자 두 명의 빚을 이대로 포기할 생각은 아니겠지?"
위사랑은 미처 대답을 하기 전에, 갑자기 남쪽 해상에서 긴 호각소리가 울리며 뒤이어 곤륜파 제자 한 명이 선실로 뛰어들어와 아뢰었다.
"공동파와 아미파가 우리를 도우러 왔습니다."
서화자와 위사랑의 얼굴에 기쁨의 빛이 떠올랐다. 위사랑이 유연주에게 말했다.
"유이협, 아무래도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공동파와 아미파의 고견을 듣기로 합시다."

천응교의 이천환과 정단주, 봉단주는 서로 시선을 교환하더니 모두 얼굴빛이 조금씩 변했다.

장취산은 재빨리 생각을 굴렸다.

'아미파는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지만 공동파는 형님과 갚은 원한을 맺었다. 형님은 공동 오로에게 중상을 입히고 공동파의 칠상권보까지 탈취했으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지.'

은소소도 장취산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무기가 아까 말참견만 하지 않았어도 일을 훨씬 쉽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무기는 거짓말을 못하고 사손에 대한 정이 깊기 때문이니 이 아이를 나무랄 수가 없는 노릇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맞은 뺨이 빨갛게 부어 오른 무기를 꼭 끌어앉았다. 무기는 아직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입을 모친의 귓가에 대고 나직이 말했다.

"어머니, 의부께서 죽지 않았지요?"

은소소도 그의 귓가에 입을 가져가 조그맣게 대답했다.

"죽지 않았어. 나는 그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이들은 모두 너의 의부를 해치려 하고 있어."

무기는 그제야 영문을 알았다는 듯이 사람들의 얼굴을 차례로 노려보았다.

그는 모친에게 맞아 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일 장은 비록 어머니가 때렸지만, 실제로 눈앞의 악당들이 때린 것이나 다름 없어.....'

----- 제 2 권 2 장 끝 -----

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2 권

제 3 장 장취산(張翠山) 부자(父子)의 고초(苦楚)

아미파 공동 양파의 사람들이 선실로 들어와 유연주, 서화자, 위사랑 등과 인사를 나누었다. 공동파의 우두머리는 비쩍 말라 뼈만 앙상한 갈의노인이었으며, 아미파의 우두머리는 중년 니고(中年尼姑)였다. 그들은 천응교의 이천환등이 선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더니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서화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당삼야(唐三耶), 정허사태(靜虛師太), 무당파는 천응교와 손을 잡았소. 이번에 우리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소."

키가 작고 깡마른 갈의 노인 당문량(唐文亮)은 공동 오로 중의 한 사람이며, 중년 니고 정허사태는 아미파의 제 사대 수제자로 모두 무림에서 명망이 제법 높은 고수였다. 두 사람은 서화자의 말을 듣고 다소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정호사태는 마음이 세심하고 서화자의 평소 성격을 잘 아는지라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당문량은 눈알을 뒤집으며 유연주를 노려보았다.

"유이협, 그 말이 사실이오?"

유연주가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서화자가 또 고함을 질렀다.

"무당파는 이미 천응교와 사돈 관계를 맺었소. 장취산이 은천정의 사위가 되었지요."

당문량이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서화자를 돌아보았다.

"실종된 지 십 년이 지난 장오협이 모습을 나타냈단 말입니까?"

유연주가 장취산을 가리켰다.

"이 사람은 나의 오제 장취산이고, 이분은 공동파의 선배 고인 당문량 당삼야이시네."

서화자가 또 입을 열었다.

"장취산과 그의 마누라는 금모사왕 사손의 행방을 알고 있으면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소."

당문량은 금모사왕 사손의 이름을 듣는 순간, 눈에서 무서운 살염을발산했다.

"그는 지금 어디 있소?"

장취산이 침착한 어조로 대답했다.

"이 일은 가사께 먼저 아뢰어야 하니 말씀드리지 못하는 고충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문량은 눈에서 불이라도 뿜어낼 듯하며 고함을 질렀다.

"그 늙은 악적 사손은 지금 어디 있소? 그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겠소?"

그의 마지막 몇 마디는 거의 협박에 가까왔으며, 예의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은소소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차갑게 말을 받았다.

"보아하니 귀하는 공동파에서 나이만 몇 살 많은 인물에 불과한 것 같은데, 무슨 자격으로 장오협을 이렇게 다그칩니까? 당신이 무림지존이라도 됩니까? 아니면 무당파의 장문 장진인이라도 됩니까?"

당문량은 대노하여 열 손가락을 벌려 은소소를 덮치려 했다. 그러나 곧 무림에서의 자신의 위명을 생각하고 치미는 노기를 억지로 참으며 장취산에게 물었다.

"이분은 누굽니까?"

"불초의 부인입니다."

서화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끼어들었다.

"또한 천응교 은교주의 딸이기도 하지요. 흥! 사교의 요녀치고 사람다운 사람이 있겠소?"

백미응왕 은천정의 무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심(精深)하여, 오늘날까지 그와 실력을 겨룬 무림 고수 중 그의 십초 이

상을 받아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당문량은 면전의 젊은 부인이 은천정의 딸이라는 말을 듣자, 감히 더 이상 무례한 언동을 하지 못했다.
이때 줄곧 침묵만 지키고 있던 정허사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일의 자초지종이 어떤 것인지 유이협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일은 관련된 범위가 넓고 또 십 년이란 긴 시간 동안 끌어왔는지라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석 달 후 폐파가 무창의 황학루에 연회석을 마련하여,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각 문파방회를 모두 초청한 가운데 시비곡절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정허사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문량이 말을 받았다.
"시비곡절은 석 달 후에 거론해도 무방하지만, 사손 그 늙은 악적이 어디 숨어 있는지는 장오협이 지금 말해 주시오."
장취산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소."
당문량은 비록 못마땅했지만 무당파가 천응교와 손을 잡은 이상 섣불리 건드릴 수 없음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포권의 예를 올렸다.
"그렇다면, 석 달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서화자가 얼른 뒤따라 일어섰다.
"당삼야, 우리도 당신의 배를 타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좋을 대로 하시구려."
"사매, 우리도 돌아가지."
서화자 일행은 본래 유연주의 배를 타고 왔었는데 갑자기 공동파의 배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무당파를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뜻

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유연주는 조금도 불쾌한 내색을 하지 않고 친히 뱃머리까지 나와 전송했다.

"우리는 무당에 돌아가 사존께 아뢴 후, 여러분에게 영웅연의 청첩장을 보내겠습니다."

서화자가 막 선실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은소소가 갑자기 불러세웠다.

"서화도장에게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어요."

서화자는 밖으로 나가려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이냐?"

"도장께선 말끝마다 나를 사교 요녀라 했는데, 무슨 요녀짓을 했는지 분명히 밝히고 가세요."

"사마외도(邪魔外道)와 호미요음(狐媚妖陰)하면 그것으로 충분할 텐데, 내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고서야 명문 정파인 무당의 장오협이 너의 꾐에 빠질 리 만무하지. 흐흐흐.....!"

"알려줘서 고마와요."

서화자는 자기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그녀가 아무 대꾸를 하지 못하자 득의만면하여 선실에서 나가 공동파의 선상으로 건너가기 위해 널빤지 위에 올라섰다.

은소소는 그의 무례한 언동이 괘씸하여, 다른 사람이 공동파의 선상으로 건너갈 때 정단주와 봉단주에게 계략을 꾸며 두라고 분부해서 널빤지를 부러뜨려 서화자를 바닷물에 빠지게 했다. 순간 천응교의 선상에서 갈채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와 서화자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서화자는 위사랑의 허리춤에서 장검을 뽑아들고 덮쳐가 사생결단을 내려 했다. 그러나두 범선의 거리가 이미 꽤 멀어졌는지라,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퍼붓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은소소가 서화자를 농락하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본

유연주는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이 여자는 정말 성격이 요사하여 오제의 배필로는 적당하지 못하군.'

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다.

"수고스럽지만, 은당주와 이당주께서 은교주에게 석 달 후의 무창 황학루 연회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은 이만 작별을 고하겠습니다. 오제는 나와 함께 은사를 뵈러 가겠지?"

"네!"

은소소는 유연주가 자기 부부를 떼어놓으려는 의도를 지녔음을 알고 갑자기 표정이 침울하게 변했다. 장취산도 아내와 자식을 떼어놓고 혼자서는 무당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유연주에게 동의를 구했다.

"둘째 사형, 나는 부인과 아이를 데리고 가 먼저 은사님을 만나 그 어른의 승낙을 받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인 어른을 뵈러 갔으면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유연주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부부와 부자 간에 생이별 하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않아 고개를 끄덕였다.

"좋도록 하려무나."

은소소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며 이천환에게 당부했다.

"사숙, 수고스럽지만 아버님을 만나면 불효 여식이 수일 내로 총타에 돌아가 아버님께 문안 여쭙겠다고 전해 주세요."

"그러마, 교주님께 아뢰고 너희 두 부부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테니 가능하면 빨리 와야 한다."

그들은 서로 포권의 예를 취한 후 작별을 고했다.

장취산은 천응교 교도들이 떠나자마자 즉시 유연주에게 물었다.

"둘째 사형, 세째 사형의 상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연주는 한참 동안 허공만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장탄식을 했다.
"세째는 아직 살아 있지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네. 수족도 움직이지 못하는 폐인이 되었으니..... 유대암 유삼협이란 이름은 강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나 진배없네."
장취산은 세째 사형이 살아 있다니 다소 위안이 되긴 했지만, 영풍협골(英風俠骨)의 사형이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된 것을 생각하니 절로 눈물이 쏟아졌다.
"그를 해친 원수가 누군지 알아냈습니까?"
유연주는 장취산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갑자기 눈에서 예리한 섬광을 발산하며 은소소를 쏘아보았다.
"은 낭자는 나의 유삼제를 해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은소소는 그의 예리한 눈빛에 흠칫했다.
"유삼협의 수족 근골은 소림파의 금강지력(金剛指力)에 의해 끊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렇소. 은 낭자는 금강지력을 펼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소?"
"몰라요."
유연주는 은소소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장취산을 돌아보았다.
"오제, 소림파에서는 네가 임안부(臨安府) 용문표국(龍門標局)의 사람을 몰살하고 또 몇 명의 소림 화상까지 사살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그건.....!"
장취산이 말을 더듬거리자 은소소가 끼어들었다.
"이 일은 그와 아무 상관 없어요. 모두 내가 살해했어요."
유연주는 또 그녀를 힐끗 바라보며 눈에서 살기어린 원한의 빛을 발산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으며 다시 원래의 평온한

표정을 회복했다.

"나는 오제가 무모한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지. 이 일 때문에 소림사에서는 세 차례나 무당산으로 사람을 보내어 따졌었네. 하지만 오제가 갑자기 실종된 사실은 천하가 아는 일인지라 대질할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결론을 짓지 못했네. 당시 우리들은 소림파에서 세째를 해쳤다고 주장했고, 소림파는 오제가 그들 사람을 수십 명이나 죽였다고 고집을 부리더군. 다행히 소림파 장문인 공문대사는 사람됨이 신중하고 은사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문하 제자들이 더 이상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엄격히 단속한 탓으로 십 년 동안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네."

은소소가 가볍게 한숨을 내뿜었다.

"모두 당시 내가 어린 탓으로 철이 없어 그런 일을 저질렀으나, 지금은 무척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리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잡아떼는 도리밖에 없어요."

유연주는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장취산을 힐끔 돌아보았다.

'장오제가 어떻게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지 모르겠구나.'

은소소는 유연주가 시종 자기를 차갑게 대하고 호칭도 제수씨라 칭하지 않고 은 낭자라고만 부르므로 오래전부터 화가 치밀어 있었다.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일로 절대 당신들 무당파에 누를 끼치지 않을 테니, 소림파더러 천응교에 찾아와 따지라고 말하세요."

"강호에선 무슨 일이든지 이치를 벗어날 순 없소. 무슨 일이든 원리 원칙에 입각하여 일을 처리해야지 세력을믿고 괴롭혀선 안 되오."

은소소는 그의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남편인 장취산이 유연주에게 시종 공손히 대하는지라 남편의 사형에게 감히 무례한 행동

을 할 수 없었다.
'내게는 그런 인의도덕(仁義道德)이 먹히지 않아, 하지만 내가 대들면 남편의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에 양보하는 도리밖에 없군.'
이렇게 생각하며 그녀는 무기의 손을 잡고 선미(船尾) 쪽으로 나갔다.
"무기야, 이렇게 큰 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을 테니 내가 이 배의 구석구석을 구경시켜 주마."
은소소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진 다음에야장취산은 비로소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둘째 사형, 지난 십 년 동안 소제는....."
유년주가 손을 저어 그의 말을 제지시켰다.
"오제, 우리 두 사람의 우에는 친형제를 능가하므로, 네가 아무리 큰 사고를 저질렀다 해도 나는 너와 생사를 같이 하겠다. 그러니 네 부부의 일은 여기서 내게 말할 것이 아니라, 무당에 돌아가 은사님의 분부를 기다리기로 하자. 그래서 만약 은사님께서 질책을 하시면 우리 칠형제가 모두 꿇어앉아 그분께 사정하겠네. 아이가 이렇게 컸는데 사부님이 너희 부부와 부자를 떼어놓기야 하시겠느냐?"
장취산은 크게 기뻐하며 유연주의 손을 덥석 잡았다.
"고맙습니다. 둘째 사형."
유연주는 내유외강(內柔外剛)하여 무당칠협 중에서 제일 농담을 싫어하고 엄격한지라 사제들은 큰사형 송원교보다 오히려 그를 더 두려워했다. 그러나 사형제들에 대한 정은 누구보다 깊고 두터워, 장취산이 갑자기 실종되자 더없이 가슴 아파하며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방방곡곡 돌아다니지 않은 데가 없었다. 그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은소소가 많은 소림 제자를 사살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어도 사제 일가의

평안과 행복을 보호하리라 결심하고 있었다.
장취산이 또 물었다.
"둘째 사형, 우리가 천응교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도 소제 부부 때문입니까? 그들과 싸우는 것을 보니 소제는 무척 불안합니다."
유연주는 대답하기 전에 먼저 반문했다.
"오제, 왕반산지회(王盤山之會)는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장취산은 임안에서 심야에 용문표국에 가서 천응교가 무위(無威)를 떨치는 데 참여한 일, 그리고 금모사왕 사손이 일대 도륙을 벌이고 도룡도를 탈취한 일, 은소소와 자기가 사손에게 섬으로 끌려간 일들을 숨김없이 모두 얘기했다.
"그랬었구나. 네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복잡하게 얽힌 은밀한 일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거야."
"그렇군요. 둘째 사형, 사손은 원래 흉악무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한 것은 엄청난 참사를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제는 이미 그와 결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유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암담하기 짝이 없었다.
'이 또한 매우 골치 아픈 일이구나.'
장취산이 말을 이었다.
"나의 의형이 질러낸 한 차례 사자후(獅子吼)에 왕반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신지(神智)를 상실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죽지 않았으면 모두 백치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가 도룡도를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사손의 행위는 악랄하기 짝이 없지만 기남자(奇男子)임에는 틀림없어. 하지만, 그는 모든 일을 철저하게 처리했지만 한 사람을 잊었던 게 실수였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백구수(白龜壽)야."

"천응교의 현무단 단주 말입니까?"

"그렇네. 당시 왕반산에 있었던 사람 중 백구수의 내공이 제일 심후했지. 그는 사손의 주전(酒箭)에 맞아 기절했으며, 사손은 그 다음에 사자후를 외쳤지. 그 때 백구수가 기절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사손의 사자후를 감당해 내지 못했을 거야."

"그렇습니다. 그 무렵 백구수는 기절하여 깨어나지 않아 사손의 사자후를 듣지 못했으므로 신지를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의형은 비록 세심한 사람이지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군요."

"왕반산에서 생환한 사람 중 신지를 상실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백구수 한 명뿐일 거야. 곤륜파의 내공은 비록 독특한 점이 있지만 고칙성과 장도는공력이 심후하지 못해 그날 이후 페인이 되었지. 사람들이 그들에게 누구의 짓이냐고 물으면 장도는 고개만 저을 뿐 대답하지 않는데, 고칙성은 물을 때마다, 은소소의 이름만 되풀이했지."

유연주는 가볍게 탄식하며 말을 이었다.

"이제야 나는 그 이유를 알았네. 원래 고칙성은 제수씨를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흥! 서화자가 다음에 또 불손한 말을 함부로 지껄이면 내가 따끔한 맛을 보여 주겠어. 그의 곤륜 제자들이 행실을 단정히 하지 않고선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다니....."

"백구수가 신지를 상실하지 않았다면 그는 모든 내막을 잘 알고 있을 게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끝까지 말하려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느냐?"

장취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겠습니다. 도룡도를 탈취하려 했던 비밀을 보존하려면

왕반산의 일을 말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군요."

"오늘날의 무림 분쟁은 그 일로 인해 발생했지. 곤륜파는 은소소가 고칙성과 장도를 폐인으로 만들었다고 말했고, 우리 사형제도 네가 천응교의 독수에 죽음을 당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지."

"소제가 왕반산에 간 일은 백구수가 말했습니까?"

"아니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나와 사제(四弟), 육제(六弟)가 함께 왕반산에 답사차 갔다가 네가 철필로 산벽에 적어둔 글을 보고 알았지. 우리 세 사람은 왕반산에서의 너의 행적을 찾지 못해 백구수에게 물어 보려고 갔었다. 하지만 불손한 언동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고 나의 일장에 그는 부상을 당했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곤륜파에서도 백구수를 찾아갔으나, 오히려 천응교 교도에게 두명이 살해되었어. 그 때부터 십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쌍방의 원한은 점점 깊어졌어."

"소제 부부 때문에 무림의 각 문파 제자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다니, 무림 동도들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소제는 은사님을 뵌 후 각 문파를 찾아가 그 간의 오해를 해명하고 기꺼이 죄의 댓가를 받겠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우연히 발생한 것이므로 너를 탓할 수 없다. 그날 나와 칠제(七弟)는 사부님의 분부를 받아 용문표국을 보호하기 위해 임안으로 떠났지만, 강서(江西)에서 한 가지 불의한 일을 목격하여 십여 명의 무고한 생명을 구하느라 며칠간 늦었지. 우리가 임안에 도착해 보니 용문표국의 사건은 이미 발생했더군. 그리고 너희들 부부 두 사람 때문에 발생한 문제도 곤륜파 무당파, 천응교 간의 분쟁일 뿐 타파와는 관계가 없어. 그러나 천응교는 도룡도를 탈취할 목적으로 사손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않아, 거경방, 해사파, 신권문 등의 방화문파는 방주와 장문인의 피맺힌 원한을 천응교에게 씻으려 했고, 결국 천응교는 각 방화문파의 표적이 되었지."

"도룡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하지도 않는데, 나의 장인께선 왜 그렇게 차지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의 장인 어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가 천응교 교도들을 인솔하여 천하 군웅들과 맞서 싸우는 박력과 기개에는 탄복하고 있지."

"소림, 아미, 공동 등의 문파는 왕반산지회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그들도 천응교와 원한을 맺게 되었습니까?"

"그건 너의 의형 사손 때문이지. 천응교는 도룡도를 획득하기 위해 수십 차례나 배를 타고 각처의 섬을 돌아다니며 사손의 행방을 수소문했지. 속담에 종이는 불을 싸지 못한다고, 백구수의 입이 제아무리 무거워도 이 소식은 결국 누설되고 말았지. 지난날 너의 의형이 혼원벽력수 성곤이라 행세하며 주로 남북에서 삼십여 차례나 사건을 일으켰으며, 각문각파의 고수들이 그의 손에 수없이 살해된 일을 너도 알고 있느냐?"

장취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긴 탄식을 했다.

"무림 군웅들은 그것이 그의 소행임을 결국 알아냈군요."

"그는 매번 살인을 할 때마다 벽에 혼원벽력수 성곤이라는 이름을 남겼었지. 당시 우리는 사명(師命)을 받아 사건을 조사했지만 진짜 흉수가 누군지 알아내지 못했으며, 성곤도 끝까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지. 그러나 천응교가 사손의 행방을 알아냈다는 소문이 퍼지자 각문각파의 지모(智謀)가 뛰어난 사람들은, 사손이 본래는 성곤의 유일한 제자였던 사실과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들 두 사제가 원수로 변한 사실을 생각해 내고 성곤의 이름을 빌어 살인을 자행하는 사람은 사손일 가능성이 많다고 단정지었지. 사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네. 소림파의 공견대사까지 그의 손에 살해되었으니 그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의 의형은 비록 이미 개과천선했지만, 양손에 그렇게 많은

피를 묻혔으니..... 둘째 사형, 이 일은 소제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사형제는 너 때문에 천응교를 찾아갔고, 곤륜파는 고칙성과 장도 때문에 천응교를 찾아갔지. 그리고 거경방 등은 그들의 방주가 참살당한 복수를 하기 위해 천응교를 찾아갔고, 소림파를 비롯한 흑백양도의 많은 인물들은 사손의 행방을 알려고 천응교를 찾아갔었다. 그 동안 쌍방의 조그만 싸움은 헤아릴 수도 없고 큰 싸움만도 다섯 번이나 치루었어. 천응교는 비록 매번 싸울 때마다 열세에 몰렸지만, 너의 장인 어른은 군웅들의 포위 공격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버텼으니 대단한 인물이라 아니할 수 없지. 물론 소림, 무당, 아미 등 명문 정파는 사건의 진상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천응교가 진짜 흉수가 아닌 것 같기에 싸울 때마다 상대방에게 후퇴할 여지를 남겨 주었지만, 일반 강호 인물들은 인정사정없이 처음부터 살수를 펼치지. 이번에도 우리는 천응교의 천시당 이당주가 배를 타고 사손의 행방을 찾아나선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몰래 그들을 미행했던 거야. 그러나 이당주가 그것을 눈치채고 따라오지 못하게 하여 곤륜파와 싸움이 벌어진 거지. 만약 너희들 부부의 뗏목이 그 때 나타나지 않았다면, 쌍방의 고수가 또 얼마나 희생되었을지 모르지."

장취산은 십 년 사이에 유연주의 모습이 많이 늙었음을 발견하고 콧잔등이 시큰해졌다.

"둘째 사형, 그 동안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군요. 소제는 구사일생하여 사형을 다시 만나 뵐 수 있게는 되었지만....."

유연주는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음을 보고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무당칠협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더없이 기쁜일이야. 세째가 부상을 당하고 또 내가 실종되고부터 강호상에선 우리를 무당오협이라 바꾸어 불렀는데, 오늘부터 칠협이 다시 위명을 떨

치게 되었으니....."

여기까지 말한 그는 유대암을 생각했다. 비록 칠협이 한 자리에 모였지만, 지난날처럼 함께 강호를 행협(行俠)할 수 없음을 생각하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일행은 십수일의 항해 끝에 양자강 입구에 도착하여 배를 바꾸어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장취산 부부가 남루한 가죽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니, 준수하고 아름다운 용모는 십 년 전에 비해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다. 무기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머리를 땋아 붉은 천으로 묶어주니 더 없이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유연주는 무기를 장취산보다 더 귀여워했다. 다만 그는 성격이 엄숙하고 말수가 적어 겉으로 차갑게 보일 뿐이었다. 무기는 황량한 섬에서 태어나 그곳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육지의 사물은 무엇이든 신기하게 느껴졌다. 유연주는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고 그와 함께 뱃머리에 앉아 강변의 풍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날 저녁 무렵, 배는 안위(安衛) 동릉(銅陵)의 동관산(銅官山) 기슭의 조그만 마을에 정박했다. 선주는 술과 고기를 사기 위해 뭍으로 올라가고 장취산 부부와 유연주는 선실에서 차를 마시며 한담을 나누고 있었다.

뱃머리에서 혼자 놀던 무기는, 강변에서 웬 늙은 거지가 땅바닥에 앉아 뱀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거지는 목에 청사(靑蛇)를 한 마리 감고 손으로는 검은 바탕에 흰 점이 박힌 흑사(黑蛇)를 다루고 있었다. 흑사는 거지의 머리 위로 올라가 또아리를 트는가하면 다시 등을 타고 내려와 혀를 날름거리며 허리를 감기도 했다. 무기는 빙화도에서 뱀을 본 적이 없는지라 넋을 잃고 구경했다. 늙은 거지는 그를 보더니 빙긋이 웃으며 손가락을 가볍게 튕겼다. 그러자 뱀은 공궁으로 치솟아 허공에서 두어 바퀴 회전한 다음 아래로 떨어져 늙은 거지의 목과 가슴을 칭칭 감았

다. 무기는 뱀의 묘기에 도취되어 그것에만 온정신을 집중시켰다.

늙은 거지가 그에게 손짓을 하고 또 뱀을 가리켰다. 그것은 무기가 강변으로 내려오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을 보여 주겠다는 뜻이었다. 천진난만한 무기는 크게 기뻐하며 널빤지를 밟고 강변으로 내려갔다. 늙은 거지는 무기가 가까이 오자 등에서 포대를 하나 꺼내더니 주둥이를 벌리며 말했다.

"이 속에 재미있는 물건이 많으니 이리 와 보아라."

"무슨 물건인데요?"

무기가 고개를 내밀고 포대안을 살폈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똑똑히 보려고 목을 더 길게 뺐다. 이때 늙은 거지는 번개처럼 포대로 무기의 머리를 뒤집어씌웠다.

"악!"

무기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자 늙은 거지는 잽싸게 손으로 그의 입을 틀어막고 번쩍 들어올렸다.

무기의 비명은 포대 속에서 지른 것이기 때문에 소리가 작았다. 하지만 유연주와 장취산은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선실에 있으면서도 그 비명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갑판 위로 달려나갔다. 무기가 늙은 거지에게 붙잡힌 것을 보고 두 사람은 막 몸을 솟구쳐 강변으로 날아가려 한 순간, 늙은 거지가 날카롭게 외쳤다.

"이 아이의 목숨을 보존하고 싶으면 꼼짝하지 마시오!"

하고 무기의 등 뒤 옷을 찢더니, 뱀머리를 그의 배심(背心)에 갖다 댔다.

이때 은소소도 갑판으로 뛰어나와 아들이 잡혀 있는 것을 보고 다급한 나머지 멀리서 은침을 던지려 했다. 유연주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며 급히 제지시켰다.

"안 됩니다!"

유연주는 감히 경거망동하지 못하고 짙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귀하가 이 어린 아이를 붙잡아 위협하는 저의가 뭐요?"

"선주에게 닻을 올리고 배를 강변에서 육 장(六丈) 가량 떨어지게 하라고 하시오. 그런 다음 나의 목적을 말해 주겠소."

유연주는 배를 강변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면 무기를 구출하기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기가 상대방의 손에 붙잡혀 있는지라 상대방의 요구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닻줄을 잡아 팔을 가볍게 떨쳤다. 순간, 무게가 오 십 근이 넘는 닻은 마치 무 뽑히듯 수면 위로 끌려 올라왔다.

늙은 거지는 유연주의 심후한 공력을 보더니 두려움으로 얼굴빛이 약간 변했다. 이어 장취산이 대나무 장대로 배를 강물중앙으로 밀었다.

"좀더 멀리 떨어지시오."

"당신이 강변에서 육 장 가량만 떨어지라고 하지 않았소?"

"유이협이 닻을 끌어올리는 무공을 보니, 육 장 정도의 거리로도 불초는 마음을 놓을 수 없소."

장취산은 하는 수 없이 배를 강물 중앙으로 몇 장 더 물렸다.

유연주가 포권의 예를 올리며 물었다.

"귀하의 존성대명(尊姓大名)은 무엇이요?"

"불초는 개방의 무명 소졸이므로, 이름을 밝혀 유이협의 귀가 더러워질 것이 염려되는구료."

유연주가 자세히 살펴보니 늙은 거지의 찢어진 옷자락에 여섯 개의 매듭이 묶여져 있었다.

'이 사람은 개방의 육결제자(六結弟子)이구나. 육결제자라면 매우 높은 신분인데 어째서 이런 비열한 짓을 하지? 하물며 개방은 협의(俠義)만 행하며 방주 사화룡(史火龍)은 장부 중의 장부인데,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굴리고 있을 때 은소소가 갑자기 외쳤다.

"동천(東川)의 무산방(巫山幇)이 개방에 합병되었나요? 내가 알기에 개방에는 귀하 같은 인물이 없는데....."

늙은 거지가 깜짝 놀라며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은소소가 말을 이었다.

"하노삼(賀老三),당신은 지금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게 하는 날이면, 나는 당신들의 매석견(梅石堅)을 폐허로 만들어 버릴 테니 내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늙은 거지는 재차 깜짝 놀라며 얼굴빛이 크게 변했다.

"나 하노삼을 첫눈에 알아보다니 은 낭자의 안력(眼力)은 과연 대단하군요. 사실 불초는 매방주(梅幇主)의 심부름으로 아드님을 모시려 왔습니다."

은소소가 주먹을 불끈 쥐며 노성을 질렀다.

"빨리 독사를 치우세요! 일개 조그만 방회에 불과한 무산방이 겁도 없이 천응교에 시비를 걸어오다니....."

"은 낭자께서 한 마디만 대답해 주시면 나 하노삼은 당장 아드님을 되돌려 드릴 뿐 아니라, 수일 내로 매방주께서 친히 방문하여 오늘의 무례함을 사죄드릴 것입니다."

"나더러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매방주의 독자가 사손의 손에 살해된 사실은 은 낭자도 오래 전에 소문을 들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매 방주께서 장오협과 은 낭자.....아니 장부인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악적 사손의 행방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은소소는 눈썹을 치켜뜨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우린 몰라요."

"그렇다면 두 분에게 그 악적의 행방을 수소문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길밖에 없군요. 물론 그 동안 아드님은 우리가 잘 돌볼 테

니, 사손의 행방을 알아내는 대로 연락을 주십시오."
 은소소는 독사의 예리한 이빨이 사랑하는 아들의 배심에서 한 치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음을 보고, 빙화도의 위치를 말할까 하다 남편을 돌아보았다. 그는 얼굴에 굳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장취산과 십 년간 부부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무엇보다 의리를 중시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만약 자식을 구하고자 하는마음에 사손의 행방을 말하여 사손이 죽음을 당하면, 부부관계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았다. 은소소는 입 밖으로 나오려던 말을 다시 꿀꺽 삼켰다.
 장취산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장부로 태어나 어떻게 친구를 배반할 수 있겠소. 단신은 우리 무당칠협을 너무 과소 평가했소. 내 아들을 데려 가려면 마음대로 데려 가시오."
 하노삼은 무기만 인질로 붙잡으면 장취산 부부가 사손의 행방을 말하지 않고 못 배길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의외로 장취산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하더니, 가까스로 유연주에게 시선을 돌렸다.
 "유이협, 사손이 백 번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유이협도 잘 알고 계실 테니 당신이 두 분을 타일러 주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는 무당에 돌아가 은사께 아뢴 후, 그 분의 뜻에 따라 처리할 생각이오. 무창 황학루의 영웅연에 귀방 방주와 귀하도 참석하시면, 그 때 시비곡절을 분명히 밝힐 태니, 이제 그 아이를 내려놓으시오."
 유연주는 강변에서 칠 장이나 떨어진 거리에서 진기(眞氣)도 운기하지않고 말했는데, 하노삼의 귀에는 이마를 맞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똑히 들렸다.
 '무당칠협이 천하에 위명을 떨친 것은 역시 허풍이 아니었구나. 이번에 우리 무산방이 무당파와 천응교에게 어떤 일을 저지

른 것은 큰 불찰인지는 모르겠으나, 방주의 독자가 살해된 원한을 복수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여기까지 생각한 하노삼은 허리를 굽혔다.

"그렇다면 소인은 죄가 되는 줄 알지만, 아드님을 동천으로 모셔가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은소소가 갑자기 뱃머리에 서 있는 한 선원의 등을 밀치고 발길로 다른 한 명을 걷어찼다. 두 선원은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을 당하자 비명을 지르며 물 속으로 떨어졌다.

이어 은소소가 고함을 질렀다.

"아얏! 여보, 왜 나를 때리세요?"

하고 뱃머리에서 이리저리 뛰며 난동을 부렸다. 유연주와 장취산은 그녀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몰라, 한동안 어리둥절했다. 강변의 하노삼 역시 무슨 일인지 몰라 곤혹스러운 눈빛으로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나 유연주는 곧 은소소의 의도를 깨닫고, 하노삼이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장검을 뽑아 힘껏 던졌다. 한차례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유연주가 던진 장검은 칠리성 독사의 목을 베었을 뿐 아니라 독사를 쥐고 있던 하노삼의 손가락 네 개까지 싹뚝 잘라 버렸다. 유연주가 장검을 던지는 순간, 장취산은 바닥을 힘껏 굴러 강변의 허공에 떠올라 왼손을 뻗어 하노삼을 삼 장 밖으로 날려보내고, 오른손으로는 무기를 붙잡아, 품 속에 안았다. 등에 일 장을 가격당한 하노삼은 땅바닥에 쓰러진 채 일어나질 못했다.

강변으로 헤엄쳐 나간 두 명의 선원은 은소소가 왜 격노했는지 이유를 몰라 감히 배로 돌아가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다.

은소소가 웃음을 가득 머금으며 그들을 불렀다.

"두 분께선 두려워 말고 이리로 올라오세요. 방금 무례를 범한 죄의 보상을 두 분께 은자 한 냥씩 드리겠어요."

그들의 탄 배는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이날 따라 바람이 맞은 편에서 불어 속도는 거북이 걸음보다 느렸다. 장취산은 사부를 비롯한 사형제들과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안경(安慶)에 도착한 후 육로(陸路)를 이용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유연주는 그의 의견에 반대했다.

"오제, 배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 물론 시간상으로는 며칠이 더 걸리겠지만, 선실에 앉아 있으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 있지. 지금 강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네 의형의 행방을 찾기 위해....."

은소소가 얼른 말을 가로챘다.

"우리가 둘째 사형과 동행하는데도 감히 길을 가로막는 자가 있단 말인가요?"

"우리 사형제 일곱 사람이 연합한다면 아무도 우리를 당해 내지 못하겠지만, 나와 오제 두 사람만으로는 끊임없이 몰려오는 고수들을 당해 내기 어렵소. 그리고 이 일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 쓸데없이 강호인들과 원한을 맺을 필요가 없지요."

장취산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드디어 호북성(湖北省)의 무혈(武穴)에 들어섰다. 이날 저녁 무렵, 부지구(富池口)에 도착하여 밤을 지내기 위해 강변의 부두에 정박했다. 유연주는 갑작스러운 말발굽소리를 듣고 창문을 통해 강변을 내다보았다. 두 필의 말이 짙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쪽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마상의 인물은 등만 보였지만 옷차림과 날렵한 행동으로 보아 무림인이 분명한 것 같았다. 유연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장취산을 돌아보았다.

"여기 머물었다간 시비가 벌어질 것 같으니, 저녁 식사를 끝내는 대로 떠나는 게 좋겠다."

최근 들어 유연주의 위명은 더욱 자자해져 곤륜과 공동등 명문 정파 장문인의 명성도 그를 따르지 못했다. 그런 그가 두 무명 소졸의 뒷모습을 보고 부지구에 오래 머물지 않으려고 한 것은, 모두 사제 장취산 일가족 세 식구를 위해서였다.

이날 밤따라 달이 유난히 밝고 바람도 잔잔했다. 무기가 잠이 들자 유연주와 장취산 부부는 뱃머리에 앉아 달구경을 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장취산이 감개무량한 어조로 먼저 입을 열었다.

"은사님의 백 주년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제가 참석할 수 있음을 생각하니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은소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다.

"그렇지만, 상황이 급박하여 그 어른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으니 어쩌죠?"

유연주가 은소소를 돌아보며 물었다.

"제수씨는 우리 은사님이 일곱 명의 제자 중 누굴 제일 좋아하시는지 압니까?"

"그야 물론 무당파의 명성을 위해 헌신하신 둘째 아주버님이겠지요."

"제수씨는 알고 있으면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는군요. 사부님께서 항상 마음에 두고 계시는 제자는 바로 영준하기 짝이 없는 제수씨의 부군입니다."

은소소는 날아갈 듯이 기뻤지만 장취산은 너무 감격한 나머지 눈시울이 촉촉하게 젖었다.

"그러나 이제 오제가 무사히 돌아왔으니 은사님의 생일 선물치고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말했을 때 갑자기 강변 쪽에서 말발굽소리가 들려왔다. 깊은 야밤에 네 필의 말이 질주해 오는 것은 십중팔구 그들 세 사람과 관련이 있음이 분명했다. 그들은 말발굽소리를 개의하

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번에 내가 하산할 때은사님께선 폐관청수(閉關청修) 중이셨는데, 우리가 도착할 무렵에는 그 어른께서 폐관청수를 끝냈으면 좋으련만....."

은소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다.

"가친께서 식년에 내게 말씀하시길, 일생 중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두 분뿐인데, 한 분은 이미 작고하신 명교(明敎)의 양교주(陽敎主)이고, 다른 한 분은 영사이신 장진인이라 했어요. 소림사의 견문지성(見聞智性) 사대고승(四大高僧)까지도 가친께선 별로 존경하지 않았어요. 장진인은 올해 백세 고령으로 수양이 깊으심은 당대에선 필적할 사람이 없을 텐데 아직도 폐관을 하신다니, 혹시 장생불로지술(長生不老之術)을 수련하시는 게 아니세요?"

"아닙니다. 은사께서는 무공을 연구 중이십니다."

은소소가 다소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 어른의 무공은 이미 가늠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을 텐데, 또 무슨 무공을 연구하신다는 거예요? 당금 무림에 그 어른의 적수라도 있단 말인가요?"

"은사께선 아흔 다섯 살 때부터 매년 구 개월 씩 폐관하셨습니다. 그 어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무당파의 무공은 대부분 구양진경(九陽眞經)에서 얻은 것이라더군요. 그러나 은사님이 각원조사(覺遠祖師)에게서 진경을 전수받을 때는 나이가 너무 어려 무공을 전혀 모른 탓도 있지만, 각원조사 또한 꼭 전수하겠다는 마음도 없어 그저 마음내킬 때만 조금씩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의 본문 무공에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원조사께선 구양진경이 달마노조(達摩老祖)때부터 물려내려온 것이라 했지만, 은사께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의 첫째는, 진경에 기록된 비기(秘技)가 소림파 무공과는 크게 다르며 오히려

중원의 도가무학(道家武學)에 가깝고, 둘째, 구양진경은 범문(梵文)이 아니고 중국 문자가 범문으로 된 약가경의 행간에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달마노조께서 아무리 선리(禪理)를 참오(參悟)하시고 무학이 깊으시다 하지만, 천축(天竺)에서 오신 분이므로 중국 문자는 정통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오한 무경(武經)을 저술하시려면, 깨달은 깨끗한 종이에 기록하지 않고 약가경의 행간에 적었겠습니까?"

장취산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은사님께선 구양진경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추측하고 계십니까?"

"은사님께서도 정확하게는 단정지으시지 못하고,어쩌면 소림파 후세의 어떤 고승께서 지으시고 달마노조께서 만드신 것처럼 꾸몄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은사님께서는 구양진경에 기록된 무학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당신더러 보충하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하시고 새로운 무학을 창조해 내기 위해 매년 폐관하시는 거란다."

장취산과 은소소는 이 말을 듣고 사부님의 지칠 줄 모르는 노익장과 탐구 정신에 숙연히 고개가 숙여졌다.

"당시 각원조사에게서 구양진경을 전수받은 사람은 모두 세 분이었지. 한 분은 은사님이고 한 분은 소림파의 무색대사이며, 또 한 분 은 여잔데, 바로 아미파의 창파조사(創波祖師) 곽양 곽여협이다."

은소소가 눈썹을 약간 치켜올렸다.

"지난날 가친께 들은 말인데, 곽대협은 쟁쟁한 가문에서 태어난 인물로 부친은 곽정(郭靖) 곽대협이고 모친은 개방의 황방주 황용(黃蓉)인데, 두 분 모두 당시 양양성이 함락될 때 함께 순직하셨다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은사님께선 오래 전 화산 절정에서 곽대협

부부를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들 두 분의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인풍협골(仁風俠骨)을 무예를 연마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귀감으로 삼고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연주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말을 이었다.

"당시 구양진경을 전수받은 세 분은 오성(悟性)이 제각기 다르고, 무학의 기초도 많은 차이가 있었지. 무공은 무색대사가 제일 고강했고, 곽여협은 곽대협과 황방주의 따님인지라 배운 것이 제일 많았으며, 은사님께서는 무공 기초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은사님은 제일 정순(精純)한 무공을 배울 수 있었지. 그 결과 소림, 아미, 무당 삼파 중 하나는 무공의 고강함을, 하나는 무공의 광범위함을, 하나는 무공의 정순함을 물려받아 제각기 장점을 하나씩 지니게 되었지만 또한 제각기 단점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

"그렇다면, 각원조사의 무공은 천하에 적수가 없을 정도로 고절했겠군요."

"아닙니다. 각원조사께선 무공을 못했습니다. 그 어른은 소림사 장경각에서 장경을 감독하는 동안 읽지 않은 경서(經書)가 없고 달달 외지 못하는 경서가 없었습니다. 그 어른께선 우연한 기회에 구양진경을 발견하여 마치 금당경, 법화경을 익히듯이 머리 속에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재된 정심박대(精深博大)한 무학은 그 어른도 깨닫기는 했지만, 익힌 것은 내공뿐이며 무술은 조금도 못했습니다."

이어 유연주는 구양진경을 분실하게 된 경위를 은소소에게 자세히 들려 주었다.

은소소는 크게 흥미를 느끼며 물었다.

"이제 보니 아미파의 사조와 무당파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었군요. 그렇다면, 곽양 곽여협은 왜 장진인과 결합하지 않았지요?"

장취산이 웃으며 은소소를 꾸짖었다.

"은사님은 곽여협과 소실산 아래에서 헤어진 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은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곽여협이 마음 속에 두고 있는 사람은 양양성 밖에서 비석(碑石)을 던져 몽고군을 때려 죽인 신조대협(神조大俠) 양과(楊過)입니다. 곽여협은 방방곡곡을 샅샅이 뒤져도 양대협을 찾지 못하자 마흔 살에 출가하여 니고(尼姑)가 되었으며, 그 후 아미파를 창설했지요."

은소소는 곽양의 오직 한 사람에게만 향한 진실된 마음에 존경과 함께 연민을 느끼며 장취산을 힐끔 돌아보았다. 장취산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연주는 은소소와 십여 일을 함께 지내는 동안, 그녀의 본성은 나쁘지 않음을 발견했다. 그래서 유연주는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의 좋지 않던 인상이 점차 사라지고, 그녀의 솔직하고 진심된 마음은 명문 정파의 위선을 가장한 몇몇 인사들보다 훨씬 뛰어났음을 알았다.

이때 동쪽 강변에서 또 말발굽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가 싶더니, 그들이 탄 배 앞을 지나 서쪽으로 질주했다. 장취산은 말발굽소리엔 개의하지 않고 유연주를 바라보며 말했다.

"둘째 사형, 은사님께서 소림과 아미 양파의 고수들을 초빙하여 함께 연구 토론하면, 삼 파의 무공이 모두 진보할 게 아닙니까?"

유연주는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탁 쳤다.

"그렇구나! 사부님께서 바로 네가 앞으로 그 어른의 의발을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은사님께선 소제가 곁에 있지 않아 보고 싶어 그런 말씀을 하신 것뿐입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곁에서 효성을 다하는 자식보다 오랫 동안 집을 떠나 멀리 있는 아들을 더 보고 싶어하는 이치와 똑같은 것이지요. 사실 지금의 소제는 모든 면에서 큰 사형, 둘

째 사형, 네째 사형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섯째, 일곱째 사제보다 훨씬 못합니다."
유연주가 고개를 설래설래 저었다.
"그렇지 않아. 무공만 논할 것 같으면 네가 나를 따르지 못하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은사님의 의발전인은 무학을 널리 발전 보급시키는 막중한 임무를 짊어져야 해. 때때로 은사님께선 혼잣말로 천하는 끝없이 넓으니, 무당일파의 영욕(榮辱)은 마음에 둘 바 아니지만 정인군자의 무공은 사악한 소인배가 평생을 공부해도 익히지 못하므로 신중을 기해 의발전인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셨어, 그러므로 은사님의 의발전인은 심술(心術)과 오성(悟性)을 두루 갖춘 사람이라야 되지. 심술면에 있어선 우리 칠형제가 모두 비슷하지만, 오성면을 말하자면 네가 제일이라고 은사님께서 말씀하셨지."
"그건 은사님께서 소제를 너무 보고 싶어한 나머지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설사 은사님께서 정말 그런 뜻을 지니고 계신다 해도 소제는 감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유연주가 빙긋이 웃으며 은소소에게 화제를 바꾸어 말했다.
"제수씨는 사셔서 무기가 놀라지 않게 보호하십시오. 바깥일은 나와 오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은소소가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아 망설이고 있을 때 유연주가 또 입을 열었다.
"강변의 관목과 갈대밭 속에서 도광이 번뜩이는 것으로 보아, 적이 매복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사방은 쥐죽은 듯이 조용하기만 했다.
유연주는 술을 한 잔 들이킨 후, 어두운 허공을 향해 낭랑한 목소리로 외쳤다.
"무당산의 유이(兪二)와 장오(張五)가 당신들의 구역을 지나면서 인사를 드리지 못해 미안하오. 어느 분이든지 흥미가 있으면

이리로 올라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 어떻겠소?"

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전면의 갈대밭 속에서 물을 가르는 소리가 일며, 여섯 척의 소선(小船)이 강물 중앙으로 나와 한 줄로 배열했다. 이어 한 척의 소선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일으키며 향전(響箭)을 발사하자 남쪽 강변의 관목 속에서 십여 명의 장한들이 나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흑의를 입고 손에는 병장기를 들었으며 얼굴은 흑건으로 복면을 하고 있었다.

은소소는 적이 모습을 나타내자 유연주의 예리한 이목(耳目)에 감탄하며 급히 선실로 들어가 보니 무기도 놀라 깨어 있었다. 그녀는 무기에게 옷을 입히며 나직이 말했다.

"무기야, 조금도 무서워할 것 없다."

이때 유연주가 또 고함을 질렀다.

"전면의 친구 중 어느 분이 우두머리요?"

그러나 여섯 척의 소선에선 각각 한 명씩 선미에서 노만 젓고 있을 뿐, 아무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답변하는 사람도 없었다.

'아차! 하마터면 큰일날 뻔했군.'

유연주는 갑자기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물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헤엄을 물고기보다 잘 쳤다. 물 속에 잠수하여 살펴보니 네 명의 장한이 각각 손에 뾰족한 창을 쥔 채 이쪽으로 헤엄쳐 오고 있었다. 그들은 배 밑창에 구멍을 뚫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생포할 의도인 것 같았다.

유연주는 배 옆에 몸을 바짝 붙인 채그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연달아 손가락을 튕겨 두 사람의 혈도를 제압하고, 세 번째 사람은 발길질로 허리의 지실혈(志室穴)을 찍었다. 네 번째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도주하려 하자 유연주는 왼손으로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아 배 위로 던졌다. 이어 그는 혈도를 찍힌 세 사람을 그대로 두면 익사할 것 같아 한 명씩 붙잡아 배 위

로 던진 후 자기도 뒤따라 올라갔다.

맨 먼저 배 위로 던져진 장한은 갑판 위에서 몇 바퀴 뒹굴더니 벌떡 일어나 창끝으로 장취산의 가슴을 찔러왔다. 장취산은 상대방의 무공이 평범한 것을 보고 피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갑자기 왼손을 뻗어 상대방의 손목을 붙잡아 당기며 오른팔 팔꿈치로 그의 앞가슴 혈도를 가격하자, 그 장한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고꾸라졌다.

유연주가 장취산에게 나직이 말했다.

"강변에는 고수가 몇 명 있는 모양이다. 우리가 취할 도리는 다 했으니 상관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가자."

장취산은 고개를 끄덕이고 선주에게 계속 노를 저으라고 분부했다. 여섯 척의 소선 가까이 접근했을 때, 유연주는 네 장한의 혈도를 풀어 준 다음, 한 명씩 소선 위로 던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상대방 소선에선 여전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강변의 흑의인 십여 명도 마치 벙어리가 된 것처럼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유연주 일행이 탄 배가 여섯 척의 소선 옆을 막 지나치려 할 때, 그 중 노를 젓던 한 명이 오른손을 휘젓자 요란한 폭음이 울리며 나무 조각이 사방으로 날았다. 유연주가 고개를 돌려 보니, 이미 선미의 선타(船舵)가 산산조각나고 선체는 방향을 잃어 강물 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그 장한이 던진 것은 어부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어포(漁泡)였으나, 화약을 많이 넣어 특별히 제작했기 때문에 위력이 매우 강했던 것이다.

유연주는 아무 내색을 하지 않고 가볍게 몸을 솟구쳐 상대방의 소선에 내려섰다. 그 소선의 장한은 앞을 바라보며 노만 저을 뿐, 이쪽으로 건너 온 유연주를 본 체도 하지 않았다.

"어포를 던진 자가 누구요?"

유연주가 고함을 질렀지만 그 장한은 여전히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유연주가 선실로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두 명의 장한이 마주 보며 앉아 있었다. 그들 역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적을 상대할 태도도 취하지 않았다. 유연주는 그 중 한 명의 뒷덜미를 잡아 들어올리며 고함을 질렀다.

"당신들의 두목은 어디 있소?"

그 장한은 대답대신 눈을 감아 버렸다. 유연주는 무림의 일류 고수 신분으로 그들에게 무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 그 장한을 바닥에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어느새 장취산과 은소소도 무기를 안고 소선으로 건너와 있었다.

유연주가 상대방의 손에서 노를 빼앗아 상류를 향해 저어나가려 할 때, 은소소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악적들이 배 밑창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배 밑바닥에서 강물이 솟아올랐다. 유연주가 옆의 소선으로 건너가 보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다.

"오제, 우리들이 뭍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그들도 포위하지 않을 모양인, 그렇다면 올라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세."

세 사람은 무기를 안고 뭍으로 뛰어올라갔다.

강변에는 복면을 한 십여 명의 장한이 반원형으로 그들 네 사람을 포위했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병장기는 대부분 장검이었으나 쌍도(雙刀)와 연편(軟鞭)을 든 사람도 몇 명 있었다.

유연주는 팔짱을 끼고 선 채 복면의 흑의 장한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둘러보기만 했을 뿐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 중 한 명이 손짓을 하자 그들은 양옆으로 갈라지더니 병장기 끝을 아래를 향하게 한 채, 포권의 예를 올리며 길을 터주었다. 유연주도 포권의 답례를 하고 그들 앞을 지나갔다. 그들은 유연주가 지나가자 다시 길을 막고 장취산등 세 사람을 포위하더니 일제히 병장기를 들어올렸다.

장취산이 이 광경을 보고 앙천광소를 터뜨렸다.

"이제 보니 당신들은 이 장취산을 영접하러 왔군요. 하지만 나는 결코 당신들의 이런 진세(陳勢)를 두려워할 졸부가 아니오."

중앙에 있던흑의인이 잠시 주저하더니 검끝을 아래로 내리며 다시 길을 터주었다.

장취산이 은소소에게 나직이 말했다.

"여보, 당신이 먼저 가시오."

은소소가 무기를 안고 막 그들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세차게 울리며 다섯 자루의 장검이 일제히 무기를 겨냥했다. 은소소가 깜짝 놀라며 황급히 뒤로 물러섰으나, 다섯 명의 흑의인이 따라와 여전히 검끝으로 무기의 전신요혈을 겨냥했다. 이 광경을 본 유연주가 발끝으로 땅을 굴러 그들의 머리 위를 뛰어넘어 포위망 안으로 날아들어와 양손을 번개같이 휘둘렀다. 그러자 무기를 겨냥하고 있던 다섯 자루 장검 중 네 자루가 허공으로 날아갔다. 그의 동작이 얼마나 빨랐던지 장검 네 자루가 마치 동시에 날아가는 것 같았다. 이어 그는 왼손을 뒤집어 금나술(檎拿術)로 다섯 번째 사람의 장검을 쥔 손목을 움켜쥐며 중지(中指)로 그 사람의 손목 혈도를 찍었다.

다섯 명이 장검을 놓치고 뒤로 물러서자, 달빛 아래에 섬광이 번뜩이며 또 두 자루의 장검이 다가왔다. 그들은 검날을 눕혀 좌우를 향하게 하여 똑같이 대막평사(大漠平沙) 초식을 펼쳤지만, 검세가 예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람을 해칠 뜻은 없는 것 같았다.

'곤륜검법! 이제 보니 이들은 곤륜파 제자였구나.'

유연주는 이렇게 생각을 굴리며 검 끝이 가슴 앞 세 치 거리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가슴을 안으로 오므리고 양팔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좌우 양손의 식지로 동시에 두 자루 장검의 검면(劍面)을 찍었다. 그 순간, 검면에서 한 줄기 유연한 경기(經氣)가 발출하

여 그의 지력(指力)을 절반이나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상대방은 장검을 놓치지도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국 그의 지력을 감당해 내지 못하고 세 걸음이나 후퇴하더니 한 명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또 한 명은 비명을 지르며 입에서 선혈을 한모금 토해 냈다. 그 비명소리는 밝고 부드러운 여자의 음성이었다. 중앙의 그 흑의인이 왼손으로 신호를 하자, 십여 명의 흑의인은 눈 깜짝할 사이에 관목 속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러나 그들의 몸매가 하나같이 가냘픈 것으로 보아 남장을 한 여자들임이 분명했다. 유연주가 낭랑한 목소리로 외쳤다.

"유이, 장오 두 사형제는 기회가 있으면 철금선생(鐵琴先生)을 친히 찾아 뵙고, 오늘의 무례함을 시죄드린다고 전해 주시오!"

흑의인들은 대답대신 가볍게 웃기만 했는데, 그 또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은소소는 무기를 땅에 내려놓고 손을 꼭 쥐었다.

"그들은 대부분 여자였어요. 아주버님, 그녀들은 모두 곤륜파 제자인가요?"

"아닙니다. 아미파 제자들입니다."

"아미파 제자라구요? 그런데 아주버님께선 왜 철금선생을 찾아 뵙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시종일관 소리를 내지 않고 또 얼굴을 흑건으로 가린 것은 정체를 밝히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다섯 자루의 장검이 무기를 겨냥한 것은 곤륜파의 한매검진(寒梅劍陣)이었으며, 두 사람이 검으로 나를 찌른 것도 곤륜파의 대막평사 초식이었습니다. 그녀들이 곤륜파 제자 행세를 하기에, 나도 그들의 신분을 간파하고 싶지 않아 곤륜파 장문인 철금선생 하태곤(何太坤)의 이름을 들먹였을 뿐입니다."

"둘째 아주버님은 그녀들이 아미파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들의 공격이 깊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금의 아미파 장문인 멸절사태(滅絶師太)의 도손(徒孫)이든지 아니면 소제자(小弟子)들일 것으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녀들이 부드러운 무공으로 나의 지력을 약화시킨 것은 아미 심법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문파의 초식과 진식을 배우는 건 어렵지 않지만, 내경(內經)은 아무도 쉽게 흉내내지 못하지요."

장취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다.

"둘째 사형께서 지력으로 검신을 가격했을 때 즉시 그녀들이 검을 철회했다면 가벼운 내상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미파의 내공은 매우 심후하지만, 상당한 경지에 이르기 전에 섣불리 사용하면 큰 봉변을 당할 우려가 있지요. 둘째 사형께서 그녀들을 정말 적으로 간주했다면, 그 두 여자는 지금쯤 싸늘한 시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형께선 그녀들에게 왜 따끔한 맛을 보여 주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은사님께서 소년 시절에 아미파의 개파조사(開波祖師) 곽양 여협의 신세를 진 일이 있기 때문이네. 그 어른께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아미파 제자를 만나면 가능한 한 양보하라고 당부하셨지. 아까 내가 지력으로 검을 가격했을 때 상대방의 내공이 심후하지 못함을 발견하고 철회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두 사람을 다치게 했지. 비록 실수이긴 하지만 은사님의 훈시를 어겨 마음이 몹시 걸리는 구나."

은소소가 웃으며 유연주를 위로했다.

"그러나 아주버님께선 마지막에 철금선생에게 사죄드린다고 말씀하셨으니, 직접적으로 아미파에 죄를 범한 것은 아니예요,"

이 무렵 그들이 타고 왔던 배는 이미 하류로 돌아가 종적도 보이지 않았다. 여섯 척의 소선 역시 모두 침몰하여 노를 젓던 사람들은 전신이 젖은 체 강변으로 기어올라오고 있었다.

은소소가 나직이 물었다.

"저들도 모두 아미파의 제자들인가요?"

"아닙니다."

은소소가 아미파 제자들이 떨어뜨리고 간 장검을 주워 살펴보려 하자, 유연주가 제지했다.

"그녀들의 병장기에 손대지 마십시오. 검에 이름이라도 새겨 두었다면 후일 우리는 몰랐다고 잡아뗄 수 없게 됩니다."

은소소는 유연주의 세심함에 내심 탄복을 금치 못하며, 무기의 손을 잡고 강변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관목이 울창한 수림을 막 지났을 때, 거대한 버드나무 가지에 세 필의 말이 매어져 있었다. 무기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저기 말이 있어요,"

네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무줄기에 종이쪽지가 한 장 꽂혀 있었다.

<배를 파손시킨 죄로 말을 세 필 드립니다.>

탄필(炭筆)로 적은 글씨는 시간에 쫓긴 탓인지 갈겨 썼지만 여자의 필체임이 틀림없었다. 은소소가 웃으며 말했다.

"아미파 낭자들은 눈썹을 그리는 탄필로 무당대협에게 쪽지를 남겼군요."

그들은 나뭇 가지에서 말을 풀어 한 필씩 나누어 탔다. 무기는 은소소 앞에 앉아 무척 좋아했다.

장취산이 말등에 올라타며 입을 열었다.

"둘째 사형, 우리들은 어차피 행적이 노출되었으니 배를 타나 말을 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군. 무당산까지 도착하는 동안 여러 차례 파문이 일 거야. 그러나 만부득이하지 않는 이상 살수를 펼쳐 내선 안 된다."

유연주는 본의 아니게 아미파 제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둘째 아주버님은 다만 상대방을 물러나게 하려다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혔는데도 이렇게 후회하고 불안해 하는데, 지난날 나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소림 제자를 그렇게 많이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니..... 앞으로는 둘째 아주버님을 번거롭게 만들지 말아야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그녀는 유연주를 돌아보았다.

"둘째 아주버님, 지금까지 나타난 사람들은 모두 우리 부부를 목적으로 삼았을 뿐 둘째 아주버님에게는 무척 공손했어요. 만약 앞으로 또 제지를 당하면 제가 해결할 테니, 아주버님은 개입하지 마세요."

"그 무슨 서운한 말입니까? 형제라면 마땅히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어야지, 동생의 어려움을 보고 모른체 한다면 그건 금수보다 못한 짓입니다."

은소소는 유연주가 이렇게 말하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화제를 바꾸어 물었다.

"그들은 둘째 아주버님이 우리 부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경험도 부족한 어린 제자들만 파견 했을까요?"

"시간에 쫓겨 고수들을 파견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장취산은 아까 아미파 제자들의 행위로 보아 그녀들의 목적도 사손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라 짐작했다.

"둘째 사형, 의형은 아미파와도 원한을 맺은 모양이군요. 하지만 아미파와 원한을 맺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아미파는 규칙이 엄격하고 또 제자들이 대부분 여자인지라 멸절사태는 제자들이 강호를 주행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 그런 아미파도 천응교를 적대시하기에 처음에는 무슨 까닭인지 몰라 의아스러워했는데, 최근에 와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지. 원래 하남성 난봉(蘭封)의 금조추(金爪錘) 방평(方評) 방노영웅이 어느 날 갑자기 살해되고 벽에 혼원벽력수 성곤의 소행이라는 혈서가 적혀 있었지."

은소소가 곤혹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방평은 아미파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멸절사태의 속가(俗家)로 성이 방씨이며, 방노영웅은 바로 멸절사태의 친오빠이지요."

장취산과 은소소는 그제야 아미파가 사손의 행방을 찾으려는 이유를 알고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무기가 갑자기 유연주에게 물었다.

"둘째 사백, 방노영웅은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방노영웅은 주경야독(晝耕夜讀)하며 아무와도 왕래하지 않았으니 나쁜 사람이라 할 수 없지."

"의부께서 선악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살인을 자행한 건 정말 옳지 않아요."

유연주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은소소의 품에서 무기를 안아 받아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무기야, 네가 함부로 살인하면 안 되는 것을 알다니 매우 기특하구나.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므로 아무리 죄가 많고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일 것이 아니라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알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참! 둘째 사백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

"설령 그들이 의부를 찾아 낸다 해도 둘째 사백께서 그들이 의부를 죽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의부는 앞을 보지 못해 그들을 당해내지 못해요."

유연주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 부탁은 승낙할 수 없구나. 하지만 나는 절대 그를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하겠다."

무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날이 밝을 무렵, 그들은 조그만 마을에 도착했다. 객점에서 잠깐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길을 재촉했다.

며칠간의 여행끝에 무한(武漢)을 지나 이날 오후 안륙(安陸)에 거의 도착했은 때, 갑자기 앞에서 십여 명의 상인들이 허겁지겁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유연주 일행 곁을 지나치며 조급한 어조로 외쳤다.

"빨리 되돌아가시오! 저쪽 앞에서 달자병(達子兵:몽고병)들이 살인 약탈을 자행하고 있소."

또 한 사람은 은소소에게 손짓을 했다.

"당신같이 젊고 아름다운 부인이 달자병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오?"

"달자병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십여 명인데 하나같이 흉악하기가 늑대 같아요."

그들은 말을 끝내기 무섭게 동쪽으로 도망쳐 갔다.

무당칠협이 제일 미워하는 것은 선량한 백성을 해치는 원병(元兵)이었다. 장삼봉도 평소에 문인들을 엄격히 다스려 싸움질을 하면 추호도 용서하지 않았지만, 원병이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가차없이 살수를 펼쳤다.

약 삼 리 가량 달려나아갔을 때 처절한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장취산이 앞장서서 달려가 보니 십여 명의 원병이 손에 손에 강도장모(鋼刀長矛)를 휘두르며 수십 명의 백성들에게 대살육을 자행하고 있었으며 선혈이 낭자한 바닥에는 이미 목없는 시체가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다. 이때 한 명의 원병이 이제 겨우 서너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를 잡아채더니 발길질로 공중 높이 차올렸다. 어린 아이가 허공에서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자 이번에는 다른 원병이 발길질을 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장취산은 말에서 곧장 몸을 뽑아올려 발끝이 땅에 닿기도 전에 일권으로 한 원병의 가슴을 가격했다. 그 원병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고

꾸라지자 다른 한 명의 원병이 장모를 휘두르며 장취산의 배심(背心)을 찌르려 했다.
무기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며 고함을 질렀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장취산은 뒤로 돌아서며 빙긋이 웃었다.
"무기야, 이 아비가 달자병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잘 보아 두거라."
장모가 가슴 앞 반 치 거리에 도착했을 때 장취산은 왼손을 교묘하게 뒤집어 장모를 붙잡아 앞으로 힘껏 밀쳤다. 장모의 손잡이 끝이 그 원병의 명치에 정확하게 적중하였다.
"으악!"
그 원병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스러져 몇 번 바둥거리더니 곧 잠잠해졌다. 이 광경을 목격한 나머지 십여 명의 원병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장취산을 포위 공격했다. 뒤따라 도착한 은소소가 말에서 뛰어내려 원병의 손에서 장도(長刀)를 빼앗아 두 명을 살해했다. 나머지 원병들은 정세가 불리함을 깨닫고 사방으로 흩어져 도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워낙 흉악한지라 도주하면서도 칼을 휘둘러 백성을 살육했다. 유연주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달자병을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모두 제거해라!"
하며 서쪽으로 몸을 날려 도주하는 네 명의 원병을 붙잡았다. 장취산과 은소소도 좌우로 흩어져 원병을 뒤쫓았다. 장취산 등은 원병이 비록 흉악하지만 무공은 보잘 것 없으며 오히려 무기가 그들보다 고강하다고 생각하고는 무기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무기는 말등에서 뛰어내려 유연주와 부모가 원병들을 제거하는 것을 보고 손뼉을 치며 응원했다. 이때 좀전에 장취산이 되찌른 장모의 손잡이 끝에 명치를 맞아 쓰러졌던 원병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무기의 허리를 덥석 안고 말에 뛰어올라 쏜살같이 질주했다.
 유연주와 장취산 부부는 대경실색하며 거의 동시에 그 원병을 추격했다. 유연주는 몇 번 몸을 솟구치지 않아 바로 뒤까지 추격하여 왼손을 뻗어 그 원병의 배심을 향해 일장을 가격했다. 그러나 그 원병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만 뒤집어 일장을 반격했다. 경미한 음향과 함께 쌍방의 손바닥이 부딪치는 순간, 유연주는 상대방의 장력에 비틀거리며 뒤로 세걸음 밀려났다. 하지만 그 원병이 타고 있던 말은 유연주가 뻗어낸 일장의 위력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 원병은 말이 쓰러지자 무기를 안은 채 이 장 밖으로 몸을 날리더니 경신술(經身術)을 시전하여 순식간에 십여 장 밖까지 날아갔다. 장취산이 도착해 보니 유연주는 엄중한 내상을 입고 얼굴빛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한편 은소소는 사랑하는 아들의 안위가 걱정되어 사력을 다해 뒤쫓았지만, 그 원병의 경신술이 워낙 뛰어나 쌍방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결국 그 원병의 모습을 놓치고 말았다. 하지만 은소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친 듯이 뒤쫓았다. 그녀는 그 원병이 유연주까지 격상시킨 것으로 보아 설사 상대방을 붙잡는다 해도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함을 알지만 그런 것을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무기만은 구하고 말겠다.'
 유연주가 숨을 가늘게 몰아쉬며 간신히 말했다.
 "빨리 제수씨를 불러 차분히 계획을 세우자."
 장취산은 장모를 뻗어 또 두 명의 원병을 찔러 죽인 후 물었다.
 "상세가 엄중합니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니 빨.....빨리 제수씨부터 돌아오라고 해라."

장취산은 자기가 없는 사이에 나머지 원병들이 유연주를 해칠것이 염려되어 한 명씩 추격하여 모두 제가한 후 말등에 뛰어올라 은소소가 사라진 방향으로 치달렸다.

얼마를 달리니 은소소가 앞에서 혼자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으나 이미 기진맥진하여 당장에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장취산이 그녀를 안아 말등에 앉히자 그녀는 울면서 앞을 가리켰다.

"그 놈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다 틀렸어요."

라고 말을 마치자마자 기절해 버렸다.

장취산은 무기보다 유연주의 안위가 더욱 걱정되었다.

'먼저 둘째 사형부터 보살핀 다음 무기를 찾을 방도를 강구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머리를 돌려 돌아와 보니, 유연주는 땅바닥에서 가부좌를 하고 앉아 눈을 감은 채 운기조식을 하고 있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린 은소소가 또 미친 사람처럼 외쳤다.

"무기야.....! 무기야.....!"

유연주의 창백했던 얼굴에 점차 홍조가 감돌며 눈을 떴다.

"대단한 장력이구나!"

장취산은 유연주가 입을 열자 생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고 다소 마음을 놓았다.

"둘째 아주버님. 이.....이제 어떡하면 좋죠?"

"제수씨, 무기에게 별다른 일은 없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무공이 무척 고강했으니 절대 어린 아이는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하지만 그.....그는 무기를 납치해 갔어요."

유연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왼손으로 장취산의 어깨를 붙잡고 눈을 감은 채 한참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가볍게 탄식했다.

"그 사람이 어느 문파의 제자인지 모르겠으니, 무당에 돌아가 은사님께 여쭈어 보자."

은소소는 이 말을 듣고 몹시 조급해 했다.

"둘째 아주버님,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무기부터 먼저 구해야지요. 그 사람이어느 문파의 제자인지는 천천히 여쭈어 보아도 늦지 않잖아요."

유연주가 고개를 설레설레 젓자 장취산이 은소소를 타일렀다.

"여보, 지금 둘째 사형께선 중상을 입었고, 또 그 사람의 무공이 상당히 고강하므로 그를 찾는다 해도 속수무책이오."

"그.....그러면 무기를 포기하잔 말인가요?"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도 그 사람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오."

은소소는 남편의 말을 듣고 다시 이성을 회복했다. 그 사람의 무공이 유연주까지 일장에 중상을 입힐 정도로 고강한 것을 보아 진짜 원병이 아니라 원병으로 변장한 것이 분명했다. 그가 유연주에게 중상을 입힌 후 장취산 부부를 살해할 마음만 먹었다면, 지금쯤 두 사람은 싸늘한 시체로 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무기만 납치해 갔으니, 그 의도는 사손의 행방을 말하게 하려는 것임이 분명했다. 장취산은 유연주를 안아 말등에 앉히고 자기도 말등에 올라탄 후 천천히 말을 몰았다.

안륙에 도착한 후 조그만 적객에 투숙한 장취산은 또 원병을 남나 시비가 벌어질 것이 염려되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식사도 방안에서 했다. 유연주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내공을 운기하여 전신 혈도로 유전(流轉)시키며 상세를 치료했다. 자정이 되었을 무렵 유연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제, 나는 일생을 통해 은사님을 제외하고는 그 같은 고수를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야."

은소소의 마음 속에는 오직 무기 생각뿐이었다.

"그 사람이 무기를 납치한 목적은 의형의 행방을 묻기 위한 것이 분명한데, 무기가 말을 하지 않을까 모르겠군요."

장취산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무기가 만약 순순히 말한다면 우리들의 자식이라 할 수 있겠소?"
"그래요.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
말을 마친 은소소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갑자기 왜 그러오?"
"무기가 순순히 말하지 않으면 그 악적이 무기에게 독형(毒刑)을 가할지도 몰라요."
"구슬도 깎아야 보배가 되듯이 그 아이도 어려움을 겪어야지만 진정한 장부로 성장할 수 있소."
장취산은 입으론 비록 이렇게 말했지만 사랑하는 자식이 고문을 당하고 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무기가 편안히 잠들어 있다면 그것은 사손의 행방을 말했음을 증명하는 것인, 이런 배은망덕한 행위는 무기가 독형을 당하는 것보다 더욱 장취산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그 아이가 당장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배은망덕한 소인이 되는 것은 원치 않아.'
장취산이 이렇게 생각하며 은소소를 돌아보니 그녀는 만면에 애원의 빛을 가득 띄고 있었다.
그는 마음 속으로 은근히 걱정하며 유연주에게 물었다.
"둘째 사형, 상세는 좀 어떻습니까?"
유연주는 그들 부부의 얼굴 표정에서 장취산의 의도를 간파했다.
"그래.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무당에 도착하자."
세 사람은 어둠을 이용하여 황량하고 인적이 없는 길만 택해 걸었다.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뒤 쫓아와 그들을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참혹하고 잔인한 수

법으로 무기에게 고문을 가하는 것이었다.

----- 제 2 권 3 장 끝 -----

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2 권

제 4 장 무당칠협(武當七俠)의 재회(再會)

그들은 낮에는 쉬고 밤에만 길을 떠났다. 은소소는 밤낮없이 아들 걱정만 하고, 거기다 밤이슬과 밤바람을 쐰 탓인지 병이 났다. 장취산은 마차를 한 대 빌려 유연주와 은소소를 마차에 태우고 자기는 말을 타고 갔다. 이날 그들은 양양을 지나 태평점(太平店)의 객점에 투숙했다.

장취산이 유연주의 잠자리를 보살펴주고 막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다. 갑자기 웬 사내 하나가 주렴(竹廉)을 들치고 방안으로 들어왔다. 이 장한은 청포단삼을 입고 손에는 채찍을 들어 차림새로 보아 마차를 모는 마부 같았다. 그는 방 안에 들어와 유연주와 장취산을 향해 차가운 코웃음을 치고는 곧 밖으로 나갔다. 장취산은 그 장한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내공을 주입시켜 왼손으로 주렴을 나꿔채어 던졌다. 난데없이 기습을 당한 그 장한은 머리를 쳐박으며 앞으로 고꾸라지더니 간신히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무당파 도배야, 죽음이 눈앞에 이르렀는데도 행패를 부리느냐?"

이렇게 말한 그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밖으로 도망치듯 나갔다.

유연주는 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불안해진 장취산은 유연주에게 제의했다.

"둘째 사형, 지금 떠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야, 오늘 밤은 여기서 쉬고 내일 새벽에 떠나기로 하자."

장취산은 유연주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여기서 무당산까지는 이틀 거리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 사형제가 아무리 무능하다 해도 사문의 위명을 실추시킬 순 없지요. 무당산 기슭에서조차 낮엔 숨고 야밤을 이용해 도망치듯 길을 간대서야 말이 아니지요."

"어차피 행적은 이미 노출되었으니, 어디 두고 보자꾸나."

두 사람은 장취산의 방으로 옮겨 나란히 앉아 함께 운기조식을 시작했다. 이날 밤, 창문 밖과 지붕 위에서 칠팔 명에 가까운 장한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방 안을 기웃거렸지만 감히 안으로 난입하진 못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식사를 끝내자마자 떠날 준비를 했다. 마차에 올라앉은 유연주는 마부에게 마차에 둘러쳐진 포장을 모두 걷으라고 분부했다.태평점 마을을 나와 오리 가량 왔을 때, 동쪽에서 세 필의 기마가 나타나더니 마차와 십여 장의 거리를 두고 따라왔다. 또 얼마를 가자 길옆에서 말을 탄 네 명의 장한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연주 일행이 그곳을 지나가자 그들은 처음 세 사람과 합류하여 마차의 뒤를 따랐다. 얼마를 더 달려 다시 오후가 되자 그들의 인원은 스물 한 명으로 늘어났다. 개중에 몇 명은 채찍을 휘두르며 가까이 접근하기도 했지만, 삼 장 이내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유연주는 마차에 앉아 눈을 감고 운기 조식을 할 뿐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저녁 무렵, 맞은편에서 두 필의 기마가 달려왔다. 그 중 한 명의 말에는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이 타고 있었는데 병장기는 지니지 않은 것 같았다. 또 한 필의 말에는 요염하게 옷을 차려 입

은 젊은 부인이 왼손에 한 쌍의 쌍도(雙刀)를 들고 있었다. 두 필의 기마는 대로 중앙에 멈추어 길을 막아섰다.

장취산은 치솟는 분노를 억제하며 말등에 앉은 채 포권의 예를 올렸다.

"무당산의 유이, 장오가 인사드립니다. 귀하의 존성대명(尊姓大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 노인은 장취산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기분 나쁘게 웃었다.

"금모사왕 사손은 어디 있소? 당신이 그의 은신처를 말한다면 우리는절대 당신들을 괴롭히지 않겠소."

"이 일은 불초 혼자 결정할 수 없으며 은사님의 뜻을 먼저 여쭈어 봐야 합니다."

"유이는 부상을 당해 장오는 외톨이가 되었소. 당신 혼자서는 이렇게 많은 우리들의 적수가 되지 못하오."

하며 노인은 허리춤에서 한 쌍의 판관필을 꺼내었다. 그 판관필 끝은 뱀머리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었다.

은구철획(銀鉤鐵劃)이라는 장취산의 별명이 말해 주듯이, 그는 오른손으로 판관필을 사용하므로 무림에서 판관필을 사영하는 점혈명가(點穴名家)중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한 쌍의 뱀머리 판관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젠가 사부는 고려(高麗)에 판관필을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문파가 있다는 말을 했다. 판관필 끝을 뱀머리 모양으로 조각하여 초식과 점혈수법이 중원 인사와 크게 다를 뿐 아니라, 독사의 음유하면서 독랄한 성격을 본받아 미끄럽고 매섭기 짝이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 문파의 이름은 청룡파(靑龍波)이며 우두머리의 성이 천(泉)가라는 것만 알 뿐 이름이 무엇인지는 사부도 모른다고 했었다. 장취산은 재차 포권의 예를 올렸다.

"선배님은 고려 청룡파 사람이십니까? 천노야(泉老爺)와는 어떤

관계이신지요?"

노인은 내심 흠칫 놀랐다.

'이 젊은이는 나이가 서른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나의 내력을 알고 있다니 견문이 매우 넓구나.'

이 노인이 바로 고려 청룡파의 장문인 천건남(泉建男)이었다. 그는 영남(嶺南) 삼강방(三江幇) 방주 비사(鼻詞)의 특별 초청을 받아 중원에 온 것이다. 하지만 그는 중원에 도착한 후 한 번도 솜씨를 펼쳐보인 적이 없는데, 의외로 장취산이 첫대면에 출신 내력을 알아보자 사두쌍필(蛇頭雙筆)을 가슴 앞으로 들어올렸다.

"노부가 바로 천건남이오."

"고려의 청룡방은 중원 무림과 왕래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무당파가 천노영웅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천건남이 또 기분 나쁜 웃음을 지었다.

"노부는 귀하와 아무 원한이 없소. 우리 고려 사람도 중원에 무당파라는 문파가 있고, 무당칠협은 협의심이 강한 대장부들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소. 노부는 귀하에게 한 마디만 묻겠는데, 금모사왕 사손은 지금 어디 숨어 있소?"

그의 이 말은 비록 무례하진 않지만 강요하는 의미가 충분했다. 그가 판관필을 가슴 앞까지 들어올리자 마차 뒤를 따라왔던 장한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마차를 포위했다. 그들의 이런 태도는 만약 사손의 행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뜻이었다.

장취산이 짙은 눈썹을 높이 치켜올렸다.

"만약 불초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소?"

"장오협은 무예가 대단하니, 우리는 비록 인원수가 많지만 당신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오. 그러나 유이협은 부상을 당했으며 영부인도 병중이오. 우리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

두 분을 머물게 할 테니, 장오협은 혼자 돌아가시오."

장취산은 상대방이 위기에 처한 기회를 이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하자, 화가 왈칵 치밀었다.

"좋소. 그렇다면 불초는 고려의 무학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직접 가르침을 받아보겠소. 그러나 천노영웅께서 실수를 하여 불초에게 패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소?"

"만약 내가 패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일제히 덤빌 것이오. 우리는 원래부터 강호의 규칙 같은 것은 따지지 않소. 그러니 당신도 가능한 다수의 힘을 이용하시요. 옛날 중국의 수양제, 당태종, 당고종 등이 우리 고려를 침략할 때도 언제나 수십만 대군으로 우리를 공격했지요. 예나 지금이나 싸움에는 인원수가 많은 쪽이 유리하지요."

장취산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천건남을 생포하여 그의 부하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위협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뛰어내리기 무섭게 왼손에는 난은호두구(爛銀虎頭鉤) 오른손에는 빈철판관필(빈鐵判官筆)을 뽑아들었다.

"당신은 손님이니 당신이 먼저 공격하시오."

천건남도 말에서 뛰어내리더니 우필(右筆)로 허공을 찍고 좌필(左筆)은 내밀지도 않은 채 번개처럼 장취산의 좌측으로 돌아갔다.

'오늘 나는 의형의 안전을 위해 싸우기 때문에 설사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만이지만, 둘째 사형은 의형과 알지도 못하는 관계이다. 의형 때문에 둘째 사형에게 치욕을 당하게 해선 절대 안되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장취산은, 천건남이 오른손의 사두필로 찍어오자 이성(二成)의 공격만 사용하여 호두구를 휘둘러 막아냈다. 쌍방의 병장기가 부딪치는 순간 그는 상체를 약간 휘청거렸다. 이 광경을 보고 용기백배한 천건남은 뒤이어 좌필로 연달아

삼초를 공격했다. 장취산은 우구좌필(右鉤左筆)로 반격을 가했지만 그 역시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오늘 내가 무당칠협중의 장오협만 요리하면, 중원무림에 일약 명성을 떨칠 수 있겠구나.'

천건남은 중원에서 명성을 떨치겠다는 욕심에 쌍필을 난무하며 장취산의 치명 요혈만 골라 공격했다.

장취산은 빈틈없이 엄중히 전신 요혈을 모호한 채 상대방의 초식을 자세히 관찰했다. 천건남의 초식을 가볍고 날렵하면서도 상당한 위력이 내포되어 있었다. 상대방의 공격 수법을 완전히 간파한 장취산은 은구철획을 상하로 휘둘렀지만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했다. 사실은 독맥의 여러 혈도와 족소양담경제혈만 보호할 뿐 다른 혈도는 상관하지 않았다. 천건남은 싸울수록 사기 충천하여 기합까지 넣어가며 맹공을 퍼부었다.

장취산은 갑자기 왼손의 은고로 용자결(龍字訣) 중의 일구(一鉤)를 시전하여 천건남의 오른쪽 다리 풍시혈(風市穴)을 긁었다. 순간 천건남이 비명을 지르며 오른쪽 무릎을 꿇자, 장취산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우필로 전광석화처럼 그의 영대혈(靈大穴)에서부터 아래로 찍어내리기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봉자결(鋒字訣)의 일필(一筆)로 장강혈(長强穴)을 찍었다. 순식간에 독맥의 여러 혈도를 제압당한 천건남은 마치 굳어 버린 석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장취산이 찍은 혈도는 천건남이 평생을 두고 연구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던 혈도인지라, 그는 자신의 무공에 대해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장취산은 은구 끝으로 천건남의 인후혈(咽喉穴)을 겨냥한 채 고함을 질렀다.

"모두들 물러 서시요! 불초는 천노영웅을 무당산 기슭까지 데려간 후 혈도를 풀고 석방해 주겠소!"

그는 이들이 천건남의 부하인 이상 천건남만 제압하며 감히 경

거망동하지 못하고 순순히 물러나리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의외로 이때 염장소부(艷裝少婦)가 쌍도를 높이 치켜들며 외쳤다.

"모두 덤벼 마차를 압류해라!"

장취산은 깜짝 놀라며 외쳤다.

"누구든지 움직이기만 하면 이 사람부터 먼저 죽여 버리겠소."

"빨리 포위 공격하지 않고 무엇들 하느냐!"

염장소부의 호령에 장한들은 천건남의 생사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고 말을 탄 채 칼을 휘두르며 덮쳐왔다. 원래 이 염장소부는 삼강방의 타주이며 그들이 이번에 대거 출동한 목적은 유연주와 은소소를 생포하여 사손의 행방을 말하게 하는 것이었다. 천건남은 삼강방이 초청한 손님에 불과한지라 삼강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손에 죽든 말든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다.

이때 육칠 명의 장한은 은소소를 포위하고 다른 육칠 명은 유연주를 포위했다. 나머지 몇 명의 염장소부와 함께 장취산을 둘러쌌다.

'내가 천건남을 죽인다 해도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 뻔한 일이니 어떡하면 좋을까?'

장취산이 망설이고 있을 때, 유연주가 갑자기 낭랑한 목소리로 외쳤다.

"육제(六弟), 빨리 나와 이들을 수습하지 않고 뭘 하느냐!"

장취산이 어리둥절하여 유연주를 돌아보았다.

'둘째 사형께선 공성지계(空城之計)를 사용하시나?'

그가 미처 생각을 끝내기도 전에 허공에서 맑은 외침소리가 대답했다.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형, 무사하셨군요. 소제는 다섯째 사형이 미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말소리와 함께 나뭇잎이 울창한 오 장 밖의 고목 위에서 하나의 그림자가 뛰어내리더니 장검을 흔들며 앞으로 걸어왔다. 장취산

이 고개를 돌려 보니, 그 사람은 육협 은이정이 틀림없었다.
"육제, 그 동안 잘 있었나?"
이때 삼강방의 장한 몇 명이 쏜살같이 달려가 은이정을 포위했다. 그러나 그들은 미처 전세를 가다듬지도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차례로 병장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들은 이미 모두 은이정의 장검에 손목의 신문혈(神門穴)을 적중당한 것이다. 신문혈은 손바닥 바로 상단에 위치해 있어 적중 당하기만 하면 손바닥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은이정은 천천히 걸어오며 상대방이 덮쳐와 제지하면 장검으로 상대방의 신문혈을 찔러 병장기를 떨어뜨려 버렸다.
이 광경을 본 염장소부는 놀람과 두려움으로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다.
"당신은 무당.....!"
그러나 그녀 역시 들고 있던 쌍도를 힘없이 바닥에 떨어뜨렸다.
장취산은 크게 기뻐하며 고함을 질렀다.
"사부님께선 드디어 신문십삼검(神門十三劍)을 연창(硏創)해 내셨구나!"
원래 이 신문십삼검은 모두 십삼 초로 매 초식마다 성질이 각각 다르지만, 찌르는 위치는 모두 상대방 손목의 신문혈이다. 장취산이 십 년 전 무당산을 떠날 때 장삼봉은 신문십삼검을 연창해야겠다는 뜻을 품고 제자들과 몇 차례 상의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뒤로 미루어 두었던 것이다. 그 절예를 은이정이 펼쳐냈으니 삼강방 제자들이 막아낼 수 있을 리 만무했다. 사실 은이정이 찔러낸 검초는 하나같이 정묘절륜(精妙絶倫)하여 신문십삼검을 절반도 시전하지 않아 삼강방 제자들은 십여 명이나 손목을 찔리고 병장기를 놓쳐버렸다.
염장소부가 손목을 움켜쥔 채 고함을 질렀다.
"모두 철수하라!"

삼강방 제자들은 명령이 떨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분분히 삼십육계 줄행랑을 쳤다. 장취산은 천건남의 혈도를 풀고 사두쌍필을 주워 그의 허리춤에 꽂아주었다. 천건남은 수치심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도주했지만 삼강방 제자들과 동행하진 않았다.

은이정이 장검을 검집에 꽂고 장취산의 손을 덥석 잡았다.

"다섯째 사형,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여섯째, 그 동안 많이 컸구나."

그들이 헤어질 무렵 은이정은 열 여덟 살에 불과했는데, 십 년 사이에 그는 훤칠하고 영준한 청년으로 변모해 있었다. 장취산은 은이정의 손을 잡은 채 아내 은소소를 소개했다.

은소소는 병중인지라 거동이 불편하여 마차에 비스듬히 기댄 채 고개만 약간 끄덕여 보였다.

"여섯째 도련님, 만나게 되어 반가와요."

"다섯째 형수님도 성이 은가라니 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단 나의 형수님일 뿐 아니라 나의 누님도 되기 때문이지요."

장취산이 감탄의 눈빛으로 유연주를 돌아보았다.

"둘째 사형은 역시 대단하셔. 네가 고목 위에 숨어 있는 것을 나는 눈치도 채지 못했는데, 둘째 사형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으니 말이야. 육제, 너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은이정은 이곳으로 마중오게 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며칠 전 사협 장송계가 사부의 생신 백 주년 잔치 때 사용할 음식을 장만하려고 하산했다가, 행동이 수상쩍은 두 명의 강호 인물을 만나 암암리에 미행하던 중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래서 행방불명이 되었던 장취산이 돌아와 유연주를 만났다는 것과 삼강방과 오봉도(五鳳刀) 무리들이 그들을 제지하여 사손의 행방을 알아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장송계는 크게 기뻐하며 총총히 돌아갔다. 그리고 혼자 있던 은이정과 함께 유연주 일행

을 찾아나섰다. 그들은 유연주와 장취산의 무공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장취산과 만나고 싶어 하산했을 뿐이었다. 당시 유연주가 부상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정송계는 오봉도 문중에서 파견한 두 고수를 쫓으러 갔고, 은이정은 삼강방 제자들을 쫓기 위해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다.

전후 경위를 들은 유연주가 한숨을 내쉬었다.

"네째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우리 무당파는 큰 망신을 당할 뻔했구나."

장취산도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다.

"소제 혼자의 힘으론 사실 둘째 사형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십 년간 사부님 곁을 떠나 있었으므로 무공이 여러 사형과 사제들에 비해 훨씬 뒤떨어졌음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은이정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다섯째 사형께선 겸손을 부리는 버릇이 여전하시군요. 소제가 출수하지 않아도 삼강방 도배들 정도는 다섯째 사형 혼자서도 충분히 요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둘째 사형과 다섯째 형수님의 안위를 염려하여 출수를 망설였을 뿐입니다. 아까 고려국의 늙은이를 제압하던 무공도 사부님께선 다섯째 사형에게만 전수하셨는걸요. 이번에 돌아가면 사부님께선 너무 기쁜 나머지 다섯째 사형에게 정묘한 무예를 수없이 전수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 사형제는 원래부터 우애가 두터운지라, 나란히 걸으면서 잠시도 입을 쉬지 않았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선인도(仙人渡) 객점에 투숙하였다. 은이정과 장취산은 한침대에서 잤다. 장취산은 옛날부터 은이정을 남달리 좋아했는지라 지금은 청년으로 성장했는데도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느껴졌다.

유연주가 웃으며 입을 열었다.

"오제는 육제를 십 년 전과 마찬가지로 어린애 취급하면 안 된

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부님의 생신술을 마신 후 뒤이어 육제의 혼례술을 마시게 되기 때문이다."

장취산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소제가 이 시기에 돌아오길 정말 잘했군요. 신부는 어느 명문의 규수입니까?"

은이정은 얼굴을 붉힌 채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다.

유연주가 수줍어하는 은이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신부감은 한양금편(漢陽金鞭) 기노영웅(紀老英雄)의 따님이야."

장취산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혀를 내둘렀다.

"육제는 사위 노릇을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편이 네 머리 위에 떨어질 거야."

유연주가 빙긋이 웃으며 화제를 바꾸었다.

"기 낭자가 그날 강변의 복면 여자 중에 없었던 것은 정말 다행이야."

"아니, 그렇다면 기 낭자는 아미파 제자란 말입니까?"

유연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 밖에서 점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이협, 몇 분의 나으리께서 유이협을 뵙고자 합니다."

"누구라고 하더냐?"

"모두 여섯 분인데, 오봉도 문하제자들이라 했습니다."

유연주 등 사형제 세 사람은 모두 바짝 긴장했다.

'장송계가 오봉도 사람들을 쫓으러 갔는데, 어째서 그들이 여기까지 우리를 찾아왔지? 혹시 장송계에게 무슨 불행이라도.....'

장취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소제가 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상세가 완쾌되지 않은 유연주의 안위가 걱정되어 싸우더라도 밖에서 싸울 작정이었다. 그러나 유연주가 손을 저어 제지하

고 문 밖의 점원에게 분부했다.
"그들을 이리로 모셔오너라."
잠시 후 다섯 명의 장한과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젊은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장취산과 은이정은 유연주의 좌우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들 여섯 사람은 하나같이 기가 죽어 있었으며, 병장기도 지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시비를 걸려고 찾아온 것 같지는 않았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듯한 자가 공손히 포권의 예를 올렸다.
"세 분은 무당의 유이협, 장오협, 은육협이시지요? 불초 오봉도의 문하제자 맹정홍(孟正鴻)이 세 분께 인사올립니다."
유연주 등 세 사람은 포권의 답례를 하면서도 마음 속으로 몹시 의아해 했다.
"맹대협, 그리고 여러분,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맹정홍은 앉지 않고 선 채로 말했다.
"저희들 문파는 하동(河東)에 협소하게 자리잡고 있으면서 무당산의 장진인과 칠협의 위명을 귀가 따갑도록 듣기만 했을 뿐, 직접 배알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렵게 무당산 기슭까지 오게 되어 마땅히 장진인을 찾아 뵙고 문안 여쭙는 것이 도리인 줄 알지만, 장진인께선 백 세 고령으로 조용한 것을 좋아하신다기에 우리 같은 소인들이 그 어른의 청정(淸淨)을 방해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지라, 여기서 걸음을 멈출까 합니다. 그러니 세 분께선 돌아가시면 산서 오봉도 문하제자가 그 어른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더라고 전해 주십시오."
유연주는 상세가 완쾌되지 않아 의자에 앉아 있었으나, 상대방이 사부에 대해 언급하자 얼른 은이정의 어깨를 붙잡고 일어섰다.
"그렇게까지 가사의 건강을 염려해 주시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맹정홍이 말을 계속했다.

"산간벽지에 사는 저희들은 우물 안 개구리인지라 견문도 좁은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감히 귀파의 영역을 침범 했습니다. 오늘 무당대협들의 넓으신 도량에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위험에서 구출받는 은혜까지 입어 감사도 드리고 사과도 할 겸 이렇게 찾아왔으니, 세 분 대인께서는 소인의 잘못을 마음에 두시지 않길 바랍니다."

하며 바닥에 꿇어 엎드려 큰절을 하려 했다.

"맹대협께선 이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맹정홍이 무슨 말인가 하려 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하자 유연주가 물었다.

"맹대협께선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습니까?"

"유이협께서 저희들을 탓하지 않겠다고 한 마디만 해주시면, 저희들도 안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멀리 산서에서 여기까지 오신 것은 금모사왕 사손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귀파는 금모사왕과 무슨 원한이 있으신지요?"

"가형 맹정붕(孟正鵬)이 사손의 손에 살해되었습니다."

유연주는 매우 유감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저희들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금모사왕의 행방을 말씀드리지 못하니, 이 점 맹대협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일에 대해선 불문에 부칠 테니,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불초 등은 안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혹시 차후에 무당파에서 저희들에게 분부를 내리실 일이 있으면, 오봉도 문하제자들은 무슨 일이든 기꺼이 뛰어들 테니 연락만 주십시오."

하고 나머지 다섯 사람과 함께 포권의 예를 올린 후 밖으로 나갔다.

그들 중 젊은 부인이 나가다 말고 갑자기 되돌아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미흡한 여인이 청절(淸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무당대협의 도움 덕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례와 같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유연주 등은 내막을 몰라 궁금해 했지만 그녀가 부녀자의 청절에 대해 언급하는지라 질문하기가 곤란하여 얼버무렸다. 젊은 여인은 절을 열 번 더 하고서야 밖으로 나갔다.

오봉도 문인들이 막 돌아갔을 때, 방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번개같이 덮쳐와 장취산을 와락 끌어안았다.

"네째 사형!"

방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아닌 장송계였다. 장취산도 장송계를 얼싸안았다.

"네째사형께서 오봉도 문하를 친구로 만든 지략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것은 공교롭게 기연이 닿았기 때문일 뿐이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네."

장송계는 그간에 있었던 일을 유연주 등에게 들려 주었다.

그 미모의 젊은 부인은 성이 오(烏)가며 오봉도 장문인의 둘째 딸리자 맹정홍의 아내였다. 이번에 여섯 사람은 사손의 행방을 탐문하기 위해 산서에서 멀리 호북(湖北)까지 오는 도중, 삼강방의 타주(舵主)를 만나 그에게서 무당파 장취산이 사손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오씨 부인이 흉계를 꾸며 장취산을 생포하여 사손의 행방을 알아내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무당 제자들의 무공은 하나같이 고강하니까, 우선 깍듯이 예의를 지키며 도움을 요청했다가 상대방이 거절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자고 했다. 그러자 오씨 부인이 버럭 화를 내며 고함을 질렀다.

"기회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예요. 만약 장취산이 무당으로 돌아가 그들 사형제가 합류해 버리면 장삼봉까지 곁에 있는데 어떻게 그를 생포하여 사손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은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양보하던 남편 맹정홍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자 오씨 부인의 노화가 드디어 폭발했다.
"이 겁장이야, 당신 형님의 복수를 하려는 것이지 내 오빠의 한을 풀어드리자는 건가요? 흥! 그래도 사나이 대장부라 할 수 있으세요? 차라리 그것을 떼어 버리세요. 당신 같은 담력이라면 장취산이 사손의 행방을 알려줘도 아마 그를 찾아갈 용기가 없을 거예요. 당신 같은 겁장이에게 시집온 내 팔자도 뻔해요!"
맹정홍은 아내에게 양보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는지라 이번에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남편이 고분고분해지자 오씨 부인은 객점에 투숙한 장취산 부부에게 마취제를 사용하자고 했다. 다른 방법이면 몰라도 이런 비열한 방법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맹정홍이 완강히 반대했다. 이에 또 격노한 오씨 부인은 심야에 남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몰래 빠져 나갔다.
그녀는 혼자서 자기의 계획대로 진행하여 사손의 행방을 알아내어 남편의 콧대를 꺾어 놓을 심산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삼강방의 타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암중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오씨 부인의 미모에 흑심이 발생하여 그녀의 뒤를 몰래 따라갔다. 그리하여 장취산 부부에게 마취약을 사용하려 했던 그녀는 오히려 자기가 마취약에 당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바로 그 때, 줄곧 오보도 문인들의 동정을 감시하고 있던 장송계는 재빨리 모습을 나타내어 그녀를 위험에서 구하고 삼강방 타주를 혼내어 쫓아버렸다. 그런 다음 장송계는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만 무당파 무당제자라고만 말했다. 오씨 부인은 놀람과 부끄러움을 안은 채 객점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그간의 경위

를 이야기했다. 이로 말미암아 무당파는 그들의 은인이 되었으며, 그들은 유연주 등을 찾아와 고마움을 표시하기에 이르렀다. 장송계가 그들이 돌아간 후 나타난 것은 오씨 부인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기 싫어서였다.

이야기를 다 들은 장취산은 존경어린 눈빛으로 장송계를 바라보았다.

이날 밤 사형제 네 사람은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 꽃을 피웠다. 장송계는 비록 기지가 출중하고 견문이 넓지만, 원병으로 변장하여 무기를 납치하고 유연주에게 중상을 입힌 고수의 내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도 알아내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장송계와 은소소가 상견례를 하고 다섯 사람은 곧 길을 떠났다. 하룻밤을 더 객점 신세를 진 다음에야 무당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십 년 만에 무당산으로 돌아온 장취산은, 비록 자식과 생이별하고 아내마저 병이 들었지만 사부를 비롯하여 큰사형, 세째 사형, 막내 사제 등과 만난다는 생각을 하니 다소 위안이 되었다.

산문 입구에 도착해 보니, 한쪽 앞의 나뭇 가지에 여덟 필의 말이 묶여 있었다. 안장이 화려한 것으로 보아 무당의 마필이 아님이 분명했다. 장취산은 은소소를 부축하여 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관중(觀中)의 도인들과 일꾼들은 장취산이 무사히 돌아오자 서로 부둥켜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장취산은 한시바삐 사부를 만나뵙고 싶었지만 아직도 폐관 중이라는 도동의 말에 어쩔 수없이 사부가 폐관하는 문 밖에서 절만하고 세째 사형 유대암을 만나러 갔다.

방문 앞에 이르자, 유대암을 시중 드는 도동이 나직이 말했다.

"세째 사백께선 방금 잠이 드셨는데 깨울까요?"

장취산은 손을 가로젓고 소리없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잠이 든 유대암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으며, 양볼이 움

푹 들어가 십 년 전 용맹스럽고 건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런 세째 사형을 보고 있자니 장취산은 너무나 안스러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유대암의 뼈만 앙상한 몰골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와 어린 도동에게 물었다.

"너의 큰 사백과 막내 사숙은 어디 계시느냐?"

"대청(大廳)에서 손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장취산은 후당(後堂)으로 나가 큰 사형과 막내 사제를 기다렸다. 그러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손님은 도무지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장취산은 참다못해 차를 나르는 도인에게 물었다.

"어떤 손님이냐?"

"표물을 호송하는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장취산과 떨어지기 싫어 다시 찾아왔다가 손님의 내력을 묻는 소리를 들은 은이정이 대신 대답했다.

"세 명의 총표두인데, 금릉(金陵) 호거표국(虎踞標局)의 총표두 기천표(祁天彪), 태원(太原) 진양표국(晋陽標局)의 총표두 운학(雲鶴), 그리고 경사(京師) 연운표국(然雲標局)의 총표두 궁구가(宮九佳)입니다."

장취산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무슨 중대한 일이 있기에 세 사람이 함께 찾아왔지?"

장취산은 어질고 착한 큰사형의 모습이 그간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여 당장 보고 싶었다.

"육제, 병풍 뒤로 가서 큰사형과 칠사제의 모습을 보는 것은 실례가 되지 않겠지?"

하고 병풍 뒤로 다가가 대청 안을 몰래 살펴보았다.

대청 안에서 송원교와 막성곡이 나란히 앉아 손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송원교는 도장(道裝)을 했는데, 어질고 평화로운 얼굴 모습은 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었다. 다만 귓

가에 흰 머리가 희끗희끗 보이고 중년의 나이 탓으로 살이 좀 찐 것 같았다. 송원교는 출가(出家)하진 않았으나 사부가 도사이고 또 도관에서 생활하는 까닭에, 무당산에 있을 때는 도가 차림을 즐겨하고 하산할 때만 속세의 차림으로 바꾸었다. 막성곡은 이미 기골이 장대해졌으며, 겨우 스무 살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온통 수염으로 뒤덮여 장취산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았다.

이때 막성곡이 목청을 돋구었다.

"우리 큰사형이 하나라면 하나고 둘이라면 둘이오. 송원교 이름 석 자만으로도 세 분은 믿지 못하겠단 말입니까?"

장취산은 대청 안을 기웃거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칠제의 호방하면서 난폭한 성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무슨 일로 저렇게 다투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막성곡의 맞은편에 앉은 세 사람을 살펴보았다. 나이는 모두 오십 남짓 되어 보였으나 한 명은 기도(氣度)가 위맹하고 한 명은 깡마른 몸집에 키가 커 보였고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 마치 병자 같았다. 그들 뒤로 제자인 듯한 다섯 명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체격이 깡마른 사람이 입을 열었다.

"송대협이 이렇게 말한 이상 우리가 어찌 믿지 않겠소. 그건 그렇고 장오협이 언제쯤 돌아오는지 정확한 날짜를 알려 주면 고맙겠소."

장취산은 내심 흠칫 놀랐다.

'이들은 나를 만나러 왔구나. 이들도 의형의 행방을.....'

미처 생각을 끝내기도 전에 막성곡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울 사형제 일곱 사람은 비록무공이 보잘것없지만 정의를 위한 일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소. 그 결과 우리는 이미 무당칠협이란 명호를 얻었고, 또 위로는 은사님의 엄격한 훈시가 계셨는지라 어떤 일이든 한치의 착오도 범하지 않소. 장취산은

우리 무당 칠형제 중의 한 사람이며 우리 칠형제 중에서도 성격이 제일 온순하고 인내심이 많은 분이오. 그런 분이 용문표국의 모든 사람들을 살해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시비를 걸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오."

장취산은 가슴이 철렁했다.

기도가 위맹한 장한이 마을 받았다.

"무당칠협의명성을 무림에서 우러러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막칠협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오래 전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소."

막성곡은 그의 조롱섞인 말투에 얼굴빛이 확 변했다.

"기 총표두의 저의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시오."

바로 이 기도가 위맹한 장한이 바로 호기표국의 총표두 기천표였다.

"무당칠협의 말만 하나면 하나고 소림파 고승들은 거짓말만 한단 말이오? 소림 화상들은 임안 용문표국의 상하대소 모두가 장오협의 손에 살해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소."

그는 장오협의 협자를 일부러 길게 뽑아 경멸하고 있음을 표시했다. 은이정은 그가 장취산을 모독하자 치솟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며 대청 안으로 뛰쳐 들어가려 했다. 이에 장취산이 급히 그의 팔을 붙잡아 제지했다.

막성곡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고함을 질렀다.

"나의 다섯째 사형께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지만, 설사 이미 돌아오셨다 해도 할 말은 이것뿐이오. 나는 장취산과 생사를 같이 할 것이며 그분의 일은 곧 내 일이오. 세 분은 흑백을 분명히 구분하지도 않고 나의 다섯째 사형에게 용문표국 사람을 살해한 죄를 뒤집어씌우는데, 그렇다면 좋소! 그 모든 일은 나 막성곡이 한 것으로 할 테니, 세 분이 용문표국의 복수를 할 의향이 있으면 내게 하시오. 나의 다섯째 사형이 여기 없는 이상 나 막성곡

이 곧 장취산이고 장취산이 곧 막성곡이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공이나 지략면에 있어서 나 막성곡이 다섯째 사형을 따라가려면 십 년은 더 배워야 하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당신들의 운이 좋은 셈이오."

기천표도 대노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나 기천표가 오늘 무당산에 가서 소란을 피울 것이라 하니, 무림 동도들은 모두 내가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뛴다고 비웃었소. 하지만 도대금 도형제의 일가가 몰살당한 지 십 년이 되도록 원한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나는 도저히 울분을 참을 수 없었소. 무당파는 이미 용문표국 칠십여 명의 목숨을 살해했으니, 기천표 한 사람을 더 죽인다고 해서 죄의식을 느낄 리 만무하며, 금릉 호거표국의 구십여 인명을 더 죽인다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오. 나 기천표가 오늘 무당산에서 피를 뿌리고 죽음을 당한다면, 더없이 좋은 명당자리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오. 우리는 무당산으로 올라올 때 장진인의 높은 덕망을 존중하여 병장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므로 막칠협의 권각(拳脚)에 나 피천표는 죽음을 당하고 싶소."

하고는 대청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줄곧 침묵만 지키고 있던 송원교는, 두 사람이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자 손을 뻗어 막성곡을 제지하며 빙긋이 웃었다.

"세 분은 이곳에 찾아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초의 다섯째 사제가 임안 용문표국의 칠십여 인명을 살해했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그가 돌아오면 모든 사실이 백일하에 밝혀질 테니 잠시만 더 참고 기다렸다 그를 만나 시비를 가리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마치 병자처럼 생긴 연운표국 총표두 궁구가가 말을 받았다.

"기 총표두, 흥분하지 말고 앉으시오. 장오협이 돌아오지 않은 이상 이 일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 차라리 장진인을 배

견하여 그 어른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장진인은 당금 무림의 태산북두이고 천하의 영웅호걸이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설마 그런 어른이 흑백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자만 두둔할 리는 없겠지요."

그의 몇 마디는 비록 겸손했지만, 그 속에 내포된 뜻은 무당파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었다. 그의 의도를 알아듣지 못할 막성곡이 아닌지라 짙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차갑게 대꾸했다.

가사께서는 지금 폐관정수 중이오. 그리고 최근들어 우리 무당 문중의 일은 모두 큰사형께서 처리하고 있소. 때문에 무림의 진정한 고인이 아니면 가사께선 접견하지 않소."

이 말은 그들의 신분으로는 장진인을 접견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었다. 체격이 깡마르고 키가 큰 진양표국 총표두 운학이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흥! 우리가 도착하자 장진인이 폐관에 들어갔다니 세상에는 정말 공교로운 일도 많군요. 그러나 분명히 밝혀 두겠는데, 용문표국 칠십여 인명을 폐관한다고 해서 모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막성곡은 치솟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당신의 말은 가사께선 일이 두려워 폐관하셨다는 뜻이오?"

운학은 냉랭히 웃기만 할 뿐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다.

송원교도 비록 수양은 깊은 사람이었지만, 상대방이 은사를 모독하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무당칠협 면전에서 장삼봉에게 불경한 언사를 쓴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그는 다소 격앙된 어조로 천천히 말했다.

"세 분은 손님이니 우리는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소. 그러니 이만 돌아가 주시오."

하고소맷자락을 가볍게 휘젓자 한 줄기 질풍이 몰아쳤다. 그러자 기천표, 운학, 궁구가 등 세 사람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찻

잔이 갑자기 바람에 휘말려 날아오르더니 송원교의 탁자 위에 떨어졌다. 그러나 찻잔이 바람에 말려 올라 탁자 위에 떨어질 때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 방울의 차도 쏟아지지 않았다.

기천표 등 세 사람은 송원교가 소맷자락을 휘두를 때 발출된 강맹무비한 바람에 의해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아 황급히 내공을 운기하여 대항하려 했다. 그러나 소맷바람이 소리없이 왔다가 소리없이 사라져 내공을 돋구느라 헛고생만 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만약 이때 송원교가 왼쪽 소맷자락으로 두 번째 바람을 일으켜 그들이 운기한 내공을 역행시켰다면, 그들은 중상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자 세 명의 총표두는 비로소 면전의 겸손하고 온화한 송원교가, 실제로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후한 절예를 지녔음을 깨달았다. 병풍 뒤의 장취산도 은소소가 용문표국의 칠십여 인명을 살해한 일을 생각하고 무척이나 난감해 하던 중, 송원교가 소맷자락으로 시전한 심후한 공력을 보고 경악과 탄복을 금치 못했다.

이때 기천표가 포권의 예를 올리며 작별을 고했다. 송원교와 막성곡은 그들을 적수첨(適水簷:처마밑)까지 전소해 주었다. 기천표는 송원교가 절세 무공을 지녔으면서도 교만한 언동을 조금도 취하지 않자, 마음 깊이 감동되어 처음 찾아왔을 때 지녔던 나쁜 감정이 크게 누그러졌다.

그 때 문 밖에서 몸집이 작달막하지만 단단하고 만면에 영기(英氣)가 충만한 중년 장한이 총총걸음으로 들어왔다. 송원교가 그 사람에게 기천표 등을 가리켰다.

"네째 사제, 이리 와서 세 분 대협에 인사드려라."

기천표 등과 인사를 나눈 장송계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세 분께선 마침 잘 오셨습니다. 불초는 여러분에게 드릴 물건이 있습니다."

하고 세 사람에게 각각 조그만 보따리를 하나씩 건네주었다. 기천표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풀어 보면 난처하니 하산하신 후에 풀어보십시오."

사형제 세 사람은 그들을 관문 밖까지 전송해 주었다. 그들이 돌아가기 무섭게 막성곡이 장송계에게 물었다.

"네째 사형, 다섯째 사형께선 도착하셨습니까?"

장송계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들어가 오제를 만나보아라. 나는 큰사형과 함께 대청에서 방금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겠다."

"다섯째 사형이 안에 계십니까? 그들 세 사람이 무슨 일로 되돌아옵니까?"

막성곡은 이렇게 물었지만 빨리 장취산과 만나고 싶어 장송계의 대답도 듣지 않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막성곡이 내당으로 막 들어갔을 때 예측한 대로 기천표 등 세 사람이 총총히 되돌아와 송원교와 장송계 앞에 엎드려 큰절을 했다. 두 사람이 급히 답례하자 운학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무당파의 하해와 같은 은덕을 불초는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좀전의 불초의 소행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양손바닥으로 자기의 양볼을 퉁퉁 붓도록 때렸다. 송원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얼른 손을 내밀어 제지했다.

장송계가 존경의 눈빛으로 운학을 바라보았다.

"운 총표두야말로 의지가 대단하신 진짜 장부입니다. 적을 쫓아내고 우리의 강산을 되찾고 싶어하는 소원은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지요. 불초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 운 총표두께선 조금도 고마와하실 것 없습니다."

"불초의 일가족 목숨은 무당파 대협들께서 새로이 내려 주신 거나 다름없는데, 불초는 멍청하게 그 사실을 오 년 동안이나 모르

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불손한 언동에 대해 두 분께서 불초를 호되게 매질함으로 다소나마 죄를 씻을까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합시다. 운 총표두가 하신 말씀을 설사 가사께서 친히 들으셨다 해도 운 총표두의 행적을 아신다면 결코 마음에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학은 자신의 불찰을 꾸짖으며 계속 용서를 빌었다. 송원교는 내막을 자세히 몰라 몇 마디 겸손의 말로 상황을 얼버무렸다. 그들이 돌아간 후 장송계가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 세 사람은 비록 우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만, 용문표국 사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은혜는 은혜고 원한은 원한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송원교가 그들이 다시 찾아와 고마와하는 연유를 물으려할 때 장취산이 내당에서 달려나와 바닥에 꿇어 엎드렸다.

"큰사형, 그간 별고 없으셨습니까?"

송원교는 만면에 기쁨의 빛을 가득 떠올리며 그의 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오제, 무사히 돌아와 주었구나!"

장취산이 사형제들과 헤어진 후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하자, 성격이 급한 막성곡이 재빨리 입을 열었다.

"다섯째 사형, 아까 그 세 사람은 다섯째 사형이 임안 용문표국의 칠십여 인명을 살해했다고 떼를 썼습니다. 왜 나오셔서 그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 버릇을 고쳐 주지 않았습니까?"

장취산은 참담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거기에 얽힌 우여곡절은 한 마디로 말할 수 없구나.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보고한 후 사형과 사제에게 좋은 대책을 부탁할 생각이다."

은이정이 옆에서 낭랑한 목소리로 말을 받았다.

"다섯째 사형께선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용문표국이 호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세째 사형께서 불구의 몸이 되었으므로, 설사 다섯째 사형이 정말 용문표국의 칠십여 인명을 살해했다 해도 그것은 형제지간의 우애가 너무 깊어 일시적인 의분을 참지 못해........"

유연주가 눈을 부릅뜨며 버럭 고함을 질렀다.

"육제, 그 무슨 당치 않는 소리냐? 그 말을 은사님께서 들아셨으면 너는 한 달 동안 독방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일가의 남녀노소를 몰살하는 잔인한 짓을 무림의 정의를 위한다는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야?"

장취산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용문표국의 사람을 나는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은사님의 교훈을 잠시도 잊지 않았으며 사형제의 성덕에 누를 끼치는 것도 원치 않는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송원교 등은 이제야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들은 물론 장취산이 그런 잔인하고 악랄한 일을 저지를 사람이라고 믿지 않았다. 하지만 소림파 화상들이 이구동성으로 그의 소행이라 말했을 뿐 아니라 직접 목격했다고 했고, 세 명의 총표두가 따지러 왔을 때도 그는 시종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는지라 얼마간의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사형제들은 용문표국의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 막성곡은 한 가지 의문이 풀리자 이번에는 기천표 등 세 사람이 되돌아온 이유를 물었다.

"네째 사형, 그들은 무슨 일로 되돌아왔습니까?"

장송계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아까 그 세 사람 중 무례한 언동을 거침없이 해댄 운학의 인품이 제일 좋지. 그는 진섬일대(晋陝一帶)에서 명망이 매우 높으며

암암리에 산서(山西), 섬서(陝西) 지역의 호걸들과 혈맹을 맺어 몽고 달자병에게 반항하는 거사를 일으키려 했었지."

"그 사람이 보기와 달리 그런 개개를 지녔다니 정말 존경 받아 마땅한 인물이군요. 네째 사형, 소제는 잠깐 다녀올 데가 있으니 그 때까지 이야기를 보류해 주십시오."

막성곡은 말을 끝내기 무섭게 질풍처럼 밖으로 달려나갔다.

장송계는 막성곡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장취산에게 빙화도의 풍물에 대해 물었다. 장취산이 빙화도의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과 사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막성곡이 돌아왔다.

"운 총표두를 뒤쫓아가 아까 나의 무례함을 사과하고 그의 장부다운 기질을 존경한다고 말해 주고 왔습니다."

은이정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칠제, 너는 무엇이든 마음 속에 간직해 두지 못하는 성격이 탈이야. 네째 사형께선 너를 기다리느라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다섯째 사형이 더 재미있는 빙화도의 여러가지 괴사를 들려 주셨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빙화도의 괴사를 제게도 들려 주셔야지요."

막성곡은 장취산에게서 빙화도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야 장송계에게 재촉했다.

"운학은 모든 준비를 끝내고 약속한 날짜에 태원(太原), 대동(大同), 분양(分陽) 등 세 지역에서 동시에 거사를 일으키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혈맹에 가입한 사람 중 배반자가 나타나, 거사 사흘 전에 가맹한 사람들의 명단과 운학이 만든 거사 계획서를 훔쳐 몽고병에게 밀고해 버렸지."

막성곡이 여기까지 듣고 이를 부드득 갈았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 무렵 나는 태원에 있었지."

"네째 형님이 무슨 일로 그곳에.....?"

"어떤 일로 태원부 부윤(府尹)에게 화풀이할 일이 있어 그날 밤 몰래 태원부에 잠입했다가, 부윤과 그 배반자가 조정에 보고하는 방법과 원병을 파견하여 거사를 일으킨 사람들을 일망타진하는 방법 등을 상의하는 장면을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지. 당시 나는 잠시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음을 알고 안으로 뛰어들어가 부윤과 그 배반자를 살해하고 명단과 거사 계획서를 탈취하여 남방(南方)으로 돌아갔지. 한편, 운학 등은 거사가 탄로나자 자기들이 멸문의 화를 당하는 것은 어쩔 도리 없지만, 다른 지역의 인의지사(仁義之士)들까지 피해를 입을 것을 가슴 아파하며 체포되기만 기다렸지. 하지만 가슴을 죄며 며칠을 기다렸으나 아무도 체포하러 오지 않았고 결국 그 사건은 흐지부지 되었지. 그 후 운학 등은 배반자가 태원부에서 부윤과 함께 살해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누군가가 그들을 도왔음을 알았지만,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지."

"아까 네째 형님이 그에게 건네준 물건이 바로 가맹한 사람의 명단과 거사 계획서였습니까?"

"그렇다네."

"네째 형님, 그럼 궁구가에게는 무엇을 도와주셨습니까?"

"궁구가는 무공은 고강하지만 인품면에선 운 총표두와 비교조차 할 수 없지. 육 년 전 그는 표물을 운남(雲南)까지 호송했다가 곤명(昆明)에서 어떤 보석상의 부탁을 받고 많은 양의 보석을 암암리에 대도시로 운반하게 되었지. 그러나 파양호 호반에서 파양사의 삼의에게 보석을 모두 탈취당하고 말았다. 궁지에 몰린 궁구가는 객점에 누워 머리를 싸매고 방법을 강구했으나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자, 결국 자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어."

사형제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한참이 지나도록 입을 열지 않자 막성곡이 또 큰 소리로 물었

다.

"파양사의는 녹림대도(綠林大盜)가 아닌데, 무슨 까닭으로 그 보석을 탈취했습니까?"

"파양사의 중의 첫째가 사고를 저질러 남창부(南昌府)의 사형수 감옥에 수감되어 곧 처형당할 입장이었지. 삼의가 그간 두 차례나 그를 탈옥시키려고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파양삼의는 궁리끝에 관리들이 재물에 약하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보석을 탈취하여 관리에게 뇌물로 주어 첫째의 죄를 탕감시킬 생각을 하게 되었지. 나는 파양사의의 깊은 우애에 감동되어 내가 첫째를 구출해 낼 테니 보석을 궁구가에게 되돌려 주라고 했던 거지."

언제나 궁금증이 많은 막성곡이 또 물었다.

"네째 사형이 기천표에게 건네 준 물건은 무엇입니까?"

"그건 아홉 개의 단혼오공표(斷魂蜈蚣標)야."

다섯 사람은 단혼오공표라는 말에 다소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호상에 제법 명성을 떨친 양주대호(凉州大豪) 오일망의 암기(暗器)이기 때문이다.

"그 일은 내가 너무 겁없이 덤볐었지. 당시 기천표는 표물을 호송하며 동관(潼關)을 지나던 중, 본의 아니게 오일망의 제자에게 잘못을 저질러 두 사람이 싸우게 되었는데 기천표가 그 사람에게 장력으로 중상을 입혔지. 기천표는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힌 다음에야 큰일을 저질렀음을 깨달았으나 이미 늦고 말았어. 그가 호송을 끝내고 막 낙양(洛陽)에 도착하자 오일망이 뒤쫓아와 두 사람은 다음날 낙양 서문 밖에서 무예를 겨루기로 약속하게 되었지."

"오일망의 무공은 무척 고강한데, 기천표가 어떻게 그를 당해 낼 수 있습니까?"

"물론 기천표 자신도 자기의 실력으로는 오일망의 일표(一標)도

막아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지. 그래서 그는 궁리끝에 암기의 명수인 낙양의 교씨 형제(喬氏兄弟)에게 도움을 청했네. 그런데 이튿날 아침 기천표가 적을 무찌를 방법을 상의하기 위해 교씨 형제를 찾아갔더니, 그들 형제는 갑자기 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발생하여 강남(江南)에 갔다지 뭔가. 기천표는 배은망덕하게도 교씨 형제가 입으로만 승낙하고 도주해 버리자 처지가 난감하게 되었지. 오일망의 수법이 악랄하다는 사실은 잘 알지만 약속을 어길 형편도 못 되어 기천표는 생각다 못해 객점에서 후사를 부탁한다는 유서를 한 통 적어 표사에게 맡기고 혼자서 약속 장소로 향했네."

장송계는 목이 마른지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말을 이었다.

"마침 그날 나는 거지로 변장하여 서문 밖의 고목 아래에 누워 쉬고 있었는데, 마침 오일망과 기천표가 싸움을 시작하더군. 두 사람은 몇 번을 주고 받는가 싶더니 오일망이 갑자기 단혼오공표를 던졌지. 기천표가 피하지 못하고 당황하기에 나는 보고 있을 수만 없어 잽싸게 몸을 날려 단혼오공표를 손으로 받았지. 그러자 놀란 오일망이 단숨에 단혼오공표를 여덟 개나 던지더군. 비록 모두 받아내긴 했지만 그의 성명암기(成明暗器)는 역시 위력이 대단하여 하마터면 일곱 번째 독표에 적중당할 뻔했지. 오일망은그제야 강적을 만났음을 깨닫고 수치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채 양주로 돌아가 지금까지도 두문불출하고 있지."

막성곡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네째 사형, 물론 오일망도 선량한 도배가 아니지만 기천표 역시 정도(正道)의 인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천표를 도우려고 모험을 한 것은 아무 가치 없는 짓입니다."

"칠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도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가만히 구경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묵묵히 듣고 있던 장취산은 먼 앞을 내다보는 그의 긴 안목에

내심 고마움과 탄복을 금치 못했다. 장송계가 그렇듯 위험을 무릅쓰고 기천표를 도운 목적은, 용문표국의 일문을 몰살한 원한을 해소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는 호거표국이 강남 일대의 모든 표국을 지배하고 하북, 산동 지역의 표국 우두머리는 연운표국이며 서북 각성은 진양표국이 관할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용문표국의 일이 문제가 되면 이들 세 표국이 앞장서서 복수를 하려는 것도 뻔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사전에 그들에게 은혜를 한 가지씩 베풀었던 것이다. 이 세 가지 일이 보기에는 우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장송계가 이런 기회를 기다리느라 얼마나 많은 심혈과 시간을 소모했는지 모른다.

장취산은 너무 감격하여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째 사형, 우리는 동심일체나 다름 없는 사형제이므로 고맙다는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사건은 당시 소제의 안 사람이 성격이 과격한 탓으로 저지른 일입니다."

이어 그는 은소소가 자기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용문표국에 침입하여 칠십여 인명을 살해한 경위를 설명했다.

"네째 사형,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수습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장송계는 한참 동안 심사숙고하더니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이 일은 일단 은사님께 아뢰어 그 어른의 분부에 따를 도리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생각컨대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 또 제수씨도 이미 개과천선하여 지난 날의 제수씨가 아니다.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큰사형, 그렇지 않습니까?"

송원교가 수십명의 인명과 관계되는 이 일을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유연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신 대답했다.

"네째 사형의 말이 옳네."

은이정은 여러 사형 중에서도 제일 엄격한 둘째 사형인 유연주

가 장송계의 말에 동의하자 뛸 듯이 기뻐했다.

"그렇습니다. 소제도 네째 사형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물으면 다섯째 사형께선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고만 말씀하십시오."

송원교가 못마땅한 눈빛으로 은이정을 쏘아보았다.

"그런 식으로 잡아떼기만 한다면, 오제의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으며 또 협명(俠名)을 지니고 있다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편하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사부님의 백 주년 생신 연회를 치룬 후 오제의 자식부터 먼저 찾고 황학루 영웅연에서 금모사왕 사손의 일을 처리한 다음, 우리 사형제 여섯 사람과 다섯째 제수씨가 함께 강남으로 내려가 삼 년 안으로 한 사람당 의로운 일을 열 가지씩 행하는 것이다."

장송계가 손뼉을 치며 찬성했다.

"그건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용문표국의 칠십여 인명이 억울하게 죽었지만, 우리가 각자 의로운 일을 열 가지씩 행한다면 죄값을 치루게 되는 셈입니다."

유연주도 동의했다.

"큰사형의 적절한 의견에 은사님께서도 틀림없이 승낙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칠십여 인명을 죽인 죄로 다섯째 제수씨의 목숨을 뺏어보았자, 귀중한 목숨만 하나 더 잃을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장취산은 이 일로 줄곧 번민하고 있었는데, 큰사형 송원교가 이렇게 제안하자 천근같이 무겁던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

"소제는 당장 가서 그녀에게 전하겠습니다."

하고 은소소의 방으로 달려가 송원교가 제시한 의견을 전해 주었다.

은소소는 남편의 말을 듣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아픈 몸도 씻은 듯이 낫는 것 같았다. 무당육협의 명성이나 무공 실력으로 무기를 찾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일처럼 쉽기 때문이었다.

장취산은 아내의 방에서 나와 세째 사형 유대암을 만나려 갔다.

----- 제 2 권 4 장 끝 -----

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2 권

제 5 장 무당산(武當山)의 검은 구름

며칠이 지나고, 사월 초파일의 아침이 밝았다.

장삼봉은 다음날이 자기의 백세대수(百歲大壽)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비록 유대암이 불구의 몸이 되었고, 장취산이 실종되어 옥의 티라 느꼈지만 이날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동시에 그가 폐관하여 몰두해 오던 태극공(太極功)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있었다. 앞으로 태극공을 바탕으로 하여 무당은 소림에 못지않는 빛을 무림에 길이 남기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여, 이날 아침 폐관을 종식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장삼봉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다름이 아닌, 십 년 동안 못내 그리워해 오던 장취산이었다. 장삼봉은 혹시 잘못 본 게 아닌가 해서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다. 순간, 장취산이 그의 품안으로 뛰어들어 오열을 했다.

"사부님!"

그는 너무나 격동한 나머지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리는 것까지 잊었다.

송원교 등의 입에서 일제히 환호성이 터졌다.

"스승님, 크게 기뻐해 주십시오. 오사제가 돌아왔습니다."

백 세 고령의 거인 장삼봉! 팔십 년 동안 무도를 닦아온 그는 삼라만상을 보는 마음이 거울처럼 공명(空明)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장취산을 대하게 되자 끓어오르는 기쁨을 감출 수 없어 노안(老眼)에 이슬이 맺혔다.

잠시 후.

장삼봉은 제자들의 시중을 받아가며 목욕을 마치고 새 옷으로 말쑥하게 갈아 입었다. 장취산은 이 뜻깊은 날을 맞아 스승님의 심기를 어지럽힐 수지가 있는 일은 감히 입밖에 내지 못했다. 그저 빙화도의 신기한 경물을 위주로 들려주었다. 장삼봉은 그가 이미 아내를 맞아했다는 말에 더욱 기뻐했다.

"그럼 네 아내는 어디에 있느냐? 어서 불러오너라."

장취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 허락도 없이 아내를 맞이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장삼봉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껄껄 웃었다.

"너는 빙화도에서 십 년 동안이나 머물렀는데 무슨 수로 나한테 알렸겠느냐? 용서를 빌 필요가 없으니 어서 일어나거라. 장삼봉의 제자가 그렇게 소견이 좁아서야 쓰겠느냐?"

장취산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자의 아내는 출신 내력이 바르지 못합니다. 그녀는 .....천응교 은교주의 딸입니다."

장삼봉은 다시 수염을 쓰다듬으며 껄껄 웃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야? 색시의 인품이 그릇되지 않다면 그걸로써 충분하지 않느냐? 설령 인품이 좋지 않다 해도 이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연히 우리한테 감화될 것이 아니겠느냐? 천응교면 어떻느냐? 취산아, 사람은 무엇보다 도량이 좁아선 아니 되느니라. 그리고 명문 정파로 자처하며 다른 문파의 사람을 과소 평가하는 것도 금물이다. 정(正)과 사(邪)는 본디 애매한 것

으로서 정파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가짐이 옳지 못하면 사도(邪徒)라 할수 있고, 사파의 인물 중에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정인군자가 아니겠느냐?"

장취산은 뛸 듯이 기뻐했다. 십 년 동안 혼자서 감당해 온 마음의 부담이 스승님의 이 몇 마디로 인해 안개처럼 걷혔다.

장삼봉이 다시 입을 열었다.

"너의 장인 어른이 되시는 은 교주는 나하고 오래 전에 교분을 맺은 바가 있다. 나는 그의 뛰어난 무공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당당한 기남아(奇男兒)임에 분명하다. 비록 성품이 다소 편파적이며 일을 행함에 있어 편법을 많이 쓰지만, 비겁한 소인배는 절대 아니다. 우린 얼마든지 그를 친구로 맞아들일 수가 있다."

그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종자 하나가 들어와 아뢰었다.

"천응교 은 교주께서 사람을 시켜 장오사숙께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장인 어른이 혼수감을 보내온 모양이구나. 취산아, 어서 가서 손님을 영접하도록 해라."

장취산은 공손하게 대답했다.

"네, 스승님."

객청에 두 노인이 숙연하게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하인의 차림새를 하고 있었다. 장취산이 들어서는 것을 보자 일제히 앞으로 몇 걸음 나서며 무릎을 꿇었다.

"문안 올리옵니다. 소인들은 은무복(殷無福)과 은무록(殷無綠)이라 합니다."

장취산은 읍을 하여답례했다.

"어서들 일어나시오."

그는 내심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이상하군. 집에서 부리는 하인배라면 이

름이 평안(平安)이라든가 길복(吉福), 경희(慶喜) 같은 상스러운 것이 대부분인데, 어째서 무복과 무록이라 이름을 지었을까?'
두 사람을 살펴보니 모두 얼굴에 긴 칼자국이 나 있었다. 특히 무록은 얼굴이 헐었고, 두 사람 모두 추하게 생겼다. 그들의 나이는 오십 줄로 보였다.
장취산은 낭랑한 음성으로 말했다.
"빙장, 빙모님도 편안하시죠? 그렇지 않아도 며칠 후에 아내와 함께 두 어르신네를 찾아뵐 생각이었는데, 먼저 이렇게 사람을 보내 주시니 그저 황공할 따름이외다. 두 분은 먼길을 오느라고 고생이 많았을 텐데 어서 자리에 편히 앉으시오."
은무복과 은무록은 감히 자리에 앉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공손하게 예단을 올렸다.
"이것은 저희 집 나리께서 보내신 조그마한 예물이니 받아주십시오."
장취산은 거절할 수 없었다.
"고맙소."
예단을 받아 살펴본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십여 장 이나 되는 금색 바탕의 예단에 모두 이백 가지가 넘는 예품이 적혀 있는게 아닌가!
첫 번째로 나열된 것은 한 쌍의 벽옥사자(碧玉獅子)이고, 두 번째는 한 쌍의 비취봉황(翡翠鳳凰)이었다. 그리고 무수한 주보(珠寶)에 특품 자색 늑대털로 만든 붓 백 자루, 당조(唐朝)때 공품(貢品)으로 쓰였던 먹(墨) 이십 개, 최고급 쌍지 백 뭉치, 벼루 여덟 개도 적혀 있었다.
천응교주는 이 새로 맞은 사위가 서법(書法)에 능통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최상품의 문방사우(文房四友)를 구입해 보내온 것이다. 그 외에도 옷과 일상용품이 골고루 적혀 있었다.
은무복이 곧 밖으로 나가 잠시 후 건장한 인부 이십 명을 데리

고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틀가락으로 무거운 짐을 옮겨와 차례로 객청에 차곡차곡 내려 놓았다.
장취산은 웬지 마음이 부담스러웠다.
'나는 어릴 적부터 산 속에서 청빈하게 생활해 왔는데 이런 진귀한 물건들을 어디에다 쓴단 말인가? 하지만 빙장 어른의 후사이니 사양할 수도 없고.....'
그는 다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예물을 받았다.
"아내는 긴 여로에 지쳐 지금 누워 있으니 두 분은 이곳에서 며칠 간 머물며 그녀를 천천히 만나보도록 하시오."
은무복이 그의 말을 받았다.
"저희 어르신네께서는 아가씨의 안부를 하루속히 듣고 싶어하시기 때문에 소인들은 곧 돌아가야 합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아가씨를 잠깐만 뵙고 떠나겠습니다."
장취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녕 그렇다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방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은소소는 크게 기뻐하며 간단하게 치장을 하고 나서 무복과 무록을 만나 부모님과 가족들의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간단한 주반(酒飯)을 대접했다.
은무록과 은무복은 식사를 마치자마자 작별을 고했다.
장취산은 내심 생각했다.
'빙장, 빙모께서 이렇게 후한 예물을 보내 주셨으니 이 두 사람에게 거기에 알맞는 후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은자를 다 모아도 성의 표시와는 거리가 멀으니.....'
그는 성격이 활달하여 별로 개의치 않고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빙장, 빙모님께서 가난한 사위를 얻어 두 분께도 변변한 사의를 표하지 못하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오."

은무복이 진지하게 그의 말을 받았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무당오협을 이렇게 가까이 뵈온 것만으로도 천금을 시사받은 것보다 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장취산은 이들의 언동에서 예사 하인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직접 중문(中門)까지 전송해 주었다.

은무복은 황송해 하며 몸을 깊숙이 숙였다.

"소인들을 여기서 작별을 고하겠습니다. 아가씨께서 하루속히 집으로 오셔서 어르신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합니다. 본교의 모든 사람들이 장야(張爺)의 늠름한 모습을 뵙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장취산은 빙긋이 웃어 주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말수가 적은 은무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 가지 작은 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인들이 이곳까지 오는 도중 양양 각산에서 우연히 표객 세 사람을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장야에 관하여 거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음, 그들이 뭐라고 합디까?"

"그 중 한 사람이, 무당칠협은 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바가 있지만 용문표국의 일은 절대 덮어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개봉부(開封府)로 가서 신창진팔방(神愴震八方) 담(譚) 노영웅을 모셔내 장야께 죄를 문책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취산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런 의사 표시도 하지 않았다.

은무록은 갑자기 품 속에서 작은 깃발 세 개를 꺼내 두 손으로 장취산에게 건네주었다.

"소인 형제들은 그 세 사람이 감히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려는 것을 알고, 그 화살을 천응교에게 돌리게끔 조

치를 해놓았습니다."

장취산은 세 개의 깃발을 확인하자 흠칫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첫 번째 깃발에는 포효하는 맹호가 새겨져 있었는데, 바로 호거표국을 상징하는 표기였고, 두 번째 깃발에는 구름을 뚫고 비상하는 백학의 모습이 생생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그것은 진양표국의 깃발이며, 운중백학은 총표두인 운학을 상징한 것이다. 세 번째 깃발에는 아홉 마리의 금빛 제비가 수놓아져 있으며, 연운표국의 머리글자 연(燕)자와 총표두 궁구가의 이름에서 따온 아홉 구(九)자가 합쳐져 있는 깃발이었다.

장취산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며 물었다.

"그들의 깃발을 어떻게 갖고 왔소?"

"그들이 감히 장야께 무례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 저희 형제가 약간 손을 봐주고 표국의 깃발을 갖고 온 것입니다."

장취산은 다시 한 번 놀랐다. 궁구가 등 세 사람은 비록 무림의 최고봉 고수는 아니지만, 제각기 절예를 지니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빙장 어른이 거느리고 있는 하인이 그들을 제압하고 표국의 상징인 표기까지 갖고 온 것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혹시 이들이 미혼약, 독약 따위의 비겁한 수단을 전개한 것이 아닌가 해서 장취산은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이 깃발을 수중에 넣게 된 경위를 얘기해 주겠소?"

은무복은 여전히 담담하게 말했다.

"당시 우리 형제 셋은 그들에게 정식으로 도전하여 양양 남문 밖에서 무예를 겨루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만약 그들이 패하며 스스로 한 쪽 팔을자르고 표기를 남긴 채 다시는 호북성 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약조를 받았습니다."

장취산은 들을수록 이들이 예사 하인배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소?"

"시간은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표기를 내놓고 각자 자기의 왼쪽팔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평생 호북성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약조를 했습니다."

장취산은 내심 섬뜩함을 느꼈다.

'이 천응교의 인물들은 과연 수단이 악랄하군.'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은무록은 그것을 보자 얼른 입을 열었다.

"소인들의 처사가 너무 가벼웠다고 생각되신다면 당장 그들을 쫓아가 죽여 버리겠습니다."

장취산은 얼른 손을 내저었다.

"아니오! 그 정도면 상당히 무거운 벌을 내린 셈이오."

은무복이 그의 말을 받았다.

"소인들은 이번에 장야께 예물을 보내는 큰 경사를 맞아 인명을 죽이는 일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잘 했소. 조금 전에 형제가 셋이라고 한 것 같은데, 또 한 분은 어찌 오지 않았소?"

"막내인 은무수(殷無壽)는 행여나 신창 담노인이 소식을 전해 듣고 장야를 찾아와 귀찮게 굴까 봐 개봉부로 달려갔습니다. 소인이 막내를 대신해 장야께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은무복은 무릎을 꿇고 넙죽 큰절을 올렸다.

장취산은 읍으로 답례했다.

"자, 어서 일어나시오."

그는 내심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신창진팔방 담서래(譚瑞來)는 이미 사십 년 전에 위명을 떨친 노영웅이었다. 은무수가 자기로 인하여 그를 찾아갔으니 쌍방 어느 쪽이 손상을 입어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

"신창진팔방 담 노영웅은 협명을 떨쳐온 정인군자이니, 두 분은

속히 개봉부로 달려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일을 선처해 주었으면 고맙겠소."

은무록이 담담하게 웃었다.

"그 일에 대해선 아무 염려 마십시오. 그 담 영감태기는 감히 저희 막내에게 무력을 행사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겁니다. 막내가 그더러 얌전히 있으라고 한 마디만 전하면 그는 절대 경거망동을 하지 못할 겁니다."

장취산은 반신반의했다.

"그게 사실이오?"

은무록은 그의 마음을 읽었는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 담 영감태기는 이십 년 전에 이미 막내에게 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의 큰 약점을 쥐고 있으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

두 사람은 다시 작별의 인사를 하고 떠나갔다.

장취산은 깃발 세개를 손에 쥔 채 잠시 그 자리에 넋을 잃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무기의 행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할까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끝내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공연히 이사형의 위명이 손상될까 봐 신중을 기한 것이다.

그는 곧 천천히 자기의 침실로 돌아왔다. 은소소는 예단을 보고 나서 부모님의 두터운 정에 감격했다. 그리고 무기의 생사 안위가 생각나자 마음이 한없이 초조했다.

그녀는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온 것을 보자 얼른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장취산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무복 형제들은 어떤 내력을 지니고 있소?"

은소소는 남편과 혼례를 올린 지 십 년이 되었지만 그가 천응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기 집안에 대해 줄곧 언급을 하지 않았었다. 장취산도 그녀의 집안에 대해 물은 적이

없었다. 지금 남편의 물음을 받자 비로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
"그 세 사람은 이십 년 전만 해도 서남(西南) 일대를 휩쓸고 다니는 대도(大盜)였대요. 하루는 많은 무림 고수들에게 협공을 당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됐는데, 저의 아버님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남자다운 기백을 가상히 여겨 나서서 도와주었대요. 세 사람은 원래 성이 같지 않았어요. 물론 친형제도 아니었죠. 한데 저의 아버님의 구명지은에 보답하기 위해 평생을 하인으로서 받들겠다면서 예전의 성과 이름을 버리고 은무복, 은무록, 은무수로 개명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아버님의 말에 따르면 무림에서 혁혁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인물들도 그들 세 사람과 비교하면 무공이 뒤떨어진다고 하셨어요."
장취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었군."
이어 그들 세 사람이 표기를 빼앗아 온 경위를 얘기해 주었다.
은소소는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이마를 찌푸렸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호의로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오히려 당신에게 누를 끼치는 결과가 됐군요.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명문정파와 완전히 달라요. 이.....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군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다음 말을 이었다.
"무기만 찾으면 우리 다시 빙화도로 돌아가요."
이때 밖에서 은이정의 외침소리가 들렸다.
"오사형! 어서 나와서 스승님의 백 회 수연을 축하하는 글을 몇 줄 써주셔야겠어요!"
그는 낭랑하게 웃고 나서 다시 소리쳤다.
"형수님, 제가 오사형을 데려간다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오사형

이 철필은구(鐵筆銀鉤)이니 낸들 어떻게 합니까?"

이날 오후, 사형제 여섯 명은 화공도인(火工道人)과 도동들을 이끌고 자소궁을 말끔히 청소하고, 대청 곳곳에 장취산이 쓴 수련(壽聯)을 붙었다. 모처럼 무당산 자소궁이 화기애애한 축하 분위기에 싸였다. 송원교 등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다음날 아침.

송원교 등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유대암을 부축해 함께 스승님께 배수(拜壽)를 하러 가려는데, 도동 하나가 뛰어들어와 명첩을 내밀었다. 송원교가 명첩을 받았다. 그러나 장송계의 눈이 빨라 그 명첩에 적힌 글을 먼저 읽었다.

----- 곤륜 후학(後學) 하태충(河太沖)과 문하제자가 장진인의 만수무강을 공축합니다. -----

장송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곤륜 장문인께서 스승님의 수연을 축하하기 위해 직접 오셨다. 그가 언제 중원으로 들어왔는지....."

막성곡이 얼른 물었다.

"하부인께선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태충의 부인 반숙연은 원래 그의 동문 사저(師姐)로서 무공이 곤륜 장문인에 못지 않다고 했다.

장송계는 고개를 내둘렀다.

"명첩에는 하부인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네."

송원교가 심각하게 말했다.

"우리로선 굉장한 귀빈이니 스승님께 알려 친히 영접토록 해야겠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장삼봉에게 알렸다.

장삼봉은 다소 뜻밖이란 표정을 지었다.

"철금선생이 좀처럼 중원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 늙은이의 생일을 알고 찾아왔을까?"

그는 곧 제자 여섯을 이끌고 영접을 했다.

철금선생 하태충은 생각보다 늙지 않았다. 그는 황색 장삼을 입고 있었으며 청수한 용모와 더불어 고상한 분위기가 풍겨, 과연 명문 정파의 일대종사(一代宗師)다운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여덟 명의 남녀 제자가 따르고 있었는데 서화자와 위사랑의 모습도 보였다. 하태충은 장삼봉에게 공손히 축하 인사를 올렸고, 장삼봉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공수로서 답례했다. 송원교 등이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리자 하태충도 무릎을 꿇은 채 답례했다.

장삼봉은 하태충을 대청으로 안내해 차를 대접했다. 이때 도동이 다시 명첩을 들고 들어와 송원교에게 전해 주었다.

이번에 온 사람들은 공동오로였다.

당금 무림에서 소림과 무당의 명성이 가장 두드러졌고 그 다음이 곤륜 아미이며, 공동은 그보다 한 차원이 낮았다. 그러나 장삼봉은 매우 겸허하여 친히 그들을 맞이하게로 했다.

"공동오로가 왔으니 하형은 잠시 앉아 계십시오. 그들을 이리 모셔오겠소."

하태충은 내심 투덜거렸다.

'공동오로 정도면 제자를 시켜 영접해도 될 텐데.....'

잠시 후 공동오로가 제자들을 이끌고 모습을 나타냈다. 이어 신권문, 해사파, 거경방, 무산방 등등 많은 문파방회의 수뇌 인물들이 수연을 축하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장삼봉은 이렇게 떠들썩한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칠십 회, 팔십 회, 구십 회 생일을 맞았을 때도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었다. 그런데 백 회 생일을 맞아 이렇게 많은 무림 귀빈들이 운집하게 될 줄이야 그 역시 뜻밖이 아닐 수 없었다. 계속 몰려오는 축하객으로 인해 이젠 손님에

게 권할 의자조차 없었다.

송원교는 사람을 시켜 적당한 바위돌을 주위와 대청에 즐비하게 늘어놓게 했다. 각파의 장문인과 각 방의 방주는 의자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문인, 제자들은 바위에 앉는 도리밖에 없었다. 찻잔도 부족해 결국 밥그릇으로 대신하는 촌극까지 벌여야 했다.

한참 분주한 가운데 장송계가 갑자기 장취산을 조용한 곳으로 불렀다.

"오제, 뭔가 이상한 기미를 눈치채지 못했나?"

장취산은 눈살을 가볍게 찌푸렸다.

"글쎄요..... 저들은 마치 사전에 뭔가 약속을 하고 이곳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서로 회심의 미소를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맞았어. 그들은 진심으로 스승님께 축하를 드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닐세."

"그럼 그 명목을 빌려 용문표국의 일을.....!"

"용문표국에 관한 일이라면 철금선생 하태충까지 동원할 리가 없네."

"음... 그렇다면 금모사왕 사손 때문에 온 것이겠군요!"

장송계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소를 날렸다.

"그들은 우리 무당파를 너무 과소 평가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제아무리 많은 인원수를 앞세워 밀어부친다 해도 무당제자가 어찌 친구를 배신할 리가 있겠는가? 오제, 그 사손이 설령 잔악무도한 대도라 할지라도 자네의 의형인 이상 절대 저들에게 그의 행적을 노출시켜선 아니 되네."

장취산의 표정은 무거웠다.

"사사형의 말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되죠?"

장송계는 잠시 생각을 굴리고 나서 입을 열었다.

"지금으로선 상황에 따라 신중을 기하는 도리밖에 없네. 우리

형제 일곱이 힘을 합치면 제아무리 큰 풍파가 몰아닥친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네."

유대암은 비록 불구가 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무당칠협으로 자처했다.

한편, 대청안에서 손님을접대하고 있는 송원교, 유연주, 은이정 세 사람도 심상치 않은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이때 도동이 다시 들어와 보고했다.

"아미파의 제자 정현사태(靜玄師太)가 동문 다섯 분과 함께 사조의 수연을 경축하기 위해 당도해 있습니다."

송원교와 유연주는 일제히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은이정을 쳐다보았다. 곧이어 막성곡이 팔, 구 명의 손님을 안내해 들어왔고, 장취산, 장송계도 내당에서 걸어나와 아미파이 제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은이정을 향해 미소를 보냈다. 은이정은 얼굴이 붉어지면 매우 어색해 했다.

장취산이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자, 우리 함께 귀빈을 맞으러 가세."

두 사람은 곧 밖으로 나갔다.

정현사태는 나이가 사십 줄이며, 비록 여자지만 보통 나자보다 키가 한 뼘 정도 더 클 정도로 몸집이 우람했다. 그녀의 뒤에는 다섯 명의 사매와 사제가 따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설흔 살 가량의 깡마른 남자며, 둘은 여승으로서 그 중 하나는 장취산이 배에서 본 적이 있는 정허사태였다. 나머지 둘은 모두 스무 살 정도의 낭자인데, 한 사람은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띄우고 있고, 한 사람은 피부가 백설 같으며 용모와 몸집이 빼어난 데다가 시종 고개를 숙인채 옷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은이정과 혼약을 정한 기효부(紀曉夫) 낭자였다. 장취산이 앞으로 나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여섯 명을 안으로 안내했다. 은이정은 매우 쑥스러워하며 기효부에게 감히 눈길도 주지 못했다. 일

행이 복도 아래 이르자 그는 맨 뒤로 쳐져 비로소 슬며시 기효부를 쳐다보았다. 마침 기효부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그에게 눈길을 주는 바람에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장송계는 줄곧 상황 분석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미파의 제자들이 당도한 것을 알고 다소 마음이 놓였다.

'기 낭자는 육사제와 혼약을 한 사이이니, 나중에 상황이 악화돼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아미파는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다.'

각처에서 손님이 계속 몰려드는 가운데 어느덧 정오가 되었다. 자소궁 쪽은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 군호들에게 주연을 베풀 수가 없었다. 무당의 여섯 제자는 군호들에게 일일이 사과를 했다. 그런데 군호들은 식사를 하면서 계속 대청 밖을 힐끔힐끔 쳐다 보았다.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송원교는 이미 모든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각 문파, 각 방회의 수뇌 인물들은 자신의 신분을 고려해 무기를 지니지 않았지만, 문하제자들은 대부분 허리가 불룩한 것이 무기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단지 아미, 곤륜, 공동 삼파의 제자만이 전부 빈손일 뿐이었다.

송원교 등은 내심 분노를 금치 못했다.

'스승님께 축수를 하러 온 자들이 무기를 몸에 숨기고 있다니..... 진작 이럴 줄 알았다면 우리와 인연을 맺은 고수들을 초청하는 건데.....'

사실, 송원교 등은 스승님의 수연을 조용히 마친 후 영웅첩을 띄워 무창(武昌) 황학루(黃鶴樓)에서 영웅대연(英雄大宴)을 개최할 계획이었다. 그 자리를 빌어 장취산이 친구를 배신할 수 없는 고충을 털어놓으면, 의(義)를 중요시하는 무림인들이라 더 이상 장취산을 몰아부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설령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자가 있다 해도 그 자리엔 무당과 교분이 두터운 고수

들이 많이 참석할 것이므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한데, 군호들은 그러한 기미를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스승님의 백 회 수연을 명분삼아 느닷없이 몰려들었으니.....

장송계가 나직이 말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전력을 다해 한판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당칠협 중에 장송계의 계략이 가장 뛰어났다. 매번 어려운 일에 봉착되면 그가 절묘한 수를 생각해 내 위기를 모면하곤 했다.

유연주가 암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사제마저 속수무책이라면 오늘 무당산에 일대 혈전이 물가피한 모양이군."

만약 일 대 일의 상황이라면 지금 이곳을 찾아온 군호중에 아무도 무당육협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십 대 일, 심지어 삼,사십 대 일이 아닌가! 장송계는 유연주의 소매를 잡아 끌어 뒷청으로 들어갔다.

장송계는 주위를 한 번 살피고 나서 입을 열었다.

"이사형, 아무래도 오늘의 일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연주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무엇보다도 삼제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네. 그 일은 자네가 맡게. 그리고 오사매의 몸도 불편하니 오제더러 그녀를 보살피라고 하게. 적을 상대하는 일은 우리 넷이 맡겠네."

장송계는 그의 의견을 반대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끝을 흐리는 듯하더니 조심스럽게 이었다.

"한 가지 비상수단이 있는데 다소 위험 부담이 따를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위험 부담을 안는 게 대수겠나? 무슨 묘책인지 어서 말해 보게."

"우리가 각자 상대를 한 사람씩 골라 단 일초식에 제압하는 겁니다. 물론 고수를 택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상대방의 기를 꺾어 감히 경거망동하지 못하게끔 기선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일초에 제압하지 못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덤벼들 텐데..... 그것도 고수를 단 일초에....."

"그래서 호조절호수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유연주는 이 말을 듣자 전신에 한 차례경련이 일었다.

"뭣이? 호조절연수!? 오늘은 스승님의 수연을 축하하는 뜻깊은 날인데 어떻게 그런 악랄한 살수를....."

무당파에는 한 가지 무서운 금나수법이 있었다.

호조수(虎爪手)!

유연주는 스승님으로부터 이 호조수를 전수받은 후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스스로 열 두 가지 새로운 초식을 만들어 냈다. 장삼봉은 제자들에게 무공을 전수하기 앞서 우선 자질, 품행, 성격, 오성(悟性) 등을 분석하여 거기에 알맞는 지도를 했다. 그리하여 그의 제자들은 모두 대기(大器)로 성장할 수 있었고, 비단 스승님의 무학을 전수받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창의력으로 새로운 초식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그러니 유연주가 호조수로 새로운 초식을 변화시킨 것은 별로 특이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장삼봉은 그가 새로운 초식을 펼쳐 보인 후에 단지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런 평도 하지 않았다. 유연주는 스승님의 태도에서 필시 이 초식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심혈을 기울였다. 몇 달 후에 그는 다시 스승님께 초식을 펼쳐 보였다.

장삼봉은 비로소 한숨을 내쉬며 입을 떼었다.

"연주야, 이 열 두 초식의 호조수는 내가 가르친 것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다. 하지만 초식마다 상대의 요안혈(腰眼穴)을 노리고 있어 누구를 막론하고 이 초식에 당하게 되며 음호(陰戶)가 손상되어 대가 끊이게 될 것이다. 내가 가르쳐 준 정대광명한 무

학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느냐? 구태여 남의 대를 끊이게 하는 이런 초식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겠느냐?"

유연주는 스승님의 훈계를 듣자 비록 엄동설한이었지만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

며칠 뒤에 장삼봉은 일곱 명의 제자를 모두 가까이 불러 이 일에 관해 얘기해 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연주가 만들어 낸 이 열 두 가지 초식을 명실공히 절학(絶學)임에는 분명하다. 만약 내 한마디로 인해 영원히 폐기된다면 아까운 일이니 모두들 연주에게 배우도록 해라. 단지 생사 위기가 아닌 이상 절대 경솔하게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호조" 두 글자 아래 절호(絶戶)라는 두 글자를 더 붙일 테니 이 무공이 상대방의 대를 끊게 하는 멸문절호(滅門絶戶)의 살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당시 일곱 제자는 스승님의 분부를 받들겠다고 대답했으며 유연주로부터 그 호조절호수를 전수받았다. 물론 그들은 스승님의 분부에 따라 여지껏 그 살수를 한 번도 전개한 적이 없었다. 한데 오늘 긴박한 상황을 맞아 장송계가 제의를 하니 유연주가 선뜻 승락을 하지 못하고 망설여지게 된 것이다.

장송계는 그의 표정을 살피며 차분하게 말했다.

"이 호조절호수를 전개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영원히 생육을 못하게 할 우려가 있으니 우린 화상이나 도인, 아니면 칠, 팔십세 된 노인을 상대로 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유연주도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과연 자네의 생각은 빈틈이 없군. 화상과 도인이라면 생육을 하지 못하게 되도 상관이 없겠지."

두 사람은 결정을 내리고 나서 곧 이 계획을 송원교 등에게 알렸다.

그들은 제각기 상대를 한 명씩 정했다. 장송계가 짤막한 외침으로 신호하면 동시에 호조절호수를 전개해 상대방을 제압하기로 약속했다. 유연주가 선택한 상대는 공동오로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관능(關能)이고 장취산이 선택한 상대는 곤륜파의 서화자였다.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자 화공도인들은 뒷치닥거리를 하느라고 분주했다.

이때 장송계가 낭랑한 음성으로 말했다.

"여러 선배님, 그리고 여러 친구들, 오늘 저희 스승님의 백 회 수연을 맞아 이렇게 불원천리 찾아와 축하해 주신데 대하여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소홀해 여러분들을 융숭히 대접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무창 황학루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모시고 오늘의 불찰을 보충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의 오사제인 장취산은 중원을 떠난지 십 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십 년 동안 겪은 일을 아직 스승님께도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더우기 오늘은 스승님의 뜻 깊은 날이니 만큼 무림의 은원에 관해선 언급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모처럼 무당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이니 저희들이 모시고 사채를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장송계는 우선 말로서 군호들의 행동을 묶어둘 생각이었다.

주위는 금시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군호들은 아미파를 제외하고 모두 금모사왕의 행방을 추궁할 목적으로 이곳에 모인 것이다. 그들은 이미 일전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막상 장송계의 조리정연한 발언에 선수를 빼앗기자 서로 마주 보며 누가 먼저 선뜻 나서는 자가 없었다. 침묵은 결코 오래 가지 않았다. 곤륜파의 서화자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다.

"장사협,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린 이곳에 온 목적을 확실히 밝히지 않을 수가 없구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장진인의 수연

을 축하하기 위함이지만, 아울러 사손의 행방을 묻는 것도 우리에겐 중요한 일이외다!"

막성곡은 여지껏 참고 있다가 그의 말에 대뜸 냉소를 날렸다.

"흥! 역시 그랬었군! 어쩐지....."

서화자는 이내 눈을 부라렸다.

"뭐가 어쨌다는 건가?"

막성곡은 즉시 쏘아부쳤다.

"여러분들이 수연을 축하하려 오면서 암암이레 무기를 숨기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처음부터 서로 작당하여 혈풍(血風)을 일으키기 위해 온 것이로군!"

서화자는 그 자리에서 허리띠를 풀며 싸늘하게 외쳤다.

"막칠협 똑똑히 보게! 그 나이에 벌써부터 생사람을 잡으려 하다니..... 우리가 무기를 숨기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단 말인가?"

막성곡은 냉소를 날렸다.

"흥! 그렇군요! 과연 무기를 숨기지 않았군요!"

이 말을 내뱉기 무섭게 그의 곁에 있는 두 사람을 향해 지풍을 날렸다. 그의 출수는 전광석화처럼 빨랐다.

챙!

금속성이 들리며 두 자루의 단검이 바닥에 떨어졌다. 막성곡이 튕겨낸 지풍이 두 사람의 허리춤을 절단시켰으며 그 즉시 옷 속에 숨겨둔 무기가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자 주위 사람들은 모두 안색이 급변했다. 자연히 분위기가 긴장되고 서화자는 발악을 하듯 소리쳤다.

"그래! 만약 장오협이 사손의 행방을 솔직히 실토하지 않는다면 일장 혈전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장송계는 공격 신호를 보내려 했다. 한데 난데없이 문 밖에서 불호(佛號)가 들려왔다.

"아미타불!"

이 소리는 멀리서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가까이서 들려온 것 같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 소리에 고막이 진동되었다.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던 장삼봉이 잔잔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이제 보니 소림의 공문선사가 오셨군. 어서 영접해라!"

문 밖에서 그 웅후한 내력이 담긴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소림사 주지 공문이 사제 공지, 공성과 함께 문하제자들을 이끌고 장진인의 천추장락(千秋長樂)을 공축하려 왔소이다."

소림의 사대신승(四大神僧) 중에 공견대사는 이미 죽였고, 나머지 삼승이 전부 무당에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장송계의 놀라움은 컸다. 그는 공격 신호를 미처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소림의 절정고수가 무당에 나타난 이상 설령 자기네들의 호조절호수로 곤륜, 공동 등의 고수를 제압해도 대국(大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곤륜파의 장문인 하태충이 모처럼 입을 열었다.

"소림신승의 청명(淸名)을 오래 전부터 들어왔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실로 광영이로소이다."

문 밖에서 이내 회음(回音)이 들려왔다.

"곤륜 장문인 하선생이구료. 만나뵙게 되어 반갑소이다. 장진인, 빈승들이 늦게 당도한 것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십시오."

장삼봉은 여전히 입가에 미소를 띄운 채 말했다.

"오늘 세 분 신승의 축하까지 받게 되니 백 년 동안 헛되게 살아온 것이 새삼 부끄러워지는구료."

이들 몇 사람은 수십 장의 간격을 두고 서로 내력으로써 문답을 하여, 마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미파의 정현사태, 정허사태, 공동오로 등은 공력이 미치지 못해 감히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놀라고 감탄할 뿐이었다.

장삼봉은 곧 제자들을 이끌고 마중나갔다. 소림사의 삼신승이 아홉 명의 승인을 이끌고 천천히 자소궁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공문대사는 백미가 눈을 가려 마치 장미나한(長眉羅漢) 같았다. 공성대사는 몸집이 우람하고 용모 또한 위맹스러웠다. 한편, 공지대사는 입술이 아래로 축 쳐져 고상(苦相)이었다.

송원교는 내심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는 풍수지리와 관상에도 일가견을 갖고 있었다.

'상례로 보아 공지대사 같은 고상은 단명이라 하는데, 장수를 누리고 있을 뿐아니라 무림의 존경을 받는 종사(宗師)이니 관상학도 역시 한계가 있는 모양이군.'

장삼봉과 공문대사 등은 모두 무림의 대종사였다. 그러나 서로 직접 대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이로 논한다면 장삼봉은 그들보다 삼, 사십 년 연상이었다. 그는 소림 출신으로서 만약 스승인 각원대사의 배분으로 배열한다면, 공문보다 두 배분이 높았다. 하지만 장삼봉은 소림에서 수계(受戒)하여 승적에 오른 일도 없으며, 정식으로 소림 승려에게 무학을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서로 평배로서 상견례를 올렸다. 자연히 송원교 등은 한 배분 아래가 되었다.

장삼봉은 공문 등을 대 ㄸ아로 안내했다. 공문 등은 하태충, 정현사태, 공동오로 등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다. 군호들의 수가 워낙 많아 인사를 나누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공문 등은 자리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공문이 넌지시 입을 열었다.

"장진인, 빈승 등은 나이로 보나 배분으로 보나 모두 장진인의 후배로소이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을 맞아 다른 얘기를 거론하지 않는 게 예의인지 알면서도, 빈승은 소림의 장문인으로서

장진인께 허심탄회하게 몇 마디 가르침을 받고자 하니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장삼봉은 성품이 호상(豪爽)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반문했다.

"세 분 고승은 혹시 나의 다섯째 제자 장취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까?"

장취산은 스승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자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문대사도 더 이상 말을 돌리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장오협에게 두 가지 일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장오협이 우리 소림의 용문표국 일흔 한 명의 목숨과 문중제자 육인을 살해한 행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소이다. 둘째, 빈승의 사형이신 공견대사는 평생을 자비와 덕으로 일관해 오며 누구와도 다툼이 없으셨는데 금모사왕 사손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장오협이 사손의 행방을 알고 있다 하니 솔직히 밝혀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장삼봉이 뭐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장취산이 낭랑한 음성으로 말했다.

"공문대사, 용문표국과 소림 승인의 죽음은 후배와 무관합니다. 나 장취산은 스승님의 엄한 가르침을 받아 비록 우둔하지만 여지껏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흔 일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지만 밝힐수가 없습니다. 이상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두 번째로 공견대사께서 원적(圓寂)하신 것에 대해 후배도 무림인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만 그 금모사왕 사손은 후배와 결의형제를 맺은 사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그가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림인의 의(義)를 중요시하는 만큼 나 장취산은 목이 잘라져 피를 뿌리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의형의 행방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은사님과 동문들은 이번일과 무관하니 모든 것을저에게만 문책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녕 나 장취산으로 하여금 불의(不義)를 저지르게끔 궁지로 몰아넣겠다면 죽음을 불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으며 장취산의 얼굴은 정기(正氣)로 충만돼 있었다.

공문은 나직이 불호를 읊었다.

"아미타불....."

그는 장취산의 언동에서 그의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기에 이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옳을지 몰랐다.

바로 이때였다. 장취산의 귓전에 어렴풋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아버님!"

그 외침소리는 지극히 미약했지만 분명 대청 앞쪽 창 밖에서 들려온 것 같았다. 장취산의 전신에 한 차례의 경련이 일었다. 그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교차되어 즉시 큰 소리로 외쳤다.

"무기야, 네가 돌아왔느냐?"

그는 곧장 대청 밖으로 뛰쳐나갔다.

무산파와 신권문의 제자 중에 몇몇이 대청 입구에 서 있었는데, 장취산이 도망가려는 줄 알고 일제히 소리쳤다.

"달아날 생각 말아라!"

그들은 잽싸게 장취산에게 금나수법을 전개했다. 장취산은 아들의 안위가 급해 그들 몇몇을 좌우로 밀어붙이며 대청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대청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소리 높여 외쳤다.

"무기야! 무기야!"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대청 안에 있던 십여 명이 그의 뒤를 쫓아왔으나 그가 달아날

것 같지 않아 더 이상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한쪽에서 감시만 했다.

장취산은 다시 목을 놓아 소리쳤다.

"무기야! 무기야!"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은소소는 이때 몸이 어느 정도 완쾌되어 후당에 있었는데, 남편의 외침소리를 듣자 황급히 달려와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무기가 돌아왔나요?"

"분명히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 달려와 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는구료."

은소소는 크게 실망하며 울적하게 말했다.

"그 애 생각에 집착하다 보니 잘못 들은 모양이예요."

장취산은 잠시 넋을 잃고 있다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중얼거렸다.

"분명히 들었는데....."

그는 행여나 아내로 인해 일이 더욱 복잡해질까 봐 넌지시 등을 밀었다.

"당신은 후당에 가 있도록 하시오."

그는 다시 대청 안으로 돌아와 공문에게 몸을 숙였다.

"후배는 아들 생각에 본의 아니게 추태를 보였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공지대사가 그의 말을 받았다.

"천지만물의 이치는 같은 것! 장오협이 자식 생각으로 인해 가슴 아파한다면 그 사손에게 살해된 많은 사람들의 부모 형제의 마음도 헤아려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그의 몸집은 깡말랐지만 음성은 큰 종소리 같아 듣는 이의 고막을 진동시켰다.

공문대사가 직접 장삼봉에게 물었다.

"장진인, 오늘의 일을 어떻게 매듭지어야 좋을지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장삼봉의 표정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나의 제자는 비록 두드러진 게 없지만 감히 스승을 기만하거나 세 분 고승 앞에서 거짓말을 입 밖에 내진 못할 것이오. 용문표국의 인명과 귀파 제자의 죽음은 그의 소행이 아닌 것 같소. 그리고 사손의 행방에 대해선 결코 언급을 하지 않을 모양이외다."

공지대사가 냉소를 날렸다.

"장오협이 본문 제자를 살해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자가 있는데, 그럼 무당파의 제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소림파의 승인은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의 손짓에 따라 즉시 세 명의 중년 승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들은 모두 오른쪽 눈을 잃었으니 바로 십 년 전 서호변에서 은소소에게 은침 세례를 받았던 원광, 원음, 원업이었다. 장취산은 이들이 공문대사를 따라온 것을 벌써 보았으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리라는 것도 예측하고 있었다.

장취산은 괴로왔다. 당시 서호변에서 살수를 전개한 것은 자기가 아니지만 그 흉수는 이미 자기의 아내가 되어 있지 않은가! 아내의 행위를 감싸주자니 영락없이 자기가 누명을 뒤집어쓸 것이고, 사실을 털어놓자니 아내에게 화가 미칠 게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원자 배분 삼 승려 중에 원업의 성질이 예전부터 가장 거칠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었다. 그는 즉시 장취산에게 삿대질을 하며 우악스럽게 소리를 질렀다.

"장취산, 네가 임안 서호변에서 독침으로 본문 제자를 죽이는 것을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이제 와서 부인 할 작정이냐? 우리 세 사람의 눈은 바로 네가 전개한 독침에 이 모양이 됐는데도 잡아뗄 생각이란 말이냐?"

장취산은 최선을 다해 변명하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 무당파에서 사용하는 암기는 비록 종류가 적지 않지만 모두가 강표 혹은 수리전(袖裡箭) 같은 모양이 큰 것이오. 그리고 우리 사형제들이 여지껏 강호에서 활동하며 금침을 알기로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소? 더군다나 독을 묻힌 금침은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소!"

무당칠협의 광명정대함을 모르는 강호인은 없었다. 그러므로 장취산이 독침으로 누구를 기습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원업은 울화가 치밀어 안색이 붉으락푸르락해졌다.

"그래도 억지 변명을 하겠다는 거냐? 그날 분명히 네가 독침을 전개하는 것을 보았는데, 만약 네가 아니라면 그게 누구란 말이냐?"

장취산은 원업보다 입심이 좋았다.

"귀하의 제자가 독침을 맞은 일을 갖고 무당 제자더러 가해자를 밝히라고 억지를 쓰니, 세상에 이런 법도도 있단 말이오?"

원업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갈수록 말이 뒤죽박죽되었다. 본디 소림파가 정정당당하게 따져야 할 일을 갖고 나중에는 억지를 부리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이때 장송계가 끼어들었다.

"원업대사, 도대체 몇 명의 소림제자가 누구에게 암습을 당했는지 우리로선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본인의 사형인 유대암이 소림파 금강지력에 중상을 입은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외다. 그렇지 않아도 그 금강지력으로 본인의 삼사형을 암습한 자가 누구인지 묻고 싶었는데 마침 잘 오셨소이다."

원업은 어이가 없는지 입이 딱 벌어졌다.

"나는 아니오!"

장송계는 코웃음을 쳤다.

"원업대사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소이다. 그 정도의 실력을 아직 쌓지 못했을 테니까!"
그는 말끝은 멈칫하더니 다시 이었다.
"만약 본인의 삼사형이 온전한 몸으로 귀파의 고수와 겨루어 금강지력에 당했다면, 실력이 부족한 탓이니 설령 목숨을 잃었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오. 하지만 삼사형은 이미 중상을 입어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귀파의 제자는 금강지력으로서 사지를 절단시켜가며 도룡도의 행방을 추궁했소이다....."
여기까지 말한 그는 음성을 높였다.
"소림파의 무학이 천하 으뜸이니 일찍이 무림지존으로 군림했을 텐데, 왜 구태여 그 도룡도까지 욕심을 부리는지 이해가 가지 않소이다. 게다가 본인의 삼사형은 그 도룡도를 단 한 번만 보았을 뿐인데, 귀파의 제자가 그런 잔인한 수단을 전개했으니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되지 않소이까? 십 년 전만 해도 유대암이란 이름석자는 그런대로 강호에 알려져 있었으며 평생을 협의도의 본분을 살려 무림을 위해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구의 몸이 되어 십 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세분 신승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유대암의 부상과 용문표국의 멸문지화로 인해 그 동안 소림과 무당은 설권을 숱하게 벌였었다. 그러나 장취산의 실종으로 인해 차츰 흐지부지되었는데, 오늘 원업이 기세등등하게 나오자 장송계도 지난일을 끄집어 낸 것이다.
공문대사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이 일에 대하여 전에도 언급했듯이 본문의 제자를 일일이 불러 문책했지만, 어느 누구도 유삼협을 가해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네."
장송계는 품안에서 그 금강지가 찍힌 금덩어리를 꺼내 주위를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천하의 영웅들은 똑똑히 보십시오. 나의 삼사형을 가해한 자는 바로 이 금덩어리에 금강지력을 남긴 소림제자입니다. 소림의 금강지력을 제외하고 어느 문파의 무학으로 이런 금덩어리에 손자국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원업 등이 장취산을 흉수로 몰아붙이는 것은 일방적인 증언에 불과했다. 그러나 장송계는 확고한 물증을 제시했으니 군호들에게 주는 호소력이 훨씬 강했다.

공문의 눈가에 보이지 않게 미미한 경련이 일었다.

"아미타불..... 본문에서 금강지력을 연성한 자는 빈승 사형제 셋을 제외하고는 세 분의 선배 장노뿐인데, 그 분들은 소림에서 두문불출한 지 이미 삼,사십 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유삼협을 가해할 수 있단 말인가?"

막성곡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대사께선 저의 오사형의 말을 믿지 않으시고 일방적인 변명으로 단정지으셨는데, 대사께서 하신 말씀이 일방적인 변명이 아니라고 어떻게 증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문대사는 역시 수양이 깊었다. 막성곡의 언동이 다소 불경하다고 느껴졌지만 화를 내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막칠협이 노승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네."

막성곡은 얼른 그의 말을 받았다.

"후배가 어찌 감히 대사의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단지 세상사가 천변만화하여 왕왕 허허실실을 종잡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귀파는 문중제자가 저의 오사형에게 살상당했다고 생각하고, 우린 삼사형이 소림 고수에게 가해되었다고 믿고 있으니 어쩌면 쌍방이 모두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곡절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후배의 의견으론 좀더 오랜 시간을 갖고 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림과 무당의 화기

(和氣)가 손상되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솔하게 단정을 지었다가 나중에 진상이 밝혀진다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막칠협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공지가 싸늘하게 외쳤다.

"그럼 공견사형의 혈해지원(血海之怨)은 어떻게 할 건가? 장오협, 용문표국의 일은 일단 덮어두기로 하겠지만 그 잔악무도한 사손의 행방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밝혀야 할 걸세!"

유연주는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분위기가 다시 긴장되자 낭랑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만약 그 도룡도가 사손의 수중에 없다 해도 대사께선 이런 강압적인 방법으로 그의 행방을 추궁하시겠습니까?"

그는 단 두 마디를 내뱉었을 뿐인데도 상당한 의미가 내포돼 있었다. 다시 말해, 공지가 도룡도를 탐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공지대사는 발끈하여 냅다 탁자를 내리쳤다.

퍽! 우지끈!

탁자의 다리가 일제히 부러지면서 산산조각났다. 실로 대단한 장력이었다. 곧이어 그의 노기에 찬 음성이 대청안을 진동시켰다.

"진인의 무학이 노화순청(爐火純靑)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전해 듣고 흠모해 왔소이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오늘 천하의 영웅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빈승이 한 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그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내뱉어지자 대청 안에 모인 군호들은 웅성거렸다. 장삼봉은 칠십 년 전에 이미 강호에 명성을 떨쳤었다. 왕년에 그와 무학을 겨루었던 인물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그의 무학이 어느 정도인지, 일곱 제자를 제외하고는 아

는 자가 없었다. 단지 전설에 가까운 여러 가지 소문이 강호에 전해지고 있을 뿐이었다.

군호들은 자연히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과연 장삼봉이 공지의 도전을 받아줄지, 모두들 기대에 찬 눈으로 장삼봉을 주시했다. 그러나 장삼봉은 입가에 담담한 미소를 흘릴 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공지대사는 그의 여유있는 모습에 기가 꺾였는지 얼른 다음 말을 이었다.

"장진인의 무학이 천하무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소림 삼승은 장진인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군호들은 이 말에 내심 혀를 내찼다.

'그럼 그렇지! 공지 혼자서 장삼봉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격이지.....'

어쨌든 소림 삼승이 장삼봉과 자웅을 겨루는 것도 흥미진진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때 유연주가 나왔다.

"오늘은 스승님의 백 세 수연인데 어찌 하객과 무학을 겨룰 수 있겠습니까.....?"

"무당이 감히 소림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군....."

그러나 유연주가 이은 다음 말에 군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소림의 도전을 피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무당 칠 제자가 무림 십 이 고승의 절학을 직접 가르침 받겠습니다."

군호들은 다시 웅성거렸다.

공문, 공성, 공지 삼신승이 제자 아홉 명을 이끌고 왔으니 모두 열 두 명이었다. 그 반면 유연주는 무당칠제라 했지만 유대암이 이미 불구가 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섯 명에 불과했

다. 그렇다면 여섯 명이 열 두 소림 고수를 상대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군호들의 생각으로는 무당육협 쪽에 승산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유연주는 그 나름대로 깊이 생각한 연후에 내린 결정이었다. 그는 소림 삼신승의 공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정녕 장진인께서 가르침을 주시지 않겠다면, 우리 사형제 셋이 무당육협 중에 셋과 겨루어 승부를 판가름 짓겠소!"

장송계가 얼른 나섰다.

"기어이 대사께서 우리와 싸움을 원한다면 기꺼이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대신 우리 무당칠제자 중에 소림제자에게 독수를 당해 병상에 누워 있는 삼사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섯은 어느 누구도 뒷전으로 물러서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 여섯 판을 겨루어 승부를 결정짓도록 합시다."

막성곡이 맞장구를 쳤다.

"그렇습니다. 무당 육제자가 소림의 여섯 고승을 상대하여 여섯 판 중에 네 판을 이기는 쪽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무당이 패하면 오사형께서 금모사왕의 행방을 소림 장문인께 밝힐 것이며, 만약 소림이 양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수고스럽지만 삼신승께서 축하를 핑계삼아 평지풍파를 일으키려는 친구들을 이끌고 함께 하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송계가 제의한 대전 방법은 당연히 무당 쪽에 유리했다. 대사형과 이사형의 무공은 승과 비슷할 것이고 나머지 소림승은 세 판을 패할 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공지는 고개를 내둘렀다.

"그 방법은 적합하지 않소. 그러나 어째서 적합하지 않은지는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때,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던 공문대사가 송원교를 향해 입

을 열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 소림 육승이 무당육협을 상대해서 한판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 어떻겠소?"
송원교는 잽싸게 머리 속으로 생각을 굴리며 대답했다.
"무당육협이 아니라 무당칠협입니다."
공지는 이 말에 흠칫 놀랐다.
"그럼 영사 장진인께서도 출장하시겠다는 뜻이오?"
송원교는 입가에 잔잔한 웃음을 떠올리며 말했다.
"대사의 그 말은 당치도 않습니다. 스승님과 겨룰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의 삼사제는 비록 중상을 입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지만 본문의 생사영욕(生死榮辱)이 달린 이 일전에 수수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령 자신이 직접 출전하지 못할 망정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울 겁니다.
공문은 잠시 생각을 굴렸다.
'무당에는 장삼봉과 일곱 제자 외에 다른 고수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무당칠협을 강조하는 것으로 미루어 다른 문파의 고수를 끌어들이진 않겠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소림칠승이 무당칠협의 가르침을 받겠소!"
유연주, 장송계 등은 송원교의 뜻을 잘 알고 있었다.
장삼봉이 창안해 낸 무공 중에 진무태극칠성진(眞武太極七星陣)이란 절학이 있었다. 무당파는 진무대제(眞武大帝)를 공봉(供奉)하고 있었다.
어느 날, 장삼봉은 진무대제 신상(神像)앞에 있는 구사이장(龜蛇二將)을 보고 두 갈래의 물줄기가 모이는 곳에 사산(蛇山)과 구산(龜山)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뱀(蛇)은 듬직하여 정(靜)을 상징하니 즉, 태극(太極)의 음양과 일맥상통되었다.

장삼봉은 그 길로 밤을 세워 한양(漢陽)으로 달려가 사산과 구산을 유심히 살폈다. 보름 가량 살핀 결과, 사산의 끝없이 이어진 굴곡지세(屈曲之勢)와 구산의 은중지형(隱重之形)을 참작하여 한 가지 절묘한 무공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한 가지 난관에 봉착되었다. 사산과 구산의 천변만화한 기상과 산세에 바탕을 두어 무공을 만들어 내니 삼라만상이 집대성되어 한 사람의 힘으로선 도저히 그 무학을 동시에 펼칠 재간이 없었다.

장삼봉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양자강과 한수가 굽어보이는 절벽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불음불식불면(不飮不食不眠)하며 꼬박 삼주야를 심사했지만 여전히 이 난제에 대한 열쇠를 얻지 못했다. 나흘째 되는 날, 동녘 하늘에 먼동이 터오자 금빛 찬란한 햇살이 수면에 반사되어 무수한 금파(金波)를 형성했다. 순간 장삼봉은 불현듯 깨달음을 얻어 일진 앙천대소를 터뜨렸다.

그는 즉시 무당산으로 돌아가 일곱 제자를 가까이 불러 각자에게 한 가지씩의 무공을 전수해 주었다. 이 일곱 가지 무공을 개별적으로 펼쳐도 그 나름대로의 오묘함이 있지만 만약 두 사람이 상부상조하여 공수 겸비한 상태에서 시전하면 그 위력이 배로 증가된다. 세 사람이 동시에 펼칠 시에는 두 사람이 협력하는 것보다 위력이 다시 배가된다. 넷이서 연수하면 여덟 고수의 위력과 맞먹고 다섯이면 열 여섯에 상당하며, 여섯일 경우에는 서른 두 명의 몫을 해낼 수 있었다. 자연히 일곱 명이 동시에 시전하게 되면 육십 사 명의 당세 일류 고수가 동시에 출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무당칠협은 강호 출도 이래 제아무리 무서운 강자를 만나도 둘 내지 셋이 연수를 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 정도로서 충분히 강적을 퇴치시킬 수 있었으므로이 진무태극칠성진을 한 번도 정식으로 펼친 적이 없었다.

지금 송원교는 상황을 판단하여 소림 삼신승을 꺾기 위해선 부

득이 이 무당의 진산지학(鎭山之學)인 진무태극칠성진을 선보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는 공문대사가 승락을 하자 곧 포권의 예를 취했다.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가서 삼사제로 하여금 일시로 한 사람을 내세우게 하여 무당칠제자의 수를 보충 하고자 합니다."

이어 유연주 등에게 눈짓을 보내고 일제히 장삼봉에 인사를 올리고 나서 내당으로 들어갔다.

사형제들만의 자리를 갖게 되자 막성곡이 먼저 입을 열었다.

"대사형, 오늘 진무태극칠성진을 펼쳐야 하는데 누구를 내세워 삼사형을 대신케 할 생각입니까?"

송원교는 사제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일은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지어야 하니, 각자 손바닥에다 이름을 적어 동시에 펼쳐 보이는 게 어떻겠는가?"

막성곡은 즉시 붓을 갖고 와 대사형께 건네주었다. 송원교는 손바닥에다 이름 하나를 적고 나서 주먹을 쥐며 붓을 유연주에게 돌렸다. 이렇게 하여 각자 이름을 적고 나서 동시에 손을 폈다. 송원교, 유연주, 장송계 세 사람은 모두 <오사매>라고 적었다. 장취산은 <내자>라는 두 글자를 썼다. 결국 동일 인물이었다. 한데, 은이정은 주먹을 꼭 쥔 채 얼굴만 붉히고 있을 뿐 좀처럼 손을 펴려 하지 않았다.

막성곡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앗, 이상한데요. 갑자기 손아귀에 보물 단지를 숨겨 놓았습니까?"

그는 억지로 은이정의 주먹을 폈다. 그곳에 <기 낭자>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장취산은 심히 감격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육제!"

장취산 등은 은이정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은소소가 병상에서 갓 일어났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을 하기에는 아직 무리라고 생각돼 자기와 혼약이 있는 기효부의 이름을 적은 것이다.
막성곡이 짖 돎은 표정을 짓는 것으로 미루어 육사형을 놀려 주려는 게 분명했다. 그러나 장취산이 눈짓으로 그의 장난기를 제지했다.
송원교는 장취산에게 말했다.
"오제! 가서 제수씨를 모셔오게."
장취산은 침실로 달려가 대청에서 벌어진 상황을 대충 얘기해 주었다. 은소소는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아랫 입술을 지긋이 깨물었다. 그녀는 내당으로 나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용문표국의 사람들과 소림승을 죽인것은 저예요. 당시 당신은 저와 남남이었으니 이 일로 인해 무당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나서서 모든 것을 밝히고 천응교를 찾아가라고 할께요."
장송계가 그녀의 말을 받았다.
"제수씨,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무당과 천응교를 따로 논할 순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들이 본문을 찾아온 것은 용문표국의 일보다도 사손의 행방을 찾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손을 찾는 것은 복수보다는 도룡도를 빼앗는 일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막성곡이 그의 말을 이었다.
"맞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도룡도입니다."
장취산도 한 마디 거들었다.
"왕년에 공견대사는 나의 의형에게 도룡도 속에 천하무적의 무학이 숨겨져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소.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공문, 공지, 공성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하오."
은소소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녕 그렇다면 모든 것을 대사형께 맡기겠어요. 단지 소매의 무예가 얕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진무태극칠성진의 오묘함을 깨우칠 수 있을지....."

"사실 우리 사형제 여섯이 힘을 합쳐도 소림칠승을 상대하여 이길 수 있소. 하지만 제수씨가 삼제를 대신해 우리와 보조를 맞춘다면 삼제는 심적인 위안을 갖게 될 것이요."

"좋아요. 그럼 제가 가서 삼사형께 직접 가르침을 받겠어요."

이들 일곱 명은 곧 유대암의 침실로 몰려갔다. 장취산은 문중으로 돌아온 후 유대암과 여러 번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누었지만, 은소소는 와병 중이었으므로 이제서야 첫대면을 하는 것이다.

유대암은 그녀의 용모가 빼어나고 태도가 다소곳하여 호감을 느꼈다. 이어 송원교로부터 자기 대신 은소소를 내세워 진무태극칠성진을 펼쳐 소림칠승을 상대할 것이란 얘기를 전해 듣자 내심 처량함을 느꼈다. 그러나 병상에 누운지 십 년이 되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줄 알았다. 그는 겉으로 전혀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오사매를 만나면 선물할 게 마땅치않아 고민이었는데 마침 잘 됐소. 이 자리에서 진무태극칠성진의 방위(方位)를 밟는 보법(步法)을 선물로 대신 하겠소."

은소소는 크게 기뻐하며 활짝 웃었다.

"고마와요, 유삼가(兪三歌)."

유대암으로선 처음으로 듣는 그녀의 음성이었다. 그런데 <고마와요, 유삼가>라는 일곱 글자를 듣는 순간, 갑자기 얼굴에 심한 경련이 일며 휘둥그래진 눈으로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장취산은 흠칫했다.

"삼사형, 어디가 불편합니까?"

유대암은 대답은 않고 계속 은소소를 응시했다. 차츰 그의 눈동자에 이상한 광채가 띠었다. 그것은 고통과 원한의 빛깔이었다.

장취산은 얼른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다. 뜻밖에 그녀 역시 안색이 크게 변한 채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 송원교, 유연주 등은 유대암과 은소소를 번갈아 바라보았지만 영문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쳐갔다.일순 주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져 각자의 심장이 뛰는 소리마저 들리는 것 같았다. 유대암의 숨소리가 갈수록 거칠어지더니 창백하던 얼굴에 홍조가 떠올랐다.

드디어 그의 입에서 나직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오사매, 가까이 오시오. 좀더 자세히 보고 싶소."

은소소는 몸이 바르르 떨리며 감히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남편의 손을 꽉 쥐었다.

다시 숨막히는 침묵이 흐른 후에 유대암이 장탄식을 토했다.

"가까이 오지 않아도 상관없소. 그날 난 얼굴을 보지 못했으니..... 오사매, 이 몇 마디를 직접 말해 주시겠소? <첫째 도총표두가 직접 호송을 맡아야 해요. 둘째, 임안부에서 호북 양양부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길을 재촉해 열흘 이내에 무사히 넘겨줘야 해요. 만약 한 치의 오차라도 생길시엔 총표두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용문표국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유대암이 한 자 한 자 천천히 내뱉는 동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유삼가, 저의 음성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그날 용문표국에서 도대금에게 유삼가를 호송해 달라고 청탁한 장본인이 바로 소매예요."

유대암은 담담하게 그녀의 말을 받았다.

"그 호의는 정말 고마왔소."

은소소는 비장한 각오를 하듯 다시 한 번 입술을 깨물었다.

"나중에 용문표국의 불찰로 유삼가가 이렇게 되자 소매가 그들을 멸문시킨 거예요."

여기에서 유대암의 표정과 음성이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나를 위해 그런 일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오?"

은소소는 안색이 암울하게 변해 고개를 떨구었다.

"유삼가, 이렇게 된 이상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겠어요. 그 전에 밝혀 둘 것이 있어요. 남편에게 숨겨 왔어요. 행여나..... 행여나 그가 알면 저를..... 저를 저버릴까 봐 두려웠어요."

유대암은 다시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됐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난 이미 이렇게 불구가 되었는데 지난 일을 들추어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제 모두들 나가 주시오. 무당육협이 소림고승을 상대해도 충분한 승산이 있을 것이니 될 것입니다."

유대암은 천성이 강인하고 자존심이 남달리 강해 부상을 당한 이래 여지껏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비관하는 연약한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난 일에 대해서도 일언반구조차 언급한 바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입에서 비통에 찬 말이 내뱉어지자 사형제들은 모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특히 은이정은 심성이 약해 흐느끼며 눈물을 뿌렸다.

은소소는 모든 것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았다.

"유삼가도 사실은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을 거예요. 단지 저의 남편과의 의리를 생각해 내색을 하지 않았을 뿐이겠죠. 맞아요. 그날 전당강 선창 속에 숨어 문수침(蚊鬚針)으로 유삼가를 상하게 한 것이 바로 소매였어요.....!"

장취산의 얼굴에 서릿발이 깔리며 대뜸 소리쳤다.

"소소! 그게 정말이오? 왜.....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소?"

은소소의 양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의 삼사형을 이 지경으로 만든 원흉이 바로 당신의 아내인데, 제가 어찌 감히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 있었겠어요."

그녀는 다시 유대암에게 고개를 돌렸다.

"유삼가, 나중에 칠성정(七星釘)으로 유삼가를 상하게 하고 도룡도를 빼앗아 간 사람은 바로 저의 친오빠인 은야왕(殷野王)이에요. 우리 천응교는 무당파와 아무런 원한도 없기 때문에, 도룡도를 이미 수중에 넣었고 또한 유삼가의 군자다움에 탄복해 비로소 용문표국을 시켜 유삼가를 문중으로 호송해 주도록 조치한 거예요. 그 후 무당산 아래서 생긴 풍파는 실로 예측치 못했던 거예요."

장취산은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다.

그의 눈에선 짙은 분노의 불길이 솟구치고 있었다.

"이.....!"

그는 은소소에게 삿대질을 하며 당장 목을 조일 듯한 기세였으나, 너무나 격동된 나머지 말을 제대로 내뱉지 못했다.

순간,

"앗!"

유대암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처절한 일성이 터지며 몸이 붕 떠올랐다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침상에 떨어지는 동시에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은소소는 역시 강인한 여자였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검을 뽑아 검자루를 돌려 장취산에게 건네주었다.

"여보! 십 년 동안 당신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당신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을 하늘에 한없이 감사를 드렸어요.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단지 당신 손에 죽어 무당칠협의 의리를 보존케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장취산은 검을 받아 즉시 그녀의 가슴을 겨냥해 찌르려 했다. 그러나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누가 뭐래도 십 년간 정을 붙이고 살아온 부부가 아닌가! 일순간, 그의 뇌리에 은소소와 행복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그 달콤했던 밀어와

부드럽던 눈길, 그리고 뜨거웠던 순간들.....
 검을 움켜쥔 장취산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홀연 -------
 그는 상처투성이의 야수가 포효하듯 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은소소와 송원교 등은 그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황급히 뒤쫓아나갔다.
 장취산은 곧장 대청으로 달려가 장삼봉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 제자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제자의 한 가지 부탁을 들어 주십시오."
 장삼봉은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일인지 말해 보아라. 이 스승이 책임지고일을 해결해 주겠다."
 장취산은 큰절을 세 번 올렸다.
 "스승님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제자에게 어린 자식이 있는데 사악한 자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를 마장(魔掌)에서 구해주어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몸을 일으켜 앞으로 몇 걸음 걸어나가더니, 공문대사, 철금선생, 하태충, 공동오로 등을 향해 낭랑한 음성으로 외쳤다.
 "모든 죄과는 본인 장취산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니, 대장부로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책임을 지겠소이다!"
 말을 끝내기 무섭게 장검을 뽑아 자신의 목을 그었다. 그 즉시 선혈이 뿌려지며 숨이 끊어졌다. 장취산은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승님과 사형제들이 행여나 제지할까 봐 번개처럼 출수를 한 것이다. 장삼봉과 유연주, 장송계, 은이정 네 사람은 일제히 놀란 외침을 토하며 달려들었다. 순간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칠, 팔 명이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그들은 모두 장취산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장삼봉의 장력에 밀려난

것이다.

그러나 역시 한 발 늦고 말았다.

바로 이때 창 밖에서 어린애의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아버지!"

두 번째 외침은 미약했다. 누구에 의해 입이 틀어막혀진 게 분명했다.

장삼봉은 한 줄기 연기처럼 창 밖으로 옮겨 갔다. 그곳에 몽고병사 차림의 사나이가 팔,구 세 가량의 사내애를 안고 있었다. 사내애는 입이 틀어막힌 채 몸부림쳤다. 장삼봉은 제자의 참사를 지켜보았으므로 칼로 에리는 듯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근 백 년 동안 쌓아올린 수양으로 결코 심기가 흩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나직하게 호통을 쳤다.

"들어가라!"

사나이는 발끝으로 살짝 지면을 찍으며 어린애를 안은 채 지붕위로 몸을 날리려했다. 그 순간 어깨에 내리눌리는 힘을 느끼며 발이 땅에 뿌리박힌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어느새 장삼봉이 소리없이 그에게 다가와 왼손으로 살짝 어깨를 누른 것이다. 사나이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장삼봉이 내력을 뻗어내면 영락없이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순순히 대청 안으로 들어갔다.

어린애는 바로 장취산의 아들 장무기였다. 무기는 사나이에 의해 입이 틀어막혔지만 창 밖에서 부친이 자결하는 광경을 보자 사력을 다해 몸부림치며 끝내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이다.

은소소는 남편이 자기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후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자, 큰 슬픔에 이어 큰 기쁨을 얻게 된 셈이다.

"애야, 의부의 행방을 말하지 않았겠지?"

장무기는 의연하게 말했다.

"나를 때려 죽인다 해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장삼봉이 명령투로 말했다.
"어린애를 그녀에게 돌려줘라!"
사나이는 전신이 제압당해 고분고분 무기를 은소소에게 돌려주었다.
무기는 어머니의 품안으로 뛰어들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저들이 왜 아버지를 죽게 했어? 아버지를 죽게 한 사람이 누구야?"
은소소도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이곳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너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무기는 좌우를 노려보았다. 그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모든 사람은 그의 눈빛과 마주치자 가슴이 철렁하는 한기를 느꼈다.
은소소가 다시 입을 열었다.
"무기야, 나의 부탁을 한 가지 들어주겠느냐?"
"엄마, 말해 보세요."
"너는 서둘러 복수할 생각 말아라. 천천히 기다렸다가 한 명도 놓쳐서는 안 된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자 모두 등골이 오싹해졌다.
무기의 울음섞인 외침이 들려왔다.
"엄마! 난 복수하지 않을래요! 아버지만 살아나면 돼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살아날 수 없단다."
그녀는 아랫 입술을 깨물더니 다음 말을 이었다.
"애야, 너의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린 어쩔 수 없이 의부의 행방을 이들에게 밝혀야겠다."
그녀의 돌변한 태도는 실로 뜻밖이었다.
무기는 도리질을 하며 소리쳤다.

"싫어! 말하면 안 돼요!"

은소소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공문대사에게 얼굴을 돌렸다.

"공문대사, 난 당신에게만 말해 줄 테니 이리 귀를 가까이 대세요."

이 또한 뜻밖인지라모두들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공문은 조용히 합장을 했다.

"아미타불..... 여시주께서 조금만 일찍 생각을 바꾸었다면 장오협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오."

그는 은소소에게 다가가 귀를 갖다 댔다.

은소소는 그의 귀에 대고 입술만 계속 움직일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뭐라고 했소?"

은소소는 나직하게 말했다.

"금모사왕이 숨어 있는 곳은 바로....."

그 다음 말을 흐릿하여 무슨 뜻인지 알아 들을 수가 없었다.

공문은 다시 반문했다.

"뭐라고 했소?"

은소소는 힘주어 말했다.

"바로 그곳이니 소림파만 알고 스스로 그곳을 찾아가세요."

공문은 다급해졌다.

"난 자세히 듣지 못했소!"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은소소의 음성이 차갑게 변했다.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어요. 그곳에 가면 자연히 금모사왕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어 그녀는 무기를 안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애야, 네가 성장한 다음에 여자의 속임수를 경계해야 한다. 아름다운 여자일수록 속임수에 능하다는 걸 명심해라."

그녀는 무기의 귀에 입을 바싹 붙이고 속삭이듯 말을 이었다.
"난 화상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를 속인 거야. 이..... 엄마가 얼마나 사람을 잘 속이는지 이젠 알았겠지?"
그녀는 태연하게 웃으며 갑자기 비스듬히 쓰러졌다. 그녀의 가슴에 한 자루의 비수가 꽂혀 있었다. 무기를 껴안는 순간 이미 암암리에 비수로 자신의 가슴을 찌른 것이다. 그녀는 무기의 몸으로 은폐했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무기는 어머니 몸에 엎어지면서 소리쳤다.
"어머니! 어머니!"
그러나 은소소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무기는 엄청난 슬픔으로 인해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는 무섭게 공문대사를 노려보며 물었다.
"당신이 나의 어머님을 죽였나요? 무엇 때문에 나의 어머님을 죽였죠?!"
공문대사는 이런 참변을 목격하자 비록 당세에서 첫손 꼽는 무학종파의 장문인이지만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금 무기가 자기를 겨냥해 다그치자 절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손을 내둘렀다.
"아니야, 내가 아니다.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다."
무기의 눈동자에 눈물이 그렁그렁거렸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난 울지 않을 거야! 절대 울지 않아! 저 나쁜 사람들 앞에서 절대 울지 않을 거야!"
공문대사는 가볍게 헛기침을 했다.
"장진인, 이런 변고는..... 음..... 실로 뜻밖입니다. 장오협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그..... 지난 일은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우린 이만 작별을 고하겠습니다."
장삼봉은 답례를 하며 담담하게 말했다.

"멀리 전송을 하지 않겠소."

소림 승려들은 일제히 일어나 떠나려 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은이정의 성난 고함이 터졌다.

"당신네들은..... 나의 오사형을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고 이대로....."

그는 다음 말을 더 이상 잇지 못했다.

사실 오사형의 자결은 삼사형에 대한 죄책감이 주원인이었지, 소림과는 상관이 없었다.

은이정은 그대로 장취산의 시신 위에 쓰러져 대성통곡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입장이 난처해졌다. 그들은 일제히 장삼봉에게 작별의 인사를 했다. 그리고 가슴 한 구석에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지울 수 없었다.

---- 이번 일로 인해 매듭이 더욱 커졌다. 무당파는 절대 이것으로서 은원을 종결짓지 않을 것이니 후환이 무궁할 것이다.----

송원교만이 눈물을 글썽이며 손님들을 관문 밖까지 전송해 주었다. 손님이 떠나는 즉시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이때 대청 안은 울음바다로 변해 있었다.

아미파의 제자들이 맨 마지막으로 작별을 고했다. 기효부는 은이정이 슬퍼 우는 것을 보자 역시 눈시울이 붉어지며 가까이 다가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육가(六哥), 저는 이만 가겠어요. 부디..... 몸 보존하세요."

은이정은 흐느끼면서 고개를 쳐들었다.

"아미파도..... 역시..... 나의 오사형을 곤경으로 몰아놓기 위해 온 것이오?"

기효부가 얼른 고개를 내둘렀다.

"아니예요. 스승님께서는 단지 사손의 행방을 여쭈어보라고 하셨을 뿐이예요."

여기까지 말한 그녀는 아랫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다시 떨리

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을 때 입술 아래에 이빨자국이 뚜렷이 패어 있었다.

"육가, 저는,.... 죄스러울 뿐이예요. 모든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저는..... 내세(來世)에나 육가를....."

그녀는 걱정으로 인해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은이정은 그녀가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소 당황했다.

"이것은 낭자와 상관없는 일이니 우린 낭자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오."

기효부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 그게 아니라....."

그녀는 더 이상 은이정과 얘기할 용기가 없는지 무기에게 고개를 돌렸다.

"얘야, 우린..... 모두 너를 잘 보살펴 줄 거야."

그녀는 목에 걸려 있는 금목걸이를 뜯어 무기의 목에 걸어 주려고 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것을 너에게....."

무기는 목을 뒤로 젖히며 소리쳤다.

"싫어요!"

기효부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졌다. 그녀는 목걸이를 손에 들고 어찌 할 바를 몰랐다. 눈에 그렁하던 눈물이 끝내 양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현사태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기사매, 어린애와 여러 소리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자, 어서 떠나자."

무기는 한참 동안 울음을 억제하고 있었다. 정현사태등이 대청을 나서자 그는 목놓아 울음을 터뜨리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숨이 막혀오며 쿵 하고 그 자라에 쓰러졌다.

유연주가 얼른 그를 안아 일으켰다. 너무나 엄청난 슬픔을 견뎌내지 못하고 까무라친 것이라 생각했다.

"얘야, 이젠 실컷 울어라."

그는 무기의 가슴을 주무르며 곧 깨어나리라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무기의 몸이 차갑고 단지 코로 미약하게 숨을 내쉴 뿐이었다. 유연주는 계속하여 공력을 이용해 안마를 했으나 깨어날 줄 몰랐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안색이 크게 변했다. 무기마저 곧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다.

장삼봉이 황급히 그의 등 뒤에 있는 영대혈(靈坮穴)에 손을 붙이고 한 갈래의 웅후한 내력을 주입시켰다. 장삼봉의 공력으로 제아무리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력을 주입시키면 호전시킬 수가 있었다. 그런데 내력을 체내에 주입시키자 무기의 창백한 안색이 푸르스름하게 변하더니 이내 푸르죽죽하게 바뀌어갔다. 게다가 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장삼봉은 흠칫 놀라 그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얼음장이었다. 다시 손을 옷 속으로 집어넣어 등심을 만져보니 불길처럼 뜨거웠다. 그리고 그 주위는 뼈를 에일 듯한 한기에 싸여 있었다. 장삼봉의 안색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변했다.

"원교, 이 애를 안고 온 몽고 병사가 어디에 있는지 어서 찾아와라!"

송원교는 즉시 대답을 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유연주는 그 몽고인과 장력 대결을 하여 부상을 입은 바가 있으므로 대사형도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대청 밖으로 뛰쳐나갔다.

장삼봉은 무기의 옷을 찢었다. 야들야들한 그의 등에 벽녹색의 장인(掌印)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다. 그 부위가 불길처럼 뜨거웠던 것이다. 무기가 이러한 부상을 입고도 버틴 것은 실로 상상하

기가 어려웠다.
 잠시 후 송원교와 유연주가 대청 안으로 뛰쳐들어왔다.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장삼봉이 몽고인을 데리고 대청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장취산은 이미 목숨을 끊었고, 곧 이어 은소소마저 부군을 따라 자결하는 바람에 모두 비통에 잠겨 그 몽고인을 주의하는 자가 없었다. 그 사이에 몽고인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두 사람도 무기의 등에 찍혀 있는 이상한 손자국을 보고 크게 놀랐다.
 장삼봉은 눈살을 찌푸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삼십 년 전에 백손도인(百損道人)이 죽은 후로부터 이 악랄무비한 현명패천장(玄冥覇天掌)이 영원히 실전(失傳)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 무학을 지닌 사람이 있을 줄이야....."
 송원교는 이 말에 크게 놀랐다.
 "이 애가 당한 것이 현명패천장이란 말입니까?"
 그는 칠제자 중에 나이가 가장 많아 현명패천장이란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다.
 장삼봉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두 손으로 무기를 안은 체, 주름진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장취산의 시신을 바라보았다.
 "취산아, 취산아! 너는 이 못난 스승을 믿고 죽음으로써 부탁을 했는데도 난 너의 독생자를 지켜주지 못하니 백 세를 살아온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당이 천하에 명성을 떨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차라리 너를 따라 죽고 싶구나!"
 주위에 있는 제자들은 대경실색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스승님은 하늘이 무너져도 태연자약할 수양의 소유자인데, 이렇게 침통한 말을 할 줄이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다.

은이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승님, 이 애를..... 정말..... 살릴 수 없습니까?"

장삼봉은 소매로 눈물을 훔치더니 무기를 안고 대청 안을 잠시 배회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나의 스승이신 각원대사가 소생하여, 구양진경의 전부를 다시 나에게 전수해 주는 것뿐이다."

제자들은 가슴이 철렁했다. 스승님의 이 말은 무기의 상세를 도저히 치료할 수 없다는 뜻과 상통되기 때문이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른 후에 유연주가 입을 열었다.

"스승님! 그날 제자는 그 자와 장력을 직접 겨루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쾌되어 공력을 운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당칠협이란 이름이 강호에 크게 알려진 덕분이다. 현명패천장으로 장력 대결을 벌려 만약 상대방의 내력이 더 강하면 반탄지력에 의해 현명패천장을 전개한 자가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된다. 앞으로 그 자를 만나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유연주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네!"

그는 내심 섬뜩함을 금치 못했다.

'이제 보니 그 자는 나를 높이 평가해 행여나 자기보다 내공이 강할까 봐 진력으로그 현명패천장을 전개하지 않았군. 그렇지 않았다면 난 벌써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지.....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면 필시 전력을 기하겠군."

송원교가 심각하게 입을 열었다.

"조금 전에 언뜻 보기에, 그 자는 나이가 오십 세 사략이며 콧날이 높고 눈이 움푹 패인 것으로 미루어 서역(西域) 사람 같았습니다."

막성곡이 그의 말을 받았다.

"그 자는 무기를 잡아간 후에 왜 다시 이곳으로 데려왔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장송계가 했다.
"그 자는 무기에게 금모사왕의 행방을 추궁하다가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현명패천장을 전개해 고통을 주어 오사제 부부를 위협할 생각으로 이것에 나타난 것이 분명하네."
막성곡은 발끈했다.
"감히 무당산에 나타나 행패를 부리려 하다니, 그놈은 정말 간도 크군요!"
"무당산에 나타나 행패를 부린 것이 어디 그 자뿐이었는가? 그 자는 무기를 인질로 잡고 있었으니 더욱 자신만만했던 것뿐이네."
대청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모두들 속수무책이었다. 분위기가 갈수록 무거워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무기가 갑자기 눈을 뜨며 소리쳤다.
"아버지 아파요. 아파 죽겠어요!"
그는 장삼봉을 꼭 껴안으며 품 속으로 파고 들었다.
유연주가 힘주어 말했다.
"무기야, 너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너라도 이를 악물고 살아서 무공을 배워 복수를 해야 한다."
"싫어요! 복수하지 않을래요 아버지와 어머니만 살아나면 돼요. 그 나쁜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요!"
장삼봉은 어린애의 이 말에 다시 눈물을 흘렸다.
"우린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진인사대천명이라 했으니 하늘의 자비를 바라는 수밖에....."
이어 장취산의 시신을 향해 눈물을 뿌리며 음성이 격양되었다.
"취산아, 취산아! 이 불쌍한 놈.....!"
그는 무기를 나고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손가락을 연거푸 튕겨

열 여덟 군데 혈도를 찍었다. 혈도가 찍힌 무기는 더 이상 떨지 않고 얼굴에 푸르죽죽한 기운이 더욱 짙어갔다. 그 기운이 거무스름하게 변하면 더 이상 구제할 길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삼봉인지라, 무기의 옷을 완전히 벗기고 자신도 도포를 풀어 가슴을 그의 등에 붙였다. 무기의 한독을 풀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장삼봉은 구양신공을 연마하는 방법과 구결을 무기에게전수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세월은 빨랐다.

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꽃이 피고 다시 지니.....

무기가 구양진경을 연마한지도 어느덧 이 년이 지났다.

이제 단전에 인온자기가 어느 정도 모이게 되었으니, 체내의 한독이 경략백맥(經略百脈) 속에 응결되어 제거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날이 갈수록 얼굴의 녹기(綠氣)가 심해져 갔다. 아울러, 한독이 발작할 때마다 무기가 겪어야 할 고통은 날이 갈수록 격심해졌다.

그간 이 년 동안 장삼봉은 무기의 내공 연마를 돕는데 진력을 쏟아왔고, 송원교 등은 영단묘약을 찾아 천하 방방곡곡을 헤맸다. 백 년 이상 된 야산인삼(野山人蔘) 등 진귀한 영물을 수없이 먹었지만, 결과는 바다 속에 돌을 던진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무기가 하루 하루 빼빼 말라가는 것을 지켜보며 모두들 안타깝기만 했다. 장취산이 남긴 유일한 혈육을 도저히 보존시필 자신이 없었다. 무당파가 무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바람에, 유대암을 암습한 원수와 무기에게 현명패천장을 전개한 원흉을 찾는 일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그 동안 천응교의 교주 은천정(殷天正)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람을 보내 외손자의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매년 적지 않은 선물을 보내왔다. 하지만 무당의 제자들은 유대암과 장취산의 변고가

모두 천응교로 인해 비롯되었다는 생각을 좀처럼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매번 천응사자를 쫓아버리고 선물도 일절 받지 않았다. 심지어 한 번은 막성곡이 천응사자를 호되게 두들겨 팬 일도 있어 그 후로 은천정도 더 이상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

이날은 중추가절이었다.

무당제자들은 장삼봉을 모시고 모처럼 아침 식사를 하려는데 무기가 갑자기 발병하여 얼굴의 녹기가 짙게 일며 사시나무 떨 듯 떨었다. 그러나 무기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사람들의 흥을 깨지 않기 위해서였다. 은이정이 얼른 그를 침실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 주고 화로불을 피워 주었다.

장삼봉은 한참 동안 심각하게 생각을 굴리다가 모종을 결정을 내린 듯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내일 무기를 데리고 숭산 소림에 갔다 와야겠다."

중인은 스승님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소림의 장문인 공문대사를 찾아가 구양신공의 부족한 점을 가르침 받아 무기의 목숨을 살리려는 것이다.

이 년 전 무당과 소림은 이미 거북한 관계가 되었다. 그런데 장삼봉이 일대종사의 신분으로서 백여 세의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소림을 찾아가 도움을 청 한다는 것은 체면에 크게 손상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장취산과의 정의를 생각해 허명(虛名) 따위를 저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원래 아미파에도 구양진경의 일부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장문인 멸절사태(滅絶師太)의 성품이 괴팍하여, 장삼봉이 은이정을 시켜 여러 차례 서찰을 보냈지만 멸절사태는 서찰을 뜯어보지도 않은 채 다시 되돌려보내곤 했다.

물론, 송원교가 무기를 소림으로 데려가면 무당의 체면이 한결 유지되겠지만, 공문대사가 거절할 것은 불 구경하듯 뻔한 사실이었다.

모두는 장삼봉의 결정에 모두 기분이 울적해져 술을 몇 잔 나눈 뒤 곧 상을 치웠다.
다음날 아침 장삼봉은 무기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
다섯 제자는 원래 수행할 생각이었지만 장삼봉이 거절했다.
"우리가 떼지어 몰려가면 소림의 의심을 살 우려가 있으니 나 혼자서 무기를 데려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두 사람은 제각기 나귀를 타고 곧장 북쪽으로 향했다. 소림과 무당의 거리는 별로 멀지 않았다. 호북의 무당산에서 화남 숭산까지 불과 며칠의 여정이었다. 장삼봉과 무기는 노하구에서 한수를 건너 남양에 당도해 다시 북쪽으로 여주(如州)를 지나 서쪽으로 방향을 꺾자 숭산에 당도할 수 있었다. 소실산에 오른 두 사람은 나무에 나귀를 묶어두고 걸어서 올라갔다. 장삼봉으로선 어릴 적 추억이 어려 있는 곳이기도 했다.
팔십 년 전, 사부이신 각원대사가 철통 속에 곽양과 자기를 담고 하산한 것이 눈앞에 선한데 이제와 돌이켜보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장삼봉은 무기의 손을 잡고 천천히 산 위로 올랐다. 오봉(五峰)도 여전한데, 각원대사와 곽양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석정에 당도하니 소림사가 멀리 시야에 들어왔다. 이때 승려 둘이 담소를 하면서 걸어오기에 장삼봉이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수고스럽지만 무당의 장삼봉이 방장대사를 뵈러 왔다고 전해주게."
두 승인은 장삼봉이란 세 글자를 듣자 깜짝 놀라며 그를 유심히 살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몸집이 유난히 장대하고 흰 수염에 비해 안색이 불그스름한 것 이외에 빼어난 데가 없다고 느껴졌다. 게다가 열 살이 갓 넘은 깡마른 어린애를 데리고 있어 한 승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당신이 정말 무당산의 장...장진인입니까?"

장삼봉은 담담하게 웃었다.

"틀림없는 진품이라네."

다른 한 승려가 그의 장난기 섞인 듯한 말투에 더욱 의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혹시 농담하는 게 아닙니까?"

장삼봉은 이번엔 껄껄 웃었다.

"장삼봉이 뭐가 대수롭다고 공연히 그의 행세를 하려고 하겠는가?"

두 승려는 반신반의하며 달려가 보고를 했다.

한참 후에 사문(寺門)이 활짝 여리며 공문대사가 동문사제인공지, 공성을 대동한 채 걸어나왔다. 세 사람 뒤에는 십 여 명의 황색 승포를 입은 노화상들이 따르고 있었다.

장삼봉은 그들이 달마원의 장노들로서 어쩌면 배분이 공문보다 더 높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사내에서 무학을 참수하며 바깥일을 관여하지 않는데, 아마 무당 장문인이 찾아왔다는 전갈에 비로소 장문인을 보러 모습을 드러낸 모양이다.

장삼봉은 얼른 앞으로 나서 공수의 예를 취했다.

"방장대사와 여러 대사들의 참수를 방해하게 되어 실로 송구스럽소이다."

공문대사 등도 일제히 합장으로서 답례하고 나서 공문이 입을 열었다.

"장진인께서 이렇게 먼길을 오신 것은 실로 뜻밖입니다. 무슨 가르침이 있으신지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 찾아왔소이다."

"우선 자리에 앉읍시다."

장삼봉이 정자 안에 앉자 승인이 향차를 대접했다.

장삼봉은 내심 불쾌했다.

'내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한 문파의 종사임에 분명한데, 배분으로 논해도 노희들의 선배이거늘 사내로 안내하지 않고 산중턱에 앉게 하다니..... 보통 손님이 찾아와도 이렇게 예의가 허수룩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삼봉은 천성이 호탕하여 불쾌한 생각을 곧 지워 버렸다.

공문대사가 그를 주시하며 입을 열었다.

"장진인께서 본문을 찾아주셨으니 사내로 모셔야 당연하겠지만 장진인께서 소시 적에 임의로 소림을 떠났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본사를 저버린 반도는 영원히 사내로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엄한 문규가 있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장삼봉은 껄껄 웃어 젖혔다.

"그랬었구료. 빈도는 비록 소시 적에 소림에서 각원대사를 모시며 청소와 차를 끓이는 잡일을 해 왔지만 제도(制度)를 한 바도 없고, 스승을 모신 적도 없으니 소림제자라 할 수 없지 않겠소?"

공지가 냉랭하게 그의 말을 받았다.

"그러나 장진인은 엄연히 소림에서 무공을 훔쳐 배우지 않았습니까?"

장삼봉은 화가 치밀었으나 한편으론 일리가 있는 말이라 느껴졌다.

'무당의 무학은 내가 스스로 창안한 것이지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각원대사가 구양진경을 전수해 주었고 곽여협이 한 쌍의 소림철나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 바탕이 소림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그는 곧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있었다.

"빈도가 오늘 찾아온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오."

공문과 공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대관절 무엇 때문에 온 것일까? 십중팔구는 장취산의 일로 찾

아온 모양인데.....'

공문이 심각하게 말했다.

"상세한 말을 듣고 싶소이다."

장삼봉은 차분하게 입을 떼었다.

"방금 공지대사가 언급했듯이 빈도의 무공은 소림에 뿌리를 두고 있소이다. 빈도가 소시 적에 각원대사의 은혜를 입어 구양진경을 전수받게 되었으니 말이오. 그 경서에 수록된 무학의 정수는 방대하고 오묘하여 당시 빈도의 어린 나이로선깨우치지 못한게 태반이었소. 그 후 각원대사가 황산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그 경전을 읊었는데, 다행하게도 세 사람이 곁에서 들을 수가 있었소. 한 분은 아미파의 시조이신 곽여협이고, 한 분은 귀파의 무색선사였으며, 나머지 한 명이 바로 빈도였소. 빈도는 나이가 어리고 자질도 가장 뒤떨어질 뿐 아니라 무학의 기초가 없었으므로 세 사람 중에 얻은 것이 가장 적었다고 할 수 있소."

공지가 다시 냉랭하게 그의 말을 받았다.

"꼭 그렇다고만 생각되지 않소이다. 장진인께서는 몇 년 동안 각원을 곁에서 모셨는데, 그가 어찌 암암리에 전수해 주지 않을리가 있겠소이까? 오늘날 무당이 강호에 명성을 떨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그 각원의 공이외다."

각원은 공지보다 세 배분이 높아 엄격하게 따지면 태사숙조(太師宿祖)가 된다. 그러나 각원은 소림의 반도로 낙인찍혀 문중에서 제명되었기 때문에 공지의 말투가 불손할 수 이었던 것이다.

장삼봉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말했다.

"빈도는 선사의 은덕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소."

소림사승 중에 공견이 가장 자비로왔는데 애석하게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 공문은 심계가 깊어 희로애락을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다. 공성은 천진난만할 정도로 세상물정에 어두워 심지어 흐리멍텅한 일면도 없지 않았다. 그리고 공지는 도량이 가장 좁았다.

그는 장삼봉이 소림에서 무공을 훔쳐가 무당파를 창건한 것이라고 늘 생각해 왔으며, 이번에도 장삼봉이 장취산의 일로 복수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라 단정지었다. 그렇지 않아도 소림은 은소소가 죽기 직전에 꾸며낸 이화강동지계(移禍江東之計)로 인해 그 동안 편할 날이 없었다. 사흘이 멀다 하고 무림인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그들은 강압적인 태도로 나오기도 하고, 통사정을 하기도 하며 끈질기게 사손의 행방을 캐물었다. 공문대사는 사손의 행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맹세까지 했지만, 무당산에서 수백 명이 은소소가 직접 공문에게 귓속말로 일러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자연히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찾아온 무림인들도 많이 사상당했지만, 소림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역시 무당에서 뿌린 화근이 아니겠는가! 사내의 승려들은 이 년 동안 시달려 오다가 오늘 장삼봉이 직접 찾아오자 수모를 줌으로써 보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공지가 다시 거만하게 입을 열었다.

"장진인께서는 소시적에 소림에서 무공을 훔쳐 배웠다고 시인했는데, 그 사실을 온 강호에 알릴 용의가 있습니까?"

장삼봉은 길게 숨을 들이켰다.

"천하의 무학은 본디 뿌리가 하나이며, 천 백 년간 서로 단점을 보안해 보다 높은 경지를 추구해 온 것이 다를 뿐이라 생각하오. 그러나 소림이 수백 년 동안 무림을 이끌어 온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외다. 빈도가 오늘 이곳을 찾아온 것도 귀파의 무학을 흠모하여 여러 대사께 가르침을 받고자 함이오."

공문 등은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는 말을 도전의 뜻으로 듣고 일제히 안색이 변했다. 그들은 장삼봉의 무학이 고심막측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당금 무림에 그의 적수는 없을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가 단신 홀몸으로 소림을 찾아와 도전을 하는 이상 틀

림없이 믿는 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순간, 삼승은 섣불리 대답할 수 침묵을 지켰다.

공성이 분연히 입을 열었다.

"이제 보니 우리와 정면 대결을 벌이려 왔구료. 나 공성은 결코 싸움을 피하지 않을 것이오. 장진인의 무학이 제아무리 천하무적이라 해도 소림사의 천 명을 헤아리는 제자를 모조리 죽이지는 못할 것이오!"

그는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소림제자가 한꺼번에 덤빌 수 있다는 포석을 깔아놓았다.

장삼봉은 얼른 그의 말을 받았다.

"여러 대사는 오해하지 마시오. 빈도가 방금 말한 것은 진짜 가르침을 받겠다는 뜻이외다. 빈도는 비록 구양진경을 배웠지만 결함이 많은데다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적지 않소. 소림고승들은 필시 빈도보다 수위(修爲)가 깊은 터이니, 가르침을 주신다면 그 은혜 잊지 않을 것이오."

이렇게 말하며 정중하게 몸을 숙였다. 소림사 쪽에서 볼때 그의 말과 행동은 실로 뜻밖이 아닐 수 없었다. 문파를 창건한 지 팔십여 년이 자났고 무림에서 무학으로 보나 명성으로 보나 그를 따라갈 자가 없는데, 오늘 소림에 나타나 가르침을 받길 원하니 어찌 뜻밖이 아닐 수 있겠는가!

공문은 얼른 답례를 했다.

"장진인..... 우리들 같은 무학에게 가르침을 받겠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장삼봉은 상대방이 눈꼽만치도 의혹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기가 어떻게 하여 현명패천장에 당했으며, 그 동안 체내의 한독을 치료해 온 경위, 또한 장취산의 유일한 혈육이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살려야 된다는 자신의 각오를 진지하게 얘기해 주었다. 그리고 현재로선 구양진경을 완전히 익혀야만 무

기를 살릴 수 있다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구양진경을 전부 소림파에 알려줄 것이니 소림도 역시 아는 부분을 제시해 쌍방이 서로 연구하여 결함을 보완하자고 간청했다.

공문대사는 그의 말을 듣고 나서 한참 생각을 굴리다가 입을 열었다.

"본문은 천 백 년 이래 일흔 두 가지의 절예를 십이 성(成)까지 연성한인물이 전혀 없었소. 그만큼 역대 조사들께서 남기신 무학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십분지 일을 연성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외다. 물론 장진인께서 한 가지 신공(神功)을 제시해 본문과 교환하자는 뜻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지만, 본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필요한 사족(蛇足)에 불과하오."

여기에서 말끝을 멈칫하더니 다시 말했다.

"게다가 무당의 무학은 그 근본이 소림이거늘, 오늘 서로 무학을 교환했다는 게 강호에 전해지면 진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소림과 무당의 무학을 동격으로 생각할 게 아니겠습니까? 소승은 소림의 장문으로서 그런 유언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장삼봉은 내심 탄식을 했다.

'무당 제일 문파의 장문인이며 명색이 사대신승 중에 한 사람인데, 어찌 흉금이 이다지도 좁은지.....'

그는 부탁을 드리는 약자 입장이므로 상대방을 나무랄 수 없었다.

"세 분은 당세의 신승으로서 누구보다도 자비를 근본으로 삼고 있는 줄 알고 있소. 이 어린 것의 생명이 조석지간에 있으니 부처님의 구세구인(救世救人)의 가르침을 생각해서라도 빈도의 소청을 들어주셨으며 고맙겠소."

그러나 장삼봉이 제아무리 혀가 닳도록 간청을 해도 삼승은 적당한 구실을 내걸어 정중히 거절했다.

마지막으로 공문대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분부를 받들지 못하는 것을 너무 나무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어 한쪽에 서 있는 승인에게 명했다.
"가서 상등 공양을 준비하여 이곳에서 장진인을 대접하도록 일러라!"
승인은 즉시 대답하고 물러갔다.
장삼봉의 표정은 암울했다.
"정녕 그렇다면 빈도가 공연히 대사들의 귀중한 시간만 낭비하고 실례를 범한 것 같소. 성찬은 감히 받을 수 없으니 이만 작별을 고할까 하오."
그는 공수의 예를 취하고 나서 무기의 손을 잡고 표연히 떠나갔다.

----- 제 2 권 5 장 끝 -----

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2 권

제 6 장 눈물겨운 우의(友誼)

장삼봉은 장무기를 데리고 소실산에서 내려왔다. 이제는 장무기를 치료해야겠다는 마지막 일념마저 산산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다만 그와 농담을 나누며 서로의 근심을 덜어줄 뿐이었다.
이날, 그들은 한수(漢水)에 도착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빌려 탔다. 배가 중류에 다다르자 강물이 심하게 요동했다. 자그마한 배도 따라서 흔들렸다. 뿐만 아니라, 장삼봉의 마음 역시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착잡했다.
이를 보다못한 장무기가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태사부님,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죽으면 꿈

에도 그리던 부모님을 만날 수 있으니 그것보다 더 좋은게 어디 있습니까?"

장삼봉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런 소리 말아라. 이 태사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너를 살려주마."

"만약에 제가 소림파의 구양신공(九陽神功)만 배울 수 있었다면, 당장 세째 사백님께 달려가서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왜?"

"사백님이 무당파와 소림파의 신공을 터득하면 불구의 몸이 완치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사백이 입은 상처는 근골외상(筋骨外傷)이라 제아무리 내공이 고강해도 완치될 수 없느니라."

장삼봉은 장무기의 갸륵한 생각에 감동되어 코끝이 시큰했다.

'자기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는 지금 오히려 남을 생각해 주다니 과연 협의심이 대단하군,'

바로 이때, 돌연 우렁찬 외침이 전해 왔다.

"썩 배를 멈추고 그 애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쩌렁쩌렁 울리는 것이 보통 내공이 강한 자의 외침이 아니었다.

장삼봉은 냉소를 흘리며 중얼거렸다.

'누가 감히 겁도 없이 애를 내놓으라는 걸까?'

그는 외침이 들려온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멀리 강심에서 두 척의 배가 나르듯이 미끄러져 오고 있었다. 앞서가는 작은 배의 선미에는 덥석부리 장한이 양손으로 힘껏 노를 젓고 있었다. 선실에는 소년소녀가 앉아 있었다. 뒤에는 비교적 큰 배가 따르고 있었다. 그 배에는 네 명의 범승과 칠 팔 명의 몽고 무관(蒙古武官)이 타고 있었다.

덥석부리 장한은 팔힘이 대단했다. 노를 한 번 저을 때마다 일

장 남짓 미끄러져 나갔다. 그러나 뒤따라오는 배에는 사람이 많아 제아무리 빨리 노를 저어도 두 배의 간격은 점점 더 가까와졌다. 잠깐 사이에 두 배는 나란히 서게 되었다. 몽고 무관들과 범승들은 저마다 활을 들고 일제히 장한에게 화살을 쏘아 댔다.

숙! 숙! 숙.....!

장삼봉은 비로소 어찌된 영문인지 알았다. 그러나 그는 몽고병들이 한인(漢人)을 죽이는 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겨온터러 지체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했다. 이때, 덥석부리 장한은 왼손으로 노를 저으면서 오른손에 든 노를 휘둘러 날아드는 화살을 모두 막아냈다. 민첩하기 이를데 없는 수법이었다.

장삼봉은 즉시 사공에게 외쳤다.

"사공, 배를 저쪽으로 갖다 대시오!"

사공은 기겁을 하며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했다.

"도.....도장님, 농.....농담을 하시는 거겠죠?"

장삼봉은 다급한 나머지 다짜고짜 노를 뺏어 들고 뱃머리를 돌려 그쪽으로 몰았다.

순간,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선실에 있는 남자애가 등에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덥석부리 장한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급히 앞으로 달려가 살폈다. 그 바람에 어깨와 등 부위에 무차별하게 화살이 적중되었다.

"윽.....!"

그가 노를 놓치자 배마저 멈추었다. 칠,팔 명의 몽고 무관과 범승들이 일제히 작은 배로뛰어내렸다. 덥석부리 장한은 결코 굴복하지 않고 전력을 다해 맞섰다. 그러나 상처를 입은 몸이라 금방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장삼봉은 그들 배와 간격이 좁아지자 즉시 허공으로 몸을 솟구쳤다.

"이놈들! 썩 물러나지 못하겠느냐!"

두 몽고 무관이 장삼봉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

장삼봉은 허공에 뜬 채 도포소매를 가볍게 흔들어 화살을 멀리 날려버렸다. 이어 배에 사뿐이 내리면서 왼손을 격출하자 두 범승의 몸이 허공을 가로질러 풍덩 강물에 빠지고 말았다. 실로 하늘에서 하강한 비장군(飛將軍) 같았다.

우두머리 격인 무관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외쳤다.

"도장은 대체 누군데 남의 일에 참견이오?"

장삼봉은 대뜸 호통을 쳤다.

"어디서 감히 양민을 살해하고 그러느냐! 썩 꺼지거라!"

"이 자가 누군지 아시오? 바로 천하에 체포령이 떨어진 원주(袁州) 마교(魔教)의 반역자 잔당들이오!"

장삼봉은 내심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럼 주자왕(周子王)의 부하란 말인가?'

그는 즉시 덥석부리 장한에게 다르쳤다.

"그게 정말인가?"

덥석부리 장한은 전신이 온통 피투성이가 된 채 왼손으로 남자애를 안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소주공(小主公)..... 소주공께서 화살에 맞아 운명하셨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시인하는 한 마디가 되었다.

장삼봉은 더욱 놀랐다.

"그럼 이 애는 주자왕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소주공을 안전하게 모시지 못했으니 이 목숨도 소주공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는 남자애를 바닥에 내려놓고 무작정 무관에게 덮쳤다. 그러나 어깨와 등에 맞은 화살의 독이 발작하기 시작했는지 몸을 솟구치자마자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한편, 여자애는 선실에서 남자 시체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터뜨

리고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
그 남자 시체는 사공 차림을 하고 있었다.
장삼봉은 마음이 약간 내키지 않았다.
'마교의 인물인 줄 알았다면 이 일에 끼어들지 않는 건데, 그러나 기왕에 끼어든 이상 그냥 물러설 순 없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장삼봉은 무관에게 외쳤다.
"이 애는 이미 죽었고, 저 자도 독화살에 격중되어 금방 죽게 될 테니 이제 그만 가봐라!"
"그럴 순 없소. 저 두 놈의 수급을 갖고 가야 하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도장은 대체 누구길래 이 일에 끼어든 것이오?"
"무림인이 무림의 일을 간섭하겠다는데 누가 감히 뭐라고 그러느냐!"
"뭐라고!"
다짜고짜 두 몽고 무관이 그의 어깨를 향해 장도를 내리쳤다. 도세(刀勢)가 쾌속한 데다가 쌍방의 간격이 워낙 가까와서 도무지 피할 틈이 없었다. 장삼봉은 슬쩍 몸을 돌렸을 뿐인데 이미 날아드는 장도를 교묘하게 피했다. 이와 동시에 쌍장을 격출했다. 퍽!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무관의 몸이 허공으로 날아올라 자기네들이 타고 온 배에 나동그라졌다.
우두머리 격인 무관은 대경실색했다.
"당.....당신은..... 혹.....혹시.....!"
"몽고놈들만 죽이는 저승사자다!"
장삼봉은 도포의 소맷자락을 가볍게 흔들었다. 다음 순간, 무관과 범승들은 하나같이 숨이 막혀 질식해 죽을 것만 같았다. 한참만에야 장삼봉은 떨쳐든 소매를 멈추었다. 무관과 범승들은 안색이 하얗게 질린 채 서로 앞을 다투어 자기네 배로 탈주했다. 물

에 빠진 범승들을 건져내어 허겁지겁 배를 몰고 도주했다.

장삼봉은 단약을 꺼내 덥석부리 장한에게 복용시켰다. 그는 작은 배를 자기들이 타고 온 배로 몰고갔다. 그리고 덥석부리 장한을 부축해서 배를 옮겨 태우려고 했다. 그런데 장한은 거절했다.

덥석부리 장한은 한 손에 남자애 시체를, 한 손에 여자애를 안고 가볍게 몸을 날려 배을 옮겨탔다.

장삼봉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견해 했다.

'중상을 입은 몸인데도 저토록 어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다니, 참으로 대단한 기백이군. 이런 자는 마땅히 살려놔야한다.'

그는 배로 돌아간 후, 장한의 독화살을 뽑아주고 독을 제거해주는 약을 발라 주었다.

그 소녀는 부친의 시신이 있는 작은 배가 멀어져 감에 따라, 더욱 구슬프게 울어 댔다.

장삼봉은 신속히 뇌리를 굴리고 있었다.

'현재론 무기도 걸어다닐 수 없는데, 만약에 노하구(老河口)에 가서 투숙하면 현상범인 이 자까지 보살펴야 하지 않은가? 노하구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을까?'

그는 돌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사공에게 은자 세 냥을 건네주었다.

"사공, 수고스럽겠지만 우리들 태평점(太平店)으로 태워다 주시오."

장삼봉이 몽고 무관들을 추풍낙엽처럼 쓸어버린 광경을 목격한 사공은 무한한 경의를 품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자까지 주자,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사공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배를 동쪽으로 몰았다.

이때, 장한이 선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다.

"소인 상우춘(常遇春)의 절을 받으십시오."

장삼봉은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상대협, 이렇듯 대례까지 올릴 필요 없소. 어서 일어나시오."
그의 손이 상우춘의 몸에 닿는 순간 얼음장같이 차가운 감촉이 전해왔다.
"혹시 내상을 입었소?"
"소주공을 모시고 신양(信陽)서부터 이곳까지 호송해 오는 동안 오랑캐들이 파견한 추격대와 네 차례에 걸쳐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 바람에 가슴과 등에 장력을 맞았습니다."
장삼봉은 그의 완맥을 짚어보았다. 맥박이 미약하게 뛰고 있었다.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보더니 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장력에 적중된 부위가 많이 부어올라 있었다. 상세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벌써 죽었을 것이다. 장삼봉은 더 이상 그에게 말을 시키지 않고 선실에 눕혀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했다.
그 여자애는 열 살 정도밖에 안 됐으며 누더기 옷에 맨발 이었지만, 용모만은 수려하기 이를데 없었다. 그 애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어 장삼봉은 그 계집애를 불쌍하게 여기며 물었다.
"애야, 네 이름이 뭐냐?"
"주지약(周芷若)이에요."
"집은 어디에 있으며, 집에 누가 있느냐? 내가 집까지 바래다 주마."
주지약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대답했다.
"저는 아버지와 단 둘이 배에서 살아왔어요."
장삼봉은 지그시 눈을 감고 내심 중얼거렸다.
'그야말로 천애고아가 되지 않았나? 쯧쯧.... 이를 어쩐다...!'
상우춘이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소인은 여지껏 한 번도 도장님처럼 무공이 고강하신 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감히 도장님의 법호를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장삼봉은 미소를 지었다.

"장삼봉이라고 하오."

상우춘은 대경실색하며 벌떡 일어났다.

"무당산 장진인이셨군요. 오늘 이렇듯 선장(仙長)님을 뵙게 되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장삼봉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다.

"노도는 단지 다른 사람보다 몇 살 더 산 것뿐인데 무슨 선장으로까지 칭호받을 자격이 있겠소? 상처가 아물지 않았으니 어서 누우시오."

그는 상우춘의 호기에 호감이 갔으나, 마교의 수하인지라 더 이상 말을 깊이 나누고 싶지 않아 그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상처가 심하니 되도록 말을 삼가시오."

장삼봉은 천성적으로 도량이 넓어, 정사(正邪)에 대해어느 쪽에도 편견을 두지 않았다. 때문에 장취산에게도 항상 다음과 같이 당부하곤 했다.

----- 정과 사는 본시 구분하기가 힘들다. 정파의 제자라도 마음이 똑바르지 않으면 사도(邪道)가 되는 것이오. 사파일지라도 마음만 선량하면 정인군자(正人君子)가 되느니라. -----

뿐만 아니라 천응교주 은천정은 비록 성격이 괴팍하고 격한 편이지만 광명정대한 사람이니 이런 친구들을 사귀라고 당부까지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장취산이 자결하자 이 모든 것이 천응교로 인해 벌어졌으므로 그들을 증오하지 않을 수가없었다. 나중에 간신히 은천정에 대한 복수심을 억눌렀으니 사마(邪魔)라는 두 글자만 들어도 치를 떨었다.

주자왕은 바로 여러 마교에서도 명교(明敎)에 속한 미륵종(彌勒宗) 대제자로서 수년 전에 강서 원주에서 거사를 일으켜 스스로 제왕이 되어 국호를 주(周)로 칭했다. 그러나 곧 원군(元軍)에 의해 섬멸당하고 주자왕도 잡혀 참수를 당했다.

미륵종과 천응교는 비록 일파가 아니었으나 같은 명교의 지파(支波)로서 상호간에 연원(淵源)이 무척 깊었다. 주자왕이 거사를 일으킬 때도 은천정이 절강(浙江)에서 원조를 해줬다. 장삼봉이 상우춘을 구하게 된 동기도 일시적인 협의심에서 우러나온 것뿐이지, 사전에 그의 신분을 알았다면 결코 돕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날 밤 이경(二更)이 넘어서야 태평점에 도착했다. 장삼봉은 사공으로 하여금 고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 배를 정박하라고 지시했다. 사공은 고을에 가서 먹을 음식을 사다가 선실에다 음식상을 차렸다. 장삼봉은 상우춘과 주지약을 먼저 먹게 하고, 자기는 장무기에게 다가가 음식을 먹여 주었다. 상우춘이 그 원인을 물어보는 바람에 장삼봉은 장무기의 목숨을 잠시 지연시키기 위해 혈도를 제압했다고 상세히 말해 주었다. 장무기는 마음이 찢어질 듯이 괴로워 음식마저 넘어가지 않았다. 장삼봉이 계속 먹이려 했으나 그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주지약이 보다못해 장삼봉에게서 음식을 받아들었다.

"도장님, 먼저 드세요. 제가 상공에게 먹이겠어요."

장무기는 단호히 고개를 내둘렀다.

"배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요."

"상공이 정녕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 도장님께서도 식사를 못하시잖아요?"

일리 있는 말이었다. 주지약이 다시 음식을 입가에 갖다 대자 장무기는 지체하지 않고 입을 벌려 받아먹었다. 주지약은 생선가시, 닭뼈 등을 세심하게 발려 정성스레 음식을 먹였다. 장무기는 조금도 싫다는 기색없이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장삼봉은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여의고 이런 중병까지 얻었으니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로고.... 세심한 여인의 시중을 받아야 하거늘.....'

상우춘은 생선이나 고기 종류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단지 야채만 깨끗이 비웠다. 그는 비록 중상을 입고 있었으나 밥을 네 그릇이나 먹었다. 장삼봉은 육류나 생선을 개의치 않고 먹기 때문에 상우춘에게도 권했다.

상우춘은 고개를 저었다.

"장진인, 소인은 보살을 모시는 몸이라 육류나 생선을 먹을 수 없습니다."

"아! 내가 깜빡 잊었군요."

장삼봉은 비로소 마교는 당조(唐祖)이래 줄곧 채식(菜食)만 먹어왔음을 새삼 상기시켰다.

북송(北宋) 말년에 명교의 대수령인 방엽이 절동(浙東)에서 거사를 일으켰을 때, 당시 관민들은 그를 식채사마교(食菜事魔教)로 칭했다. 채식을 섭취하고 마왕을 받드는 것이 마교의 양대 규율로서 수백 년을 전해 왔다. 그런데 송조(宋祖)가 망하자 관부(官府)에서는 마교의 교도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기 시작했고, 무림인들도 그들을 멸시하기에 이르렀다. 마교 교도들은 차츰 은밀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채식을 섭취하는 것은 부처님을 신봉하기 때문이라고 거짓말했다.

상우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장진인께선 저의 목숨을 구해 준 은인인 동시에 저의 내력까지 알고 계시니 솔직이 털어놓겠습니다. 소인은 명교의 사람으로서 조정 관리들은 우리를 극악무도한 무리로 여기고, 무림정파의 협의지사들이 우리를 멸시하는 것 모두 참을수 있지만, 살인방화를 일삼는흑도도 우리를 요괴마귀(妖怪魔鬼)로 몰아부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어르신네께서는 저의 신분을 알면서도 구해 주셨으니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삼봉은 마교의 내력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다. 마교가 받드

는 대마왕은 마니(魔尼)라는 사람으로서 교도들은 그를 명존(名尊)으로 칭했다. 마교는 당나라 헌종(憲宗) 원화년(元和年)에 중원으로 들어왔다. 당시에는 마니교, 또는 대운광명교(大雲光明敎)로 불리어졌고, 교도들은 명교로 칭했다.

장삼봉은 약간 망설이다가 말문을 열었다.

"상대협....."

상우춘이 급히 말을 가로챘다.

"도장님, 앞으로는 소인을 그냥 우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우춘, 자네 지금 몇 살인가?"

"스물입니다."

그는 비록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나 행동거지가 무척 젊어 보여서 장삼봉이 물어본 것이다. 장삼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는 비록 마교에 투신했으나 나이가 젊어 아직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들어 주겠나?"

"어찌 감히 듣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세심혁면(洗心革面)하고 사교를 버리게. 그러면 자네를 내 수제자인 송원교의 제자로 들어가게 해주겠네. 어떤가?"

송원교는 칠협의 첫째로서 그 명성이 천하를 진동하고 있는 동시에 보통 무림인들은 그를 한 번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웠다. 이러한 영웅을 사부로 삼을 수만 있다면 실로 크나큰 복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상우춘은 낭랑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소인을 그토록 어여삐 봐주셔서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인은 이미 명교에 투신한 이상, 종신토록 배교(背敎)할 수 없습니다."

장삼봉은 재삼 권했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여자애는....."

상우춘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십시오. 이 애는 저로 인해 아버지를 잃었으니 소인이 책임지겠습니다."

"알았네. 그러나 절대로 귀교에 투신시켜서는 안 되네."

"어찌하여 우리를 그토록 나쁘게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장의 분부대로 절대 이 애를 본교에 투신시키지 않겠습니다."

장삼봉은 장무기를 품에 안으면서 작별을 고했다.

"그럼 우린 여기서 헤어지기로 하세."

그는 더 이상 마교 교도들과 인연을 맺기 싫었다. 따라서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자는 얘기를 입밖에 내지 않았다.

상우춘은 정중한 대례로서 작별 인사를 대신했다.

주지약이 장무기에게 다정스레 말했다.

"상공, 도장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매일같이 식사를 잘해야 돼요."

장무기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호의는 고마우나..... 내가 밥 먹을 수 있는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장삼봉은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팠다. 그는 소매를 들어 장무기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주지약은 장무기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

장삼봉이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애야, 앞으로 정도만 향해 가기를 바란다."

"알았어요. 그런데 저 상공께서 왜 그런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죠?"

장삼봉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상우춘도 의아하게 여기고 물었다.
"어르신네께선 내공이 심후하고 신통력이 광대하셔서 중독된 것쯤은 충분히 해독시킬 수 있겠죠?"
"물론이지."
장삼봉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무기가 눈치채지 못하게 왼손을 가볍게 흔들었다. 완쾌되기 어렵다는 뜻이었다.
상우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소인도 내상이 가볍지 않아 신의(神醫) 한 분을 찾아가 치료를 받을까 하는데 같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장삼봉은 고개를 저었다.
"이 애는 한독(寒毒)이 내장까지 침투되었기 때문에 평범한 약물로 완치시킬 수 없네. 다만..... 다만 자연스럽게 독을 제거해야 되네."
"하지만 그 신의는 정말로 기사회생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장삼봉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가 싶더니 돌연 한 사람을 떠 올렸다.
"혹시 접곡의선(蝶谷醫仙)을 마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어르신네께서도 저의 호사백님을 알고 계시군요."
장삼봉은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접곡의선 호청우(胡靑牛)는 비록 고명한의술을 갖고 있지만, 마교의 사람으로서 모든 무림인들을 원수 대하듯 하지. 더우기 성격이 괴팍하여 마교 교도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치료해 주지 않는다고 들었네. 그래서 견사불구(見死不救)라는 칭호까지 붙었다는데....."
상우춘은 장삼봉의 고충을 이해했다.
"장진인, 저의 호사백님께선 비록 외인에게 치료를 해주지 않지만, 소인을 살려 주신 장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만약에 정말 치료해 주지 않는다면 제가 가만 있지 않겠습니

다."

"설령 치료해 준다 해도 무기의 한독을 제거하기엔 힘이 좀....."

상우춘은 가슴이 답답한지 큰 소리로 외쳤다.

"이 공자는 어차피 죽을 건데 뭘 그리 망설이십니까?"

그는 성격이 괄괄하여 생각나는 대로 무조건 털어놓았다.

장삼봉은 할 말을 잃었다.

'옳은 말이다. 어차피 한 달 남짓밖에 살지 못하지 않은가!"

그는 비록 잃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흉악한 마교 제자에게 무기를 맡기기가 꺼림칙했다.

상우춘은 장삼봉의 마음을 꿰뚫어보듯 했다.

"장진인께서 저의 호사백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호사백님은 성격이 괴팍하여 장진인께 무례한 언사를 퍼부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제가 단독으로 장소제를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절대로 장소제에게 해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히 그렇다면 자네만 믿겠네. 하지만 내 미리 말해 둘 것이 있네."

"뭡니까?"

"무기를 강제로 입교(入校) 시켜선 안 돼네."

상우춘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 좀 보살펴 주게."

"전심전력 하겠습니다."

"그럼 이 여자애는 내가 무당산으로 데리고 가겠네."

상우춘은 강변에 있는 한 고목으로 다가가 구덩이를 팠다. 그리고 주공자의 시신에서 옷을 전부 벗기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매장했다. 이러한 나장(裸葬)은 명교의 규칙 중의 하

나로서 태어날 때 발가벗은 채로 왔으니 이승을 떠날 때도 알몸이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장삼봉은 그러한 이유도 모르고 오직 이 자들의 행동이 하나같이 요사스럽게 느껴졌다.

이튿날, 날이 밝자 장삼봉은 주지약을 데리고 떠났다. 장무기는 친조부님과 같은 장삼봉이 홀연히 떠나자 눈물이 샘솟듯 흘러나왔다.

이를 보다못한 상우춘은 미간을 찌푸렸다.

"장소제, 자네 지금 몇 살인가?"

장무기는 울음섞인 음성으로 대답했다.

"열 두 살입니다."

"열 두 살이며 어린애도 아닌데 그렇게 울고불고 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사내 대장부라면 적어도 피는 흘릴망정 눈물만은 흘리지 말아야지. 계속해서 그렇게 울면 혼날 줄 알아!"

"나는 태사부님과 헤어지기 싫어서 운 거지, 결코 누가 때린다고 해서 울지 않아요. 만약에 오늘 나를 때린다면 훗날 열 배로 갚아 주겠어요."

상우춘은 약간 어리둥절하더니 앙천대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한결 친숙한 말투로 말했다.

"옳지, 사내 대장부라면 그만한 오기가 있어야지.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나오는데 내 어찌 감히 너를 때릴 수 있겠느냐?"

"나는 움직일 수도 없는 몸인데, 왜 때리지 못하는 거죠?"

"오늘 너를 때렸다가 훗날 네가 네 태사부님에게 무공을 전수받아서 나를 때리면 내 힘으로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장무기도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상우춘은 곧 배를 빌려서 한구(漢九)로 향했다. 한구에 도착한 후 다시 장강으로 가는 배를 갈아타고 동쪽으로 내려갔다. 그 접곡의선 호청우가 은거하고 있는 호접곡은 완북(碗北) 여산호반에 있었다. 이 년 전, 장무기는 강줄기를 따라 북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때는 부모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행하는 도중에 상당히 즐거웠었다. 오늘은 양친을 모두 잃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동하(東下)하고 있으니, 그의 기분은 예전과 비교해서 실로 천양지차가 있었다. 마음이 찢어질 듯이 괴로왔다. 그러나 상우춘이 화낼까봐 감히 울지도 못했다. 더우기 장삼봉이 봉쇄했던 혈도가 스스로 풀리면서 한독이 발작할 때마다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 바람에 그의 입술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그리고 한독은 하루하루 심하게 엄습해 왔다.

장강 하류인 집경(集慶)에 도착하자 상우춘은 하선하여 마차를 빌려서 북으로 치달렸다. 수일 후, 그들은 봉양(鳳陽) 동쪽에 자리잡은 명광(名光)에 도달했다. 접곡의선 호청우는 자기의 은거처를 남이 아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 때문에 상우춘은 여산호반의 호접곡과 이십여 리쯤 떨어진 것에서 마차를 보내고 장무기를 업고 걸어서 갔다.

그의 생각 같아선 이십여 리 정도는 단숨에 달릴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범승에게 당한 내상이 심해선지 일 리밖에 걷지 않았는데 전신의 근골이 쑤시고 아파서 걸음조차 옮겨놓기가 힘들었다.

장무기는 몹시 미안해 했다.

"상대형, 이제부터는 혼자 걷겠어요. 이러다간 상대형의 몸마저 큰일 나겠어요."

상우춘은 은근히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평상시엔 단숨에 백 리를 왔다갔다 해도 끄덕없었는데, 그까짓 범승에게 맞은 장력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하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었다."

그는 오기가 발동했다. 하여 더욱 속력을 내서 달렸다. 그러나 내상이 심한데다가 억지로 힘을 내자 수십 장도 못 가서 사지백해의 관절이 모두 산산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그래도 장무

기를 내려놓지 않았을 뿐더러 앉아서 쉬지도 않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너무나도 느린 걸음이었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걸었는데 반도 채 가지 못했다. 산길마저 험준하여 점점 더 걷기 힘들었다. 결국은 한 숲에 도달하여 상우춘은 장무기를 내려놓고 벌렁 드러누웠다. 한 발자국도 더 이상 옮겨 놓을 수가 없었다. 장무기는 일단 숲속에서 하룻밤을 쉬고 내일 떠나자고 권했다. 상우춘도 지칠대로 지쳤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따랐다. 그들은 한 고목에 기대어 잠을 청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심야에 장무기는 한독이 다시 발작하면서 전신을 심하게 떨었다. 그는 상우춘이 깨어날까 봐 감히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억지로 참았다.

바로 이때였다. 멀리서 병기가 부딪치는 금속성이 들려왔다.

"어딜 도망가려고 그러느냐?"

"동쪽을 봉쇄하고 숲속으로 몰아라!"

일련의 외침이 울리더니 어지러운 발자국소리와 함께 숲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상우춘은 깜짝 놀라 깨어나면서 오른손에 단도를 뽑아들고 왼손으론 장무기를 안은 채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장무기는 나직이 말했다.

"우리에게 덤비는 것 같지 않은데요."

상우춘도 고개를 끄덕이며 고목 뒤에 몸을 숨기고 살펴보았다. 칠흑같은 어둠이 깔린 가운데 칠,팔 명이 한 명을 포위해서 협공을 가하고 있었다. 협공을 당하고 있는 자는 적수공권이었으나 쌍장을 난무하는 가운데, 그 누구의 접근도 허락치 않았다. 한참동안 격전을 벌이자, 포위망이 차츰 좁혀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초승달이 구름 사이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주위가 약간 환해졌다. 협공을 당하고 있는 자는 백색 승포를 입고 있는 사십여 세의 키가 크고 깡마른 화상이었다. 협공을 하고 있는 자

들 중에는 도인, 속가차림의 장한, 그리고 두 여인까지 끼어 있었다. 모두 여덟 명이었다.
두 회의승인 중 하나는 선장을, 또 하나는 계도를 들고 있었다. 선장과 계도가 한 번씩 휘둘러질 때마다 굉장한 질풍이 일면서 숲속의 낙엽이 사면팔방으로 난비했다. 한 명의 도인은 무수한 검광을 펼치고 있었다. 왜소한 체격의 사나이는 쌍도를 쥔 채, 땅바닥을 이리저리 뒹굴면서 지당도법(地堂刀法)으로 백의화상의 하체를 공격했다.
두 여인은 각자 장검을 무기로 하여 쾌속무비하게 검법을 전개했다. 그런데 격투를 벌이던 한 여인이 몸을 돌리는 순간 얼굴이 달빛에 비쳤다. 이를 본 장무기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이 여인은 다름아닌 은이정의 정혼녀인 기효부였다. 장무기는 처음에 여덟 명이 화상 한 명을 협공하는 것을 보고 비열하다고 여겼다. 동시에 그 백의화상이 포위망을 뚫고 빠져 나가기를 바랬다. 그러나 막상 기효부를 알아보자 백의화상이 악인임에 틀림없다고 단정내렸다.
이때, 갑자기 한 장한의 외침이 울렸다.
"암기를 사용합시다!"
그 즉시 장한 한 명과 도인 한 명이 좌우로 흩어지면서 소매를 휘둘렀다. 파공음과 함께 탄환과 비도가 끊임없이 백의화상에게 날아갔다. 이쯤되자 백의화상은 버티기가 힘들었다.
검을 쥔 긴 수염의 도인도 외쳤다.
"팽화상(彭和尙), 우리는 당신을 죽이려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목숨을 걸고 버티는 것이오? 백구수만 내놓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 아니오?"
이 말을 들은 상우춘은 내심 경악을 금치 못하고 나직히 중얼거렸다.
"저분이 팽화상이란 말인가?"

장무기는 부모님에게서 왕반산의 일과 천응교가 각파와 원한을 맺게 된 동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 때문에 백구수가 왕반산에서 유일하게 생환(生還)한 천응교의 현무단 단주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최근 각 방파가 천응교와 끊임없이 격전을 벌이는 이유도 바로 백구수로 하여금 사손의 행적을 실토케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장무기는 신속히 생각을 굴렸다.

'혹시 이 팽화상도 내 어머니와 같은 천응교의 인물이 아닐까?'

이때, 팽화상의 낭랑한 외침이 들려왔다.

"백단주는 이미 너희들 손에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런 자를 어찌 내놓을 수 있겠느냐?"

긴 수염의 도인이 말했다.

"우린그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 사람의 행방을 알고자 할 뿐이다."

"사손의 행방을 알고자 함이면 소림사 방장을 찾아가면 되지 않느냐!"

"당치않은 소리 작작해라! 방장님이 사손의 행방을 어찌 알 수 있느냐! 이건 순전히 천응교의 요녀 은소소가 우리 소림사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꾸며낸 흉계다."

장무기는 회의승인이 망모(亡母)의 이름을 들먹이자 어깨가 으쓱해지는 한편 가슴이 아팠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이 년이 됐는데도 저들을 아직도 혼란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니.....'

돌연 바깥쪽에서협공하고 있던 도인이 짤막하게 외쳤다.

"모두 엎드리시오!"

나머지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즉시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렸다. 순간, 섬광이 번뜩이며 다섯 자루의 비도가 팽화상의 가슴을 향해 질풍처럼 날아갔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무기가 흠칫 하

는 순간, 화상의 몸이 용수철에 의해 튕겨지 듯 허공으로 솟아올랐다. 다섯 자루의 비수가 아슬아슬하게 그의 발밑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위기를 완전히 모면한 것은 아니었다. 비도는 피했으나 소림승의 선장과 계도 그리고 도인의 장검이 제각기 다리를 향해 뻗쳐왔다.

팽화상은 몸이 허공에 떠 있는 상태이므로 다시 신공을 구사해 피할 재간이 없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회전시키는 동시 왼손을 쭉 ３어냈다.

팍!

그가 노린 것은 소림승의 정수리였다. 소림승의 정수리에 정확히 이장을 내리친 그는 오른손을 펼쳐 상대방의 손에서 계도를 빼앗아 그 계도로 선장을 막았다.

쳉!

정수리에 일장을 맞은 소림승은 그 자리에서 두개골이 파열돼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성난 듯 고함을 지르며 추격해 갔다. 선장을 사용하는 소림승은 성난 야수와 같이 선장을떨치며 소리쳤다.

"팽화상! 내 사제를 죽였으니 오늘 네놈과 생사결단을 내겠다!"

도인도 살기띤 음성으로 외쳤다.

"네놈은 다리에 갈미침(蝎尾針)을 맞았으니 곧 독이 발작해 죽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팽화상은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며 제대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했다.

상우춘은 안타까왔다.

'그는 우리 명교의 큰 인물인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야 한다.....'

그는 심한 부상을 입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달려나가기 위해 억지로 진기를 끌어올렸다. 순간, 내상이 격발되어 온몸이 으스러

지는 고통이 한꺼번에 엄습해 까무러칠 것만 같았다.

이때 팽화상은 일 장 밖으로 다시 몸을 솟구쳤으나 쓰러지고 말았다. 체내의 독이 발작한 게 분명했다. 상우춘은 눈을 크게 뜬 체 상황 변화를 지켜보았다. 팽화상을 협공하는 일곱 명은 선뜻 팽화상에게 가까이 접근해 가지 못했다. 팽화상은 쓰러져 있지만 역시 그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다.

수염이 긴 도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허사제, 자네가 먼저 비도 두 자루를 날려 시험해 보게."

비도를 쓰는 도인은 즉시 오른손을 떨치자 두 자루의 비도가 파공음을 내며 날아갔다. 한 자루는 팽화상의 오른쪽 어깨를 노렸고, 한 자루는 왼쪽다리를 노렸다. 팽화상은 땅에 쓰러진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미 죽은 듯 싶었다. 두 자루의 비도는 정확하게 목표물에 꽂혔다. 그래도 팽화상은 움직이지 않았다.

수염이 긴 도인은 고개를 설레설레 내둘렀다.

"이미 죽은 모양이야. 정말 아깝게 됐군. 저놈이 백구수를 어디에다 숨겼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일곱 명은 동시에 앞으로 달려나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펑! 펑! 펑! 펑! 펑!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다섯 명이 동시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팽화상이 벌떡 몸을 일으켰다.그의 어깨와 다리에 여전히 비도가 꽂혀 있었다. 그는 독이 묻은 갈미침을 맞아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적을 가까이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죽은 척한 것이다. 그리고 계획대로 그들이 가까이 접근해 오자 대풍비운장(大風飛雲掌)을 전개한 것이다.

그가 노렸던 다섯 명은 아미파의 두 여제자를 제외한 남자 다섯이었다. 그들은 제각기 가슴에 일장을 맞았다. 팽화상은 땅에 쓰러져 줄곧 공력을 끌어모으고 있었으며 또한 죽음을 각오한 마지

막 일격을 전개한 것이므로 그 위력이 엄청났다.
 기효부와 정민군은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땅에 쓰러져 있는 다섯 명을 살펴보니, 한결같이 입에서 선혈을 토해 내며 처절한 신음을 연발했다. 그러나 팽화상 역시 진력이 탈진되어 휘청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했다. 이것을 본 긴 수염의 도장이 얼른 소리쳤다.
 "두 분 낭자, 어서 검으로 놈을 해치시오!"
 정민군은 속으로 냉소를 날렸다.
 '흥! 네가 뭔데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는 거냐!'
 그녀는 장검을 떨쳐 팽화상의 발목을 향해 베러 갔다. 팽화상은 장탄식을 하며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 그로서는 죽음을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었다.
 생사일발의 순간,
 창!
 날카로운 금속성이 들리며 정민군의 검을 가로막는 또 한 자루의 검이 있었다. 뜻밖에도 기효부가 정민군의 검을 가로막은 것이다.
 정민군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이 벌어졌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사저(師姐), 팽화상은 우리에게만은 기습을 전개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를 죽일 순 없잖아요!"
 "뭐라고? 그가 일부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냐? 그는 단지 우리까지 손상시킬 힘이 없었던 것뿐이다!"
 정민군은 팽화상에게 앙칼지게 다그쳤다.
 "팽화상, 나의 사매가 자비를 베풀어 너의 목숨만은 살려 주라고 하니 너도 이젠 백구수가 있는 곳을 순순히 털어놓아라!"
 팽화상은 앙천광소를 터뜨렸다.
 "하하핫..... 정낭자, 나 팽영옥(彭瑩玉)을 우습게 생각하는 모

양이군. 무당파의 장취산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의형의 거처를 입 밖에 내지 않았는데, 나 팽영옥은 비록 그와 비교해 보잘것 없는 존재지만 그를 본받을 자격은 갖추고 있다!"

여기까지 말한 그는 울컥 한 모금의 선혈을 토해 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정민군은 잽싸게 앞으로 다가가 다시는 움직일 수 없게끔 허리를 찍은 것이다.

정민군은 냉소를 날렸다.

"장취산은 눈이 멀어 사교의 요녀와 결합하여 결국 헛되게 죽음을 당했는데 뭐가 본받을 게 있단 말이냐?그들 무당파는....."

기효부가 얼른 그녀의 말을 제지했다.

'사저.....!"

"은육협까지 들춰내지 않을 테니 안심해라!"

정민군은 수중의 장검을 살짝 떨쳐 팽화상의 오른쪽 눈을 겨냥하며 한 자 한 자 뚜렷하게 내뱉었다.

"네가 만약 실토하지 않으면, 우선 오른쪽 눈을 찌르고 나서 다시 왼쪽 눈을 찌르겠다. 그래도 입을 열지 않으면 귀와 코, 순서대로 베어 버리겠다!"

그녀의 검 끝이 팽화상의 눈에서 불과 반 치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검 끝에서 싸늘한 검광이 뿌려졌다.

팽화상은 눈을 크게 부릅뜨고 냉랭하게 맞섰다.

기효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매우 난처해 했다.

"사저, 동문의 우애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닥쳐라! 찌르지 않겠다는 거냐!"

"사저, 안심하세요. 사부님이 저를 의발전인으로 지목해도 저는 절대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흥! 네 말을 듣고 보니 마치 내가 질투를 느끼는 걸로 오해하는 모양인데, 내가 너만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질투를 하겠느냐? 여러 말 말고 찌를 건지, 아니면 내 입에서 모든 얘기가 나오길

바라는지, 어서 선택하라!"
 기효부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소매가 무슨 잘못을저질렀으면 사저의 처벌을 달게 받겠어요. 제발 다른 문파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를 궁지로 몰지 마세요....."
 여기까지 말한 그녀는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
 정민군은 막무가내였다.
 "흥! 그렇게 가련한 꼴을 꾸며낸다고 해서 내 마음이 달라질 줄 아느냐! 넌 눈물을 흘리면서도 속으론 날 욕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사 년 전이었을까, 삼 년 전이었을까? 아무튼 너는 잘 기억하고 있겠지. 그해 감주에서 너는 정말 병이 생겼느냐? 흥! 생기긴 생겼지. 병이 생긴 게 아니라 어린애가 생긴 게 아니었느냐?"
 여기까지 들은 기효부는 이내 몸을 돌려 뛰어나갔다.
 정민군은 그녀가 달아날 것을 예측하고 있던 차라 잽싸게 신법을 전개해 장검을 쥔 채 앞을 가로막았다.
 "내 말대로 순순히 팽화상의 눈을 찔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어린애의 부친이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명문정파의 제자로서 마교의 요승을 감싸주는지 밝혀라!"
 기효부는 몸을 파르르 떨었다.
 "이.....이대로 떠나도록 내버려 둬요!"
 정민군은 장검으로 그녀의 가슴을 겨냥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애를 어디서 키우고 있느냐? 너는 무당파 은이정의 정혼녀이거늘 어째서 다른 사람의 애를 낳았느냐?"
 정민군의 말은 청천벽력이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의아해 했다.
 기효부는 안색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져 질풍같이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 순간 정민군이 장검을 떨쳐 그녀의 오른팔에 검상을 입혔다.

기효부는 심한 부상을 입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왼손으로 검을 뽑아쥐었다.

"사저, 계속 나를 궁지로 몰아넣는다면 나 역시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정민군은 자기가 기효부의 극비를 들추어내면 그녀가 틀림없이 살인멸구를 할 것이라 생각했다.

막상생사투가 벌어지면, 자기는 기효부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선수를 쳐서 검상을 입힌 것이다.

지금 기효부의 입에서 극단적인 말이 내뱉어지자 즉시 월락서산(月落西山)의 초식으로 그녀의 아랫배를 찌르려 했다.

기효부는 오른팔에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사저가 악랄한 살수를 펼쳐오자 본능적으로 왼손으로 검을 전개해 막아야만 했다.

그들은 동문에서 검법을 익혔으므로 서로의 초식과 장단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단 싸움을 벌이자 일초 일식이 주조면밀하여 더욱 아슬아슬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중상을 입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므로 누구를 도와줄 수도 없었다. 단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싸움을 지켜볼 뿐이었다.

기효부의 팔에서 계속 피가 흘러내렸다. 그녀는 정민군을 뿌리치고 속히 이곳을 떠나고 싶었으나 부상을 입은데다가, 왼손으로 검을 사용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아 시종 수세에 몰렸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정민군이 늘 기효부의 무공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므로 감히 지나치게 접근해 오지 못했다. 단지 외곽에서 쉴새없는 공격을 펼칠 뿐이었다. 시간을 끌수록 기효부는 피를 많이 흘려 제풀에 지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계획은 과연 적중되었다. 기효부는 갈수록 자세가 흐트러지며 검법도 느슨해졌다. 정민군은 그 틈을 타서 두 초식을 성

공시켰다. 기효부는 오른쪽 어깨에 다시 이검(二劍)을 맞자 한쪽 옷이 선혈로 물들었다.

이때 팽화상이 갑자기 목청을 높여 소리쳤다.

"정낭자! 어서 이리 와서 나의 왼쪽 눈마저 찔러라!"

그는 기효부가 고마왔다. 더군다나 정민군이 그녀를 위협하는데 무기로 삼고 있는 약점이, 여자가 생명보다 더 중요시 하는 절개가 아닌가!

팽화상은 기효부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만 없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돕고 싶었다. 팽화상은 정민군의 초식이 갈수록 악랄해지자 욕을 퍼부었다.

"정민군! 이 더러운 계집아! 강호에서 너를 독수야초(毒手野草)라 부르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과연 마음이 독사같고, 생김새가 잡초 같구나. 세상 여자가 모두 너 같이 구역질날 정도로 추악하게 생겼다면 모든 남자가 절간으로 들어가 중이 되었을 것이다. 이 호박 덩어리 같은 독수야초야! 제발 내 앞에서 얼씬거리지 말아라. 아니면 그 추악한 꼬락서니가 안 보이게끔 어서 왼쪽 눈마저 찔러라! 부탁이다!"

사실 정민군은 비록 미녀가 아니지만 이목구비가 수려한 편이었다. 그러나 팽화상은 그녀가 추하게 생겼다고 소리칠 뿐 아니라 제멋대로 독수야초라는 별호까지 붙여 주었다.

그는 세정(世情)에 통달하여, 어떠한 여자라 할지라도 용모가 추하다고 하면 자존심이 크게 손상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민군이 자기의 말에 발끈하여 달려온다면 기효부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팽화상이 노린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데 정민군은 그의 격장지계에 선뜻 넘어가지 않았다. 일단 기효부를 처치하고 나서 얼마든지 그에게 능욕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모독적인 욕을 못 들은 척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팽화상이 아니었다. 그는 더욱 목청

을 높여 외쳤다.
"기여협이 절세미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독수야초 정민군이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무당파의 은이정을 유혹하려고 꼬리를 치니 가소롭구나! 은이정이 너를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이번엔 기여협을 모함해 죽이려는구나! 하하..... 너는 광대뼈가 너무 높고 입이 하마 같을 뿐 아니라, 안색이 고양이 똥처럼 누르퉁퉁하다! 집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거울에 그 상판때기를 비추어 보고 나서 꼬리를 치든, 추파를 던지든지 해라!"
정민군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성난 야수처럼 팽화상에게 달려와 장검으로 입을 찌르려 했다.
정민군의 광대뼈가 약간 높은 것은 사실이었다. 입도 앵두같이 작은 입이 아니며 피부색도 백옥처럼 희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보기 흉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 자신은 가끔 그러한 것이 흠이라고 느껴지기는 했지만 주위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한데,팽화상의 보는 눈이 예민하여 비단 그 약점을 쪽집개처럼 집어냈을 뿐 아니라 과장시켜 떠들어 대자 정민군이 어찌 오장육부가 뒤틀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그녀는 아직 은이정을 만나 본 적도 없는데 고리를 친다느니, 추파를 던졌다고 운운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녀가 막 일검을 내뻗는 순간 숲 속에서 난데없이 한 사람이 뛰쳐나와 대갈일성을 하며 팽화상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 사람의 출현은 실로 뜻밖이었다. 정민군은 미처 검을 거둘 새도 없이 그 자의 아랫배에 일검을 찔렀다.
꼭 전광석화와 같았다. 순간 그 자는 장풍을 펼쳐내 정민군의 가슴을 적중시켰다.
펑!
정민군은 심한 충격과 함께 대여섯 자 뒤로 밀려나 땅에 쓰러지

며 입에서 선혈을 뿜어냈다.

한편, 느닷없이 나타난 자는 배에 장검이 깊숙이 꽂힌 채 고목처럼 쓰러졌다.

그의 모습을 확인한 곤륜파의 수염을 길게 기른 도인이 대뜸 놀란 외침을 토했다.

"백구수다! 백구수!"

그는 중상을 입은 후 팽화상이 자기를 감싸주기 위해 소림, 곤륜, 아미, 해사파의 고수들에게 협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 있는 힘을 다해 달려와 팽화상을 위해 마지막 일검을 받은 것이다.

그의 장력이 워낙 웅후하여 숨이 끊어지면서 펼쳐낸 일장에 정민군은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졌다.

기효부는 겨우 숨을 돌려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동여매더니 팽화상에 찍힌 혈도를 풀어 주었다.

그리고 나서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떠나가려 했다.

팽화상이 얼른 소리쳤다.

"잠깐만! 기낭자, 이 팽화상의 큰절을 받으시오."

그는 즉시 절을 올렸으나 기효부는 왼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 그의 절을 받지 않았다.

팽화상은 곤륜 도장이 떨어뜨린 장검을 주웠다.

"이 정민군은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려 기낭자의 절개를 더럽혔으니 살려둘 수가 없소."

이렇게 말하며 정민군의 목을 향해 찌르려 했다.

기효부가 얼른 그를 만류했다.

"그녀는 나의 동문 사저예요. 그녀는 나를 무정하게 대했지만 나는 그에게 정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할 수 없어요."

팽화상은 눈살을 찌푸렸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만약 그녀를 죽이지 않으면 차후에 기낭

자에게 더욱 불리한 행동을 할 것이오."
기효부의 양볼을 타고 소리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길한 계집이니 모든 것을운명으로 받아들이겠어요. 팽대사, 나의 사저만은 상하게 마세요."
팽화상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기여협의 분부인데 내 어찌 거역할 수 있겠소?"
기효부는 나직이 정민군에게 말했다.
"사저, 부디 몸 보중하세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의 모습은 숲 속으로 사라졌다.
팽화상은 중상을 입은 체 땅에 쓰러져 있는 다섯 명에게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나 팽화상은 너희들과 아무런 원한이 없다. 그래서 처음엔 너희들을 꼭 죽일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오늘 저 말대가리처럼 생긴 계집이 기여협을 모독하는 말을 너희들도 들었기 때문에, 그 헛소문을 강호에 퍼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해야겠으니 저승에 가서라도 날 원망하진 말아라."
그는 말을 하면서 곤륜파의 두 도인과 소림승, 그리고 해사파의 두 고수를 차례로 죽여 버렸다.
이어 정민군의 어깨에 검을 갖다 댔다. 정민군은 혼비백산했다. 그러나 중상을 입은 몸이라 저항할 수도 없어 욕을 터뜨렸다.
"이 더러운 땡중아! 어서 날 죽여라!"
팽화상은 이빨을 드러내어 징그럽게 웃었다.
"흐흐..... 너같은 추녀도 남자의 손길이 두렵느냐? 솔직이 말해서 너를 죽일 용기가 없다. 너 같은 추녀가 지옥으로 들어가면 지옥의 악귀들이 모두 놀라 인간 세상으로 뛰쳐나올 것이며, 염라대왕마저 저의 상판때기에 놀라 구역질을 한다면 나중에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지장이 있다. 하하핫....."

그는 광소를 날리더니 장검을 버리고 백구수의 시체를 안아 다시 통곡을 하고 나서야 유유히 떠나갔다.

정민군은 한참 후에야 검집으로 몸을 지탱하여 비틀비틀 숲을 빠져나갔다.

이 경심동백(驚心動魄)할 싸움을 장무기와 상우춘은 처음서 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다. 둘은 정민군이 떠나간 후에야 길게 숨을 내쉴수가 있었다.

무기는 한 가지 가장 궁금한 것이 있었다.

"상대가, 기낭자는 저의 은육숙의 정혼녀인데 그 정씨 성을 가진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 다른 사람과 애를 낳았다는데 그게 정말일까요?"

"그 여자가 꾸며낸 말이니 믿지 말아라."

"맞아요. 나중에 은육숙을 만나면 그 여자를 단단히 혼내 주리고 해야겠어요."

"아니야. 너의 은육숙에게 그 말을 하면 안 된다. 알겠느냐?"

"왜 그러죠?"

"그런 듣기 거북한 얘기는 될 수 있는 한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좋아."

장무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잠시 후에 갑자기 물었다.

"상대가, 혹시 그 일이 사실일까봐 그러는 게 아니예요?"

상우춘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모르겠다."

날이 밝자 상우춘은 몸을 일으켜 장무기를 업고 걸음을 떼어놓았다. 간밤에 휴식을 취해서인지 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몇 리쯤 가서 이들은 관도로 들어갔다. 상우춘은 주위를 살피며 고개를 갸우뚱 했다.

"호사백이 은거하고 있는 호접곡은 매우 황폐한 곳일 텐데, 어찌 관도로 들어섰지? 혹시 길을 잘못 택한 게 아닐까?"

그는 행인을 찾아 길을 자세히 물으려 했다.

이때 말굽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며 네 명의 몽고 병졸이 장도를 휘두르며 달려왔다.

"빨리 걸어라! 빨리!"

그들은 상우춘 뒤까지 달려와 마치 짐승을 우리로 몰 듯이 앞으로 가라고 재촉하며 장도를 휘둘렀다.

상우춘은 내심 암담했다.

'오늘 다시 호랑이 굴로 떨어져 장형제의 목숨마저 잃게 되는 것이 아닐까?'

지금 그는 무공이 완전히 상실되어 평범한 몽고 병졸도 당해 낼 수 없어 그들이 모는 대로 앞으로 걸어갔다.

얼마 동안 걷자 관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다. 그들도 원병(元兵)에 의해 짐승 몰듯하여 끌려 온 것이다.

'보아하니 나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선량한 백성들을 괴롭히려는 모양이군.....'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삼거리 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에 말을 탄 몽고 군관이 육, 칠 십여 명의 병졸을 대동한 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백성들은 그 군관앞을 지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다.

한인(漢人) 하나가 군관 옆에 붙어서서 다그치듯 물었다.

"성이 뭐냐?"

백성이 대답하면 한 몽고 병졸이 냅다 엉덩이를 걷어차거나 뺨을 후려쳤다. 그 백성은 허겁지겁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신문을 하다가 성이 장(張)이라고 대는 사람이 있으면 멱살을 잡아 한쪽으로 끌어모았다.

그런데 한 사람은 새로 사온 부엌칼이 발견되는 바람에 역시 한쪽으로 분리시켰다.

장무기는 상황이 심상치 않자 얼른 상우춘의 귀에 대고 속삭이

듯 말했다.
"어서 일부러 넘어져 풀밭에다 칼을 버리세요."
상우춘은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잡초가 무성한 곳을 택해 일부러 넘어지는 척하며 칼을 풀고 엉금엉금 기어 일어났다. 그리고 뒤뚝거리며 군관 앞으로 걸어갔다.
그 한인 통역관이 우악스럽게 호통을 쳤다.
"이런 육시랄 놈! 대인께 어서 무릎을 꿇지 못하겠느냐?"
상우춘은 주인으로 모시던 주자왕 일가족이 몽고병에 의해 참변을 당한 것이 떠오르자 죽는 한이 있어도 무릎을 꿇을 수 없었다.
이때 마침 한 몽고 병졸이 그의 빳빳한 자세가 눈에 거슬렸는지 냅다 무릎 안쪽 오목한 곳을 걷어차자 그 자리에 꺾이듯이 엎어졌다.
한인 통역관이 다시 다그쳤다.
"성이 뭐냐?"
장무기가 앞을 다투어 대답했다.
"성은 사(謝)예요. 그는 저의 큰 형님이예요."
원병이 상우춘의 엉덩이를 냅다 걷어차며 소리쳤다.
"어서 꺼져라!"
상우춘은 끓어오르는 분노로 인해 관자놀이가 웅실거렸다. 그는 일어나며 속으로 피를 토하듯 자신에게 다짐했다.
'내 생애에 오랑캐들을 막북(幕北)으로 몰아내지 못한다면 성을 갈고 말겠다!'
그의 이 맹세가 중국 대륙의 판도를 바꾸어 놓게 될 줄이야.....
상우춘은 장무기를 데리고 성큼성큼 북쪽으로 걸어갔다. 그들이 어느 정도 걸어나갔을 때 등뒤에서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황급히 고개를 돌려보니 한쪽으로 격리되었던 십여 명이 모두 목

이 잘라진 채 쓰려져 있었다.

알고 보니 당시 조정의 학정에 반기를 높이 쳐든 사람들이 많았다. 몽고 대신들은 한인을 뿌리째 뽑고 싶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태사(太師) 관직에 있는 파연(巴延)이 한 가지 학살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천하에 장(張), 왕(王), 유(兪), 이(李), 조(趙) 이 다섯 성씨를 가진 한인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모조리 죽이라는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학살령이었다.

한인 중에 장, 왕, 유, 이 네 가지 성을 가진 자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조씨 성은 송조(宋祖)의 황족이므로 이 다섯 성씨의 씨족을 몰살하면, 한인의 원기가 크게 손상할 것이라는 게 그 학살령의 취지였다.

나중에, 이 다섯 성씨를 가진 자들 중에서도 원(元)에 굴복하여 죽지 않은 사람이 벼슬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몽고 대신이 황제께 상소하여 비로소 그 학살령을 철회했다.

상우춘은 걸음을 재촉해 황폐하고 한적한 골짜기만 찾아다녔다. 좀처럼 인적이 닿지 않는 야산이지만, 곳곳에 울긋불긋 꽃이 만발하니 화사한 봄기운으로 충만돼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아름다운 경치에 속 편하게 눈길을 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이때 나비떼가 꽃밭 사이에서 한가로이 날으는 것을 보고 장무기가 소리쳤다.

"그곳이 정녕 호접곡이라면 저 나비떼를 따라가 보는 게 어떻겠어요?"

상우춘은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느꼈다.

"좋아....."

두 사람은 곧 꽃밭 사이로 뚫고 들어갔다. 꽃밭 깊숙이 들어가자 작은 길이 나왔다. 그리고 나비가 더욱 많아졌다. 꽃밭 사이에 뚫려 있는 작은 길은 산모퉁이를 끼고 돌자 녹음이 우거진 골

짜기로 연결되었다.

상우춘은 주위의 지세와 나비떼의 한가롭게 노니는 상황을 종합하여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자 가벼운 흥분마저 느꼈다.

장무기는 줄곧 그의 등에 업혀 있었다.

"이젠 내려주세요. 혼자서 천천히 걸을 께요."

상우춘이 그를 내려놓았다.

골짜기 안으로 접어들어 한참 가자 해가 중천으로 자리바꿈을 했다. 이때, 맑은 계곡물을 끼고 대여섯 칸의 초옥이 세워져 있는 게 시야에 들어왔다. 초옥 뒤켠에는 형형색색의 화초가 심어져 있었다.

상우춘은 환성을 질렀다.

"여기다! 저것이 바로 호사백님이 약재를 심는 약포(藥圃)다."

그는 성큼성큼 초옥 앞으로 걸어가 공손히 낭랑한 음성으로 말했다.

"제자 상우춘이 호사백님을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어린 동자가 초옥 안에서 걸어나왔다.

"안으로 들어오시랍니다."

상우춘은 장무기의 손을 잡고 초옥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대청 옆에 제법 청수하게 생긴 중년인이 한 어린 동자가 약을 달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청 안은 온통 약초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상우춘은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다.

"호사백님, 그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장무기는 내심 이 중년인이 접곡의선 호청우라고 생각해 따라서 큰절을 올렸다.

호청우는 상우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문을 열었다.

"주자왕에 관한 일은 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그 모든 것이 운명이니라. 보아하니 오랑캐들의 운기(運氣)가 아직 남아 있는

모양이니, 본교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줄 날도 그만큼 늦어질 모양이다."

그는 묻지도 않고 상우춘의 맥을 짚어보더니 옷을 풀어 헤쳐 가슴을 살펴보았다.

"응..... 너는 철심장(鐵心掌)에 당했구나. 원래 대수롭지 않은 것인데, 네가 힘을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한독이 가슴으로 파고들어 치료하기가 약간 까다롭게 됐다."

그는 장무기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 애는 누구냐?"

상우춘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사백님, 그는 장무기라 하며 바로 무당파 장오협의 아들입니다."

호청우는 멍해지더니 이내 성난 표정으로 변했다.

"그가 무당파라고? 왜 이곳으로 데려 왔느냐?"

그러자 상우춘은 주자왕의 아들을 보호해 달아나다가 몽고병을 만나게 되어 장삼봉에게 구원을 받은 경위를 일일이 얘기해 주고나서,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했다.

"제자는 그의 태사부님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으니, 사백님께서도 이번 한 번만은 그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호청우는 냉랭하게 말했다.

"넌 정말 통도 크고 인정도 많구나. 흥! 장삼봉이 구한 것은 너지 내가 아니다. 그리고 넌 내가 파례적으로 무엇을 할 사람으로 생각했느냐?"

상우춘은 땅에 무릎을 꿇고 연방 큰절을 올렸다.

"사백님, 이 장형제의 부친은 친구를 배반할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장부 중에 대장부입니다."

호청우는 다시 냉소를 날렸다.

"대장부라고? 천하에 대장부는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다. 그게

뭐가 대수롭다는 거냐? 그가 무당파가 아니라면 몰라도, 정녕 명문정파의 인물이라 자부한다면 왜 나 같은 사파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느냐?"

"자형제의 모친은 바로 백미응왕 은교주의 딸이니, 그도 절반은 본교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호청우는 마음이 약간 동요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음..... 일어나라. 그가 천응교주의 외손자라면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지."

그는 장무기 앞으로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얘야, 나에게 한 가지 철칙이 있단다. 명문정파로 자처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병을 치료해 주지 않는다. 너의 모친이 정녕 우리교의 사람이라면 너의 병을 치료해 주어도 철칙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지. 너의 외조부 백미응왕도 원래는 명교의 사대호법 중에 한 사람이었다. 나중에 그가 스스로 천응교를 창립한 것은 교내의 형제와 불화가 생겼기 때문이지, 명교를 배반한 게 아니다. 다시 말해 천응교도 명교의 한 지파라 할 수 있다. 너의 상세를 치료해 주기 전에 우선 나하고 한 가지 약조를 해야 한다. 다름이 아니라 상세가 완치된 후에 곧장 너의 외조부를 찾아가 앞으로 영원히 명교에 투신해야 하며, 무당파는 인연을 끊어야 한다."

장무기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상우춘이 입을 열었다.

"사백님, 그것은 안 됩니다. 장삼봉 장진인께서 미리 못박은 말이 있습니다. 장형제를 절대 억지로 명교에 가입시키지 말라고 하셨고, 저도 그의 뜻에 따르기로 약조를 했습니다."

호청우는 대뜸 눈꼬리를 치켜올렸다.

"장삼봉이 대관절 뭐냐? 그가 우리 명교를 업신여기는데 우리가 왜 그를 도와야 한단 말이야? 얘야, 너의 생각은 어떠냐?"

장무기는 자신의 오장육부가 모두 한독에 침투돼 있어, 심지어 태사부님 같은 공력이 심후한 사람도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신의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태사부님께선 절대 명교에 가입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지 않았던가?!

장무기는 명교가 왜 나쁘며, 태사부와 사백사숙들이 무엇 때문에 명교에 대해 심한 혐오감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태사부님을 누구보다 존경하고 있으므로 그분의 말이라면 틀림없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를 치료해 주지 않겠다면, 설령 독이 발작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태사부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

생각이 여기에 미친 장무기는 당당하게 말했다.

"호 선생님, 저의 모친이 천응교의 당주였으니 제 생각에 천응교도 좋은 문파인 것 같아요. 하지만 태사부님께서 저더러 절대 명교에 투신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저도 약조를 했으니 치료를 해 주시지 않겠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죽음이 두려워 명교에 가입한다면 상세가 완치되더라도 신의를 저버린 졸부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호청우는 가소롭단 듯이 코웃음을 쳤다.

"쥐새끼만한 녀석이 영웅호걸의 흉내를 내는 꼴이란 정말 못 봐주겠구나! 두고보자! 조만간 나한테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하게 될 테니까!"

여기까지 말한 그는 상우춘에게 잘라 말했다.

"그가 우리 교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확고한 것 같으니 어서 밖으로 끌어내라! 이 호청우의 집에 병들어 죽은 놈이 있어서야 말이 되겠느냐?"

상우춘은 이 사백의 옹고집을 잘 알고 있었다. 일단 입밖에 내뱉은 말은 절대 번복을 하지 않으니 이젠 통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소형제, 명교는 비록 명문정파로 인정받아 오지 못했지만, 당조(唐祖) 때부터 세세대대 그 명맥을 이어오며 많은 영웅호걸을 배출했네. 더군다나 자네의 외조부는 천응교의 교주시며 모친이 천응교의 당주였으니 여러 생각 말고 나의 호사백님이 원하시는 대로 명교에 가입하게, 후일 장진인에게는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네."
장무기는 몸을 일으키며 의연하게 말했다.
"상대가께선 이미 있는 최선을 다 하셨으니, 저의 태사부님께서도 절대 나무라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당당하게 밖으로 걸어나갔다.
상우춘은 흠칫 안색이 변했다.
"어디로 가는 건가?"
"제가 만약 호접곡에서 죽게 되면 접곡의선의 명성에 누를 끼치게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곧장 초옥 밖으로 걸어나갔다.
호청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흥! 견사불구(見死不救) 호청우의 악명을 아직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호접곡 밖에서 죽은 시체가 너뿐인 줄 아느냐?'
건사불구(見死不救)!
죽음을 지켜보면서도 구제하지 않는 신의 호청우, 그는 과연 괴팍하기 이를 데 없는 인물이었다.
상우춘은 황급히 뒤쫓아가 장무기를 잡아 다시 호청우 앞으로 데리고 왔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다.
"호사백님, 정말 이 장형제를 구해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호청우는 입가에 야멸찬 미소가 띠었다.
"내가 견사불구라는 것을 너는 잘 알면서도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느냐?"

"저의 상세는 치료해 주시겠죠?"

"그야 물론이지."

"좋습니다. 제자는 이 장형제를 완치시키겠다고 장진인께 약조했으니 제자 대신 이 장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제자와 장형제를 서로 맞바꾸는 것이니 사백님께서는 전혀 손해가 없으실 겁니다."

호청우는 정색을 했다.

"너는 절심장을 당해 곧 나의 치료를 받는다면 완쾌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레가 지나면 요행히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공은 상실될 것이다. 그리고 열 나흘이 경과되면 도저히 구제할 길이 없다."

상우춘은 신의를 지키기 위해 죽음마저 불사했다.

"그것이 바로 사백님의 명성을 더욱 빛낸 견사불구이니 제자는 죽더라도 사백님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때 장무기가 호청우에게 소리쳤다.

"저는 당신의 도움을 받지 않겠어요!"

이어 상우춘에게 고개를 돌렸다.

"상대가, 나 장무기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남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비겁한 소인배인 줄 아십니까? 그런 방법으로 목숨을 유지하려면 차라리 죽는 게 속 편해요."

상우춘은 그의 고집을 아랑곳하지 않고 허리띠를 풀어 강제로 그를 의자에 꽁꽁 묶었다.

장무기는 다급해졌다.

"어서 나를 풀어 주세요! 풀어 주지 않으면 욕을 하겠어요!"

상우춘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아랫입술을 깨물더니 호청우에게 욕을 퍼부었다.

"견사불구 호청우! 정말 소처럼 미련하군요! 아니 짐승만도 못해요!"

호청우는 그의 욕설을 들으면서도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상우춘은 정중히 몸을 숙였다.

"호사백님! 저는 이미 작별을 고해야겠습니다. 다른 의원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호청우의 음성은 눈빛만큼이나 차가왔다.

"야생마처럼 날뛰어도 넌 이레 동안에 이곳 안휘성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상우춘은 초연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핫..... 견사불구의 사백님 밑에 필사막구(必死莫救)의 사질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즉시 몸을 돌려 성큼성큼 밖으로 걸어나갔다.

호청우는 코털을 뽑아 후 하고 불며 상우춘의 뒷통수에 대고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너는 네 자신 목숨과 이 녀석의 목숨과 바꾼다고 했지만, 내가 언제 그 제의에 승락했느냐? 둘 다 구하지 않겠다!"

이어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반 토막의 녹용을 집어 살짝 던지자 정확하게 상우춘의 무릎 안쪽 혈도에 적중되었다.

상우춘은 그 자리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호청우는 장무기를 풀어 주고 나서 뒷덜미를 잡아 냅다 문 밖으로 던져 버렸다. 장무기는 상우춘이 쓰러져 있는 옆에 떨어졌다.

그는 악을 쓰듯 소리쳤다.

"이 지독한....."

순간, 한독이 격발되어 정신이 흐릿해졌다.

정신을 잃어가는 그의 귓전에 호청우의 느긋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생자멸(自生自滅)해라!"

----- 제 2 권 6 장 끝 -----

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2 권

제 7 장 호접곡의 괴의(愧醫)

장무기의 맥을 짚어 본 호청우는 이내 안색이 변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녀석이 당한 한독은 정말 해괴하군. 혹시 현명패천장이 아닐까? 그 장법은 실전된 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그 장법을 구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는 다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중얼거렸다.

'만약 현명패천장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이렇게 음독한 장력은 더 없을 텐데..... 이 녀석이 여지껏 버티면서 죽지 않은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야. 참, 그렇군, 틀림없이 그 장삼봉 노도가 심후한 공력으로 그를 연명시킨 거야. 지금 음독이 오장육부까지 침투해 응결되었으니 신선이 아니고서야 살려낼 수 없을 거야.....'

그는 장무기를 다시 초옥 안으로 안고 가 의자에 내려놓았다.

잠시 후 장무기는 깨어났다. 이때 호청우는 맞은편 의자에 앉자 넋빠진 사람처럼 깊은 생각에 골몰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우춘은 문 밖 잡초더미 위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호청우는 평생 동안 의술에 심혈을 기울여 어떠한 난치병이라 해도 완치시킬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의선(醫仙)이란 별호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명패천장으로 인한 한독은 아직 겪어본 적이 없었다. 더우기 이 극한 음독을 당하고도 수년 동안 죽지 않고 독이 오장

육부에 응결된 사례는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원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장무기를 치료해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데, 이건 평생에 겪기 어려운 괴질임을 알게 되자 은근히 구미가 당겼다.

호청우는 곰곰히 생각한 끝에 드디어 한 가지 묘책이 떠올랐다.

"음..... 맞았어! 이 녀석을 우선 완치시킨 후에 다시 죽여버리면 되겠군."

그러나 오장육부에 응결된 음독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호청우는 의자에 앉아 꼬박 두 시간을 심사한 끝에 열 두개의 가늘고 작은 동편(銅片)을 꺼내 와 내력(內力)을 이용해 장무기의 단전 아랫 부위 중극혈(中極血), 목줄기 아랫 부위 천돌혈(天突血), 어깨 부위 견정혈(肩井血), 등 열두 군데 혈도에 꽂았다.

열 두 개의 동편을 꽂자 장무기 몸의 십이경상맥(十二經常脈)과 기경팔맥(奇經八脈) 이 즉시 단절되었다.

장무기의 몸에 상맥과 기경이 단절되자 오장육부에 침투돼 있던 독이 서로 작용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호청우는 곧 그의 어깨 부위 운문(雲門), 중부(中府) 두 군데 혈도를 뜸질했다.

이어 팔뚝에서 엄지까지의 천부(天府), 협백, 척택, 공최, 열결, 경거, 대연, 어제, 소상 등 혈도를 뜸질했다. 이 열 두 군데 혈도는 수태음폐결(手太陰肺經)에 속하며, 장폐(臟肺) 깊숙이 침투한 음독을 다소나마 감소시킬 수가 있었다.

이번에는 이열공한(以熱攻寒)이므로 장무기가 겪는 고초는 음독이 발작할 때보다 몇 갑절 더 심한 것이다.

호청우는 장무기의 고통 따위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다.

얼마 후 장무기의 몸은 온통 뜸질자국으로 얼룩졌다. 그런 장무기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내 입에서 신음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어림도 없을 것이다.'

그는 오히려 태연하게 웃으며 호청우와 혈도경맥의 부위에 대해 논했다.

그는 비록 의술에 대해 아는 것이 없지만 의부인 사손으로부터 점혈, 해혈, 그리고 이혈 수법까지 들어, 배의 혈도 부위에 대해서는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었다.

물론 세부적인 심층까지 파고들면 이 절세의 신의 호청우와는 비교가 될 수 없지만 그런대로 대화가 통했다.

호청우는 뜸질을 하며 지루함을 달래는 듯 쉬지 않고 그와 얘기를 나누었다.

장무기는 그의 심오한 의리(醫理)를 십중 팔구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무당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살려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강변을 벌이기도 했다. 호청우는 그의 그릇된 생각을 납득시키기 위해 장황한 이론을 늘어놓아 끝내 잘못을 시인하게끔 만들었다.

"네 녀석은 쥐뿔도 모르면서 멋대로 지껄이는구나."

이 한 마디가 바로 그가 얻은 만족이었다.

이곳은 심산유곡이므로 잡일과약을 달이는 일을 맡아 하는 몇몇 동자 외에 호청우와 말벗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장무기를 맞이해 모처럼 자신의 심오한 강론을 털어놓게 되자 제법 마음이 후련했다.

그가 뜸질을 마쳤을 때 날이 이미 어둑어둑해졌다. 동자는 식사를 마련하고 별도로 국과 밥을 쟁반에 담아 문 밖 초지에 누워있는 상우춘에게 갖다 주었다.

이날 밤 상우춘은 문 밖에서 자야만 했다. 장무기는 그의 혈도를 풀어달라고 호청우에게 사정을 하지도 않고 스스로 상우춘의 곁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것은 고난을 함께 하겠다는 무언의 약조였다.

호청우는 그러한 행동을 아예 못 본 척했다. 그러면서도 내심 혀를 찼다.

'이 녀석은 과연 보통 애들과 다른 데가 있군.'

다음날 아침, 호청우는 다시 장무기를 위해 기경팔맥 각 혈도에 뜸질을 해 주었다.

반 나절이 지나자 장무기는 다시 십이경상맥이 물줄기처럼 순조롭게 흐르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호청우는 다시 심혈을 기울여 약을 조제하여 그에게 복용시켰다. 장무기는 한결 정신이 맑아졌다.

이날 오후 호청우는 새로이 뜸질을 했다.

장무기는 말로서 그의 비위를 긁어 상우춘의 상세를 치료해 주게끔 격장지계를 썼지만 호청우는 막무가내였다.

"흥! 헛된 수작 부리지 말아라. 난 <접곡의선>이란 외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누구든 나더러 <견사불구>라고 해야지만 기분이 좋다."

장무기는 은근히 그를 골려 주고 있었다.

"인체 중에 이 대맥(大脈)이 가장 기묘해요. 호 선생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대맥이 없는 사람도 있다든데요."

호청우는 멍해지더니 이내 눈을 부라렸다.

"당치도 않은 말이야! 인체에 어떻게 대맥이 없을 수 있겠느냐?"

호청우는 발끈했다. 그러더니 안채로 들어가 얄팍한 책자 한 권을 갖고 나와 장무기에게 건네주었다.

장무기가 첫장을 넘겨보니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 십이경상매과 기경팔맥은 모두 상하로 번복하여 흐르지만 대맥은 아랫배 계협(季脇) 아래서 시작하여 전신을 순환하여..... -----

장무기는 계속 읽어 내려갔다. 그곳에는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의술의 그릇된 헛점을 많이 지적해 놓았다.

장무기는 읽어 내려가며 그 깊은 뜻을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범상치 않은 의서(醫書)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옛사람의 그릇된 점을 골라 가르침을 부탁했다.

호청우는 심히 흐뭇해 했다. 그는 침을 놓으며 해석을 해 주었다.

그는 내실에서 다시 열 두 권이나 되는 의서를 갖고 나왔다.

호청우는 이 어린애가 의학에 대해 백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웬지 의기투합되는 느낌이 들었다.

장무기가 펼쳐 보니 깨알처럼 작은 글이 빽빽하게 적혀 있다. 혈도의 위치, 약제의 분량, 침을 놓는 심도(深度) 등 모든 의술상식이 총망라돼 있었다.

장무기는 읽어 내려가며 문득 뇌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계속 읽어 내려가면 상대가의 상세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나오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제 삼 권 속하편 중에 장상료법(掌傷療法)이 수록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치료법이 완벽하게 수록돼 있었다.

그가 백 팔십여 종류의 장력을 보아 넘기자, 드디어 찾는 것이 나타났다. 절심장(截心掌)!

장무기는 뛸 듯이 기뻐했다. 곧 자세히 읽어 보니 절심장의 장력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적혀 있지만 그 치료법은 지극히 간단하게 적어놓았다.

알다시피, 중국의 의도는 변화무쌍하여 정규(正規)가 있을 수 없다. 장무기는 그 세세한 오묘함을 알 까닭이 없었다.

그는 이 치료법을 여러 번 읽어 뇌리에 기억해 두었다.

이 장상치료법의 마지막 항목이 바로 현명패천장(玄冥覇天掌)인

데, 증상 설명에 이어 치료법 아래 단 한 글자가 적혀 있을 뿐이었다.

무(無)!

장무기는 의서를 덮어 공손하게 탁자 위에 올려놓고 진지하게 물었다.

"호 선생님의 이 자오침구경은 뜻이 너무나 심오하여 저의 우둔한 머리로서는 태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가르침을 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음양오행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호청우는 몇 마디 해석을 해 주다가 문득 깨달아지는 바가 있었다.

"이제보니 상우춘을 치료할 방법을 묻는 모양인데. 흐흐.....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만은 절대 말해 줄 수 없다."

장무기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 의서를 파고들었다. 호청우는 그가 읽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장무기는 이날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침식을 잊은 채 의서를 파고드는데 전념했다. 그 덕분에 비단 호청우가 손수 지은 십여 종의 의서를 독파했을 뿐 아니라 황제내경(黃帝內經) 등 의학경전도 섭렵했다.

물론 짧은 기간내에 정독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절심장 혹은 그와 유사한 장상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읽었다.

이렇게 하여 며칠이 지났다. 손꼽아 헤어보니 그가 호접곡에 들어온 지도 닷세가 지나 오늘이 엿새째 되는 날이었다.

호청우는 상우춘의 상세를 이레 이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설령 나중에 치료된다 해도 무공이 상실될 것이라 언급한 바가 있었다.

그 동안 상우춘은 문 밖의 초지에 누워 닷새를 지냈다.

이날 하늘에 먹장구름이 깔리더니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호청우는 상우춘이 진흙땅에 누워있는 것을 빤히 지켜보

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밤이 되자 빗방울이 더욱 굵어졌다. 게다가 천둥번개마저 가세했다. 장무기는 이를 악물며 한 가지 결심을 내렸다.

'설령 상대가의 상세를 잘못 치료해 불행한 결과를 낳는다 해도 지금으로선 용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구나!'

그는 곧 호청우의 약상자 속에서 금침 여덟 개를 꺼내 상우춘에게 다가갔다.

"상대가, 요 며칠 동안 소제는 나름대로 호 선생의 의서를 읽어 비록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시일이 촉박하니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상대가께 침을 놓아야겠어요. 만약 불행한 결과가 생긴다면 소제도 상대가의 뒤를따르겠어요."

상우춘은 호탕하게 대소를 터뜨렸다.

"장형제,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말인가?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침을 놓게. 만약 하늘의 도움을 입어 내가 완치될 수 있으면 견사불구 호사백님께 그보다 더 통쾌한 일침을 가할순 없을 걸세. 그리고 설령 자네가 금침을 잘못 놓아 나를 죽인다 해도 이 진흙땅에 누워 생고생을 겪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걸세."

장무기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조심스레 혈도를 겨냥해 금침을 꽂았다.

그는 침술을 배우지 못했으므로 자연히 솜씨가 졸렬할 수 밖에 없었다. 단지 호청우가 매일 자기에게 침을 놓는 것을 유심히 살펴두었다가 그대로 흉내내는 것에 불과했다.

호청우의 침은 부드러운 금으로 만든 것이므로 심후한 내력이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었다. 장무기가 약간 힘만 주어도 금침이 이내 휘어졌다. 그래도 그는 거듭하여 금침으로 관원혈(關元穴)을 찔렀다.

자고로 혈도에 침을 놓아 피가 흐르는 경우는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장무기가 어설프게 흉내를 내다 보니 상우춘의 관원혈에

서 선혈이 흘러내렸다.

관원혈은 아랫배에 위치해 있으므로 인체 급소 중의 하나였다. 그곳에서 피가 흐르자 장무기는 더욱 당황해져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갑자기 등 뒤에서 광소가 들려온 것은 바로 이때였다.

장무기가 얼른 고개를 돌려보니 호청우가 뒷짐을 진 채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장무기는 다급하게 말했다.

"호 선생님, 상대가의 관원혈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호청우는 천연덕스럽게 대꾸했다.

"나야 물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하지만 너한테 얘기해 줄 필요가 있겠나?"

장무기는 굳건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다시 나의 목숨과 상대가의 목숨을 맞바꿀 테니 어서 상대가를 치료해 주세요. 나는 즉시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겠어요!"

호청우는 천천히 고개를 내둘렀다.

"치료해 주지 않겠다고 내 스스로 다짐을 했는데 어떻게 자신을 배반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너는 자신의 목숨으로 상우춘의 목숨과 맞바꾸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구나. 네가 죽는다고 해서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이 있느냐? 그러니 장무기가 열 번 죽는다 해도 난 상우춘을 구해 주지 않을 것이다."

장무기는 그와 더 이상 얘기해 보았자 우이독경이라는 것을 알았다. 공연한 시간낭비일 뿐이다.

그는 생각을 달리했다. 금침이 너무 연해 자기의 힘으로선 사용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물색해야만 했다.

잠시 후 상우춘은 시꺼먼 피를 몇 모금 토해 냈다.

장무기는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상우춘이 흑혈을 토한 것이 좋은 현상인지, 아니면 상세가 더욱 악화된 것이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호청우의 표정을 살폈다.

호청우는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야간이나마 칭찬의 빛이 서려 있었다.

장무기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는 곧 초옥 안으로 뛰쳐들어가 의서를 뒤적거리며 심사숙고한 끝에 처방을 내렸다.

그는 비록 의서에 의거하여 나름대로 약처방을 했지만, 생지(生地), 자호(紫胡)가 어떻게 생겼으며 우황(牛黃), 웅담(熊膽)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염치 불구하고 약처방을 약을 달이는 동자에게 슬쩍 내주었다.

"이대로 약 좀 달여 주게."

동자는 그 처방을 호청우에게 보여 주며 가부를 여쭈었다.

호청우는 연방 냉소를 날렸다.

"가소롭다! 가소롭다! 그대로 약을 달여 봐라. 그 약을 복용하고 만약 죽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죽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장무기는 황급히 처방을 빼앗아 약재의 분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동자는 처방에 따라 얼마 뒤에 사발에다 진한 약을 담아 왔다.

장무기는 상우춘의 입에 약사발을 갖다 대며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상대가, 이 약이 과연 효험이 있는지는 소제도 알 수 없어요. 단지....."

상우춘은 너무나도 태연했다.

"정말 재미있네. 소 뒷걸음에 쥐잡는 수도 있고 개똥 먹고 삼년 학질 뗐다는 말도있지 않는가!"

그는 주저없이 약사발을 뱃속에다 부어넣었다.

이날 밤 상우춘은 오장육부가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에 잠을 못 이루며 밤새 피를 토했다.

장무기는 천둥번개와 더불어 그의 곁에서 꼬박 밤을 세웠다.

다음 날 아침, 억수처럼 퍼붓던 비도 거짓말처럼 그치고 상우춘도 각혈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피의 색깔도 검붉은 색에서 진홍으로 변해 있었다. 상우춘은 훨씬 초췌해졌으나 정신만은 예전보다 맑아진 것 같았다.

"장형제, 자네의 약을 먹고도 죽지 않았으니 선부께서 나의 이름을 상우춘(常遇春)이라 잘 지어준 것 같네. 그것은 늘 상(常)자에 만날 우(遇) 그리고 춘(春)은 죽은 자도 회춘(回春)시킬 수 있는 자네 같은 신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단지 약이 악간 진한 것 같아 마치 칼로 뱃속을 휘젓는 것 같았네."

장무기는 그저 기뻐하며 짜릿한 흥분마저 느꼈다.

"네, 네! 아무래도 약의 분량이 조금 과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어찌 <조금> 과했을 뿐이겠는가? 만약 상우춘이 강인한 체질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아마 견뎌내지 못하고 이미 숨이 끊어졌을 것이다.

호청우는 뒤늦게 초옥 밖으로 나와 상우춘이 안색이 불그스름하니 정신이 맑은 것을 보자 오히려 깜짝 놀랐다.

'음..... 한 녀석을 똑똑하고 대담하며 한 녀석은 건장한 체질을 타고 났으니, 이 절심장의 장상도 머지 않아 완쾌되겠군.'

이날 장무기는 보양탕을 조제하여 몸에 좋다는 인삼, 녹용, 하수오, 무령 등을 듬뿍 달여 상우춘에게 복용시켰다.

이렇게 하여 십여 일이 경과되자 상우춘은 상세가 완쾌되었을 뿐 아니라 무공도 종전처럼 회복되었다.

물론 그 동안에도 호청우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줄곧 초지에서 노숙을 해왔다.

이날 상우춘은 장무기를 가까이 불렀다.

"장형제, 나는 이제 상세가 완쾌되었네. 나 때문에 자네까지도 매일 노숙을 해야 하니 우리 오늘로서 헤어지기로 하세."

장무기는 그와 한 달 남짓 고락을 함께 해오며 은연중에 생사지교로 맺어졌다. 그런데 막상 헤어지게 되자 섭섭함을 금할 길 없었다.

하지만 회자정리(會者定離)라 하듯이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수는 없는 법, 장무기는 눈물을 뿌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우춘은 그를 위로해 주었다.

"장형제, 너무 서운해 하지말게. 석 달 후면 다시 자네를 보러 올 걸세. 그 때쯤 자네 몸에 한독이 완전히 제거되면 무당산으로 데려가 주겠네."

그는 초옥 안으로 들어가 호청우에게 작별을 고했다.

"제자는 상세가 완쾌되었습니다. 비록 장형제가 치료를 해주었지만 역시 사백님의 의서 덕분이며 또한 사백님의 귀중한 약재를 많이 축낸 결과입니다."

호청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극히 담담하게 말했다.

"그야 별게 아니지. 다만 너의 상세가 완쾌된 반면 수명이 사십년 단축되었을 뿐이다."

상우춘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게 무슨.....?"

"너의 타고난 체혼(體魂)으로 최소한 팔십 장수를 누릴 수 있었는데, 저 녀석이 약을 함부로 쓰는 바람에 앞으로 날씨가 궂은 날이면 삭신이 쑤실 뿐 아니라 아마 마흔 살 되는 해에 염라대왕을 만나게 될 것이다."

(註:명사(明史) 상우춘전(常遇春傳)에 의하면 상우춘이 급환으로 세상을 떠난 해가 불과 나이 사십이라 기록돼 있다.)

상우춘은 일소에 부치며 앙연히 말했다.

"대장부로 태어나 제세보국의 뜻을 품고 공업(功業)을 세울 수 만 있다면 서른 살도 충분하거늘 구태여 사십까지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흐리멍텅하게 일생을 살 바엔설령 백 세 장수를 누린다 해도 식량을 축낼 뿐입니다."

호청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무기는 호접곡 입구까지 전송해 주었다.

상우춘이 거듭 돌아가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두 사람은 눈물로써 작별을 고했다. 떠나가는 상우춘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다.

장무기의 한독이 과연 말끔히 제거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 성품이 괴팍한 호사백과 과연 아무런 변고 없이 잘 견뎌낼지 염려스러웠다.

한편, 장무기는 멀어져 가는 상우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가지 뜻을 세웠다.

'내가 어설픈 방법으로 상대가의 상세를 치료해 주었기 때문에 수명이 사십 년이나 줄어들었으니, 열심히 의술을 배워 그 손실을 보상해 드리리라!'

호청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무기에게 침을 놓고 약을 먹여 몸에 퍼진 음독을 제거해 주었다. 무기는 열심히 의서들을 읽고 약전(藥典)을 탐독했다.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즉시 호청우에게 물었다. 호청우는 무기가 질문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여 상세하게 알려 주었다. 때로는 무기가 기상천외한 질문을 해서 호청우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에 호청우는 무기를 낫게 해 준 뒤 즉시 죽이려 했으나 이제는 이 소년이 죽어 버리면 좋은 말벗을 잃는 셈이 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났다. 어느 날 호청우는 무기의 무명지 부위

에 있는 관충혈과 팔 위의 청냉연(淸冷淵). 눈썹 뒤의 사죽공(絲竹空) 등의 혈도에 침을 놓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느꼈다. 이 혈도는 손의 소양삼초경에 속한다. 삼초는 상초, 중초, 하초로 오장육부의 하나인데 극히 오묘한 것으로서 손의 촉감으로는 알아내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청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 보았으나 무기의 삼초에 스며든 음독을 제거할 수가 없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심했는지 십여 일 사이에 그의 머리칼이 더욱 하얗게 세고 말았다.

무기는 그가 노심초사 하는것을 보고 내심 감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은근히 불안감을 느꼈다.

"호 선생님, 그만큼 전심전력하셨으면 됐어요.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삼초에 스며든 음독이 풀리지 않는 것도 저의 운명이니 너무 고심하지 마세요. 저를 구하시려다 오히려 선생님이 병들겠어요."

호청우는 코웃음을 치더니 차갑게 말했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안달이 난 줄 아느냐? 다만 네 병을 못 고치면 이 접곡의선의 명예에 금이 갈까 봐 이러는 거다. 너를 다 낫게 한 되 다시 죽일 거니까."

무기는 입을 다물었다. 그가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한 말이지만 그 계획은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 뻔했다.

무기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제 음독은 끝내 제거할 수 없을 것 같으니 그냥 놔 두세요. 제가 죽으면 되죠."

호청우는 뜰 너머로 먼 하늘을 쳐다보며 고즈넉하게 말했다.

"난 어린 시절부터 의술을 공부하여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어. 내가 구해준 사람이 은혜를 원수로 갚더구나. 한 소년이 귀주의 묘강에서 금잠고독(金蠶蠱毒)에 걸렸었다. 그것은 치명적인 극독인데 중독된

사람이 죽는 건 물론이고 죽을 때까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거야. 나는 사흘 밤낮을 꼬박 새며 애써서 그를 구해주었고 서로 뜻이 맞아 의형제를 맺어 내 여동생을 짝지어 주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 자는 후에 내 여동생을 모해하여 죽였다. 그런자가 지금 명문정파에서 이름을 날리는 인물이야."

무기는 그의 얼굴이 참담하게 일그러지는 것을 보자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일을 당해서 이 사람의 심성이 바뀌어져 스스로 견사불구라고 칭하게 되었구나.'

무기가 넌지시 물었다.

"그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호청우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그 자는..... 화산파의 장문인인 선우통(鮮于通)이다."

"그런데 왜 복수를 하지 않았나요?"

"전후 세 번이나 그를 찾아가 복수를 하려 했으나 모두 참패하고 말았어. 마지막 세 번째는 목숨을 잃을 뻔했지. 그 자는 무공이 대단하고 기지가 뛰어나 사람들이 그를 신기자(神機子)라고 부른다. 나는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더구나 우리 명교는 근년에 내분이 일어나 교내의 고수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느라 날 도와 줄 수가 없었어. 또 그런 일을 남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 스스로 원치 않는다. 그저 복수하지 못한게 분할 뿐이다. 아..... 어려서 부모를 잃은 우리 오누이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불쌍한 내 동생은....."

호청우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무기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도 원래부터 냉혹하고 비정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호청우가 갑자기 큰소리로 말했다.

"이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만일 딴 사람에게 누설하면 죽

을 수도 살 수도 없이 만들어 놓을 테니까!"

무기는 몇 마디 쏘아부치고 싶었으나 마음이 약해져 그만 두었다. 호청우가 당한 일은 자기가 당한 일보다 더 처참한 것 같기 때문이었다.

"아, 불쌍한 것....."

그는 휭하니 내실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호청우는 무기에게 재주를 다해 치료를 해도 삼초에 스며든 한독을 제거할 수 없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기껏 해봤자 목숨을 몇 년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했다. 무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변한 것이다. 그는 무기가 자기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을 보고 더욱 친근감을 느꼈다. 호청우는 매일 그에게 음양오행의 변화와 맥을 지픈 법, 침술 등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무기도 그것들을 힘껏 배웠다.

호청우는 무기가 명석하여 황제합마경(黃帝蛤마經), 서방자명당구경(西方子明堂灸經),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 침구갑을경(鍼灸甲乙經), 천금방(千金方) 등 의학을 쉽게 깨우치는 것을 보고 한탄을 금치 못했다.

"너의 타고난 총명에다가, 백 년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든 나 같은 명사를 만났으니 스무 살도 안 되어 화타나 편작에 버금가는 명의가 되겠다만..... 아깝다! 아까와!"

그의 말 속에는 열심히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뜻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무기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었다. 그는 고명한 의술을 배워 상우춘의 수명을 원래대로 돌려 주고 싶었다. 또 세째 사백 유대암이 남의 부축을 받지 않고 혼자 걸을 수 있도록 해줄 생각이었다. 이 두 가지 일만 할 수 있다면 자신이 금방 죽는다 해도 한이 없을 것 같았다.

----- 제 2 권 7 장 끝 -----

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2 권

제 8 장 장무기와 요염(妖艶)한 중년부인(中年婦人)

세월은 덧없이 흘러 무기가 호접곡에 온 지도 이 년이 지났다. 이제 무기도 열 네 살이 되었다. 이 이 년 동안 상우춘은 여러 차례 찾아와 무당산과 호접곡을 잇는 역할을 해 주었다. 장삼봉은 무기의 병세가 좋아진 것을 대단히 기뻐하며 상우춘을 통해 옷가지와 일용품들을 고루 갖춰 무기에게 보내 주었다. 그들은 무기가 보고 싶었으나 명교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직접 찾아오지 못했다. 무기는 태사부와 여섯 분의 사백을 보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매일 치료를 받았다.

상우춘은 올 때마다 강호의 소식도 전해 주었다. 근년 들어 몽고인들의 횡포가 날로 심해져서 백성들의 의식(衣食)이 어려울 정도이며, 사방에서 도둑이 창궐하여 지금 천하는 말도 못하게 어지럽다고 했다.

무림에도 명문정파와 마교의 생투가 갈수록 격렬해져서 사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으며 원한 관계는 더욱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상우춘은 호접곡에 한 번 오면 며칠 안에 떠나곤 했다. 교내의 일이 퍽 바쁜 모양이었다.

어느 날 저녁 무기는 왕호고(王好古)가 쓴 의학서적 <차사난지(此事難知)>를 읽다가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피로가 몰려오는 걸 느껴 즉시 잠을 잤다. 다음 날 일어나도 여전히 전신에 열이 많고 두통이 심했다. 그는 열을 내리는 약을 지어 먹으려고 대청으로 나갔다. 그런데 대청으로 나가 보니 벌써 해가 서산에

걸려 있는 게 아닌가! 오후까지 잤던 것이다. 무기는 깜짝 놀랐다.

"이런, 오래도 잤군. 혹시 병이 난 건 아닐까?"

자신의 맥박을 짚어 보았으나 아무 이상이 없었다.

"혹시 음독이 발작한 걸까? 이제 내 목숨이 다했나?"

호청우의 방에 가 보니 방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가볍게 기침을 하자 안에서 호청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기야, 내 몸이 불편하니 오늘은 너 혼자 독서나 하려무나."

"예."

그러나 무기는 호청우의 병세가 걱정되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몸을 살펴볼까요?"

그러나 호청우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필요없다. 내가 거울을 보고 살폈으나 별탈이 없어 우황지각산을 복용했다."

이날 저녁 시동이 식사를 가져갈 때 무기도 따라 들어갔다. 호청우는 힘없이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는 무기를 보자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빨리 나가거라. 내 병은 천연두야."

무기가 보니 그의 얼굴과 손에 과연 붉은 반점이 나 있었다. 천연두는 발작할 때가 위험해서 몸조리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목숨을 잃거나 곰보가 된다. 워낙 의술이 정심한 호청우이므로 후환은 없겠지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다.

호청우가 다시 말했다.

"무기야, 다시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말아라. 내가 쓴 그릇과 젓가락들은 끓는 물에 반드시 삶아야 하고 너와 시동도 무엇이든 내가 쓰던 것을 써선 안 된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네가 호접곡 밖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름

만 있으면 천연두가 옮는 걸 막을 수 있을 게야."

무기는 급히 대답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프신데 제가 이곳을 떠나면 누가 시중을 들겠습니까? 두 시동보다는 어쨌든 제 의술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떠나는 게 좋아."

무기는 호청우의 간곡한 권유를 듣지 않았다. 호청우의 성격이 괴팍하기는 하나 이 년 동안 두 사람은 은연중에 정이 깊이 들었다. 더구나 어려움을 당해 피한다는 것은 무기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다.

호청우는 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좋다. 그럼 내 방에만 들어오지 말아라."

사흘이 지났다. 무기는 아침 저녁으로 방 밖에서 문안을 드렸다. 호청우의 목소리가 약간 쉰 듯했으나 식사는 평소만큼 했다. 그리고 매일 자기가 먹을 약 이름과 분량을 지시하며 약동은 이를 달여 갖다 주었다.

나흘째 오후, 무기는 초당에 앉아 <황제내경> 가운데 사기조신대론(四氣調神大論)을 읽고 있었다.

이때, 멀리서 말발굽소리가 들려왔다. 얼마 후에 초당 밖에서 말발굽소리가 멎으며 외침소리가 들렸다.

"무림 동도가 의선을 뵈러 왔습니다! 어른의 치료를 부탁합니다!"

무기가 나가 보니 얼굴이 가무잡잡한 사나이가 혼자서 세 필의 말고삐를 잡고 문 밖에 서 있었다. 두 필의 말 위에는 한 사람씩 엎드려 있는데 옷에 묻은 핏자국으로 보아 중상을 입은 모양이었다. 고삐를 쥔 사나이의 머리에 동여맨 천에도 피가 배어나와 있었다. 오른손을 붕대로 감아 목에 건 것이 역시 상처가 심해 보였다.

무기가 말했다.

"공교롭게도 호 선생님이 병중이셔서 여러분을 도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자 사나이가 대답했다.

"우리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 의선에 의지할 수밖에 없소이다."

"호 선생님은 천연두에 걸리셨는데 병세가 극히 중합니다. 결코 여러분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중상을 입어 접곡의선께서 구해 주시지 않으면 곧 죽게 될 거여. 번거롭겠지만 소형제가 사정 이야기를 전해 주시오."

"여러분의 존함은....."

"우리들의 천한 이름을 밝혀서 뭣하겠소? 우리는 단지 화산파 선우장문인의 제자들이오."

여기까지 말한 그는 비틀거리며 울컥 한 모금의 선혈을 토해 냈다.

무기는 가슴이 철렁했다. 화산파의 선우통이라면 호 선생님의 원수가 아닌가. 그러나 혼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없어 호청우의 방으로 가서 아뢰었다.

:선생님, 지금 세 사람이 중상을 입고 찾아와 치료를 부탁하는데 화산파 선우통의 제자랍니다."

그 즉시 호청우의 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쫓아 버려!"

"알겠습니다."

무기는 초당으로 돌아와 세 사람에게 말했다.

"호 선생은 병이 깊어 거동을 할 수 없으시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사나이가 계속 간청을 하자 안정 위에 엎드려 있던 체구가 작은 사나이가 머리를 들며 무엇인가를 재빨리 던졌다. 순간 금빛이 번쩍이며 작은 암기가 초당 한가운데 있는 탁자에 꽂혔다.

"그 금화(金花)를 견사불구한테 보여 주게. 우린 모두 금화의 주인에게 당했다네. 그 사람이 지금 이곳으로 온다하니 견사불구가 우리를 치료해 주면 우리 셋이 여기 남아 도와 주겠네. 우리의 무공이 대단치는 않지만 한 몫 할 걸세."

무기는 탁자로 다가가 암기를 살펴보았다. 황금으로 만든 매화는 실물 크기와 같았다. 무기는 손으로 빼내려 했으나 워낙 깊이 박힌 탓에 꿈쩍도 하지 않아 약칼로 그 부분을 도려내 겨우 빼냈다.

'저 사나이의 무공도 보통은 넘는 것 같은데 금화 주인에게 저토록 당했으니, 금화 주인이 이리 온다는 걸 속히 선생님에게 알려야겠구나.'

그는 금화를 가지고 호청우의 방문 앞에 가서 사나이가 한 말을 들려 주었다.

"그걸 내게 보여 주게."

무기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컴컴했다. 천연두 환자는 바람과 빛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창문도 모두 가려야 했다. 호청우는 얼굴에 청포를 쓴 채 두 눈만 드러내고 있었다.

'청포 속의 얼굴이 많이 헐은 게 아닐까? 병이 나은 뒤에 혹시 곰보나 되지 않을지 모르겠다.'

"금화를 책상 위에 놓고 빨리 나가거라."

무기는 그의 말대로 금화를 놓고 밖으로 나왔다. 그가 발을 내리고 방문을 닫기도 전에 호청우의 말이 들렸다.

"그 사람들의 생사는 나와 상관없다. 내가 죽든 살든 그것 역시 그들과 상관없는 일이야!"

예리한 파공음과 함께 금화가 대나무 발을 뚫고 날아와 땅에 떨어졌다. 무기는 이 년 동안 그와 살았으나 그가 무공을 수련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무학의 고수였던 것이다.

무기는 금화를 주워 가지고 나와 사나이에게 돌려 주며 고개를 저었다.

"호 선생님은 너무 병이 깊어....."

이때 갑자기 말발굽소리와 함께 마차 한 대가 계곡으로 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마차는 전속력으로 달려 금방 초당 밖에 다다랐다. 마부석에 앉아 있던 청년이 마차 안의 대머리 노인을 부축해 내렸다.

"접곡의선 호 선생님은 계십니까? 공동파의 제자 성수가람(聖手伽藍)이 불원천리 찾아와 치료를 부탁....."

말을 제대로 맺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더니 청년은 부축하고 있던 노인과 함께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마차를 끌던 두 필의 말도 기진맥진하여 흰 거품을 뿜고 무릎을 꺽으며 넘어졌다.

공동 문하라는 말을 듣자, 무기는 무당산에서 아버지를 괴롭힌 사람 가운데 공동파의 장로가 있었던 것이 생각났다. 이 대머리 노인은 그날 무당산에 오지는 않았으나 역시 좋은 사람은 아닌 듯 싶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길 저편에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다리를 절고 있는 사람,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부축하며 걷는 것으로 보아 모두 상처를 입은 게 분명했다.

무기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들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소리쳤다.

"호 선생님은 천연두에 걸리셔서 거동처자 하기 힘든 상태니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 지체말고 다른 의원님을 찾아가세요!"

가까이 다가온 그들을 보니 모두 다섯 사람이었다. 몸에 상처를 입은 듯했다. 그들 중 키가 크고 뚱뚱한 사람은 성수가람과 그들 일행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세 사람 모두 씁쓸한 미소를 짓는 걸로 봐서 서로 아는 사이인 모양이었다.

무기는 호기심이 생겨 물어 보았다.

"당신들도 금화 주인에게 당한 건가요?"
뚱뚱한 사람이 대답했다.
"그렇다네."
제일 먼저 도착해 선혈을 토했던 사나이가 무기에게 물었다.
"자네의 이름은 어떻게 되나? 호 선생과는 어떤 사이지?"
"저는 호 선생님의 환잡니다. 호 선생님은 한 번 치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절대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기 있어 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사이에 또 네 사람이 몰려 왔다. 마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말을 타고 오기도 했는데 모두가 호청우에게 치료받기를 원했다.
무기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호접곡은 외딴 곳에 있어 명교 신도들이 아니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사람들은 명교 신도들도 아닌데 모두 상처를 입고 약속이나 한 듯 정확히 이곳으로 찾아오다니..... 금화 주인이 그토록 대단하다면 이들을 죽이는 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왜 중상만 입혔을까?'
이들 열 네 사람 중에 간곡하게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돌아갈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자 초당안은 그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시동이 저녁밥을 가져 왔다. 무기는 그들에게 같이 먹자는 소리도 하지 않고 혼자 식사를 했다. 식사를 끝낸 그는 등잔불을 켜고 의학서적을 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있든 말든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호 선생님에게 의술을 배웠으니 견사불구하는 수법도 배워야지.'
밤이 깊어 사람들이 조용해지자 무기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중상자의 가느다란 신음소리만이 정적을 동반하고 있었다. 이때 멀리서 다가오는 두 사람의 발자국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려왔

다. 발자국소리는 이들이 있는 초당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이윽고 맑은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기 등불이 있어요. 다 왔나 봐요."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였다. 그러자 그 어머니인 듯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얘야, 힘들지 않니?"
"난 힘들지 않아요. 의원님이 치료해 주시면 어머닌 병이 낫겠죠?"
"응, 그런데 의원님이 치료를 해 주실 지 모르겠구나."
무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저 목소리는 귀에 익은 것인데..... 혹시 기효부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아닐까?'
무기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가며 소리쳤다.
"기 아주머니십니까? 부상을 입었나요?"
달빛 아래에서 한 여인이 여자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바로 아미파의 여협 기효부였다. 그녀가 무당산에서 무기를 보았을 때 무기는 겨우 열 살이었다. 그러나 오 년이란 세월이 흘러 무기는 이제 어엿한 소년이 되어 있었다. 게다가 어두운 밤이라 그녀는 무기를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신지.....?"
"절 몰라보시겠어요? 장무깁니다. 무당산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만났었죠."
"아!"
기효부는 이런 곳에서 무기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순간 그녀는 자신이 딸을 데리고 있는 것이 생각났다. 장무기는 자기의 정혼자였던 은이정의 사질이 아닌가! 비록 나이 어린 무기 앞이었지만 그녀의 입장이 난처했다. 기효부는 부끄럽고 창피하여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중상을 입은데다가 갑자기

충격을 받아 이내 쓰러지고 말았다. 어머니가 쓰러지자 어린아이는 그녀를 부축하다 함께 쓰러졌다.

무기가 얼른 기효부를 부축하며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 좀 쉬세요."

그는 그녀를 초당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등불 아래에서 살펴보니 왼팔과 어깨에 큰 상처를 입고 있었다. 싸맨 붕대 밖으로 선혈이 계속 배어나오고 있었다. 시만 기침까지 했다.

이 무렵 무기의 의술은 이미 명의의 수중에 올라 있었다. 그는 기효부가 기침하는 것을 보고 폐 부위에 중상을 입었음을 알수 있었다.

"태음폐맥을 다치셨군요."

그는 즉시 금침을 꺼내 어깨의 운문(雲門)과 가슴의 화개(華蓋), 팔꿈치의 척택(尺澤)등 일곱 군데의 혈도를 찔렀다. 이제 그의 침술은 상우춘을 치료할 때와는 달라져 있었다. 이 년 동안 호청우에게 열심히 침술을 배워 호청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다만 투약하는 것과 경험면에서만 서툴렀다. 기효부는 그가 금침을 꺼내 눈깜짝할 새에 일곱 개의 금침으로 자신의 혈도를 찔러 오자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 기뻤다. 모두 태음폐맥에 속하는 일곱 군데의 혈도에 침을 놓자 통증이 크게 가라앉았다.

"무기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 이렇게 좋은 기술도 배웠군."

그날 무당산에서 장취산과 은소소가 자결하는 것을 분 그녀는, 무기가 졸지에 고아가 된 것이 불쌍해서 따뜻하게 위로하며 자기의 목걸이까지 주려 했었다. 그러나 무기는 비통에 잠긴데다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부모의 원수라고 생각했었다. 그는 기효부에게 냉정하게 대하여 그녀를 난처하게 만든 채 헤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기호부가 자신에게 보여준 포근한 애정은 잊지 않고 있었다. 이 년 전에 상우춘과 함께 숲속에서 그녀가 팽화상을 구해 주는 것을 보고 기효부의 착한

마음씨에 더욱 감격하게 되었다. 다만 아직 미혼인 그녀가 아기를 낳은 일이 마음에 걸렸으나 남녀간의 미묘한 일을 잘 모르는 지라 곧 잊어버렸던 것이다.

기효부의 딸은 참으로 예쁜 아이였다. 그녀는 검고 큰 눈에 호기심을 가득 담고 무기를 쳐다보더니 어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어머니, 저 사람이 의원님이세요? 이제 안 아파요?"

기효부는 무기앞에서 딸이 어머니라고 부르자 다시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숨길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분은 장 오빠란다. 장 오빠의 아버지는 어머니의 친구야."

이어 무기를 보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이 애는..... 불회(不悔)라고 해. 성은 양(楊)씨고."

무기가 웃으면서 말했다.

"좋은 이름이네요. 후회하지 않는다..... 내 이름과 비슷하군요. 불회와 장무기."

기효부는 무기가 책망하는 빛없이 대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다.

"얘야, 무기 오빠의 의술이 참 훌륭하구나. 이제 어머니는 아프지 않아."

양불회는 큰 눈을 깜빡깜빡하더니 돌연 무기를껴안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어머니를 안 아프게 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렇게 한 것이다.

기효부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못써요. 무기 오빠가 싫어하잖아."

양불회는 다신 눈을 깜빡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장무기에게 물었다.

"내가 한 짓이 싫어요?"

무기는 어쩔 수 없이 웃고 말았다.

"아니야, 나도 기분이 좋아."

무기도 야들야들한 볼에 살짝 입맞춤을 해 주었다. 양불회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꼬마 의원님, 빨리 우리 어머니를 낫게 해 주세요. 그럼 내가 또 뽀뽀해 줄께."

무기는 천진난만한 양불회가 귀여웠다. 그가 지금까지 보아온 사람들은 모두 나이든 사숙과 사백들뿐이었다. 형과 아우로 지내는 상우춘도 무려 여덟 살이나 위였다. 그와 배에서 만난 주지약만이 같은 또래였는데 만난 지 하루 만에 헤어지고 말았다.

'내게도 이런 여동생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기효부는 중상자들이 아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혼자만 치료를 받는 것 같아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무기, 나보다 먼저 오신 이분들을 치료해 주지. 난 이제 많이 좋아졌어."

무기가 대답했다.

"이분들은 호 선생님의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걸요.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중병이라 치료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분들은 돌아갈 생각을 않는군요. 기 아주머니는 호 선생님에게 치료를 받으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의술을 약간 배웠는데, 맡겨 주신다면 아주머니의 상처를 치료해 드리겠어요."

사실은 기효부 역시 호청우에게 치료를 받을 생각으로 왔었다. 그런데 무기의 말을 듣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니 호청우의 치료를 받기는 힘들 것 같았다. 게다가 무기에게 맞은 침이 즉시 효과가 있는 것을 보니 믿음직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고마와, 무기."

무기는 그녀를 객방으로 데리고 가서 상처를 살펴보니, 어깨와 팔에 세 군데의 칼자국이 나 있고 팔뼈가 으스러지기까지 했다.

이런 상태에서 뼈를 잇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었으나 접곡의선의 제자에겐 쉬운 일이었다. 그는 뼈를 잇고 약물을 발라 피가 통하게 한 뒤 약방문을 지어 시동에게 달이게 했다.

"이제 한잠 푹 주무세요. 마취약 기운이 사라지면 통증이 심할 겁니다."

"고마와."

무기는 약실에 가서 대추와 살구를 가져다 양불회에게 주려 했다. 그러나 먼길을 오느라 심신이 지친 그녀는 어머니곁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다. 무기는 대추와 살구를 그녀의 주머니에 살짝 넣어주고 초당으로 돌아왔다.

각혈을 했던 화산파의 제자가 그를 보자 얼른 일어서서 읍을 한 뒤 말했다.

"호 선생이 병이 드셨다니, 소(小)선생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소."

무기는 여지껏 상우춘과 기효부 이외의 사람에게는 의술을 시술한 적이 없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내장이 진상(震傷)되어 있거나 사지가 절단되는 등 갖가지 중상이었다. 무기는 멋지게 치료해 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으나 호청우가 마음에 걸렸다.

"이곳은 호 선생님의 집입니다. 저도 그분의 환자인데 어떻게 주인의 허락없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화산파 제자는 무기가 진심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한 차례 치켜올려 주면 되겠거니 싶어 그는 다시 한마디 덧붙였다.

"내가 알기로 명의는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인데, 소선생은 어린 나이에도 그처럼 의술이 뛰어나니 정말 세상에 보기드문 일이오. 그 솜씨를 한 번만 써주시오."

부유한 상인같이 생긴 뚱뚱보 양씨도 한마디 거들었다.

"우리 열 네 명은 모두 강호에서 약간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오. 소선생이 치료해 주기만 하면 소문이 퍼져 천하에 명성이 자자해질 거요."

아직 나이가 어린 무기는 세상물정을 잘 알지 못했다. 사람들이 자기를 치켜올려 주니 우쭐해질 뿐이었다.

"천하에 이름을 날리는 것은 원치 않아요. 호 선생님이 손을 쓰지 않으면 저로서도 방법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의 상처가 가볍지 않은 듯싶으니 고통이나 좀 덜어드리지요."

그는 금창약을 꺼내 모두에게 고루 발라 주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상처는 참으로 기이한 것이었다. 공격을 당한 수법도 모두 제각기였다. 한 사람은 수십 개의 강침(鋼針)을 강제로 삼켰는데 침에는 무서운 독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간장을 치료할 때 반드시 필요한 행간(行間), 중봉(中封), 음포(陰包), 오리(五里) 등의 요혈도 같이 상해 있었다. 어떤 사람은 두 손이 잘려 왼손이 오른팔에 오른손은 왼팔에 붙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지네, 전갈 등 이 십 여 종의 독충에 물려 온몸이 푸르스름하게 부어 있었다. 그 상처를 살펴본 무기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다.

'이 사람들의 상세가 이토록 해괴하니 나로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겠어 누군지 모르지만 이들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의도적으로 호 선생을 골탕먹이려는 게 분명하다.'

그러다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기 아주머니의 어깨 상처는 별게 아니잖아. 혹시 아주머니도 기이한 내상을 입었을지도 몰라. 아주머니만 예외일 리가 없잖아!'

그는 급히 객방으로 뛰어가 기효부의 맥박을 짚어 보았다. 과연 그녀의 맥박은 빨리 뛰다 천천히 뛰고, 불규칙하여 내장에 이상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무기는 알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것을 무기가 신경 쓸 필요는 없었다. 공동파 등 아버지를 괴롭힌 문파의 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죄과를 받는 것이니 오히려 통쾌한 일이었다. 그러나 기효부의 상처만은 치료해 주고 싶었다. 그는 서둘러 호청우의 방문 앞으로 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주무십니까?"

"무슨 일이냐? 난 치료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는 사람들의 상처를 일일이 설명해 주었다. 호청우는 발을 사이에 두고 무기의 말을 자세히 들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살펴보고 와서 다시 설명하도록 했다. 무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열다섯 사람의 상세를 자세히 알려 주었다.

한참 생각한 뒤 호청우가 입을 열었다.

"흥! 괴이한 상세지만 나한테는 어려울 것이 없다!"

그가 말을 다 마치자 무기의 등 뒤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호 선생, 그 금화의 주인은 세상에선 당신을 의선이라 부르지만 이 열 다섯 가지 기이한 상처를 한 가지도 고칠 수 없을 거라더군요. 과연 당신은 자신이 없어 병이 든 걸로 위장 하고 있군요."

뒤를 돌아보니 공동파의 대머리 노인 성수가람이었다. 그의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한 오라기도 없었다. 무기는 그가 대머리인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군가 그의 머리에 독약을 발라 머리카락이 다 빠진 것이었다. 독약은 지금도 머리속으로 침투하고 있어 얼른 치료하지 않으면 미쳐 버릴 것이다. 지금 그의 두 손은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었다. 머리가 너무나 가려웠기 때문에 긁지 못하도록 같이 온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었다. 마구 긁었다간 두개골이 드러날 판이었다.

호청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가 치료를 할 수 있든 없든 자네를 치료하지 않을 걸세. 앞

으로 대엿새밖에 못 살 테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 처자의 얼굴이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게. 여기서 얼쩡거려 봐야 이로울 게 하나 없네."

 견딜 수 없이 머리가 가려운 성수가람은 담벼락에 머리를 연방 쳐박았다. 거기에 따라 손을 묶은 쇠사슬이 요란한 금속성을 냈다.

 그는 헉헉 거리며 말했다.

 "호 선생, 그 금화 주인이 곧 이리로 올 거요. 당신도 곱게 죽기는 어려울 테니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그 자와 싸우는 게 드러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낫지 않겠소?"

 "자네들이 그 자를 이길수 있었다면 이곳까지 왔겠나? 난 자네들 같은 멍텅구리들의 도움은 필요없네."

 그는 호청우에게 애걸복걸했다. 그러나 호청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송수가람은 마구 소리치기 시작했다.

 "좋아! 어차피 모두 죽을 목숨들이니 당신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때 밖에서 누군가가 걸어 들어왔다. 화산파의 제자였다. 그는 품에서 아마차 한 자루를 꺼내 성수가람의 가슴을 겨냥하며 냉랭히 말했다.

 "호 선생님께 그따위로 말하다니, 이 설가가 가만 있을 수 없다. 만약 불을 지른다면 널 먼저 죽여 주마."

 청수가람의 무공은 본디 그보다 한 수 위였지만 두 손을 묶인터라 싸울 수가 없었다. 그저 두 눈을 부릅뜨며 씩씩댈 뿐이었다.

 설가가 목청을 한층 돋궈 말했다.

 "호 선배님, 후배는 설공원(薛公遠)이라 합니다. 화산파 선우 선생의 제자입니다. 선배님께 절을 올리겠습니다."

 그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찧으며 연방 절을 해댔다. 설공원이 절을 해대는 광경을 바라 보면서 성

수가람은 한 가닥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호청우가 제아무리 거만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지만 설가 녀석이 저렇게 신주대하듯 절을 해대니 뭔가 될 것도 같았다.
설공원이 절을 마친 뒤 다시 입을 열었다.
"호 선생님께서 마침 병이 드신 건 저희들이 복이 없는 탓입니다. 그러나 이 소년 역시 의술이 고명하니 그가 치료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상처는 모두가 괴이하여 접곡의선의 제자가 아니면 천하에 그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호청우가 냉랭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이 아이는 이름이 장무기로 무당파의 제자였던 장취산의 아들이지. 나 호청우는 명교의 교인으로 이 고상한 명문의 자제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 아이는 몸에 음독이 있어 나에게 치료를 받으러 왔지만, 난 명교 교인이 아니면 절대 고쳐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의 생명을 구해 주지 않고 있어."
설공원은 마음이 착잡했다. 그는 무기가 호청우의 제자인 줄 알았고, 그가 스승만은 못해도 호청우가 승낙만 하면 상처를 치료해 줄 것으로 믿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일 줄이야!
호청우가 다시 말했다.
"자네들은 내 집에서 왜 꾸물거리고 있나? 흥, 내가 선심이나 쓸 줄 알고 그러는 건가? 소용없는 일이야. 저 아이에게 물어 보게 내 집에 온지 얼마나 되는지 말이야."
설공원과 성수가람은 동시에 무기를 쳐다보았다. 무기는 손가락 두 개를 세워 보였다.
설공원이 물었다.
"이 십일?"
"아뇨, 꼭 이년 이개월 됐어요."
성수가람과 설공원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절망의 표정을 지었

다.

성수가람과 설공원은 어깨를 늘어뜨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나가려 했다. 그 때 호청우가 다시 말했다.

"이 무당파 소년은 의술을 조금 알지. 물론 무당파 의술은 우리 명교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사람을 엉터리로 치료해 죽이지는않을 거야. 무당파인 이 아이가 자네들을 구해 줘도 좋고 견사불구해도 좋네만, 그것은 우리 명교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이야."

설공원은 잠시 생각했다. 그의 말 속에는 무기에게 의술을 베풀라는 뜻이 담겨 있는 듯했다.

"호 선생님, 이 장소협이 손을 써준다면 우리들이 살아날 가망이 있을까요?"

"그가 구하고 못 구하고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라니까. 무기야, 내 말을 명심해 듣거라. 내 집에서 의술을 펼쳐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집 밖에 나가서 의술을 베푼다면 상관하지 않겠다."

설공원과 성수가람은 희망에 부풀었다가 이건 또 무슨 뜻인가 하여 멍하니 서서 호청우의 말뜻을 되씹고 있었다.

무기는 이들보다 훨씬 총명했기 때문에 즉시 그 뜻을 알아 들었다.

"호 선생님께서 지금 병중이시니 당신들은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모두 나를 따라오십시오."

초당에 들어서 장무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제가 배운 의술은 보잘것없어 여러분의 괴이한 증세를 치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믿어 주신다면 제가 온 힘을 다해 치료해 보겠습니다. 생사는 하늘에 맡길 수밖에없습니다."

이 무렵 사람들의 증세는 못 견디도록 가렵거나 마비되는 등 갈

수록 악화되어 잠시 고통을 면할수만 있다면 비상이라도 먹을 판이었다. 그러니 무기의 말에 감지덕지 할 뿐이었다.

무기가 다시 말했다.

"호 선생님은 제가 그분의 집 안에서 의술을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모두 문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수가람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머리가 간지러워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 장소협, 나부터 먼저 치료해 주겠는가?"

그는 말을 마치고 쇠사슬을 철그렁거리며 성큼성큼 문 밖으로 나갔다.

무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약실에 가서 남성. 방풍, 백지, 천마, 강활, 백부자, 화예석 등 십 여 종의 약재를 골라 시동에게 약절구에 넣고 찧게 한 뒤, 달인 술로 이겨 고약을 만들게 했다. 무기는 이 고약을 성수가람의 머리에 붙여 주었다.

고약이 머리에 닿는 순간 성수가람은 비명을 지르며 펄쩍 펄쩍 뛰었다.

"아이구 앞, 나 주네! 아, 이렇게 아플 수가 있다니..... 하지만 가려운 것보단 훨씬 낫군."

그는 길길이 소리를 지르며 풀밭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아, 이렇게 아프다니! 빌어먹을! 하지만 가렵지 않으니 살 것 같네. 이 성수가람은 자네한테 오직 감사할 뿐이네."

사람들은 성수가람의 가려움증이 금세 낫는 걸 보자 앞을 다투어 무기에게 치료를 부탁했다. 이때 배를 움켜쥐고 뒹굴며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강제로 삼 십여 마리의 거머리를 삼킨 사람이었다. 위에 들어간 거머리는 죽지 않고 위벽과 장벽에 붙어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 무기는 의학서적에서 거머리가 꿀에 녹는다는 것을 본 것이 생각났다. 호접곡에는 꽃이 많았다. 그는 시동에게 꿀 한 잔을 가져 오게 하여 그 사람에게 먹게했

다.

새벽녘에 기효부와 그의 딸 양불회가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와 보니, 무기는 이때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기효부는 상처에 붕대를 감아 주고 약을 먹이기도 하며 그를 도와 주었다. 어린 양불회는 대추와 살구를 오물오물 먹으며 나비를 쫓아다니며 놀 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무기는 사람들의 상처를 대충 다 치료했다. 출혈을 막고 고통이 심한 자는 고통도 멎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상세가 워낙 괴이했으므로 완치된 것은 아니었다. 무기는 방에 돌아가 눈을 붙였다. 잠결에 심한 신음소리를 듣고 깨어보니 몇 사람은 상세가 좋아졌으나 대부분이 오히려 악화되어 있었다. 장무기는 속수무책인지라, 호청우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호청우는 냉랭하게 말했다.

"그 사람들도 우리 명교 사람들이 아니니 죽든 살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무기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냈다.

"만약 명교 제자 한 사람이 몸은 멀쩡한데 배 속에 응혈이 져 있고 얼굴이 불그죽죽하며 정신이 혼미하여 죽을 것 같으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명교 제자라면, 나는 산갑, 귀미, 홍화, 생지, 영선, 도선, 대황, 유향을 술에 넣고 끓인 뒤 동변(童便)과 함께 복용시켜 설사를 하게 함으로써 응혈을 없애겠지."

무기가 다시 물었다.

"만약, 명교 제자 한 사람의 왼쪽 귀에 납물이 들어가고 오른쪽 귀에 수은이 들어간데다 눈에는 옻칠을 해서 통증이 극심해지고 앞을 볼 수 없게 됐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호청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만약 그가 명교 제자라면 나는 수은을 왼쪽 귀에 넣어 줄 것이

다. 납이 수은에 녹아 나올 테니 말이다. 오른쪽 귀는 수은이 금에 붙는 성질이 있으니 금침으로 조심스레 후벼내면 된다. 옻칠이 묻은 눈에 방게를 찧어 즙을 내서 바르면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기는 어려운 치료법 하나하나를 명교 제자를 빌어 알아냈다. 호청우도 무기의 속셈을 빤히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호청우의 치료법도 효과가 없는 수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무기는 다시 호청우에게 물었고, 호청우는 다시 연구하여 다른 처방을 가르쳐 주곤 했다.

이렇게 오,육 일이 지났다. 사람들의 상세는 조금씩 나아갔다. 기효부가 입은 내상은 독에 중독된 것이었다. 무기는 자세히 진단한뒤 용골, 소목, 오령지, 천금자, 합분 등을 복용시켜 해독했다. 약을 복용한 뒤 맥박을 짚어보니 상세가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다.

이 무렵 사람들은 초당 밖에 차양을 치고 땅에다 볏짚을 깐 뒤 거기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기효부는 이들과 몇 장 떨어진 곳에 작은 움막을 짓고 딸과 함께 지냈다. 움막은 무기의 분부에 따라 사람들이 지어준 것이다. 이 열 네 명은 원래 천하를 종횡하던 호걸들이었으나 지금은 무기의 손에 목숨이 달렸으니 무기의 분부를 거역할 사람이 없었다. 무기는 이들을 치료하느라 바쁘고 고생스러웠으나, 이로 인해 호청우에게 기묘한 처방 수법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큰 수확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환자들의 상세가 변화하여 거의 나아가는 듯하더니 갑자기 악화되었다. 무기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호청우에게 다시 물었다.

호청우는 한 마디로 대답했다.

"그 사람들의 상세는 정말 보통이 아니야. 한 번 치료해서 나을 것이라면 구태여 호접곡까지 와서 부탁했겠느냐?"

이날 밤 무기는 침상에 누워 사색에 잠겼다.

'상세가 반복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열 다섯 사람의 상세가 모두 똑같이 반복해서 변하는 것은 정말 기괴한 일이야.'

삼경이 될 때까지 그는 이 생각 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홀연히 창 밖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발소리를 죽이며 살금살금 걷고 있었다. 무기는 호기심이 일어 창호지에 침을 발라 구멍을 낸 다음 내다보았다. 어떤 사람의 뒷모습이 느티나무 뒤로 사라졌다. 옷차림새로 보아 틀림없는 호청우였다.

무기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호 선생이 뭘 하시는 거지? 천연두가 다 나으셨나?'

호청우는 다른 사람이 보는 걸 피하는 것 같았다. 잠시 후에 그는 기효부 모녀가 기거하는 움막으로 슬그머니 다가갔다. 무기는 가슴이 철렁했다.

'기 아주머니를 욕보이려는 걸까? 내 비록 그의 적수는 못 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무기는 창을 뛰어넘어 발소리를 죽이고 호청우의 뒤를 따랐다. 호청우는 조용히 움막 안으로 들어갔다. 움막은 엉성하여 담도 문도 없이 그저 비바람만 피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무나 쉽게 드나들 수 있었다.

무기는 움막 뒤로 돌아가 땅에 엎드려 안을 살폈다. 기효부 모녀는 볏짚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호청우는 품에서 알약을 하나 꺼내 기효부의 약그릇 속에 넣더니 즉시 밖으로 나왔다. 그는 푸른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천연두가 완전히 나았는지 어떤지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순간, 무기는 짚이는 게 있어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 동안 호 선생이 야밤에 몰래 나와 독약을 투약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낫지 않는 거로군.'

는 다시 성수가람과 설공원 등이 있는 곳으로 가서 독약을 몰래 넣었다. 열 네 사람의 독약이 각기 다르기 때문인지 시간이 한참 걸렸다. 무기는 기효부가 자고 있는 움막으로 들어가 약그릇을 살펴보았다. 약그릇엔 팔선탕이 조제되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즉시 먹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이때 호청우가 침실로 돌아가는 기척이 들렸다. 무기는 약사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기효부를 깨웠다.

"기 아주머니, 기 아주머니."

기효부는 이목(耳目)이 민감해 깊은 잠에 빠졌다가도 조그만 소리에 금방 깨어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무기가 여러 차례 불러도 깨어나지 않았다. 무기가 어깨를 몇 번이나 흔들어서야 그녀는 겨우 깨어났다.

기효부는 놀라서 물었다.

"누구세요?"

"무기예요. 아주머니 약에 어떤 사람이 독약을 넣었으니 개울에다 몰래 버리시고 아무 내색도 하지 마세요. 내일 제가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기효부는 머리를 끄덕였다. 무기는 호청우한테 들킬까 봐 조심스럽게 창을 넘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아침 식사가 끝나자 무기와 양불회는 나비를 쫓으며 멀리 계곡 밖으로 나갔다. 기효부는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게 무기를 따라갔다. 이 며칠동안 무기는 양불회와 자주 놀아 주곤 했으므로 그들 셋이 멀리 가는 것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한참을 나가니 조그마한 언덕이 있었다. 무기가 풀밭에 앉자 기효부가 딸에게 말했다.

"볼회야, 나비는 그만 쫓고 들꽃으로 화관을 세 개 만들어 하나씩 머리에 쓰자꾸나."

양불회는 손뼉을 치고 기뻐하며 꽃을 따러 갔다.

무기는 간밤에 호청우가 사람들의 약에 몰래 독을 넣은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제가 어제 아주머니의 팔선탕 냄새를 맡아 보니 철선초(鐵선草)와 투골균(透骨菌)의 냄새가 나더군요. 이 두 가지 약은 상처를 치료하는 특효약이지만 독성이 강하고 팔선탕의 여덟 가지성분과는 상충되기 때문에 몸에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 오죠."

"다른 사람들의 약에도 독약을 넣었다니 그것 참 이상하군."

"기 아주머니, 이 호접곡은 아주 외진 곳인데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그리고 금화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까닭을 알 수 없어서 묻는 겁니다."

"무기가 내 생명을 구해 주었는데 뭘 속이겠어. 더군다나 나와 불회에게 이렇게 잘 대해 주니....."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이 년 전에 난 한 사저와 좋지 않은 사건이 있어서, 사부한테도 못 가고 집에도 못....."

"그 정민군은 나쁜 여자예요. 하지만 그 여자를 두려워 할 것 없어요."

기효부는 이상해서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알지?"

무기는 그날 밤 상우춘과 함께 숲에 숨어 그녀가 팽화상을 구해 주는 걸 보았다고 얘기해 주었다. 기효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남이 알아서 안 될 일이라면 애당초 행하지를 말라는 옛말이 맞군."

"기 아주머니, 저의 은사숙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요? 나중에 은사숙을 만나면 제가 아주머니를 탓하지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는 무기의 사숙을 일부러 피한 것이 아니야. 어쩔 수 없어

그랬던 거야. 그러나 후회하지 않아."

그녀는 무기의 얼굴을 쳐다보며 혼자 생각했다.

'이 아이의 마음은 하얀 종이처럼 깨끗하구나. 남녀간의 복잡한 문제를 무기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다. 더군다나 이 일은 그것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녀는 화제를 돌려 말했다.

"나는 정사저와 싸운 뒤 아미산에 돌아가지 않았어. 불회를 데리고 여기서 서쪽으로 삼백 리 떨어진 순경산(舜耕山)에 은거하며 이 년을 나무꾼이나 농사꾼과 어울려 참 즐겁게 살았어. 그런데 보름 전에 불회의 옷을 사려고 조그만 진(鎭)에 나왔다가 담장에 흰 분필로 그린 불광(佛光)과 검의 그림을 보았어. 분필의 흔적으로 보아 최근에 그린 거였지. 그 그림은 우리 아미파가 동문을소집하는 암호야. 그림을 본 난 잠시 당황했어. 그러나 사실 정사제와 싸우긴 했지만 내 잘못도 아니었고 사문에 죄지은 일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 오히려 동문이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도와주지 않는게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 그 암호를 따라 봉양(鳳陽) 까지 갔어....."

기효부는 말은 계속 되었다.

봉양성 안에서 또 암호를 보고 그녀는 불회를 데리고 임회각(臨淮閣)이라는 주루에 갔었다. 주루에는 이미 칠,팔 명의 무림인들이 와 있었다. 공동파의 성수가람, 화산파의 설공원과 세 명의 사형제도 그 속에 있었다. 그런데 아미파 동문은 보이지 않았다.

"나와 성수가람, 설공원은 전에 만난 적이 있었으므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그들도 동문의 암호를 보고 왔다는 거야.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모르더군. 그날 하루 종일 기다렸으나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 나중에 다른 파 사람들이 몇 명 더 왔지. 신권문과 개방 사람도 있었는데 역시 동문의 연락을 받고 임회각까지 왔다는 거였어. 다음날 또 몇 명이 왔는데 모두

가 암호를 보고 왔을 뿐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더군. 우린 의논 끝에 뭔가 이상하다는 결론을 내렸지. 어떤 적에게 우롱 당하는 건 아닌가 하고....."

장무기는 그녀의 말에 그저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임회각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열 다섯 명으로 아홉 개 문파 사람들이었어. 이들 문파마다 암호가 다르고 비밀에 속하는 것이어서 본문 사람이 아니면 그 뜻을 알 수 없게 돼 있는데, 만약 적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어떻게 아홉 개 문파의 암호를 다 알아냈을까? 나는 불회를 데리고 있어 험한 일을 겪을 게 두려운데다 동문을 만나는 게 싫어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층계 밑에서 쿵쿵하는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 지팡이로 층계를 내리찍는 것 같았어. 이윽고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허리가 굽은 백발의 노파가 올라왔어. 노파는 몇 걸음 걷다가 기침을 하곤 했는데 무척 고통스러운 모양이더군, 옆에는 열 두세 살쯤 되는 소녀 하나가 노파의 팔을 잡고 따라 올라왔어. 노파는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고 옷을 걸친 폼이 가난한 늙은이 같았는데 왼손에 금빛이 번쩍이는 염주가 쥐어져 있더군.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 보았더니 염주 하나하나가 모두 황금으로 만든 매화였어....."

무기는 여기까지 듣자 참지 못하고 한 마디 했다.

"그 노파가 금화 주인인가요?"

"맞았어. 그러나 그 때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그녀는 품에서 작은 황금 매화 한 송이를 꺼냈다. 무기가 보았던 그 매화와 똑같았다. 무기는 며칠 동안 금화 주인이 누구인지 무척 궁금했다. 보나마나 무섭고 흉악한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효부로부터 중병에 걸린 노파라는 말을 듣자 의외가 아닐 수 없었다.

기효부가 말을 계속했다.

"그 노파는 주루에 올라오자 한바탕 기침을 하며 옆에 있던 소

녀에게 '얘야, 저자들에게 물어 봐라. 무당과 곤륜파 사람들은 안 왔느냐구?'했어. 노파가 올라올 때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 소리를 듣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려 노파를 쳐다보았지. 그러자 소녀가 천연덕스럽게 말하더군. '우리 할머니께서 너희들에게 물으신다. 무당파와 곤륜파 사람도 왔느냐구.' 하도 기가 막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잠시 후에 공동파의 성수가람이 말했지.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그 때 노파가 허리를 구부리며 또 기침을 해냈는데 바로 그 순간 한 가닥 경풍이 내 가슴을 향해 날아왔어.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르는 체 나는 엉겁결에장으로 받아쳤지. 돌연 가슴이 콱 막히며 기혈이 솟아올라 버틸 수가 없었어. 나는 주루의 바닥에 쓰러져 선혈을 쏟아냈어. 눈깜짝할 사이에 우리 열 다섯은 모두 한 대씩 얻어맞고 쓰러졌지. 노파의 출수가 워낙 신출귀몰하여 우리들은 손 한 번 써보지 못한 체 내력에 의해 오장육부가 진상(震傷)당한 거야. 노파는 염주에 꿰었던 매화를 한 알씩 던져 열 다섯 사람의 팔에 꽂더군. 그러더니 돌아서서 소녀의 부축을 받아 몸을 달달 떨며 주루를 내려가더군. 지팡이 짚는 소리가 천천히 멀어져 갔는데 기침소리는 계속귓전에 맴돌았어."

기효부가 여가까지 말했을 때 양불회는 화관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달려왔다.

"어머니, 이 화관을 머리에 써봐요."

그녀는 화관을 어머니의 머리에 씌워 주었다.

기효부는 즐겁게 웃으며 계속 말했다.

"당시 열 다섯 사람은 모두 부상을 당해 신음하는 사람, 숨을 헐떡이는 사람 등....."

"어미니, 그 나쁜 할망구 이야길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난 무서워."

"그래 불회야. 다시 가서 화관을 만들어 무기 오빠한테도 주어

야지."
 양불회는 무기를 쳐다보며 물었다.
 "어떤 색깔을 좋아해요?"
 "빨간 색. 음, 흰색이 섞어도 괜찮지. 그리고 크면 클수록 좋아."
 양불회는 두 손을 활짝 펴 보이며 말했다.
 "이만큼?"
 "그래, 그만큼."
 양불회는 손뼉을 치며 깡총깡총 뛰어갔다.
 "만들어 오면 꼭 써야 해!"
 기효부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십 여 명의 사내들이 다가오는 게 보였어. 모두 주루의 주보, 주인, 요리사들이더군. 그들은 우리를 주방으로 끌고 갔어. 그 때 불회는 놀라서 큰 소리로 울며 내 볕에 있었지. 그 주인이란 자는 쪽지를 보고 성수가람을 가리키며 말하더군. '이 자의 머리에 이 고약을 발라라.' 그러자 주보는 준비해 두었던 고약을 성수가람의 머리에 발랐어. 주인은 또 쪽지를 보더니 다른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지. '그 자의 오른손을 잘라 왼손에 붙여라.' 요리사가 부엌에서 칼을 가져다 명령대로 했어. 내 차례가 오자 다행히도 괴상한 극형을 가하지 않고 달착지근한 약물을 먹이더군. 나는 극독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 때는 그들이 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 열 다섯 사람에게 괴이한 혹형을 가한 뒤 그 주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지. '당신들은 모두 불치의 상처를 입었소. 잎으로 열흘밖에 살지 못할 거요. 다만 금화의 주인께서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한 가닥 살 길을 알려 주겠다고 하셨소. 즉 당신들은 빨리 여산호(女山湖)반에 있는 호접곡으로 가서 접곡의선이란 의원에게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면 된다 하셨소. 아울러 금화 주인이 머지않아 그를 찾아갈 것

이니 관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전하시오!' 그 자는 이렇게 말한 뒤 호접곡으로 오는 길을 상세히 알려 주어서 모두 이리로 오게 된 것이야."

무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주루의 주인, 주보, 요리사들도 모두 그 나쁜 노파의 일당인가요?"

"노파의 부하들이겠지.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가혹한 형을 가했는지 알 수가 없어. 노파는 어째서 이런 괴이한 일을 했을까?"

무기는 한참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이 금화 노파가 호 선생님을 혼내 주러 온다면 호 선생님은 모두를 치료해 준 다음 협력해서 그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호 선생님은 터놓고 사람들을 구하지 않고 암암리에 저를 통해 치료케 한 다음, 다시 야밤에 몰래 독약을 넣어 그들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이 만들려는 모양인데 정말 기이한 일이로군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생각해 보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양불회가 큰 화관을 가지고 와서 무기의 머리에 씌워 주었다.

무기가 말했다.

"기 아주머니, 앞으로는 제가 직접 갖다 드리는 탕약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밤에는 머리맡에 병기를 준비해서 외인의 침입에 방비하시구요. 제가 지은 약을 드시고 내상이 나은 뒤에 불회를 데리고 몰래 달아나세요."

기효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무기, 호 선생의 속셈을 헤아릴 수 없으면서 그와 함께 지내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차라리 우리 함께 이곳을 떠나자."

"호 선생님은 지금까지 저에게 잘해 주셨어요. 사실 선생님은 내 몸의 음독을 제거한 뒤에 죽이겠다고 했답니다. 다만 여지껏 낫지 않아 나를 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떠나는 게 제일 좋

긴 한데 아주머니의 내상을 고치는데 몇 가지 불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호 선생님에게 물어 봐야 해요."

"그가 독약으로 나를 헤치려 하는데 제대로 가르쳐 줄까?"

"그렇지 않아요. 호 선생님이 가르쳐 준 치료법만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분별할 줄 알아요. 원래는 금화 주인이 호 선생님이 병을 앓고 있는 중에 찾아온다기에 크게 염려 했는데 호 선생님의 병은 가짜인 것 같아요."

이날 저녁 무기는 신경을 곤두세워 잠을 자지 않았다. 삼경이 되자 또다시 살금살금 자기 방을 빠져 나온 호청우는 기효부의 움막으로 가서 그녀의 약에 독약을 넣는 것이었다.

이렇게 사흘이 지났다. 기효부는 독약을 먹지 않았으므로 병세가 매우 좋아졌다. 그러나 성수가람, 설공원 등은 병세가 좋아졌다가 재발하는 반복을 거듭했다. 성질이 급한 몇 사람은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 무기의 의술이 엉터리라는 것이다. 무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늘 밤만 지나면 기효부 모녀와 함께 멀리 떠날 생각이었다. 그는 자기 몸에 퍼진 음독은 어차피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무당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심산유곡으로 들어가 혼자 조용히 살다 죽기로 결심했다.

이날 밤 무기는 내일 새벽에 이곳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왠지 처량한 생각이 들었다. 호청우가 비록 괴팍한 사람이기는 하나 자기한테는 잘해 주지 않았던가. 그 동안 같이 지내며 의술도 많이 배웠다. 호청우와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다. 무기는 벌떡 일어나 호청우를 찾아갔다. 조만간 금화 노파가 찾아올 텐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은근히 걱정스러웠다.

"호 선생님, 이젠 호접곡이 싫지 않으십니까? 경치가 좋은 다른 곳으로 집을 옮겨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시 후에 호청우의 대답이 들려왔다.

"내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어딜 간단 말이냐?"

"마차를 타고 가시면 되지요. 마차의 문과 창을 천으로 덮어 통풍이 안 되게 하면 되잖아요. 호 선생님께서 가신다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호청우는 깊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네 마음이 고맙구나. 그러나 천하가 아무리 크다 해도 어딜 가나 마찬가지니라. 요즘 가슴에 무슨 이상은 없느냐?"

"한기는 날로 심합니다. 어차피 제 병은 고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호청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신통한 약방문을 하나 지어 주마. 당귀, 원지, 생지, 독활, 방풍, 다섯 가지 약을 써서 이경 때쯤 천산갑과 함께 급히 복용하거라."

무기는 깜짝 놀랐다. 이 다섯 가지 약은 자기의 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다. 게다가 약성이 서로 상극되는 약제들을 천산갑과 같이 복용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약의 분량은 어느 정도로 하나요?"

호청우는 갑자기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분량은 많을수록 좋다. 자, 이젠 빨리 물러나지 않고 뭘 꾸물대는 거냐?"

이렇게 까닭도 없이 갑자기 꾸짖어 대니 무기는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다.

'자기를 걱정해서 멀리 피하라고 권했더니 오히려 이렇게 모욕을 주다니. 그러고 그 엉터리 약방문은 뭔가?! 내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줄 알구?'

그는 침상에 누워 호청우가 한 말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가 잠이 막 들려는데 문득 머리에 스치는 것이있었다.

'당귀, 원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런데..... 당귀(堂歸)라는 말은 마땅히 돌아가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나머지 뜻도 분명해졌다. 원지(遠志)는 뜻이 먼 곳에 있으니 당귀라는 말과 합쳐 멀리 도망하라는 뜻이다. 생지(生地)는 살 곳을 말하는 것이고, 독활(獨活)은 혼자 살라는 뜻이다. 방풍(防風)은 바람, 즉 풍문을 방비하라는 뜻이니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말이다. 또 이경에 천산갑(穿山甲)이란, 이경에 대로로 가지 말고 산길을 뚫고 가라는 암시가 아닌가. 그리고 급히 복용하라는 것은 빨리 도망가라는 뜻임이 분명했다.

이렇게 풀이하고 보니 호청우가 약방문으로 알려 준 뜻이 명백해졌다. 그러나 이해가 가지 않는 점도 있었다.

'호 선생님은 재앙이 임박해 있음을 알고 계셨구나. 그런데 아직 적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왜 직접 말해 주지 않고 이렇게 어렵고 불분명하게 이야기하실까? 만약 내가 그의 말뜻을 알아채지 못했다면 일을 그르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이미 이경이 지났으니 빨리 피해야겠다.'

그는 호 선생이 이토록 어렵게 말해야 할 사연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아직 도망가지 않은 것은 적을 퇴치할 묘책을 생각해 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호청우가 소문을 내지 말고 혼자 가라고 했지만 기효부 모녀는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무기는 즉시 방을 나와 기효부에게 갔다. 가 보니 누군가가 허리를 구부리고 잠자는 기효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침 반달이 움막 틈새로 비쳐 무기는 그 사람을 볼 수 있었다. 푸른 천으로 얼굴을 가린 것으로 보아 호청우가 분명했다. 호청우는 기효부를 잡고 입을 벌려 억지로 알약을 먹이려 하고 있었다. 무기는 급히 뛰어 들며 소리쳤다.

"안 돼요!"

그 사람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 사이에 그의 손에서 빠져 나온 기효부는 그의 등을 향해 일장을 쳤다. 그는 이내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얼굴을 가린 푸른 천이 풀어지면서 얼굴

이 드러났다.

무기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그는 호청우가 아니었던 것이다. 뜻밖에도 중년 부인이었다.

여인임을 확인한 장무기는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당.....당신은 대체 누구요?"

여인은 기효부의 장력에 적중되어 안색이 창백하게 변해 말을 제대로 못했다.

기효부도 다그치듯 물었다.

"왜 자꾸 나를 해치려는 거죠?"

중년 부인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기효부는 장검을 뽑아 그녀의 심장을 겨냥했다.

"저는 호 선생님을 뵙고 올께요."

장무기는 호청우가 이미 이 부인에게 독수를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단숨에 호청우의 침실 앞으로 달려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주위는 칠흑처럼 어둡고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장무기는 다급한 나머지 상에서 화섭자를 집어 횃불에 불을 붙였다. 침상에 있어야 할 호청우가 보이지 않았다. 장무기는 호청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선생님께서 적에게 납치돼 갔다면 오히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는 급히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했다. 갑자기 침대 밑에서 거칠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얼른 허리를 굽혀 침대밑을 살펴보았다. 호청우가 손발이 묶인 채 침대 밑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대답을 못했던 것이다. 장무기는 그의 입에 물린 자갈을 빼고 나서 손발을 묶을 밧줄도 풀어 주려고 했다.

그런데 호청우가 다급하게 물었다.

"그 여인은?"

"그녀는 이미 기 아주머니에게 제압되어 도망가지 못할 겁니다. 혹시 불편하신 데라도 없으십니까?"

"밧줄은 있다가 풀고 우선 그녀부터 데려오게. 어서! 늦으면 큰 일나네."

"왜 그러십니까?"

"어서 그녀부터 데려오라니까! 아니, 우선 우황혈갈단(牛黃血竭丹) 세 알을 꺼내 그녀에게 먹여라! 세 번째 서랍에 있다. 어서 서둘러라."

그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화급했다.

우황혈갈단은 해독 영약으로서 갖은 진귀한 약물로 제조한 것이라 한 알만 있어도 충분히 극독을 해독할 수 있는 데, 세 알까지 복용시키라고 하니 장무기는 그 부인의 중독 상태가 굉장히 지독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해약을 꺼내 기효부의 움막으로 달려가 부인에게 외쳤다.

"어서 이 약을 복용하시오!"

부인이 대뜸 호통을 쳤다.

"썩 꺼지거라! 누가 너의 호의를 받는다고 했느냐!"

"이건 호 선생님께서 주신 것이오."

"잔말 말고 썩 비키거라!"

장무기는 두 말 않고 그녀에게 다가가 강제로 알약을 먹였다. 그리고 기효부에게 말했다.

"이 여인을 호 선생님께 데려가죠."

기효부는 여인의 혈도를 찍고 장무기와 부축하여 호청우에게 데려갔다.

호청우는 여전히 땅바닥에 누워 있다가 여인이 들어서자 급히

물었다.

"약을 복용시켰나?"

"네."

"옳지 그래야지."

호청우는 비로소 안심이 되는 듯했다. 장무기는 그의 밧줄을 풀어 주었다. 호청우는 밧줄이 풀리기 무섭게 여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을 살펴보고 완맥을 짚어보더니,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어찌 외상까지 입었소? 누가 그랬소?"

그의 음성은 경황스러우면서도 안타까움이 역력했다. 그 여인은 입을 삐쭉거리며 코웃음을 쳤다.

"당신의 제자에게 물어보면 알 게 아니에요?"

호청우는 고개를 돌려 장무기에게 물었다.

"자네가 그랬나?"

"그녀가....."

장무기의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철썩! 철썩! 하고 호청우가 그의 뺨을 후려갈겼다.

장무기는 졸지에 뺨을 맞아 눈앞에 불꽃이 튕기고 볼이 얼얼했다.

기효부는 대뜸 장검을 뽑아들고 일갈을 질렀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호청우는 시퍼런 광채가 번뜩이는 장검을 보고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부인에게 물었다."

"가슴은 어떻소? 배가 아프진 않소?"

그의 태도나 말투는 매우 근심스럽고도 끔찍한 정감이 듬뿍 담겨 있었다. 평상시 견사불구의 차가운 태도와는 정반대였다. 그러나 그 부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호청우는 부인의 혈도를 풀어 주고 손발을 주물러 주었다. 그리

고 몇 가지 약을 꺼내 정성스레 복용시킨 후, 그녀를 안아다 침상에 눕혀 이불까지 덮어 주었다. 장무기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어떻게 이처럼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장무기는 잔뜩 부어오른 두 뺨을 어루만지면서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호청우는 애정어린 눈길로 부인을 한참 동안 주시하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이번에는 독에다가 상처까지 입었으니, 만약에 내가 완치시키면 앞으로 다신 쓸데없는 시합을 하지 않기로 약조 합시다."

그 부인은 냉랭히 웃었다.

"이까짓 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복용한 독약이 문제죠. 만약에 정말로 나를 완치시킬 수 있다면 굴복하겠지만, 아마 이번만큼은 의선의 실력이 절대 독선(毒仙)을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장무기는 비록 남녀간의 미묘한 감정을 이해 못했지만 두 사람이 서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걸 간파했다.

호청우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십 년 전에도 말했듯이 의선은 절대로 독선의상대가 될 수 없소. 그런데 당신은 그걸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몸을 시험 대상으로 삼을 게 뭐요?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의선이 독선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 주리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말이오."

부인은 교태스러우면서도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중독시켰다면 결국 또 일부러 져주려고 못 고치는 척했을 게 뻔해요. 하지만 이번만은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못 배길걸요?"

호청우는 그녀의 머릿결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이 어디 그런 농담할 때요? 어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쉬기나 하시오."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죠."

그녀는 살며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가에 달콤한 미소가 피어 올랐다. 줄곧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기효부와 장무기는 뭐가 뭔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어 오리무중에 빠졌다.

요염하게 생긴 중년부인은 대관절 누구일까?

----- 제 2 권 8 장 끝 -----

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2 권 끝